

한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 기념

2010

2000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고록

평화를 꿈꾸며

1990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편

1980

1970

1960

1950

FULBRIGHT
KOREA 1950-2010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고록

평화를 꿈꾸며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고록

평화를 꿈꾸며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편



60주년 기념 동문 회고록을 펴내며



일반인들에게 풀브라이트에 대해 물어보면 대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이 한국전쟁 직전 우리나라에 첫발을 디딘 이래 전란의 잿더미에서 오히려 제 궤도에 오른 것은 큰 자랑입니다. 한 송이 가을 국화를 피우자면 봄부터 울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이 재기를 꿈꾸며 온몸을 뒤척이던 시기에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한국의 발전에 끼친 공헌은 지대합니다. 회고해보면 한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해방과 전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의 케냐보다 못살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좋은 교육의 힘 덕분이었으며, 그 중심부에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정계,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력소 역할을 해왔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지 금년으로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건설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맞아 한국 동문들의 회고록을 모아놓고 보니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이러한 기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배포된 미국 동문들의 영문판 회고록과 함께 펴들고 보면, 한미 양국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가늠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지난 60년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함께 더불어 세계화될 수밖에 없었던 한미 양국 관계의 앞날을 차근차근 예비하는 단단한 초석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포석의 발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창안자의 혜안을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직후 모두가 어려움에 허덕이는 척박한 토양에서 전 세계 우수한 두뇌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교육은 인간지대사”라는 신념을 가진 고 풀브라이트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바로 그분이 항상 꿈꾸어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바탕이 되는 세계 평화를 향한 실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몇 분의 동문들께서 회고록을 통해 강조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도 폴브라이트 상원의원께서 깔아놓으신 초석 위에서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 나라의 포석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최근 폴브라이트 한국 동문의 노력으로 우리 정부가 후발국과의 교육 교환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노력하신 분의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정신이 그 높은 이상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가까운 이웃인 북한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더 잘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자랑스러운 폴브라이트 60년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폴브라이트 정신을 되새겨본다는 마음으로 회고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박한 책자가 ‘폴브라이트’라는 용기와 희망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는 한 송이 국화꽃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폴브라이트동문회 회장
김문환

축사

한국 폴브라이트 60년의 소중한 추억



한국에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3,800여 명의 특출한 인재들이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 한국과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디딘 이들도 있었고, 이미 존경받는 학자,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서 보냈던 시간은 이러한 직업적 성취와 개인적인 성장에 귀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폴브라이트 한국 동문들은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모든 부문에 두루 퍼져 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 및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은 정부 관료, 대사, 대학교 총장, 교수, 작가, 예술가, 판사, 과학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 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있

습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장학금 수혜자들의 교육적, 직업적 성취에 핵심 역할을 해온 것처럼, 폴브라이트 한국 동문들은 한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한국전쟁 종전 후 한국 교육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출범 60주년 기념 행사는,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폴브라이트 동문들로 하여금 미국에서 보낸 시간과 그 시간이 자신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초로 책으로 엮어진 동문들의 이야기는 이 프로그램의 60년 역사를 구성하는 각자 소중했던 순간과 경험, 느낌, 추억들로 이뤄진 콜라주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폴브라이트 한국 동문들이 이뤄낸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의 미국 생활에 대한 추억과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회고담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미국 동문 회고록 모음집과 함께 개개인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폴브라이트 코리아의 성공적인 업적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하나하나가 국제적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요체이며, 우리가 만들고자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뤄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압니다.

이 회고담을 읽는 독자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폴브라이트 동문들이 이뤄낸 성과에 고무되고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동문들이 이루어낸 빛나는 성취를 본

다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래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미교육위원단 단장
심재욱

Contents

서문 : 60주년 기념 동문 회고록을 펴내며 • 4

축사 : 한국 풀브라이트 60년의 소중한 추억 • 7



무진여행 정용재 • 17

풀브라이트에 관한 나의 회고담 최진영 • 24

나의 풀브라이트 시절 한승주 • 28

풀브라이트와의 행복한 기억 김옥렬 • 32

내가 받은 첫 풀브라이트 연구 지원금 김용권 • 35

풀브라이트와 나 유종해 • 39

애리조나 투손에서 만든 '코리안 나이트'의 추억 이양자 • 43

풀브라이트 생활을 회고하면서 정희채 • 47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1963년 여름 석 달을 회고함 조성호 • 52

소중한 인연 황적륜 • 56

"You must be full bright!" 박근우 • 60

지속되는 인연과 혜택 강신택 • 63

그레이하운드 윤세중 • 66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에 대한 소감 김명자 • 68

Ⅲ 1986년 애뉴얼 리포트에 실렸던 기사 박실 • 69

내가 만난 귀인 송상현 • 71

나와 풀브라이트 이정민 • 75

미국 사회의 너그러움 김찬진 • 77

1970

- 폴브라이트의 추억 안병만 • 81
- 1970~1980년대 폴브라이트 포럼과 나 송준만 • 83
- 짧은 만남 긴 여운 조준학 • 87
- 미시간대 유학시절을 회상하며 곽동순 • 90
- 언어학 학위를 받은 국어학도 : 두 학문의 통섭 이상억 • 94
-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 그 붉은 땅, 따뜻한 사람들 최영 • 99
- 엘킨스 파크 7845번지 한운성 • 106
- 나의 유학기 박영의 • 110
- 폴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에 감사하며 이종승 • 114
- 로렌스의 추억 서동희 • 119
- 나의 예일 유학 시절 회고 신영부 • 122
- 제9대 동문회장의 회고 강성학 • 137
-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맺은 마켓 대학과의 인연 곽병선 • 142
- 만일 폴브라이트가 없었다면 김성곤 • 146
- 인생의 도상에서 박근자 • 149
-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회고하며 주경란 • 152
- EFL '자연 학습법'의 탄생 김병원 • 157
- 폴브라이트와 나 김문환 • 159
- 심포니 <레이크 슈퍼리어> 나인용 • 162
- 미국 대평원의 추억 최홍규 • 166

1980

-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로서의 생활을 회고하며 서상욱 • 173
- 놀라운 세계와의 만남 고지문 • 179
- 내 생애 최고의 축복 '풀브라이트' 이동욱 • 192
- 한미교육위원단, 감사합니다! 강영세 • 194
- 고마움을 잊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자 이상우 • 196
- 풀브라이트와 함께 한 반생 권오량 • 199
- 풀브라이트와의 인연 김두현 • 205
- 나의 미국 유학 안수웅 • 211
- 나의 풀브라이트 체험기 조주현 • 215
-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가 뭐기에 윤복자 • 219
- 25년 전 추억 속으로 여행 정길정 • 225
- 풀브라이트 회고 조성준 • 229
- 풀브라이트 펠로십의 추억 한승수 • 231
- 스탠퍼드 대학과 미국, 그리고 미국문화원의 추억 홍양표 • 235
- 1980년대 말 풀브라이트 시니어 펠로 라종일 • 238
- 힘의 오만을 경고한 정치 거인 풀브라이트 임성호 • 240
- 나의 풀브라이트 인연 최정섭 • 244
- 풀브라이트와 맺은 길고도 짧은 인연 김경동 • 247
- 풀브라이트 : 그 후광과 자부심 김혜숙 • 250
-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로서의 미국 생활 노부호 • 254
-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의 1년을 회상하며 오용호 • 257
- 한미교육위원단 60주년을 축하하며 서숙 • 261
- 국제적 리더십으로 진입하는 교량 역할을 해준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 김수지 • 264
- 풀브라이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 김동연 • 267
- 늘 감사한 마음, 빛진 마음으로…… 유은광 • 273
- 풀브라이트와의 인연 이석구 • 278
- 나의 학문 생활을 시작하게 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하성호 • 284

1990

-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회상하며 양석원 • 289
-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현명한 투자 황소부 • 294
- 폴브라이트 장학생의 영예 천세영 • 297
- 1991년 이맘때쯤의 기억 강효석 • 302
- 한미교육위원단 장학 프로그램의 영향 왕연균 • 304
- 우리네 시장경제, 그리고 폴브라이트 정호열 • 307
- 친미 좌파? 서광선 • 313
- 폴브라이트(Full-Bright)한 '물망초(Forget-Me-Not)' 1년 이윤식 • 317
- 폴브라이트의 영향 정성욱 • 323
- 폴브라이트 최대의 수혜자 정종휴 • 325
- 폴브라이트의 교훈 유범준 • 331
- UCLA에서의 1999년 8월~2000년 7월 김정매 • 334

2000

- 폴브라이트 60년을 기념하며 홍성걸 • 349
- 폴브라이트 스칼라십을 회고하며…… 박재창 • 355
- 내 인생의 전환점, 폴브라이트 황현주 • 358
- 데이비스에서 보낸 2001년 황혜성 • 362
- 2002 폴브라이트 미국학 여름 연수 참석기 황영순 • 365
- 폴브라이트가 내게 준 기회 고종환 • 368
- 폴브라이트 어학연수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 박경서 • 371
- 폴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 : 재충전과 도전의 시간 이성하 • 376
- 안식의 반향 허영일 • 379
- 메아리 치는 문화 김영미 • 388
- 워싱턴 D.C.의 폴브라이트어 추억 회상 염명배 • 390
- 폴브라이트 수혜자로서의 소중한 경험 이제정 • 398
- 하버드 졸업식의 빌게이츠 이호영 • 401
- 폴브라이트 60주년을 축하하며 김선웅 • 406
- 시스템과 문화는 나라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축 최현섭 • 411
- 텍사스 미국 연수 체험기 김진숙 • 414
- 폴브라이트, 애머스트, 미국의 대학 이시철 • 422
- 스티븐빌의 김밥에 담긴 사연 나상대 • 429

-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 회고록 기고자 명단 • 434
- 편집후기 • 440

1960

정용재 • 최진영 • 한승주 • 김옥렬 • 김용권 • 유종해 • 이양자 • 정희채 • 조성호
황적륜 • 박근우 • 강신택 • 윤세중 • 김명자 • 박실 • 송상현 • 이정민 • 김관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관해 한미 양국이 합의에 이른 것은 1950년이지만,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60년이 되고 난 후이다.
양국이 합의한 지 2개월 만에 터진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무전여행

정용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유전학

1960년 4·19혁명 나던 해에 미 국무부 초청 교환교수 모집에 응모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시험을 세 번 보았다. 1차는 영어 필기시험이었는데 자격이 전국 대학 만 35세 미만의 전임강사나 조교수로서 약 200명이 응모하여 합격한 100여 명이 2차 구두시험을 보았다. 그 당시 미국 공보원(USIS) 문정관이던 M씨가 시험관이었고, 그럭저럭 합격생 50여 명에 끼게 되어 마지막 3차 면접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저명 미국인 다섯 명과 한국인 다섯 명이 영어로 질문하는데 지망 목적과 공부할 미국 대학 선정 이유 그리고 귀국 후 나라에 이바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라고 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어서 나름대로 잘 대답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나를 추천해주신 우리 소속 학과장과 학장도 무척 좋아했다.

1961년, 도미 예정인데 5·16군사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권 갱신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권 심사가 어찌 심한지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출국해야 하는데 7월이 되어도 깜깜무소식이었다. 미국 북동부 위스콘신 대학으로 가기 앞서 9월 입학 전 두 달 동안(7~8월) 남서부 애리조나 대학에서 영어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

월 하순에야 여권이 나와 부랴부랴 출국했다. 그 때문에 영어 오리엔테이션은 한 달밖에 못 받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 여권도 1년 기한이고 미국 비자도 편도 비자로서 아주 불리하였으며 그리고 그 당시 군사혁명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출국도 본인 한 사람뿐, 가족 동반이 안 되었다. 국외 도피를 막으려고 그렇다며 귀땀해준 이가 있었다.

내 소속 대학도 해외 출장 기간을 1년만 허가했다. 하기가 그 이상 바라는 대학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나는 이왕 어렵게 유학 갔으니 몇 년 걸려도 끝장을 보려는 속셈이었지만.

폴브라이트에서 보낸 비행기표(서울→도쿄→LA→투스온/애리조나→시카고→매디슨/위스콘신)는 와 있고 여행 중 잡비로 쓰라고 150달러 정도(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난다)를 수표로 보내왔는데 그 이면에 '이 수표는 미국 본토에서만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말았다. 떠날 때가 다가오니 내 강의 후계자 선정과 처자 다섯 명의 생계 문제가 간단치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달러를 은행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암시장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데다 공항에서도 불법 외화 소지 여부를 철저한 몸수색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난처했다. 더구나 나 같은 소심한 자는 속수무책이었다. 궁리궁리 끝에 사업상 해외 나들이를 자주 하는 손아래 동서에게 의논했더니 지금 달러를 가진 것이 없다며 도쿄에서 자기 일본인 친구 M씨로부터 달러를 빌려 가라기에 그리하기로 했다.

드디어 7월 하순 출국 날, 김포공항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형성했고 공항 건물 옥상에서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던 때다. 우리 국적 비행기는 없고 미국 NW사 비행기로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세 시간 이상 걸려 도착했다. 프로펠러식 비행기라 느낄 수밖에. 그러나 처음 타보는 비행기

라서 빠르고 느리고 따질 겨를 없이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일제 강점기 때 시종 일본어와 일본 문화로 자란 사람이지만 일본 땅은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신기할 수밖에. 공항 밖에서 다행히 일본인 M씨와 금방 만나 그분이 LA행 비행기로 갈아탈 때까지 자기에게 말기라고 하며 아는 음식점으로 안내해주었다. 끄찍이 반기는 것으로 보아 단골 술집인 모양이었다. 술을 좋아하는지 M씨는 계속 술을 청했다. 달리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나 정작 내 입에선 일본 말이 안 나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본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술에 취한 내 입에서 유창한 일본어가 쏟아져 나오니 주위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다.

술 좋아하는 내가 자꾸만 권하는 술잔을 마다하겠는가! 술에 취할 대로 취한 나머지 술기운으로 계속 마셨다. 저녁밥 먹을 줄도 모르고 시간이 되어 비행장으로 이동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송별주를 마시잔다. 만취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다. LA행 영국 BOAC기였다. 좌석이 앞쪽에 백인들, 중간에 우리 황색 동양인들, 맨 뒤쪽에 흑인들 자리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종 차별이다. 기내 영어 방송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단지 옆사람 하는 것을 흉내 낼 수밖에는. 정신 차려 보니 도쿄 M씨로부터 달리를 빌리지 못한 것이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큰 꿈을 안고 만리타향 먼 곳으로 공부하러 가는 첫날에 만취하여 갈팡질팡하니 전도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기내식도 주는 대로 받아먹고 좋아하는 맥주도 돈 내랴까 봐 달란 말을 삼갔는데 더구나 미국 돈 한 푼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만취해서 승선했으니 갈증 나서 물 마시고 싶은데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물 달라고 하더라도 물값이

있어야지. 이리 참고 저리 참고 고역 중 어느새 잠 한숨 못 자고 새벽이 되었다. 그런데 또 기내 방송이다.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문의했더니 웨이크(Wake)라는 섬에 불시착한다. 그러더니 승객들이 모두 내렸다. 짐은 그대로 두고 어느 건물 쪽으로 모두 한 줄로 서서 걸었다. 나오는 사람들이 식후 상기한 모습들로 미루어 공항 식당인가 보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 하러 가는 것인데 식대가 있어야지!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 안절부절못했다. 식당 입구까지 가서 용기를 내어 염치 불고하고 내 앞 백인에게 아주 초보 영어로 조반 식대가 얼마나 될 것 같느냐고 물으니 “It’s free. Don’t worry!” 하고 대답하는데, 정말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든 불안 걱정이 사라지니 만사태평이다. 앞사람에게 말을 건넌 김에 이 비행기가 어째서 여기에 내렸느냐고 물으니 기관 고장으로 불시착했으므로 조반도 공짜란다.

이리하여 다시 몇 시간 비행 끝에 하와이의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느 중년 부인이 ‘Mr. Chung’이라고 적은 작은 깃발을 들고 나에게 접근하더니 “미스터 정” 하는 것이었다.

얼떨떨해하며 다가가자 폴브라이트 사람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곧 떠나는 SF행 비행기로 해서 LA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룻밤 자고 떠나는 LA행을 탈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해서 목적지 애리조나까지 빨리 가야 하므로 SF행을 택하겠노라 대답하고 바로 그녀의 안내를 받아 SF행으로 해서 LA 공항에 도착하니 마중 나오기로 한 LA 친구가 내가 제시간에 안 와 그냥 돌아갔을 것이기에 할 수 없이 그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미국 돈 한 푼 없으니 난감할 수밖에. 전화통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옆에 있던 신사가 동전을 주면서 “International friendship”이라 말하곤 웃으며 사라진다. 하여 미국 돈 한 푼 안 쓰고

LA 친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폴브라이트 수표를 근처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니 돈이 그대로 남아 요긴하게 썼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애리조나 주 투손으로 가서 애리조나 대학의 잉글리시 오리엔테이션 센터로 직행하여 신고했다. 여름방학이라 비어 있는 그곳 여학생 기숙사(Coconino Hall)에서 숙식하며 한 달을 보냈는데 비록 사막 지대지만 공기가 건조하여 견딜 만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200여 명의 교육생들과 재미나게 지냈는데 한국인은 나 혼자뿐이어서 어찌나 외로웠는지 모른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폴브라이트 내 동기는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하와이 대학으로 대부분 배치되었다고 하여 오히려 나를 부러워들 했다. 하와이는 들르기가 수월하지만 외딴 애리조나는 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교육 기간 내내 그곳 영문학과 교수들의 수고가 대단했는데 우리들 외국인 학생들에게 끔찍이 잘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그곳 교수 부인들이 코코니노 홀(Coconino Hall) 식당에서 파티를 열어주는데 식후 댄스파티로 우리들을 위로했다. 우리 교육생 중에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쾌활하고 춤도 제일 잘 추었다. 나나 일본인, 홍콩인 같은 동양인들은 겸양지덕의 동양 사상에 투철해서인지 그저 구경만 하며 박수를 쳐줄 따름이었다.

어느 주말에는 그 지방 유지들이 자기들 차로 우리를 산상의 별장으로 안내하여 1박 2일 여행을 인도하기도 했다. 출발할 때는 가지각색의 선인장으로 가득 찬 사막 열대 지대였는데 산으로 올라갈수록 사막은 없어지고 대신 초목이 우거진 온대로 변했다. 온도도 열대 고온에서 온난한 기후로, 다음에는 하얀 눈으로 산야가 덮인 한대로 변했다. 이른바 생물학적 수직 분포인데 평면에서가 아니라 지대가 높아짐에 따라 열대

→ 온대 → 한대로 바뀌는 것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관찰하니 감개무량했다. 사막 지대로 보잘것없는 애리조나에 와서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관찰을 하게 되어 어찌나 기뻐는지 몰랐다.

하얀 은세계로 변한 정상 여기저기에 멋있는 별장들 몇 군데로 나누어 숙소를 배당받았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열대에서 바로 한대에 이르렀으니 꿈이 아니고 무엇이랴! 맛있는 만찬에 식후의 재미나는 파티는 정말 멋있었다. 아프리카 그룹의 흥겨운 여흥에 박장대소하며 즐거운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바로 열대 지방으로 내려왔으니 수직 이동을 두 번 한 셈이다.

애리조나는 다른 미국 서부와 마찬가지로 원래 스페인 영토로서 스페인 문화가 역력하다. 지붕과 담이 황적색이고 사람들도 스페인 사람을 닮았으며 멕시코 접경이라 멕시코 문화도 혼재해 있는 듯하다. 하여간 애리조나에 와서 뜻밖에 배운 것이 많아 큰 수확을 올린 셈이다.

어느 날 방과 후, 시내 멕시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근처 술집에 들렀더니 어떤 동양인 군인 몇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혹 한국에서 안 오셨는지요?” 하며 묻는다. 미국하고도 사막 지대인 애리조나에서 한국 군인을 만나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어찌나 반가운지. 알고 보니 공군으로 이 근처 항공 학교에서 비행 기술을 연수하러 왔는데 모처럼 외출하여 술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술을 안 판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대체로 동양인은 젊게 보이고 서양인들은 늙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 병사의 신분증을 주인에게 보여주며 술 마실 수 있는 나이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술을 내주었다. 젊은 병사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다. 만리타향 미 서부 사막 지대에서 작은 애국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이리하여 영어 교육을 무사히 받은 후 9월 초에 투손에서 바로 시카고로 해서 매디슨에 도착하여 위스콘신 대학의 사계의 권위자인 크로(Crow) 박사 밑에서



위스콘신 대학의 크로 박사와 함께

석·박사를 받은 바 있는데, 여기서도 폴브라이트 장학생은 특별 예우하는 것 같아 흐뭇했다.

폴브라이트 덕분에 비행기로 아주 편하게 귀국했으니 그때가 1965년 1월이다. 햇수로 5년, 만으로는 3년 반이었다. 그 후로 알게 된 일이지만 다른 유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미국 군용선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귀국했다는데 나는 정말 폴브라이트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니 새삼 폴브라이트가 고맙기 한이 없다.

폴브라이트에 관한 나의 회고담

최진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미국 문학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196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가서 겪은 경험들을 회고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즐겁고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1959년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동시에 코리안 리퍼블릭(The Korean Republic, 현 코리아 헤럴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1960년 최초의 폴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이 있을 때 응모했다. 문교부의 국사 시험, 미국 대사관, 외국어대 총장의 영어 회화 시험을 통과한 후, 서울대 윤일선 총장,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 폴브라이트 단장과의 인터뷰를 거쳐 마침내 선발되었다. 그 당시 여자로서 처음이었고 가장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4·19학생혁명, 이승만 대통령 하야, 군사혁명을 거치느라 신원 조회를 두 번이나 받고, 드디어 1961년 9월 초 미국을 향해 떠났다. 도쿄, 괌,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보스톤에서 친구 이인호(전 주러시아 대사) 씨와 만났고, 곧 나의 목적지인 채플힐(Chapel Hill)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도착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 잔디가 곱게 깔리고, 콜로니얼식의 고색창연한 빌딩들이 서 있는 캠퍼스는 나를 황홀하게 했다. 이



1961년 9월 4일 공항에서

대학은 미국에서 주립대학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으로(1780년대)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학과 등록, 기숙사 입사 등 오리엔테이션은 외국인 학생 지도교수가 보낸 학생들이 도와주어 쉽게 끝났다. 그 당시 외국인 학생 지도교수는 하웰(A. C. Howell) 박사로 내가 대학 시절 서울대 영문학과와 방문교수로 와 계셨는데, 나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채플힐로 오라고 권한 분이였다. 수업을 듣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완벽한 도서관, 음악 감상실, 교정 풀밭에서 듣는 세계 유명 음악인들의 무료 공연 등 꿈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학생 식당은 폴코스가 불과 45센트였고, 한 학기 등록금이 480달러였다.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다.

어느 날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우편물이 왔는데 열어보니 북한에서 보낸 편지와 북한에서 쓰인 소설이었다.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은 우리 세대였다. 어찌나 가슴이 떨렸던지 밤새 생각해보았다. 그 당시



2000년 4월 2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폴브라이트상을 받음(왼쪽은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

한국 유학생이 극소수인 데다 폴브라이트 장학생 명단과 기사가 동아일보 첫 면에 나왔던 것이 이유인 듯싶었다. 혼자서 이것을 FBI에(FBI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갖다줄까, 경찰에 신고를 할까, 궁리하다가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편지와 소설을 신문에 몇 겹으로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지금도 그때 편지의 수신인과 소설의 제목과 작가를 알아두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그때 수강했던 많은 과목 가운데 ‘미국 남부 문학’이 기억에 뚜렷이 남았는데, 이 대학이 남부 문학의 중심지였고, 토머스 울프가 앉았던 책상에 앉아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다. 대학원의 고급 영문법 시간에는 성적이 최고여서 교수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영문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발표해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렇게 폴브라이트의 장학생 생활은 2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으며 끝이 났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 독립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1년에 Fulbright Senior Grant를 받고 예일대에 가서 방문교수로 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 당시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수였던 예일대 영문과에는 리처드 브로드헤드(Richard Brodhead, 당시 학과장이며 후에 듀크대 총장), 앨런 트라첸버그(Alan Trachtenberg), 폴 드 만(Paul De Mann), 해럴드 블룸(Harold Bloom) 등이 있어 학문적으로 엄청난 자극을 받고 돌아왔다.

2000년에는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사가 수여한 폴브라이트상까지 받았으니 폴브라이트의 혜택을 나만큼 받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 모든 폴브라이트의 혜택은 나의 삶을 이끌어주었으며, 나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항상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의 폴브라이트 시절

한승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국제관계학



나는 1962년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당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KBS의 국제방송국에서 영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내가 폴브라이트에 응모한 것은 미국 유학에 필요한 편도 항공료, 2년간의 등록금, 보험금, 기타 비용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영어 시험과 면접을 본 기억이 난다. 물론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으나 이미 6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뉴욕의 캠프 라이징 선(Camp Rising Sun)이라는 국제 하기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험이 있었던 나는 큰 어려움 없이 폴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장학생 선발에는 아마도 방송국에서의 경험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방송국에 있는 동안 명색은 영어 아나운서였으나 뉴스, 해설, 피쳐(feature) 등 프로그램도 만들고 원고도 작성하는 등 요즈음 말로 작가, PD의 역할까지 겸했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 해설에는 기사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리서치도

필요했다. 당시, “You are listening to the Voice of Free Korea……”를 방송하고 “This is the Voice of Free Korea signing off……”까지 읽고 나면 내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공식 대변인이 된 것 같은 뿌듯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되면 경제적인 혜택뿐 아니라 학교 입학, 여권, 비자,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된 것을 행운과 영예로 생각하면서도, 왜 미국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세계 각국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들을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불러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 호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인가? 미국을 더 잘 알게 하고 미국과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인가? 미국에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인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적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가? 미국에서의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기회를 세계의 젊은이들에게도 할애해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미국과 세계의 지적, 교육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마도 대답은 ‘위의 모든 것(all of the above)’이었을 것이다.

한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외교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이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 기관 또는 개인이 정부 대 정부가 아닌 민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외교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한 외교를 통하여 자국의 국가 이미지와 요즈음 많이 쓰는 말로 국가 브랜드 및 자국에 대한 이해, 친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6년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64년 동안 그것은 미국 공공 외교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맨 T. 홀드 교수와 함께

폴브라이트에 선발된 후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이미 미국에서 수학하고 오신 연세대의 함병춘 교수께서 자상하게 미국 유학에 대해 설명해주신 것이 생각난다. 나는 학부 시절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에서는 뉴햄프셔 주립대학 정치학과의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 폴브라이트 장학생이 되고 나니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도 쉬워졌던 기억이 난다. 내가 처음 가는 학교로 큰 도시와 큰 대학을 피하고 중간 사이즈의 대학으로 간 이유는 미국과 미국 대학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나의 선택은 잘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학에 가고 나서도 ‘하프 브라이트(Half bright)’가 아닌 ‘폴브라이트(Fulbrighter)’라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알아주던 생각이 난다. 대학원 입학 1년 후 Teaching Assistant로 국제정치 강의까지 하나 맡아 나의 이름으로 과목을 offer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조교’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편지로 말씀

드렸는데도 친구 분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조교수’가 되었다”고 자랑하셨다. 그 후 2년간 석사 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6년 수학한 후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에 있는 동안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중 하나만 소개한다. 나는 군복무를 하는 동안 화랑 담배로 시작하여 꺽연(喫煙)을 배웠는데 유학을 할 때쯤 되어서는 하루 반 갑 이상을 피우는 ‘애연가’가 되었다. 미국에서 나의 지도교수는 학과장을 하는(당시 미국에서는 연로 교수가 학과장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분이었는데 하루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자네는 비교적 총명한 젊은이처럼 보이는데 왜 담배로 몸과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가?(You seem to be a reasonably intelligent young man. Why would you wish to harm your body and image by smoking cigarettes?)” 그러면서 당신의 첫째 부인이 스모킹으로 폐암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교수님의 충고를 따라 어렵사리 담배를 끊었다. 46년 전의 일이다.

내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된 것은 48년 전의 일이다. 풀브라이트가 미국의 프로그램이고, 또 미국이 무슨 목적으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든 간에 그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지적, 인간적 성장에 커다란 임팩트—그것도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떠한 기회이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what you make of it)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겠다.

풀브라이트와의 행복한 기억

김옥렬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 정치학

1963년 나는 브린마워 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Graduate Fellowship’을 받게 되었다. 1958년 브라운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이래 다음 해부터 숙명여대 정치외교과에서 봉직했다. 사실 귀국 전부터 기회를 보아 다시 미국으로 박사 학위를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그러다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브린마워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다. 풀브라이트의 ‘Travel Grant’를 받게 되면서 나의 풀브라이트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강대의 김인자 교수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임스 윌리엄 풀브라이트(James William Fulbright) 상원의원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과 지식 기술의 국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다른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제안한 국제교류법안이 통과되어 1946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은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명성에 힘입은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으로, 지금 144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 사람도 1,800여

명이 수혜자로서 각계, 특히 교육계, 문화계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에서의 미국인 수혜자도 비슷한 수가 있다. 나도 수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 후 1950년 처음으로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회가 설립되었을 때 나는 초대 폴브라이트 동문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초대 회장은 김두현 변호사님이었으며 초기에 한양대 한상준 총장님, 김용권 교수님, 서울대 강신택 교수님이 활동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1991년 한미교육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나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 취지에 찬동하여 한 자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나는 재단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사회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라그룹의 정인영 회장님을 모신 일이었다. 그분은 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이사회가 개최되면 우리 이사진에 우아한 오찬을 베풀었다. 그분은 유능한 기업인으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다. 정 회장님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재치 있고 유머 넘치는 화술은 우리를 매료시켰다. 사업상 중국을 많이 방문하신 것 같은데 중국 사람과 그들의 풍속을 재미있게 말씀해주셔서 중국에 관한 유익하고 많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도 벌써 고인이 되셔서 옛날의 아득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기뻐던 일의 하나는 한미교육위원단이 현재의 마포구 염리동에 단독 건물을 세워 사무실을 마련한 일이다. 여러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하여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 반세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세계 평화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주제를 가지고 기념 대회인 만찬회를 가진 것은 의의 있고 감격적인 일이었다. 이 대회에서 전 미국문화원장인 래빈(Lavin) 씨와 전 한미교육위원단장인 캐리어(Carrier) 씨가 감사패를 받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

이 대회에서 '서울 선언문'이 선포되었다.

1. 핵과 군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2. 인간은 허약한 환경 체제와 더불어 살면서 그를 보호하며
3. 각국은 빈곤과 싸우며 사회·경제적 차별을 없애고
4. 인권은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평양에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희구했다.

나는 폴브라이트와의 인연으로 학위를 마치고 귀국, 계속 교편을 잡아 숙명여대에서의 36년의 봉직을 무사히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또한 폴브라이트 동문들과 한미교육문화재단의 이사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의 폭을 넓혀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게 된 데 대하여 감사한다.

앞으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 우호 증진과 세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하기를 기대한다.

내가 받은 첫 폴브라이트 연구 지원금

김용권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미국학



나는 1963년 8월에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갔고, 미국학 박사 과정(미네소타 대학)을 마치고 1966년 8월에 돌아왔다. 3년 만에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원 등록금이며 체재비 전액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 후 교수직에 있을 때는 말할 것 없고, 정년 퇴임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출국할 때는 1년 기한의 연수 프로그램이었던 것을 3년간의 학위 과정으로 전환한 데는 사연이 많다. 그러나 그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서울을 떠나기 전에 내가 받은 첫 폴브라이트 연구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겠다. <A Union Catalog of English Literary Periodicals in Seoul Libraries>(1963)가 연구 결과물이다. 연구 지원금은 300달러였다.

1963년 초의 어느 날 서강대 영문과 교수 존 번브록(John Bernbrock)

신부가 한국영어영문학회 사무실을 찾아왔다. 번브릭 신부는 동료인 존 데일리(John P. Daly) 신부와 함께 1961년 봄에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했었다. 데일리 신부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영문학으로 Ph.D.를 받았고 번브릭 신부는 미국 문학으로 Ph.D.를 받았었다. 1950년대 중반 서울대에는 서너 명의 미국 대학 영문학과 교수가 폴브라이트 방문교수로 다녀갔고, 연세대에는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MIT의 촘스키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 동기생인 프레드 루코프(Fred Lukoff) 교수가 수년간 강의를 했었다.

한편 전국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진은 1900~1910년대에 출생하여 1930년대에 일본의 제국대학과 사립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1945년 해방 후 1950년의 6·25 직전까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졸업한 이들이 소장 교수직으로 있었다. 당연히 Ph.D.는 한 사람도 없었고, 전체 영문학과 교수들 가운데 30명가량이 1950년에서 1960년까지 스미스먼트(Smith-Mundt) 프로그램으로 1년간 미국 대학 대학원에서 연수하고 돌아왔고, 그 가운데 서너 명이 M.A. 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서강대는 개교한 지 1년 만에 데일리와 번브릭 두 신부의 부임으로 Ph.D. 전임교수가 있는 유일한 대학이 되었던 것이다.

번브릭과 데일리 두 교수는 부임하자마자 영문학회에 가입했고,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지방에서 개최한 연차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영문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그날 학회에 찾아온 번브릭 신부는 이런 제안을 했다. 영문학 연구를 하려면 도서관 연구가 필수적이며, 단행본뿐만 아니라 학술지, 종합지 등 정기 간행물의 검색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대학 도서관의 실태는 어떠한지, 대학마다 소장 또는 구독 중인 정기 간행물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수합하여 종합 목

록을 만들어 각 도서관에 배부하면 각 대학의 교수들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폴브라이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학회(5대 회장 최창호 중앙대 교수)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마침 섭외이사인 내가 실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일 후에 폴브라이트에서 300달러를 보내왔다(당시 한국은행에서 바꿔주던 외환 한도액은 100달러였다. 그리고 같은 해 1963년 8월 내가 미네소타에 가서 다달이 받은 지원금은 175달러였다).

먼저 조사 대상 도서관 수를 선정했다. 대학 도서관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종합대학과 단국대, 한국외대, 수도여자대(세종대 전신), 서강대 등의 단과대학 도서관 18개를 선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영국문화원, 미 공보원, 서울문화원, 한국연구원, 한국영어영문학회 도서실 5개를 보태 총 23개 도서관을 정하고 알파벳순으로 번호를 달았다. 그다음 모든 도서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 조사 시 영미 문학 관련 정기 간행물의 소장과 구독 실태에 관한 자료 제공을 부탁했다. 정기 간행물은 미국의 경우 《PMLA》 《American Literature》 《College English》와 계간 평론지를, 영국의 경우에는 《The London Times Literary Supplement》를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라이프》 《뉴스 위크》 《타임》 등의 시사 주간지는 제외시켰는데, 막상 현장 실사를 나가보니, 위 주간지의 한둘만을 구독하는 대학 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 세 주간지도 목록에 올렸다. ‘종합 목록’에는 Abstracts of English Studies에서 Yearbook of Comparative and General Literature에 이르기까지 총 82점을 수록했는데 반 이상은 한두 도서관에서만 구독하고 있었다. 또 현재 구독 중인 정기 간행물보다는 1950년대에 중단된 간행물의

지난 호가 훨씬 많았는데, 대부분 미국 공보원이나 아시아재단 등에서 기증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정기 간행물의 수서, 정리 및 소장 상태는 해방 전의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같은 대학이 6·25 후에 발족한 대학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나 어느 대학 도서관도 번브릭 신부가 염두에 두었을 미국식 대학 도서관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1996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 대학원에서 통과된 영미 문학 석사 논문은 1950년에서 1955년 동안 8편, 1956년에서 1960년 동안 83편, 총 91편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에 도서관 하나꼴로 한 달 가까이 다리품을 팔며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나는 A4 크기의 15쪽의 소책자(등사 인쇄)를 만들어 50부를 폴브라이트에 보냈고 폴브라이트에서는 관련 도서관에 한 부씩 보냈다. 인사말은 ‘이 목록은 틀린 것을 고치고 새 자료를 추가하여 매년 1회씩 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끝맺었지만, 내가 그해 여름 미국에 갔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나 자신은 연구나 논문 작성 시에 Periodicals부터 챙기는 버릇이 생겼다. 이 또한 폴브라이트 덕분이다.

폴브라이트와 나

유종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행정학



폴브라이트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니 세월이 유수 같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진정으로 축하를 드린다. 이참에 나와 폴브라이트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참으로 감사드린다.

나와 폴브라이트는 많은 인연이 있었으나, 적어도 두 번의 큰 신세를 이 위원단에 진 일이 있다. 하나는 'Travel Grant'를 받아 미국 미시간대에 가게 된 일이다. 그야말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또 한 번은 1977년에 Researcher로 사우스캘리포니아대(USC)에 다녀온 일이다. 이때에는 연세대와 USC가 자매 관계가 있을 때 폴브라이트가 도와서 교환교수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 경우도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 인연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1963년경에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너무 형편없어 미 국무부의 지원이나 풀브라이트 위원단의 지원이 아니고서는 미국 갈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자연 풀브라이트의 Travel Grant도 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경쟁도 매우 심했고, 선정 과정도 ‘인터뷰’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미국 측과 한국 정부 측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영어 시험도 치르고, 면접도 보게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당시에는 미국대외원조기관(USOM)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국 측 심사위원들은 미 대사관 문정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측 인사가 위원으로 있어서 USOM 교육부에서 일했던 경력이 Travel Grant를 획득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일을 통해서 영어를 통달했고 영어 회화는 다른 사람보다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다고 생각된다.

풀브라이트 심사위원회에서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행정학이 경영학과 더불어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학문이므로 미국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 당시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니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다.

Fulbright Travel Grant가 나에게 준 공헌이 적어도 세 가지는 된다. 첫째는 내가 가고 싶었던 미시간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대와 미네소타 대학은 AID의 기술 계약으로 많은 서울대 교수들이 미네소타 대학에 가고 있었다. 나는 좀 늦었으나 미네소타 대학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USOM의 Public Affairs Division 책임자인 프랭크 랜더스(Frank Landers)란 전 미시간 주정부의 재무국장을 지낸 분

이 내가 Fulbright Travel Grant를 얻었다고 하니 잘되었다고 하면서 미네소타보다 미시간이 더 좋으니(그분의 주관적 평가이다) 미시간으로 가라고 권해주었다. 그분은 특히 나의 은사가 되어준 페렐 헤디(Ferrel Heady, 당시 행정대학원장) 박사를 잘 아는 사이니 그리 소개해준다고 하여 쉽게 이름 있는 미시간대의 래컴 대학원에 가게 되었다. 이것이 폴브라이트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첫째 행운이었다.

둘째 행운은 Fulbright Travel Grant를 받으니 미국 가는 수속이 편해진 것이다. 복잡한 재정 보증 없이 폴브라이트가 보증을 하니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건강보험, 도서 구입비 등이 보장되어 쉽게 유학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 단, J-1 비자를 받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장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당시 학생 비자는 F여서 J를 가지고 미국을 가니 공부 끝나는 대로 돌아와야 하는 미국 정부와의 약속이 있었다. 지나고 보니 공부 끝나고 곧 귀국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해준 것이 폴브라이트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행운은 1964년 1월부터 미시간대에서 공부하여 1년 만에 석사(MPA)를 마치고 1968년에는 영광스러운 정치학 박사를 비교적 순조롭게 끝냈다. 그때 마침 연세대에서 강병근 교수가 미시간대에 오셔서 연세대가 얼마나 훌륭한 대학인지를 설명하며 연세대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 후 당시 연세대 총장이신 박대선 총장님과 선이 닿아 1971년 9월부터 연세대 정법대 행정학과 부교수에 임명되어 1996년 정년까지 25년을 연세대에서 봉직할 수 있었는데, 이 행운도 모두가 Fulbright Travel Grant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에드워드 라이트(Edward Wright)라는 좋은 사람이 와서 그분과의 친분이 이루

어저 각종 심사위원 등의 일로 재단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의 두 번째 풀브라이트와의 인연은 지금 생각하니 그런 맥락에서 쉽게 발전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1977년의 Researcher란 Grant는 연세대와 USC가 자매 관계를 맺었을 때 연세대의 재정 지원 능력이 제한되어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도와준 케이스이다. 덕택으로 나는 USC에 1학기 연구교수로 다녀왔고 그곳에서 행정학 가운데 공직 윤리,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 기간 USC의 테리 쿠퍼(Terry Cooper)와 제럴드 카이든(Gerald Caiden) 교수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면서 공직 윤리와 행정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커다란 학술적 연구와 교류를 풀브라이트가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풀브라이트 위원단에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인연은 무엇보다 1963년 내가 받은 Fulbright Travel Grant로 시작된 것을 밝히며 죽을 때까지 풀브라이트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다.

애리조나 투손에서 만든 ‘코리안 나이트’의 추억

이양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생화학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고마운 장학금

1963년 Fulbright Travel Grant를 못 받았던들 나의 유학 생활은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준 것이다. 그해에는 강영미, 전명숙 그리고 나 이렇게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 뽑혔다. 학부 졸업생이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는 대부분 석사 학위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박사 학위를 마치고 모국에 돌아와서 공헌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 이번 해에 장학금이 좀 늘어 학부 졸업생이 더 뽑혔다는 것이다. 행운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 경우는 이미 Teaching Fellowship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발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다.

새로운 경험의 땅 애리조나

선발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텍사스와 애리조나에서 영어 훈련을 받았다. 9월 개학 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 국무부의 세심한 배려였다. 7월 중순 비행장에 도착한 날, 투손의 기온은 40도

가 넘어 땅에 내리는 순간, 화끈한 것이 꼭 한증막 안으로 들어선 느낌이였다. 투손은 만개한 꽃들이 가득 차 있는 별천지 같은 아름다운 도시였다. 대학 캠퍼스는 파란 잔디로 덮인 뜰이 건물 사이에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를 놀라게 한 또 하나는 매일매일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 날로 나는 가지고 간 50달러(허용액 100달러 중 50달러는 친구의 돈을 가져갔음)를 얼른 집으로 송금하였다. 보스턴으로 올라가면 넉넉한 펠로십(Fellowship)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열대 과일이 가득 가득 쌓여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맘껏 먹고 용돈을 받아가며 미지의 세상 미국에서의 생활이 감격스럽게 시작되었다.

보고 싶은 친구들

그때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인도네시아의 아그네스(Agnes), 그리고 베트남 친구 줌(Zum)과 란(Lan), 태국의 칸자노마이(Kanzanomai),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알리(Ali) 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멀리서 조교로 뽑혀와 우리들을 냉방 장치 없는 뜨거운 차에 태우고 다녔던 대학원생 앤(Ann)도 기억에 남아 있다. 세미나 시간에는 남북 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던 기억도 새롭게 떠오른다. 남아메리카에서 온 친구에게 보자기를 두르고 머리를 잘라준 것이 소문나는 바람에 학교 식당에서 음식 배식하는 미국 아주머니가 자기 머리도 잘라달라던 일도 새롭게 떠오른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새로운 땅 미국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조각들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는 진정 특권이였다.

코리아 나이트(Korean Night)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기 위해 주말이면 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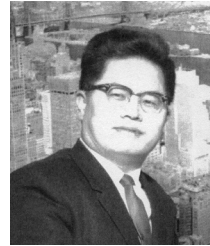
1963년 여름 애리조나대 캠퍼스에서(왼쪽부터 윤능민, 정희채, 필자, 조성호)

닉도 가고 1박 2일로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도 구경시켰다. 새벽 기도 회 때 하늘로부터 깊은 캐니언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뿜쳐 비치는 찬란하고 눈부신 은은한 빛줄기는 가히 신비 그 자체였다.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오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체험케 하는 순간이었다. 프로그램 중에 각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누구에게나 쉬운 미션은 아니었다. 어느 날 우리 차례가 돌아왔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매니저를 자처했다. 대구의 아버님께 애국가 반주곡을 급송해달라는 편지를 드려 구한 뒤, 다섯분의 남자 선생님들에게 애국가를 부르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가져간 아리랑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한복을 어설프게 차려입고 족두리를 쓰고 아리랑 춤을 선보였다. 모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동기에게 기본 스텝을 배워 간 것이 이렇게 빨리 쓰일 줄이야. 지금 생각하면 외국 친구

들에게 꼭 신기한 광경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내가 피아노 독주를 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우를 생각해 외위간 곡〈알프스의 저녁노을(Alpine Glow)〉을 실수 없이 연주했다. 쉬운 곡이지만 듣기 좋은 곡이다. 남자 선생님들은 그때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때 아무 반대 없이 순순히 따라주신 여러 선배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윤농민 교수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남아 있는 선생님들(정희재, 조성호, 강우형)과 언제 한번 만나 추억을 얘기하며 회포를 풀 수 있다면 지나고 보니 폴 브라이언트의 경험은 부족한 나에게 하느님께서 넘치게 내려주신, 그리고 내일을 예비케 하신 값진 사랑의 선물이었다.

풀브라이트 생활을 회고하면서

정희채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정치학



한국 풀브라이트 60년사를 간행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크나큰 감회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63년 경북대 조교수로 있을 때, 풀브라이트 장학 시험에 응시하여 운 좋게 합격했었다. 그때 전국에서 무려 40여 명의 응시자 중에서 두 사람(한 분은 서울대 구범모 교수)이 합격했는데 시원찮은 영어로 합격했다는 것은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풀브라이트 케이스로 미국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필자의 인생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법학에서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당시 공법학의 최고봉이셨던 한태연 박사님의 교시에 따라 학문의 길을 걷기로 했으며 한 박사님과 공저로 《행정법학》이라는 저서까지 내고 주로 헌법, 행정법을 가르쳤는데 미국 유학의 꿈에 부푼 나머지 정치학 분야인 비교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전공 변경이 일생을 두고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것

을 절감했다. 그것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했고 또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학길에 오른 당시는 군사 쿠데타로 온 나라가 어수선했고, 군사정권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한 때였다. 필자도 쿠데타에 대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적극적인 반대론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비교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필자의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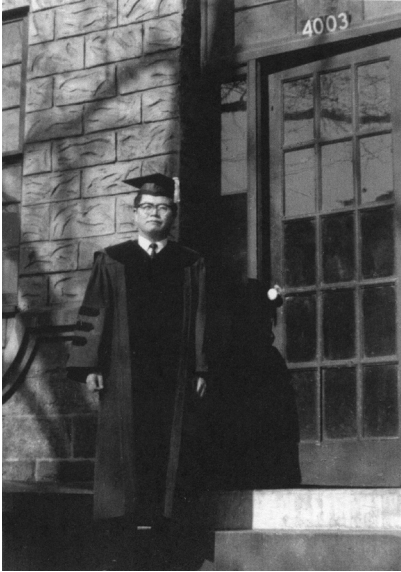
우선 몇몇 석학들의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민주화란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S. 립셋(S. Lipset)의 1959년 논문과 1960년 〈Political Man〉의, 개발도상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인 산업화, 도시화, 부(富), 문자 해독률의 향상(교육 수준의 향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논의, 1963년 G. 엘몬드(G. Almond)의 ‘참여의 폭발(Participation Explosion)’ 논의, 1965년 D. 앵터(D. Apter)의 개도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포폴리즘’의 혼동 논의, 1968년의 S. 헌팅턴(S. Huntington)의 개도국의 급선무는 민주화보다 ‘질서 유지’라는 ‘제도화’ 논의 등을 들으며 ‘보리죽도 제대로 쑤어 먹지 못하는 절대 빈곤의 한국에서 과연 선진국의 민주화를 흉내 낼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학문적 고뇌에 빠지게 되었으며, 텀 페이퍼(Term Paper)에도 주로 개발 초기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 많았다.

지도교수를 처음 면접했을 때, 청강생으로 있을 것이냐 학점을 딸 것이냐는 질문에 학점을 따겠다고 대답했지만, 수업을 받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만용이었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듣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여 1년 만에 M.A.를 했는데 지도교수가 외국인으로 1년 만에 M.A.를 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

면서 폴브라이트 본부에 좋은 보고와 권고를 해준 덕택으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2년 동안 더 받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한 바이지만, 3년 만에 Ph.D.를 획득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이 끝났을 때부터는 학교에서 조금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 외 부족한 학비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레 학위 취득도 늦어져 1969년에야 겨우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크나큰 행운은 ‘논문의 무수정 통과’였다. 심사위원장은 미국 학생도 극히 드문 ‘무수정 통과’를 크게 치하해주었고 그때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되었다.

귀국 후에는 부산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개도국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였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던지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 제10대,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몇몇 친구들로부터는 어용학자라는 편견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미국 비교정치학계에서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 국가론’ 등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1994년 하버드 대학 R. 배로(R. Barro) 경제학 교수가 <민주주의는 성장의 처방일 수 있는가?(Democracy: A Recipe for Growth?)>라는 논문에서 개발도상국 100 개국을 표본으로 하여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했는데, 선경제 성장 후 민주화의 발전 전략을 쓴 나라만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칠레 등을 들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민주화하겠다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 성장도 이루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권위주의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논문은 필자의 학



문적 접근에 엄청난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필자의 마지막 저서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발전론》(2000)에서의 ‘개발독재론’의 전개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고 결국 나의 학문적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중국의 ‘덩샤오핑 노선’도 개발 독재의 한 유형이란 주장을 펴는데 실제로 덩샤오핑은 “한국의 박정희를 배우라”는 주

장을 했으며(W. Overholt의 <Rise of China> 참조)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엄청난 수의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국제 세미나에서 필자는 <개발 독재에서 시민 민주주의에로(From Development Dictatorship to Civilian Democracy)>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덩샤오핑은 박정희 개발 전략을 중국에 적용하여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마침 같은 자리에서 논문 발표를 한 유타 대학의 김련 교수로부터 귀국 길에 유타 대학에서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줄 것을 부탁받고 그곳에서 한 시간 반 강의와 약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었다. 마침 중국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하버드에서 Ph.D.를 따고 유타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젊은 중국인 교수가 있었는데 그와의 질의응답에서 다소의 논쟁이 있

었다. 강연이 끝나고 사석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그 교수에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만일 천안문 사태에서 당신네들 민주화 세력이 승리했다고 가정할 때 오늘날 중국의 경이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하리라 보느냐?”는 질문에 그 교수도 “글쎄요. 그때 미국으로 망명하여 교편을 잡고 있는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실तो를 들은 바 있었다. 사실 필자는 어느 잡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유신 시대에 인권 탄압이 있었고, 또 억울하게 매맞은 지식인, 시민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1,400명의 사망자와 1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천안문 사태의 덩샤오핑 독재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치른 독재의 희생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압축된 고도성장의 뼈아픈 대가였다고 생각하자”라는 요지의 논의를 한 바 있다.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1963년 여름 석 달을 회고함

조성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물리학

지난 6월 1일 우연히 윤복자 연세대 명예교수님을 만나 금년이 한국 폴브라이트 창립 6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회고담을 모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비록 두서없는 글이지만 1963년의 몇 달 동안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더듬어본다.

1963년 당시 연세대 이공대 물리학과 전임강사로 봉직하고 있던 본인은 그해 9월에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소재 브라운 대학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있었다. 같은 과 이모 교수님의 권고로 폴브라이트에서 시행했던 시험을 보아 여비 보조 장학금(Travel Grant)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9월 학기 전 약 2개월간 투손에 있는 애리조나 대학에서 영어를 위주로 한 유학 준비 과정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다수 사람들보다 한두 주 늦은 7월 말경에 출국하여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서울→도쿄→샌프란시스코→투손으로 가는 장도에 올랐다. 당시에는 항공편이 많지 않아서 도쿄에서 1박한 후 도쿄→앵커리지 경유→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다. 도쿄에서는 이듬해인 1964년도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사방 도로를 확장하거나 정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도쿄를 출발한 후 비행기 항

로의 기상 상태가 매우 좋아서 급유를 위한 앵커리지 기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샌프란시스코로 직행했다. 우리 비행기는 항로 단축으로 현지 시각 새벽 3시경 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입국 수속을 곧 받



을 수 없었다. 나는 타고 온 비행기가 지구 상 제일 넓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어떻게 그리 단숨에 날아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면서 그 비행기의 외모를 유심히 되돌아보았다. 그때 탔던 비행기의 기종은 좌석이 세 자리씩 좌우로 줄지어 있고 중앙이 통로로 되어 있던 B707로 기억한다.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는 지참하고 갔던 흥부 엑스선 사진의 재조사도 받았는데,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는 폐결핵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당일 오전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클랜드와 피닉스를 경유하여 투손까지 갔는데, 피닉스 공항에 잠시 머물렀을 때 한여름에 내리쬐는 숨 막힐 듯한 뜨거운 열기와 불사조(phoenix)를 상징하는 공항 건물 내부 장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투손에서는 양변기와 욕실을 공동 시설로 사용하는 학생용 기숙사에 유숙하며 주중에는 주로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그곳의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가 주선해서 인근의 높은 산에 있는 별장에도 초대되었다. 나의 호스트 패밀리는 에들리(Erdely) 부부로, 그분들이 8월 24일 주었던 사진을 오래된 사진첩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함께 연수를 받았던 한국인은 모두 여섯 명(정희재, 강우형, 이양자, 윤능민, 김용석, 필자)이었는데, 투손 인근의 레먼(Lemmon) 산에서 8월 10일에 찍었던 사진을 찾아냈다. 이분들의 전공 분야는 정씨

가 정치학, 강·김·조 세 분은 물리학, 이씨는 식품영양학, 윤씨는 화학이었다고 기억한다. 1970년대까지는 모두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국내 대학의 강단에서 활약하게 되었으니 폴브라이트 여비 보조 장학금이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자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약 두 달에 걸친 연수를 마치고 각자 입학된 대학으로 뿔뿔이 떠났다. 나는 투손→댈러스(텍사스)→뉴욕→프로비던스를 거쳐 같은 날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때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우선 댈러스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체구도 단아한 중년의 여승무원이 나에게 묻는데, 몇 번을 되풀이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몹시 당황했다. 나중에 주는 것을 받아 마시고 나서 들었던 것을 다시 되며 알아낸 것이 레모네이드(lemonade)였다. 두 달간 영어 회화 등을 새로 배웠다고는 하나 이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이후 브라운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처음 한 학기 동안 칠판에 적혀 있는 것만 적었지 교수님의 설명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내 영어의 청취 실력은 가히 알아볼 만했다고 할 수 있다.

댈러스 공항에서 보았던 것은 이곳이 당시 내가 탔던 아메리칸에어라인(American Airline)의 중심 공항이었는데 같은 회사의 같은 기종으로 보이는 비행기가 수십 대 늘어서 있던 광경이었다. 당시 미국에는 이러한 항공사가 한둘이 아니어서 민간 항공기 수만 줄잡아도 전체 수천 대 규모가 될 거라는 추산을 할 수 있었다. 이때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20년이 되지만 일본이 미국에 패전했던 이유도 이러한 미국의 막강한 산업 생산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비던스까지 가는 여정에 뉴욕 시를 들르게 되었으므로 당시 컬럼비아대의 대학원 물리학과에 유학 중이던 대학 동기 김모 학형에게 공

항에서 잠시 만나보자고 미리 연락을 해놓았었다. 나는 뉴욕 시가 얼마나 크고 공항이 시내에서 얼마나 먼지 전혀 감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뉴욕 시에 여러 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때 비행기를 갈아타던 곳은 아이들 와일드(Idle Wild, 현 케네디 공항으로 1963년 가을 케네디 대통령 피격 사건 이전임) 공항이었다. 마중 나왔던 동기는 이 공항이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상당히 멀고 자신도 뉴욕 시의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해서 반갑게는 만났지만 어찌나 미안했는지……. 무식이 용감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로비던스 공항에 도착하니 반가운 고교 동창인 김모 학형이 그곳에 이민 와 있는 한국인 의사 분의 자제에게 부탁하여 그 택 차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대학 캠퍼스에서 옆드리면 코가 닿을 곳에 방을 얻어주어 그 후 나의 일생에서 더없이 귀한 그 동기 내외의 배려를 듬뿍 받으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그곳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들을 만난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더러 어떤 입국사증(visa)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증 형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누군가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J형을 받았을 터이니 낚싯바늘에 잘 걸려들었다는 것이다(자가 낚싯바늘 모양이어서). 그때 학생 사증(F형)을 받았던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미국에 정착했는데, 당시 이 말을 듣고는 여비 보조를 받았던 것이 마음속에 큰 갈등으로 남았고, 추후의 내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만 47년 전의 인연으로, 1971년 고려대 부교수로 부임한 이래 지난 40년간 국내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J사증의 또 다른 큰 혜택으로 여기며 한국 풀브라이트 위원단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소중한 인연

황적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언어학



나는 대학교수로 살아온 나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 가끔 대학생 시절의 바람대로 외교관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결론은 늘 지금의 삶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폴브라이트와의 인연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나는 우선 주어진 기회인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었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독학으로 외무고시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사로서의 바쁜 업무에 얽매어 외무고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차라리 대학 은사님들이 권유했던 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자가 되는 길을 준비했다 하면 하는 후회가 엄습해왔다. 이때 은사님들의 소개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추천으로 거기에 지원하여 다행히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1963년의 일이다.

196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는 GNP가 북한만도 못한 가난한 나라였고 보통 사람이 미국 유학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그런 만큼 왕복 여비와 학비, 생활비 일체를 주는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정말 귀한 것이었다. 게다가 직장이 있던 사람은 유학 기간이 출장으로 처리되어 봉급이 그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이는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국가 간의 교환 교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이미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었던 나에게는 너무도 귀한 기회였다. 주변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핑 먹고 알 먹었다고 부러워했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무척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1963년도의 영미 문학과 언어학 및 영어 교육 분야의 수혜자는 세 명이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토의 대학으로 가기 전에 하와이 대학에서 약 한 달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어 있었다. 폴브라이트는 우리에게 출국 전에 이미 하와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푸짐한 용돈을 지급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지만 난생처음 해외여행에 나서는 우리로선 도착 후에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호놀룰루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런 걱정은 싹 가셨다. 공항에 내려 어리둥절해하는 우리에게 우아한 모습의 여인이 다가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이미 한국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고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약힌 것이었다). 건네준 명함에는 미 국무부 영접관이라 적혀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차로 우리가 머무를 하와이 대학 기숙사에 도착하니 거기에 도 우리를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알찬 것이어서 우리가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 하와이

의 세 개 섬 중 하나로 관광 여행을 시켜주었는데 발표된 명단을 보니 우리 한국 학생 세 명이 각각 다른 섬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같은 섬으로 가게 해주지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셋이 각 팀의 리더로 선발되었다고 했다. 국위를 선양했다고나 할까?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본토의 대학으로 가는 도정에도 LA의 디즈니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명소를 둘러보게 하는 등 풀브라이트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했다.

내가 도착한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개인별 직통 전화가 들어와 있는 독방 기숙사를 비롯해 고급 식사 등 당시 우리나라의 일반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생활 환경과 알찬 학업 프로그램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매 학기 등록금은 서류에 서명만 하면 미 국무부에서 직접 학교에 지불하였고 학기마다 도서 구입비가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특히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는 충분하여 월말이 가까워지면 돈이 떨어진 미국 학생들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올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면 되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수하는 학업 과정은 내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알차고 벅찬 것이어서 공부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했다. 다른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이 나는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처럼 공부에 전념하였다. 덕분에 학기마다 학교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학점을 이수하여 최단 시일 내에 목적했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석사 학위는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귀국 후 곧바로 모교의 강의를 맡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한 대학교수 생활을 6~7년 하는 동안, 많은 공부 끝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들어오는 후배 교수들을 보면서 여생을 부끄럽지 않은 교수로

보내기 위해서는 한참 더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한 번 폴브라이트의 문을 두드려보기로 했다.

고맙게도 그 문은 다시 열렸고, 나는 1973년 여름에 박사 과정을 이수할 위해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로 갔다. 이때는 미 국무부 영접관이 공항에서 맞아주는 일은 없었지만 폴브라이트는 역시 내가 오직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했다. 덕분에 나는 이번에도 최단 시일 내에 학위를 취득하고 학문적으로 보다 성숙한 자신을 느끼며 귀국할 수 있었다.

이렇듯 내가 대학교수가 되고 34년간의 교수 생활을 큰 탈 없이 마치고 후회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폴브라이트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폴브라이트 장학금 제도의 원래 취지가 한 개인의 발전을 돕는 차원을 넘어 도움을 받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는 과연 그런 취지를 얼마나 충족시켰는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폴브라이트와 나의 소중한 인연은 그 뒤 내가 여러 Selection/Screening Committee의 일원으로, 또한 Board의 멤버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폴브라이트와 같이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폴브라이트 장학금이야말로 매우 뛰어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최고의 장학금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것은 요즘 그 상황이 약간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 변화라는 것이 금전적 혜택이나 조금 까다로운 수혜 조건과 관련되어 생기는 문제이지 수혜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는다.

“You must be full bright!”

박근우

전 동의대학교 총장 | 영어교육학



먼저 한미교육위원회(폴브라이트 위원단)의 장학금을 수혜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동 위원단의 창립 6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을 생각할 때, 본인은 이 위원단과 한국 사회의 관계, 그리고 본인과와의 관계가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한미교육위원회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각계의 전문가, 특히 학자들을 미국에 파견하고 그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교육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교육, 과학,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나아가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믿습니다. 폴브라이트 교육 사업은 개인에게 제공된 장학금으로서, 개인의 연구 활동을 도와 그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전문성을 심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장학금 수혜자들은 관련 분야에서 후진 양성이나 소속 기관의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한미교육위원단의 공헌과 업적은 높이 평

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본인은 1964년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벌써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옛일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비로 외국 유학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로, 예컨대 일반 가정에 TV나 전화가 흔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지방 신문에 보도된 풀브라이트 장학생 모집 기사를 읽고 지원 부산 미국문화원에서 영어 필기 시험(객관식 문제와 영어 작문)을 보았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해 서울 소공동에 소재한 위원단 사무실에서 6~7명의 위원 앞에서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때 면접위원으로 단장인 스트라우스(Straus) 박사와 고 함병춘 연세대 교수가 기억납니다. 그해 선발된 장학생은 (TDP와 Travel-only Grantees 제외) 13명 중 부산 지역 출신이 본인을 포함, 네 명이었습니다 (부산대 이용낙, 동아대 한근배, 부산교대 이성욱, 부산고 박근우).

당시엔 여권 수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수차례 외무부로 위원단 사무실로, 지정 병원으로(건강 진단차) 부산과 서울을 왕래해야 했습니다. 미국 입국 시엔 대형 엑스레이 필름까지 휴대해야 하는 시대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희망 대학에 입학하기 전, 미네소타 대학에서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 미국인 가정에 머무는 홈스테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국의 지리적 환경, 특히 수목에 둘러싸인 도시와 자동차의 홍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네소타 주의 자동차 번호판엔 'Ten Thousand Lakes'라고 새겨져 있듯이, 이 주는 호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예비 교육은 미국의 문화와 역사의 이해, 그리고 전공 분야 관련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학생들 사이엔 '저크(Jerk)'란 춤과 조앤 바에즈(Joan Baez)의 노래가 한창이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 저녁 늦게까지 외국 학생들과 담소하다가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우면 집 생각과 김포 공항에서 헤어진 가족 얼굴이 떠오르곤 했는데 처음 겪는 ‘홈식’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워싱턴 D.C. 지역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보내주는 월 210달러로 충당했습니다. 방세가 월 39달러였으니 혼자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 체재하는 동안 국제 전화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면 미리 전화국에 신청하고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의 전화 한 통화가 약 13달러였으니, 알 만한 일입니다.

오늘날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편지 쓰는 대신, 매일같이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형편과 비교할 때, 참으로 금석지감(今昔之感)입니다. 두서없는 옛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석사 과정 1년의 짧은 수학 기간이었지만, 미국에서의 공부는 본인의 학문적 바탕과 교육자, 교수로서의 성장에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귀국 후 교직에 복귀, 대학으로 옮겨 정년 퇴임까지 47년의 교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란 걸 알게 된 한 외국인 학생이, “Oh, Fulbright scholar, you must be full bright!”라고 한 말을 회상하면서, 한미교육위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문님들과 관계자님들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지속되는 인연과 혜택

강신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비교정치학



나는 1965년도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수학했다. 1969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임용된 이래 교수와 행정대학원장, 대학 본부 교무부처장과 교무처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에 정년으로 명예교수에 임용되었으며 1999년 이래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있다. 이렇듯 보람 큰 학문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혜택 덕분이라고 믿고 감사할 뿐이다. 더욱이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그리고 1998년 이후로 현재까지 한국 풀브라이트 위원단의 공식 명칭인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에서 Board of Directors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한미교육문화재단의 창설 회원이라는 귀중한 기회도 누렸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역대 단장과 임직원들, 특히 현 단장이신 심재옥 여사님의 헌신

적이고 탁월하신 리더십에 미약하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나와 폴브라이트 위원단의 끈질긴 인연은 계속되어왔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 필자는 서울대 교무처장의 자격으로 서울대에 부임하는 미국인 폴브라이트 교수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생활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에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관한 나의 추억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어서, 솔직하게 회상하면, 이러한 추억담이 자칫 자기 정당화나 배은망덕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에 쓰기를 꺼리다가 독촉을 받아, 나의 경험도 하나의 기록일 수 있으리라는 심정으로 적어보기로 하였다.

나의 폴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1964년에 폴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필기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폴브라이트의 여직원 한 분이(지금 그분 성함을 기억하지 못함) “강 선생 필기시험 성적은 1등인데(당시는 필기시험이 있었음), 탈락되었다”라는 통보를 해주었다. 그래서 당시의 Executive Director를 면담하고 탈락의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이미 필리핀 유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가 수령한 필리핀 장학금이 폴브라이트 소관인가?”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 면접에는 포함시켜주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장의 독감으로 다른 분이 면접위원장이 되어 나를 제1후보자로 선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이유였는지 알 길은 없으나 나의 장학금은 사전 이해와는 달리 12개월로 종료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서울대로부터는 귀국 독촉을 받았고 매 6개월마다 여권 기한을 연장해야 했다. 그때의 뼈아픈 유학 생활을 회고하기에는 지면이 적어 다 적을 수 없다. 귀국 후 어느 저녁 학술 모임에서 위와 다른 당시의 미국인 단장이 “미국 생활 좋았는가?”라고 묻기에 좀 불쾌하고 가시 돌친 질문과 반응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 후 어느 미 대사관 직원이 ‘안국동 관사 파티’에 불러 사연을 묻기에 경위를 말해준 일이 있다. 그런 사연 때문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1974년경부터는 장학금 수혜 기간이 더 명확해진 것으로 알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재직 기간에 나의 이런 감정이 위원단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라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우수하고 유망한 학자와 학생들을 지원하여 양국 간의 깊고 폭넓은 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보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한미교육위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레이하운드

윤세중

공주대학교 교수 | 화학

김포발 대한항공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한 시각은 1966년 7월 11일 오후 3시 30분이었다. 캔자스 대학 오리엔테이션 센터를 찾아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할 여정이었지만, 갈아탈 비행기인 트랜스월드 에어라인이 노조 파업으로 결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매한 버스표와 함께 45달러를 환불받고 지정한 호텔로 안내되었다.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 김포공항에 떼어놓고 온 처와 두 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의 버스 여행을 그려보면서 미국의 첫날 밤을 그렇게 지냈다.

나를 태운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하여 동쪽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이색적인 풍물을 접할 때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났으므로 비행기 파업이 나에게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표시는 그 어느 곳에도 없지만, 미국이 나를 환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버스는 잠시 쉬기 위하여 대략 두 시간마다 휴게소에 머물기도 하였지만, 만국기가 나부끼는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국력의 괴리를 실감케 하면서 버스는 계속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리노(네바다 주) 휴게소에서 시장기를 달래기 위해 서투른 영어로 우유를 청했다. “밀크 플리즈” 하니 가게

주인이 고개를 가우뚱하였다. 하는 수 없이 손가락으로 우유병을 가리키자 그것을 꺼내 주면서 ‘미일크’라고 하며 교정해주었다.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미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기가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야간 운행 시에는 잠을 자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이색 풍물을 더 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좀처럼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면서 펼쳐진 웅장한 노천 광산과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굴착기의 모습, 그리고 용융된 구리광의 웅장한 불기둥, 이러한 것들이 나를 별천지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덴버(콜로라도 주) 정류장에 머무는 동안 서부 활극에서 본 총잡이 사나이가 주차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본 순간 섬뜩하였지만, 얼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진난만하고 온순한 티가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할 수가 있었다. 평원으로 접어들면서 한없이 펼쳐진 비옥한 들판, 한국에 보내온 구호품인 밀가루 생산지가 바로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까마득하게 드러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잠을 청해보았다.

7월 14일 오전 7시, 자그마한 시골 정류장 로렌스(캔자스 주)에 도착하여 내리니,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피로가 쏟아졌다. 캔자스 대학 오리엔테이션 센터에는 21개국에서 모인 54명이 함께 같은 과정을 받았는데, 강사들과 봉사자들이 책임자의 진두지휘 아래 계획된 과정을 빈틈없이 수행해주었다. 주된 부분은 어학 훈련이었지만, 미국 문화의 소개, 미국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홈스테이, 재미있는 운동 경기, 포크송과 스쿼어 댄스, 그리고 로데오와 야구 경기 관람 등 8주간의 과정이 언제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다. 9월 6일 작별 파티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강연의 말미는 이러했다. “Honeymoon is over.”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에 대한 소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 화학

본 의원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폴브라이트 위원단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화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1960년대 당시 한국은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는데, 이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혜택으로 과학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과학 혁명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것은 교수 30년, 장관 4년, 그리고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인 오늘까지 저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저는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당시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후진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에도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II 1986년 애뉴얼 리포트에 실렸던 기사

박실
대한민국헌정회 이사 | 저널리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1967년 여름 나는 한국 일보사에 휴직원을 내고 노스웨스트기편으로 미국행에 올랐다. 시골 간이역 같았던 김포공항 송영대에는 고향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친구들이 한 무리를 이뤘다. 텍사스 대학에서 받은 오리엔테이션에는 각국에서 60여 명이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서울대 출신인 이시우(천문기상학) 형과 단둘이었다.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 타라의 농장’이 있던 애틀랜타 부근의 조지아 주립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과 دن 러스크 국무장관의 고향이었다. 고인이 된 체육부 장관 이영호 박사가 막 예일대를 졸업하고 전임강사로 부임해 있었다. 꿈같았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나는 1980년대 서울의 봄 시절, 본의 아니게 정치적 박해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되고 III로부터 40주년 기념 기고문을 보내달라는 전갈을 받아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던 일은 내게 큰 영광이었다. 나의 직업에 대해, 세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공부하고 탐구하게

된 것은 멋진 기회였다. 내 꿈을 키우고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풀브라이트의 경험은 직업적 측면과 민주화운동의 양 측면에서 나를 고무했다. 나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직업 활동에 내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한국 언론 전체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서, 국제기자연맹(IFJ)의 한국 대표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가치를 절감한 바 있다. ‘풀브라이트’는 나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했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일깨워 주었다.” (1986)

내가 만난 귀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법학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한 젊은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한국 풀브라이트 위원단이 이제 회갑이 되었다니 참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이미 각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선견지명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신 윌리엄 풀브라이트(William Fulbright) 상원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애초에 미국이 무상 원조로 주는 잉여 농산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국내 재원으로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으로 발전하였으면서도 장학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3년 서울대를 졸업하기 전에 고등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 사법대학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면 별 의문 없이 판검사 등 재조법조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가진 평범한 풋내기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운영되던 소위 사법 관

시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고자 서울대 부설로 설치된 사법대학원이라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운영 내용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전쟁 종전 직후 1950년대에 미국을 1년 다녀오신 모교의 교수님 한 분이 미국 유학을 권유하면서 폴브라이트를 언급하셨는데 저로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해외 유학생도 극히 적어서 상의할 만한 경험자도 없었고, 영어를 잘해야 할 텐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녀 영어 클럽까지 만들어 어학을 열심히 연마하던 동창생들을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 거의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의 재촉에 무작정 폴브라이트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해주는 직원의 친절함과 많이 모아놓은 대학 입학 요강 등 참고 서적을 보고 점차 용기를 얻었지요. 그러나 생전 처음 보는 지원서 양식, 추천서 양식 등에 놀랐고 더군다나 토플이라는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해서 저는 다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안 가면 되지 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무녀독남이므로 유학을 안 가도 무방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리 학교에 폴브라이트 위원단 후원으로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와 있던 미국인 교수를 운동장에서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을 걸었더니 적극적으로 격려해주어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플 시험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영어 시험은 고시 공부와 달라서 평소의 실력으로 서구 문화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치른다고 생각했지만 듣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법학 분야에는 지원자가 적었는지 다행히 공개 경쟁 절차에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기쁘기보다는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니다. 생전 집을 떠나서 하숙 한 번 해본 일조차 없는 나에게 과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막상 미국의 어느 학교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였는데 이 문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분이 쉽게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요즘 흔하게 누구나 다 거론하는 명문 미국 대학의 이름을 들어본 일도 없고 내 주변에는 조언을 해줄 분조차 전무한데, 다른 어떤 합격자는 예일대 법대의 입학 허가를 받고도 성에 안 차서 유학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름대로 대학의 명성보다도 미국에서 영미법과 프랑스계의 대륙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법대를 찾았습니다. 결국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Street car named desire)가 굴참나무 가지에 늘어진 스페니스모스(Spanish moss) 밑을 유유히 지나다니는 낭만적인 뉴올리언스의 툴레인 대학의 법학 석사 과정으로 난생처음 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까지 루이지애나 주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영토여서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말하는 줄 알고 큰 기대와 호기심이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의 실망감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프랑스에서 모방해온 거리 이름조차도 영어로 번역하여 쓰고 있었으니까요.

매달 부쳐오는 270달러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기숙사에서 살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각종 주요 서양 언어의 연마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아직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흑백 통합 판결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채 인종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Fullbright Scholar'라는 칭호는 큰 긍지를 심어주고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45년이나 지난 옛날의 일이어서 기억조차 가물거리지만 돌이켜

보면 토정비결의 점괘대로 폴브라이트는 내가 만난 최대의 귀인이었습니다. 폴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젊은 시절의 조그마한 성취에 만족하고자 하던 나의 사고방식과 생애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초래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다만 것처럼 결정적 혜택을 입은 초기 장학생으로서 그 은혜를 충분히 갚고 후배를 위하여 응분의 봉사와 격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재옥 단장님 등 위원단을 위하여 일생 헌신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어 항상 죄송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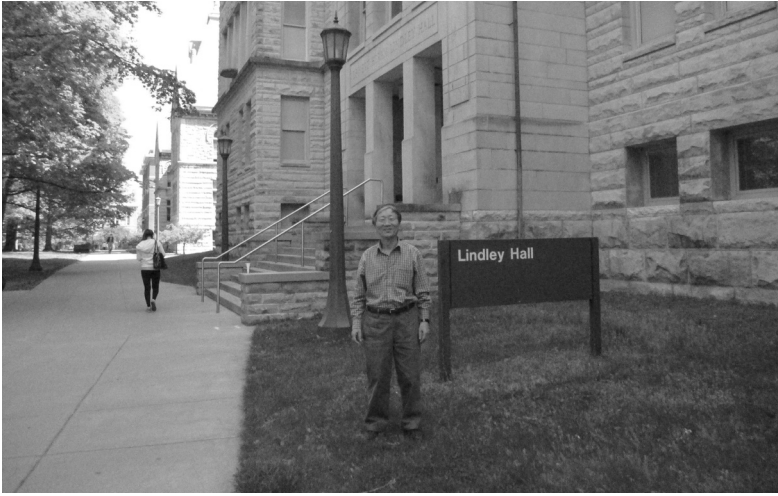
끝으로, 한미교육위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와 폴브라이트

이정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언어학

나는 1967년도에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길에 올랐으며 인디애나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서울대에 취직이 되고, 당시 종합화에 따라 전공별로 배치되어 언어학과에서 30년 넘게 가르치는 행운을 얻었기에 폴브라이트가 아주 고마울 수밖에 없다.

미국 대학원에 가면 한국에서 석사를 했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석사 과정부터 해야 한다고 늘 들었기에 선발 당시 지망 학위를 겸손하게 우선 석사로 표시했더니 미국인 단장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1년이면 충분하다면서 미국정부 장학금을 주는 바람에 기간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 대학에 가자마자 IIE 담당자에게 나는 1년 뒤 석사만 하고 귀국하면 취직을 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체류 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편지를 여러 번 썼다. 이듬해 다행히 체류 기간 연장이 1년씩 허가되었다. 첫해에는 응용언어학·영어 교육의 석사 과정 36학점을 이수하고(한국의 단장에게 물었을 때, 제공된 분야가 이론언어학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바람에—다른 이들은 그래도 미국 가서 잘들 바꿨다는데, 나는 그런 주변도 없었다!—또 응용언어학의 MAT와 언어학의 MA 학점들을 완수해놓고도 첫 학위 후 귀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청구도 못하고 말았다) 비



로스 가을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언어학을 시작했다. 당시 비상한 주목을 받던 (츨스키 이론의) 변형 생성 문법반(30명)에서 운 좋게 유일하게 A 플러스를 받아 바로 다음 봄 학기에 학과장이 불러 봄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느냐고 물으면서 막 마친 과목의 grading을 맡는 조교를 시켜주어 버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실제로는 가을 학기 장학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폴브라이트 펠로십이 내게 재정적으로 너그러웠거나 독일의 훔볼트대처럼 평생 팔로업(follow-up)을 잘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한국이 어렵던 1960년대에 유학을 갈 계기를 열어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떠난 지 40년이 거의 돼가는 금년 4월에는 alma mater인 인디애나대가 내게 의미론 특별 강연을 하도록 초청까지 해주어 아름다운 캠퍼스와 드나들던 도서관, 오페라 하우스, 언어학과가 있던 린들리 홀(Lindley Hall, 사진), 살던 곳들을 그 당시엔 없던 아내와 더불어 둘러보는 특별한 감회를 맛보았다.

미국사회의 너그러움

김찬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국제법학



필자의 행운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법대에 부설된 아시아법연구소 책임자인 댄 F. 헨더슨(Dan F. Henderson) 교수를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1967년 겨울, 서울을 방문한 교수는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Ph.D. 과정을 수료하도록 필자를 초청해주었는데, 등록금, 생활비와 가족 수당 전액을 포드 재단이 제공한 기금에서 지원하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1968년 봄에 헨더슨 교수가 하버드 법대에서 1년간 강의하도록 일정이 바뀌어 1969년 가을에 와달라는 전갈이 왔다. 1968년 3월에 전 서울대 유기천 총장님이 하버드 대학에 계실 때부터 가까이 지내온 미시간대 법대의 앨런(Allen) 학장에게 급히 추천하여, 필자는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앤아버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1968년 6월 하순에는 프린스턴 대학에 설치된 외국 유학생을 상대로 한 미국법 예비 교육 과정을 위하여 출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즈음 우

연히 폴브라이트 위원단에서 미국 유학생에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당시로 보아 작은 돈이 아니었을 터인데 후진국 학생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둔, 미국의 관대한 정책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필자는 4년간 예정된 공부를 마치고 1972년 7월에 귀국했다. 4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신직수 법무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73년에는 검사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전직, 1986년 8월까지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면서 외자 도입과 대외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폴브라이트 위원단이나 미국 장학 제도의 혜택을 과분하게 받아온 필자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미국의 진면목을 깨닫게 된다. 과연 무엇이 미국 사회를 그렇게 변모시켰을까? 필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나눔의 문화가 미국인의 의식 근저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후진국의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 특히 우리나라의 국권 수호와 방위를 위하여 지출한 국방비와 희생된 수많은 미군 장병들을 생각해본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원, 인재 양성과 학문의 전파를 통하여 결국 인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지향하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제 우리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 나라의 국민들을 도와줄 때가 되었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 부문에서도 후진국의 생활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재단을 설립·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참된 의미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던 우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길 바란다.

1970

안병만 • 송준만 • 조준학 • 광동순 • 이상억 • 최영 • 한운성 • 박영의 • 이종승 • 서동희
신영무 • 강성학 • 광병선 • 김성곤 • 박근자 • 주경란 • 김병원 • 김문환 • 나인용 • 최홍규

FULBRIGHT

KOREA 1950-2010

폴브라이트의 추억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행정학



필자가 폴브라이트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처음 폴브라이트 사무실에 방문했던 때는 1969년 5월이었다. 유학을 떠나 보다 앞선 학문을 배워오자면 그 당시 대학의 가난한 전임강사로서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폴브라이트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상당히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예상 외로 당시 업무를 맡고 있던 분의 친절은 나에게 큰 위안과 자신감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소정의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다 보니 결국 장학생을 받아 유학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 당시의 감격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본인이 플로리다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받던 시절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이로 인해 상당히 혼란 속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마다 애틀랜타에서 근무하는 폴브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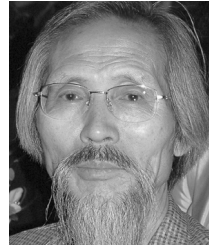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성의껏 상담에 응해주곤 했다. 여성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을 만나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미국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폴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더욱 자신 있게 유학 생활에 임할 수 있었다.

귀국 후 교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편으로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지도에 전념하다 보니 미국 유학 생활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가 불가능했었다. 그럴수록 유학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미국에서는 우리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이러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폴브라이트였다. 미국의 폴브라이트로 한국을 방문하는 같은 분야 학자들과의 교류, 폴브라이트에서 마련하는 크고 작은 포럼들, 그리고 새로운 자료들의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나는 학문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그 후 폴브라이트 동문회가 결성되었고 동문들 간에 여러 가지 학문적 교류와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였다. 동문회의 일원으로 이런 활동을 하다가 동문회 장직도 맡았고, 한국의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돕는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도 맡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열성 폴브라이트 당원이 되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학자로 생활하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곧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기를 고대한다.

1970~1980년대 풀브라이트 포럼과 나

송준만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교육학



순화동에 있던 풀브라이트 사무실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1971년에 응시하여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젊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6년 미주리 대학에서 Ph.D.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학자로 성장하는 데 적지 않은 학문적 자극을 준 곳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었다. 단장인 에드워드 라이트(Edward Wright)의 차분하면서도 면밀한 성격은 그가 은퇴할 때까지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미국서 온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평화봉사단(Peace Corps) 단원들, 대사관 혹은 국제적인 인사들을 만나 학문과 현실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양한 전공과 관심을 가진 그들을 만나는 건 나의 자극을 얻고 지적인 지평을 넓히기에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온 이들이

라 한국에 관한 지식이 적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도 모를 때 이해를 돕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다. 여러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라 그들이 발표할 때는 한국 소속 학교의 교수들과 그들의 지인들이 같이 포럼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폴브라이트 학자들과 때론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들도 참석하였고 또한 그들이 참여했던 로열 아시아틱 소사이어티(Royal Asiatic Society) 회원들과도 겹쳐 한국적인 문화 행사에 같이 참여하며 여행도 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것은 10명 내외의 인원이 오곤 하던 콜로키움(Colloquium) 같은 폴브라이트 포럼이었다. 자원하여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파티 분위기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지적인 모임은 전공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던 나에겐 적격이었다. 학회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터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르는 것을 자세히 묻고 대답하는 분위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곤 했다. 항상 마련된 맛있는 스넥과 음료도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남녀 연구자들이 저녁을 때우는 데 충분했다. 그때 참여한 한국인으로는 외국어대 교수이던 안병만 교수 등 몇몇 분이 기억된다.

놀라운 일은 우리들은 별로 관심이 없던 한국의 세세한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것을 우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 전후의 호적 변화에 따른 신분 이동에 관한 연구라든가 토지나 농지세에 관한 경제적인 것, 인문·사회·과학·무속·종교·예술 등등 연구 주제나 분야를 세세히 살피는 그들의 학문적 관심은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폴브라이트와의 친분 덕분에 내가 가르치던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에 매사추세츠 대학 심리학과와 펠드먼(Feldman) 교수가 머물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은 외국인이 학

과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학위를 받으면 신문에 기사화 되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한글 세대인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영화에 매료되어 자란 ‘할리우드 키드(Hollywood Kid)’ 세대이다. 영화를 비롯하여 사회의 많은 분야가 미국적인 것의 영향하에 있었다. 학부 시절에는 USIS에서 다양한 책과 시청각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그때의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미국 문화 문물을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 또 한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사철 냉난방을 갖춘 시설을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도 적격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하여 영어를 익힐 수 있었고 데이트하기에도 좋았다. 아울러 서울대 사범대는 미국의 피바디대 등에서 보내온 자료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강의를 많아 실제적인 영어 수업을 조기에 받을 수 있었다. 한 예로 폴브라이트 단장인 라이트 씨가 세 명을 놓고 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물리학을 소개하는 PSSC 강의도 미국 교수들이 직접 실험하며 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영시 등 문학 강의도 많았고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Great Books Series)도 서울대 사범대 도서관에서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시절이었다.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전공하는 특수 교육 영역의 다양한 신체 정신 현상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부전공으로 택한 심리학이나 때로는 사회학 강의로 호기심을 채우곤 하던 허기를 귀국하여서는 폴브라이트 포럼에서 채우곤 했다. 순화동에서 비원 앞 그리고 고함빌딩으로 옮겨가는 시절에도 참석자들은 바뀌어도 포럼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영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폴브라이트 사업은 진화하기 시작하였고, 1978년 라이트 씨가 한국학을

공부하러 온 젊은 학자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에게 단장 자리를 물려주고, 그 후 프레더릭 캐리어(Frederick Carrier) 단장 시절 고향빌딩으로 옮긴 후로는 토플, GRE 등 테스트 평가 업무의 확장과 유학 상담 지도 사업 등으로 확장되고 폴브라이트 참여 인원도 다변화되면서 옛날의 오붓한 분위기가 바뀌었고 내가 1987년 영국에 안식년을 다녀온 후에는 학교 일이 바빠 포럼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1999년 폴브라이트 빌딩도 생기고 전에 없던 동문회도 1987년에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평화봉사단에서 일하시다 1977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국 실정을 잘 아시는 심재옥 단장의 숨은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제자인 박은혜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돌아와 교수가 됐고, 그가 가르친 제자인 이숙향 교수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같은 학과에서 교수가 되어 한 과에서 3대가 폴브라이트 동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무척 기쁜 일이다. 1990년에 폴브라이트 상원의원 부부를 모시고 가졌던 성대한 40주년 기념식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올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맞아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큰 뜻이 한국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해가는 우리의 잠재력을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생각처럼 교육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짧은 만남, 긴 여운

조준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언어학

1990년 가을 어느 날, 나는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을 만났다. 그해 가을 나는 오래간만에 고국을 찾은 S형 내외와 함께 강화도에 바람을 쐬러 갔었다. 높푸른 하늘, 시원한 공기, 산들바람,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 이삭,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마니산 자락 길옆에서 주운 밤 아람은 벌써 고소한 맛이 들었다. 모처럼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한 우리는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포를 푸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우리는 산책을 나섰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듬뿍 마시며 걷다 보니 어느덧 전등사 입구에 다다랐다. 그때 마침 승용차 한 대가 멈추어 서더니 뒷좌석에서 한 외국인 노신사가 내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산사를 찾은 외국인이 신기해서였을까. 우리는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뜻밖에 그분이 바로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이었다. 나는 그분이 아칸소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은 레이저백이시죠?”라고 여쭙었더니 좀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렇다고 하였다. 이어 나는 “의원님 덕분에 저는 통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의원님이 한층 더 놀랍

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얼른 당신께서 만든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일찍이 텍사스 대학에서 수학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롱혼은 텍사스 대학의 별명이다. 당시만 해도 아칸소 대학과 텍사스 대학은 같은 사우스웨스트 콘퍼런스에 속해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축구 경기를 치르는 라이벌 관계였다. 나는 우리의 짧은 대화가 잠시나마 풀브라이트 의원이 레이저백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날 내가 만난 풀브라이트 의원은 굵은 테 안경을 끼었는데 안경 너머로 눈빛이 번득였다. 여든다섯의 고령에도 허리는 곧았고 음성은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다. 나는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지·덕·체를 겸비한 거인이라는 첫인상을 받았고 지금도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찍이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체력을 단련하였으니 90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약관에 아칸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 로즈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니 풀브라이트(Fulbright)라는 성씨에 걸맞게 두뇌 또한 명석한 분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칸소 주에서 하원의원에 한 번, 상원의원에 다섯 번이나 당선되었고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최장 기간 역임한 기록을 세웠으니 원만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분이였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분이였기에 1946년에 사람과 지식 그리고 기술의 교류를 통해 미국 국민과 세계 각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풀브라이트 계획을 창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계획이 시행된 이래 전 세계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인재들이 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도 그 수혜자가 2,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활약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은덕을 입은 행운아 가운데 하나이다.

일찍이 1956년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폴브라이트 계획과 취지를 같이 하는 스미스먼트 계획에 의해 최초의 교환교수로 한국에 온 A. C. 하웰(Howell) 교수의 강의를 통해 영미 문학의 진미를 맛볼 수 있었다. 그 후 1965년에는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장학금으로 꿈에도 그리던 미국 유학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72년에는 폴브라이트 장학금으로 텍사스 대학과 미시간 대학 그리고 하와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었으니 내가 모교에서 교편 생활을 원만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폴브라이트 의원 덕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폴브라이트 의원은 타계하고 안 계시니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나는 1999년 8월 말 정년퇴직하자마자 그다음 날 하와이 대학에 방문교수로 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강의하게 되었다. 재정 지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받았으니 내가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만 했던 혜택을 조금이나마 되갚을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했다. 나는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과 성을 다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 학생들을 위해 힘 자라는 데까지 봉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했던가. 2004년 여름에는 자비로 중국의 연변 과학기술대학에 방문교수로 가서 6주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쳤다.

요즈음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세계에 수없이 많지만 원조를 받기만 하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니 놀랍고 자랑스럽다. 만일 지금 내가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을 다시 만난다면 미식축구 말고도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라는 뜬금없는 생각을 해본다.

미시간대 유학 시절을 회상하며

곽동순
연세대학교 교수 | 음악

1973년 여름, 꼭 35년 전이다. 당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꿈에 부푼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우선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에서 그해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풀브라이트 장학생들과 함께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같이 선발된 여러 명의 한국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전임 동문회장인 최영 교수님도 그때 같은 일행이었다. 각국에서 모인 젊은이들과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며 사귀어 가졌던 그때의 하와이 생활은 지금까지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독일문화원에서 열심히 독어를 공부하던 나에게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지원하게 된 것과 미시간대를 택한 것은 내가 결정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었다. 당시 미시간대의 매릴린 메이슨(Marilyn Mason)이라는 오르가니스트는 보수적인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연주한 최초의 여성 오르가니스트로서 익히 그 명성을 알고 있던 터라, 미시간 대학을 선택하였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파이프 오르간이라곤 없었고 학부에서 전기 오르간으로 공부했던 나는 처음 메이슨 교수 앞에서 연주한 오디션을 잊을 수 없다. 난생처음 만져보는 파이프 오르간, 전기 오르간과는 티치나 느낌이 전혀 달랐지만 열

심히 준비한 대로 오디션을 받았다. 교수님은 친절한 미소를 머금고 나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며 선뜻 제자로 받아주셨고 교수님의 개인 조교 자리까지 주셨다. 미시간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수님은 항상 나를 아껴주시며 많은 연주를 주신해주셨다. 또 학위 연주 때마다 따뜻한 우유한 잔을 꼭 준비해주시고 무대 뒤에서 연주 전에 기도해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1976년에는 우연히도 교수님의 사부님(미시간 공대 교수)의 제자와 사귀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부모님보다도 더 기뻐하시며 손수 결혼식에 오르간 반주를 자청해주셨고, 하객들이 멀리 다른 도시에서 많이 오는 바람에 결혼식이 한 시간이나 지연되었을 때는 기다리는 하객들을 위해 한 시간이나 축하 연주를 해주셨다. 1984년에 교수님과 함께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역사적인 오르간을 두루 연주하고 연구하는 투어를 한 것 또한 미시간 대학 생활의 진미였다. 교수님은 작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가장 오래 교수 생활을 하신 분으로(60년) 대학으로부터 훈장과 함께 축하 행사를 가지셨다.

앤아버 캠퍼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풍스러운 중앙 캠퍼스에는 수백 년 된 멋진 돌 건물들이 숲 사이마다 그 위풍을 뽐내고 있고, 캠퍼스 중앙에는 'Ann Arbor Musical Society'가 초청한 수많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연주회를 가지는 힐 오디토리엄(Hill Auditorium)이 있고, 그 옆에 높이 우뚝 솟은 버튼 타워(Burton Tower) 꼭대기에서 매시간마다 온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캐럴론(Carillon) 종소리는 캠퍼스를 거닐든, 잔디에 누워 책을 보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즐기며 낭만을 키우는 미시간의 명물이다. 음악대학은 북쪽 캠퍼스에 위치해 있었는데, 울창한 숲과 언덕, 아름다운 연못에 둘러싸여 있었다.



메이슨 교수와 유럽 연주 여행 중 니스에서(1984)

미시간 대학에서의 첫해는 오직 학교와 연습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살던, 내 생애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절이다. 덕분에 성적이 좋아 미시간 대학 총장 공관에 초청되어 당시 미국에서 저명한 풋볼 코치였던 미시간 대학 코치 보 센벡클러와 풋볼 선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풋볼 구경을 하지 못했던 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참석한 것이었다. 나중에 미국 친구들이 사인도 안 받았느냐며 놀라기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몇 달 후 음대의 저명한 음악사 교수인 왓킨스(Watkins)가 수업 시간에 “풋볼 게임이 있는 토요일에 게임 가자니까 무슨 게임이냐고 물어 보는 한심한 친구가 앤아버에 살다니” 하며 흥분하는 것을 보고 미시간 풋볼의 열기를 알게 되었고, 나도 물론 열렬한 팬이 되고 말았다.

여름 학기에는 기숙사가 문을 닫아 중앙 캠퍼스에 있는 마서 쿡 (Martha Cook)이라는 가장 오래된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담쟁

이덩굴이 우거지고 정원이 환상적인 기숙사였다. 식사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가야 할 만큼 규율이 엄했는데 그때의 생활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다. 미시간 대학에서 석사·박사를 하며 많은 연주를 하였는데 그 중에 힐 오디토리엄에서 네 번의 학위 연주를 하게 되었다. 미시간대 강당에 설치된, 스톱이 100여 개인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익히기 위하여 학생들은 주로 밤중에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낮에는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가며 연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힐 오디토리엄에서 지낸 수많은 연습 시간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몇 년 전 미시간 대학의 초청으로 힐 오디토리엄에서 독주회를 가졌을 때 역시 새벽 3시까지 연습하며 옛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1987년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한국판 메이슨 교수를 꿈꾸며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파이프 오르간계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했다. 이제 한국 오르간계는 내가 공부할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하여, 세계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 많은 제자들이 입상하고 있고, 덕분에 많은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약도 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35년 전 폴브라이트에서 내게 유학의 길을 열어준 것이 계기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한국의 음악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자 다짐해본다.

언어학 학위를 받은 국어학도: 두 학문의 통섭*

이상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언어학



서울대 어학연구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정에서 4년 반(1969~1973) 동안 조교로 근무하며 강의도 하던 시기에 미국 평화봉사단 영어 강사들이 옆에 있어 영어로 입을 떼는 습기를 키우는 기회가 있었다. 또 주변의 영어과 교수님들이 국어학도 미국에서 언어학 공부를 하고 와서 그 이론적 기반 위에서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나를 충동해주셨다. 우선 토플 600점 이상을 받고 폴브라이트 장학금 시험을 보아 선발되면 당시 유학 시험을 봐야 하는 일도 건너뛰고 4~5년의 미국 유학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고생하지 않고 학위 코스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풋내기 박사 과정생에게 대학교에서 개론을 가르칠 시간강사 자

※ 통합은 이질적 요소의 단순한 물리적 합치고(예: 연합군),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며(예: 핵융합), 통섭은 생물학적 합침으로 새 주제가 탄생함이 마치 유전자가 섞인 자손이 태어남과 흡사하다 한다.

리는 있었으나 전임 자리는 없었다. 중·고교에 교직을 얻어 몇 년을 보내며 학위 논문까지 쓰려면 5년 이상 더 걸리는 데다 사실 제출할 분위기가 될지도 확실치 않았다. 지도교수님 등 구제도의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할 선배님들이 미처 받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어차피 5년 정도 유학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통 국문학과 학생이 꼭 갈 필요도 없고 갈 엄두조차 안 낼 유학이라는 행로를 택하게 된 것이었다.

두어 달 시험 준비 노력 끝에 당시 보통 인문계보다 유독 50점이 높은 언어학 전공자에 대한 하한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한국학을 하던 학생이 미국의 신학문을 배워 귀국 후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유학생 선발 인터뷰에서 대환영을 받아, 풀브라이트 주 후보(principal candidate)로 뽑혔다. 당시 인터뷰를 하셨던 고려대 김치규(=김종길 사인), 이화여대 김옥자 교수님 등 모두 호의적으로 거들어주셔서 본인은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긍정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학연구소에 한 번 강연을 오셨던 일리노이대 김진우 교수님은 국어학 전공 학생이 유학 오기를 고대하시고 계셨던 터라 그리로 행선지를 최종 선택하면서 조교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부자가 된 줄로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III인가 하는 국무부 관련 기관에서 미국 내의 학교와 연락이 닿아 이중 소득을 다 알고 있었다. 풀브라이트 위원단에서 돈을 더 받게 된 만큼은 이중 취득(double dipping)이 안 되니 부(alternate) 후보에게 내려줘야(drop down)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 쓰는 용어들이 신기해 지금도 기억한다. 내 덕에 생긴 그 돈은 같이 뽑혔던 서울대 영문학과 선배 교수 등 부후보들이 받아 쓰게 되었다.

30세 직전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책임감도 컸고 허송세월할 시간

이 없어 성심껏 공부한 결과, 성적은 계속 A로만 나왔다. 특히 2년차에는 한 학과에 하나씩만 나오는 'University Fellowship'을 받게 되어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또 안 쓰고도 굳게 되었다. 게다가 3~4년차에도 Harvard-Yenching Fellowship을 2년간 받았다.

원래 폴브라이트 후보로 뽑힌 뒤 입학 허가를 세 군데쯤 얻을 수 있게 수속을 했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도 허가가 나왔으나 당시 언어학과 랭킹은 일리노이대가 하버드대 못지않았으니(뒤에 허사가 되기는 했지만) 일리노이의 조교 장학금까지 포기하며 하버드대로 갈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하는 한국어에 관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 책이 가장 많은 하버드 옌칭 도서관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버드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생겼다. 역시 국어학도가 미국에서 일반 언어학을 연구해 한국학에 기여해보겠다는 생각을 기특하게 여긴 하버드 심사위원들의 판단으로 1975년 가을부터 펠로십을 받게 되었다. 결국 폴브라이트 위원단은 첫해의 대부분만 지급한 뒤,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더 지원할 일이 없게 되었다. 이 무렵 장학금들을 연속해 받은 덕에 유학생들 중에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복을 누렸던 인생의 개화기였다.

하지만 하버드대로 가기 위해 석사와 박사 과정 과목을 2년 안에 신속히 다 마치려고, 각 학기 중 과목을 하나씩 더 들었고 여름 학기 동안에도 몇 과목씩 수강하였다. 원래 유학 전인 1969~1973년 중 처음 2년 만에 국내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뒤 3년간 서울대 '신제 1기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러니 미국 유학은 박사 과정부터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당시 국내에도 언어학 혁명가 촛스키의 변형 문법 바람이 불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최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므로, 유학은 석



일리노이대의 한 축제, Ash Wednesday 무렵 Hash Wednesday라는 학생들 나름의 행사로서 삼삼오오 마리화나(hashish)를 피운 연기가 Quad(교정 중앙 광장)에 떠돌고 있다.

사 과정 기초부터 하는 것이 단계적이라 판단했다. 1973~1978년 중 석사·박사 과목을 2년 안에, 언어학 박사 학위 논문 준비를 다시 2년여간, 약 5년간 유학을 한 셈이다. 결국 국내 5년간 대학원에 더해 총 '10년간 대학원생' 노릇을 했던 셈이다. 이것이 나중에 정년 때 보니, 대학원생 기간은 다 빠져 근속 연수가 남들보다 10년이나 짧아진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다. 1973년 7월, 제10차 아시아학회를 파리의 소르본대에서 개최하였다. 한국분과가 처음 독립 개최된다는 사실을 당시 에드워드 라이트 단장에게 전하며 유럽을 경유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단장 본인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생애 첫 출국 시에 폴브라이트 장학금 덕분에 여비를 털 들이고 가서 최연소 학자로 참여하고, 대통령 하사금까지 받으며 처음으로 북한 학자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홍콩, 방콕, 카라치, 취리히를 거쳐 파리에서 학회를 하다가 런던, 브뤼셀,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를 거쳐 뉴욕으로 갔으니 이때 벌써 10개국이 된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소국의 싼 비행기를 찾아 타고 다녔던 이유도 있었다. 그 뒤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현재 60여 개국째 다니게 된 방랑 행각이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 37개국의 여행은 늑마에 독일에서 2년간 받은 Humboldt Fellowship 덕분이었다. 앞으로 100개국을 채워보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남은 나라들은 외진 후진국들이 많아 꽤 어려울 전망이다.

끝으로 미국 유학 기간 중 잊지 못할 일 하나를 덧붙인다.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연속 5일간 보는 자격시험은 아침 9시에 문제를 받아다가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제출하고 새 문제를 다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밤새 답안 논문 쓰느라 잘 톸도 없어, 정말 아침 하늘이 노랗게 보이도록 눈에 핏발이 섰던 경험은 안쓰러운 추억거리가 되었다. 학위 과정은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수련 기간이라고 흔히 정의하지만, 결국 무엇보다 인내심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생 중 맘껏 공부하며 보낸 그 시절이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보람된 시기가 아니었나 회상된다. 그리고 그 계기를 마련해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그 붉은 땅, 따뜻한 사람들

최영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영미 문학

1973년 8월, 유신 정국이 점점 그 강압의 도를 높여가던 그 여름, 김포 공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한껏 부푼 가슴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공식적으로 해외에 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미화 100달러였다. 여기에 마치 첩보원이라도 된 듯 은밀하게 백화점 옆 골목에 진을 치고 있던 달러 암매상 아주머니에게서 사들인 약간의 달러를 짐가방 밑바닥에 깊숙이 감추고, 또 아주 중요한 신분증명서—결핵 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대형 엑스레이 사진 원본 한 장—를 구겨질세라 옆구리에 끼고서 비행기를 탔다.

당시 풀브라이트 장학생 가운데 미국행이 초행인 사람들은 하와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3주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다. 호놀룰루 공항에서는 커다란 생수통에 가득 담긴 오렌지 주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 여덟 명 가운데 일곱 명은 함께 어울리면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면서 영화관에도 가고 와이키키 해안도 가고, 카우이 섬에서는 그곳 가정에 초대를 받아 산호섬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맛도 모르던 망고를 먹으면서 꿈같은 시간

을 보냈다. 살벌하던 서울 거리와 비교하면 하와이는 파라다이스였다.

8월 말이 되자 우리 일행은 미국 본토의 동서남북으로 각자 흩어졌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오클라호마시티에 내려 노먼의 대학촌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론 붉은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멀리 사마귀 모양의 석유 시추기들과 사일로만 이따금 눈에 띠는 작열하는 8월의 태양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곤 이따금씩 보이는 고속도로 위의 차들뿐이었다. 붉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오클라호마이니까 모두 미국 인디언들만 사는 곳은 아니지만 붉은 황토빛 흙이 마치 한하운 시인의 붉은 남도 땅을 연상시켰다. 최신식 기숙사에 짐을 풀고 영문학과 건물을 찾으니 피약별 아래에서 한참을 걸어가야만 했다. 그곳은 나의 상상 속에 나오는 미국이 아니었다.

9월 첫 학기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우선 우쭐거렸던 자만심이 문제였다. 강의가 별로 신통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노트 필기에선 명사와 동사는 기록이 되는데 조동사의 긍정과 부정은 기록이 빠졌다. 녹음기를 들고 가서 강의 녹음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시간만 더 허비할 따름이었다. 현대 영미 문학 시간에는 처음 듣는 사람과 책 이름 그리고 낯선 문학 용어와 이론들이 나를 압도했다. 첫 학기에 겨우 A학점을 받은 과목은 미국 학생들도 처음 수강한 'Old English'였다. 그것도 고대 영어를 현대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주된 시험이어서 달달 외운 덕에 나온 결과였다. 첫 학기를 지나고 나니 자만심은 폭 삶은 시금치처럼 형태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김포공항에 배웅 나왔던 사람들, 유학 간다고 떠벌렸던 일들이 후회막급이었다. 슬그머니 시침 떼고 되돌아갈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듬해 봄 학기가 시작되면서 심기일전하여 기운 차리고 공부하자며

마음을 다잡고 있던 차에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다. 허리 꼬리뼈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다. 시험을 앞두고 늘 하던 버릇 가운데 하나가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었다. 방 청소며, 책상 위 물건들을 잘 정리해야만 시험공부에 몰두할 수 있어서이다. 미국이라고 다를까. 주말에 방 안 대청소를 하면서 책상과 침대 매트리스를 무리하게 움직였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월요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거짓말처럼 걸을 수가 없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호스트 패밀리의 미시즈 크롤리에게 전화를 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앰볼런스에 실려 대학 병원으로 갔다. 이때도 내가 장장 6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도 꾸지 않았다. 대학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는 더 큰 대학 병원으로 보냈다. 그곳에 가서 입원을 하고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을 알 수 없는지, 근처에 있는 더 좋은 병원인 재향 군인 병원과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보내져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원인 불명. 시험 과목 세 개 모두 뒤로 미루고 병원 침대에 누워 보내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여기서 제대로 걸어나갈 것인가 아닌가. 이제는 학위를 마치고 갈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병원에 누워서 지낸 지 3주쯤인가 되었을 무렵부터 통증이 잦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왔다. 미국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내게 오는 문병객의 유형은 다양했다. 우선 학교촌에 살고 있는 유학생 가족들과 교포 가족 분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나이 든 퇴직 교사들. 마침 첫 학기에 초·중·고 퇴직 교사 모임에 한복을 차려입고 가서 한국을 소개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출국 전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관장하는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강하게 주입시킨 내용인즉슨 외국에 가면 한국인

은 모두가 외교관이라는 소명의식을 지니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분들에게 내 이야기가 전달된 모양이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찾아오셨다. 인디언 혈통이 섞인 교장 선생님은 내가 자신의 큰딸과 같은 연배라면서 집에서 구운 옥수수빵과 직접 돌을 깎아 만든 엄지손톱만 한 거북이 한 마리를 주셨다.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라면서, 아, 되돌아보니 참으로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덕분에 미국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구나, 미국 남부 지방의 따뜻하고 후한 인심 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내 주치의는 무테 안경을 낀 차가운 인상의 잘생긴 레지던트였다. 이 의사는 주로 이른 아침에 입원 환자들을 돌아보는데, 전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맛있게 잠이 들 무렵이면 회진을 왔다. 불과 몇 분 동안에 나의 증상을 설명하려고 밤새 머리를 쥐어짜며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했다. 통증이 뚝뚝하게, 또는 콧콧 쐤신다거나, 무지근하다거나, 근질근질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입원 생활은 미국의 한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내가 입원한 대학 병원은 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의 환자나 무료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었다. 점차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목발을 짚고 병원 복도며 환자 휴게실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아마도 당시 그 병원 환자 가운데 아시아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월남 여자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다리 수술을 받기로 한 결정을 모두가 알게 된 듯, 다음날 휴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 내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런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그 전날, 내가 탄 휠체어를 밀어주던 크롤리 부인이 복도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졸업한 지 2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던

두 중년 아주머니는 서로 껴안고 한참 회포를 풀고 나더니 드디어 나에게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 동창은 이 병원 방사선과 과장으로 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서는 우선 약물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부위는 허리의 꼬리뼈 근처로, 꼬리뼈 맨 끝에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뼈가 세 개 위치해 있는데 나의 경우는 그중 오른쪽 한 개의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곰팡이나 균이 자라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바로 내가 원하던 정답이었다. 그래서 수술 전날 퇴원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병실 청소부가 내 방에 들러서는 자기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면서, 수상한 거래를 제안했다. 그것은 하루에 1달러씩 지불하는 텔레비전 시청료를 반값에 시청할 수 있게 해주겠는데 우선 한 달 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흑인 청소부는 손톱깎이로 잠금 장치를 풀고서 우선 무료로 텔레비전을 틀어주었다. 텔레비전이 켜 있는가를 복도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불이 들어오는 단추를 자신이 썩고 있던 껌으로 막아버리면서, 김포인가 어디선가 군대에 있었다는 흑인 노인의 제안을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선 다음 날 예정에 없던 퇴원을 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병원은 정식 간호사보다는 자격이 의심스러운 보조 간호사들이 더 많았다. 그중 한 어린 여자 보조사가 하루는 환자일지를 화장실에 놓고 갔다. 그것을 들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She is complaning, she is complaning again, she is complaning.’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불평한다는 말의 철자가 틀려 있었다. 그렇다고 고쳐줄 수도 없었다. 또 하루는 모자를 쓴 수간호사가 순찰을 하던 중 내가 미

치 먹지 않은 약봉지를 보더니 혼잣말로 이게 아닌데 하고는 가져가버리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서는 목발을 짚고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따져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불평분자로 호가 난 것이 아닌가 싶다. 병원에 있으면서 주로 한 일이라고는 계속 각종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병원은 할머니나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내가 탄 휠체어를 엘리베이터 앞에 밀어다 놓으면 다음 사람이 나를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지하 엑스레이실로 내려보내고, 그러면 다시 누군가 와서 내가 들고 있는 쪽지를 보고서는 엑스레이실로 데려다 준다.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면 환자들의 식사를 담은 운반차를 밀고 가던 다른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앉은 내 무릎에 요구르트나 빵봉지를 놓아주고 간다. 이분들의 손길은 참으로 따스했다.

퇴원을 앞둔 무렵, 주치의가 레바논 의사로 바뀌었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의 검사 일련도의 치료가 아니라 아픈 부위의 조직 검사를 제안했고, 드디어 나의 병은 결핵균이 꼬리뼈에 침입해서 생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찌 보면 병원에서의 온갖 첨단 기술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을 이 레바논 출신 의사가 알아낸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그런데 미국에는 결핵균이 없어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잘 모른다고 하던가. 하여간 병원에서의 가나긴 오디세이를 마치고 돌아오니 때는 6월 중순 초여름, 온 천지에 노란 수선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가을 학기 내내 목발을 짚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다. 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은 스키 타다가 다리를 다친 것이냐고 물었다. 다행히 영문학과 건물은 3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같은 상황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미국에서 아픈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왔다. 그 액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엄청났다. 한미 교육위원단의 유재호 박사께서 지시하신 대로 IIE 사무실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고, 그 편지 한 장으로 이 청구서는 해결됐다. 나의 병원 룸메이트 세 사람은 모두 한, 두 주 지나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해야 했다. 타이테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애당초 그 기회조차 차단된 사람. 만감이 교차했다. 한 사회의 밑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무료 병동과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중 한 곳에서 풍요로운 미국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엿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남부의 따듯한 인심을 경험했다. 이 모두가 폴브라이트 장학금 덕택이 아니던가.

엘킨스파크 7845번지

한운성

서울대학교 교수 | 서양화



사람이 아무리 빼어나게 잘나고 인품이 드높다 해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처지가 원시인이나 진배없다. 공부야 각자 전공이 다르니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의식주만은 공통의 해결 과제요, 자기 집 울타리를 벗어나면 누구나 이것에 관한 한두 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갖게 마련이다.

동남아와 태평양 연안 쪽의 풀브라이트 학생들이 호놀룰루의 하와이 대학에 모여 한 달 가까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미국 본토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백일 된 갓난아기 기저귀 갈아주듯 미국 국무부에서 식후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돌봐주었으니 세상에 그렇게 팔자 늘어져본 적이 없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수수료 한 장씩을 챙긴 후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대학을 찾아 뿔뿔이 본토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 8월 어느 날, 나 역시 타일러 미술대학을 향하여 필라델피아행 비행

기에 몸을 실었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돌쟁이 혼자 걷는 위험과 외로움이 스펙터클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때는 1년 중 가장 더운 8월 말이요, 10여 년 만에 찾아온 미국의 혹서였다. 택시마저 스트라이크로 발이 묶였으니 온몸을 땀으로 목욕하면서 내 몸집만 한 트렁크 세 개를 메고 끌고 지하철을 서너 번 갈아타며 1시간 30분 만에 찾아낸 꿈에도 그리던 타일러 미술대학은, 학교는 아름다우나 기숙사에 내가 쓸 방이 없더라.

일주일 동안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음식을 받아먹으며 동결서식 하던 행각은 눈물겨워 생략하고, 2년 남짓 동안 내가 있을 집이 눈이 오면 꼭 크리스마스카드 같은 전원 풍경의 엘킨스 파크 기차 정거장 역전에 마련되었다. 3층짜리 이 저택은 미시즈 글래스너라는 70세 과부가 홀로 사는 집인데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대지가 흔들려 집 안의 모든 문쩌귀가 어긋나 제대로 닫히는 문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풍의 아름다운 집이었다. 내 방은 3층, 비둘기집 같은 다락방으로 가운데 싱글베드 하나, 양옆에 작은 책상, 옷 서랍이 달린 장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방을 구하기 전의 일주일 동안을 마룻바닥에서 담요 깔고 지새거나 군용 침대에서 새우잠 자던 나에게는 네모반듯한 침대만 해도 황홀 그 자체였다. 이제부터 70세의 외로운 과부 할머니를 눈 새카만 황색의 손자가 꼭듯이 모시게 된 것이다. 인사성 밝은 데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어른 공경법이니 청회색 눈빛의 이 할머니에겐 생활비 일부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생전 처음 노인 대접을 받게 됐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나에게도 학교 갈 때, 올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해도 그만큼 덜 외롭고 좋은데, 할머

나나 나나 매한가지로 불편한 게 있다면 부엌 쓰는 일이었다. 할머니께서 다 잡수시고 치운 뒤 “운성, 부엌은 이제 네 거야!(Unsung, kitchen is yours!)”라는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3층에서 “생큐” 하고 내려와 내 몫을 차려 먹기 시작하니, 할머니도 서둘러 끝내야 하고 나는 나대로 다락방에서 비스킷을 씹으며 주린 배를 달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네 외로운 할머니끼리 돌아가며 회식을 하는데 할머니가 대접하는 날이 돌아오면 내 부엌 차례는 배가 고프다 못해 그 고비를 넘겨 무감각해질 때였다. 그것도 요리 솜씨나 있으면 모를까, 매일 같이 꿀꿀이죽이나 끓여 먹는 신세에 부엌에서 흘러 올라오는 고기튀김 냄새를 다 맡고 나서 응접실에 왓자지껄 앉아 식후 홍차를 마시는 새하얀 머리의 할머니들 눈총을 받으며 빈 부엌에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할 때면 가히 처량하다 못해 신세타령이 절로 나왔다.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그날도 할머니들이 잔뜩 모여 있어 속으로 ‘오늘도 저녁 일찍 먹긴 글렀다’ 싶었는데 웬걸, 세수하고 나자 “운성, 저녁 식사 같이하지”라는 할머니의 외침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생큐”를 연발하고 내려갔다. 까맣고 누런빛의 아이가 대여섯의 하얗고 회색빛의 할머니에 둘러싸인 모습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방불케 했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 자리라고 생각되는 식탁 위에 놀랍게도 쌀밥에 젓가락이 대령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저녁에 끼니마다 밥을 해먹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러 따로 밥을 지어준 할머니의 애뜻한 마음씨에 감격한 나는 목이 메기까지 했으나 그 감격은 단지 나의 지나친 감상(感傷)이라는 사실이 곧 판명되었다. “운성, 젓가락으로 밥을 한 알씩 먹어봐줄 수 있겠니?” 주인 할머니의 간곡한 명령조 부탁으로 내가 다름 아닌 동물원의 원숭이 신세에 불

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격의 목땀은 구경거리가 된 원숭이의 목땀으로 뒤바뀌었다. 늘 저녁때 젓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내 모습이 희한하게 보여 친구들 앞에서 자랑삼아 그 모습을 소개하려는 할머니의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나의 신성한 저녁 식사는 할머니가 친구들을 위해 마련한 저녁 초대를 좀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디너쇼로 전략한 것이다. 나는 한 알씩 집어 먹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이왕에 구경거리가 될 바에야 철저해야겠다는 마음에 젓가락을 든 나의 손은 놀라운 속도와 기술을 발휘하였다. “저것 좀 봐, 놀랍지 않아?” 라는 감탄이 식탁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다. 밥을 한 알씩 먹으니 먹은 것 같지 않은 식사였다. 그 이후 나는 할머니의 저녁 초대를 매우 꺼리게 되었다.

김치 먹는 꼴을 보고 “너는 상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니?” 하며 괴이한 표정으로 물어보던 할머니, 된장을 끓여 먹는 날이면 장미 냄새 나는 향수를 집 안 곳곳에 뿌리던 할머니, 트럼프 놀이를 같이하고 싶은 날은 내가 설거지할 때쯤 텔레비전을 꺼놓고 기다리던 할머니, 그러던 할머니도 어느새 학업이 끝나 귀향 준비를 서두르는 내 눈치에 무척이나 섭섭했는지 출국 하루 전날, 마치 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딸네 집에 며칠 가 있겠다며 나보다 먼저 작은 트렁크를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이게 미국식 인사야” 하며 그 뚱뚱한 몸집으로 나를 살포시 껴안고는 청회색 눈망울에 맑은 물이 가득 고인 모습으로 작별을 고했다. 만국 공통의 언어인 인간의 깊은 정을 그도 속일 수는 없었나 보다. 그래서 나는 엘킨스 파크 7845번지를 떠나던 날, 빈집을 뒤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히 그리운 고국으로 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보여준 그 사려 깊은 처신 덕분에.

나의 유학기

박영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미국학·미국 문학

우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한미교육위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혜택을 받은 나로서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웠던 1974년에 처음 장학금을 받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공부했으며, 그때 헤밍웨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필립 영(Philip Young)의 과목을 두 개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학문 연구에 여러모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때 펜실베이니아 주는 쿼터 시스템(Quarter System)제였으며, 1년에 9과목 27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과 제2외국어 시험, 그리고 학위 논문(3학점)을 써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과 여비서의 이야기로는 펜실베이니아 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했다. 어학과 달리 문학의 경우는 Reading이 엄청 많다. 예를 들어 소설 과목의 경우 1학기 10주에 작가 10명에 작품 10권을 배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작가 한 명에 소설 한 권씩을 배우는 셈이다. 그러니 한 학기에 세 과목을 신청했다고 생각해보라. 거기에는 500 단위의 경우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이 없는 대신 한 과목에 페이퍼(Paper)를 네 개 써서 내야 한다. 또 페이퍼를 쓰려면 많은 참고서를 읽어야 한다. 그것도 한국과 같이 적당히 써내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1년 동안 하루도 12시 이전에 잔 일이 없다. 그리고 학기 말이면 모든 과목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2~3일은 밤을 새워야 한다.

그런데 종합시험이 장난이 아니다. 앵글로색슨 시(Anglo-Saxon Poetry)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네 분야로 나누어 한 분야에서 2~3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네 문제에 대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종합시험을 치르려면 셰익스피어를 포함해 시, 소설, 드라마, 비평 등 모든 장르의 영미 문학에 통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앵글로색슨 시에서 셰익스피어 이전까지가 제1분야, 셰익스피어에서 낭만주의까지가 제2분야, 낭만주의 이후에서 현대 영문학까지가 제3분야, 그리고 미국 문학이 제4분야가 된다. 학생에 따라서는 종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종합시험 준비 겸 수강 신청을 할 때 중세 영문학, 셰익스피어, 영문학 비평, 영미 소설, 영미 시, 현대 희곡 등을 골고루 신청했다.

식사는 기숙사에서 자취를 했다. 대학원생들은 기숙사에서도 자취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되어 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침 식사는 30초에 끝냈다. 어떻게 아침 식사를 30초에 끝내느냐고? 1년 동안 아침 식사는 날달걀 두 개와 우유 한 컵, 그리고 입가심으로 오렌지 주스 한 컵으로 때웠다. 따라서 학생 식당에는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다. 밥은 이틀에 한 번씩 지어 냉장고에 두고 데워 먹었다. 반찬은 하나도 없고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된장과 고추장이 없으니 소금으로 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물이 쓰다. 생각 끝에 토마토케첩을 풀어 쓴맛을 해결했다. 찌개거리는 고기와 양파 그리고 감자뿐이었다. 집에는 아

에 기숙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다.

1975년 봄에 베트남 정권이 호찌민에 의해 패망했다. 그러자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달려갔다. 이를 본 미국인 친구가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줄 터이니 귀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가족과 같이 죽어야지 나 혼자 살겠다고 미국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육영수 여사가 괴한의 흉탄에 쓰러진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김포공항을 떠나 다음 해 8월 20일에 여름 학기를 마치고 일주일 후인 8월 27일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행 한 번 하지 못했다. 2주 동안의 Term Break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Reading 양이 워낙 많아 다음 학기 교재를 사서 미리 읽어야만 했다.

두 번째는 1991년에 시니어 그랜트(Senior Grant)를 받아 존스홉킨스에서 한 학기 동안 두 과목을 신청하여 수강을 했다. 코스 워크(Course Work)도 아닌 시니어 그랜트를 받아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공부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마 하나의 기록이 아닐지 모르겠다. 굳이 존스홉킨스를 택한 것은 <Literature of Exhaustion>이라는 논문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불을 지핀 존 바스(John Barth)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필립 영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면, 존스홉킨스에서 바스를 만난 것은 내 학문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존스홉킨스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와는 달리 여유가 있었고 행복했다.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버지니아에 있는 제퍼슨 대통령 저택과, 워싱턴 D.C.에 있는 월슨 대통령 기념관도 방문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이 월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살다가 작고한 집을 생존 시 그대로 보존하는 50평 남짓한 일반 서민주택과 똑같은 옛날 우리나라

국민주택을 연상케 하는 소박한 목조 건물이었다. 정원도 없었으며 모양이나 설계가 이웃집들과 똑같았다. 그분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퇴임 대통령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제는 정년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열 시간 이상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그 어려운 불교 경전과 원효대사, 보조국사, 서산대사, 보우, 나옹, 한국 불교의 중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경허선사, 경봉스님, 그리고 염불선으로 유명한 청화스님 등 한국 고승들과, 달마대사 그리고 중국의 승창대사와 영가대사 등의 법문과 어록 및 선시 등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불교 교리에 관한 영시도 세 권을 썼다. 그런가 하면 《The Practical Glossary of Korean-English Buddhist Terms》를 탈고해 빠르면 금년 말에 책이 나올 예정이다. 사전의 부피는 700쪽 정도가 될 것 같다. 청화스님의 법어집과 한·영 불교 용어 사전은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판될 예정이다.

어쩌다 보니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아 쑥스러우나, 젊은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자신의 학문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선배로서 바란다. 근래 각 분야에서 인재 양성 이야기가 유행처럼 들려오는데, 한미교육위원단이야말로 대한민국 영재 양성의 효시인 동시에 요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말년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한미교육위원단에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폴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에 감사하며

이종승

충남대학교 교수 | 교육학



필자는 폴브라이트 장학금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창립 6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회고록을 출간한다기에 오래전 일들을 회상하며 짧은 글을 쓰려니 지난날의 여러 가지 추억이 주마등같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필자가 폴브라이트와 첫 번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2년에 박사 학위 과정(degree study) 장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필자는 안국동 소재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폴브라이트 위원단 사무실도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비원 근처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운 좋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그해 개정된 병역법에 “징집 면제 처분을 받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국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과 몇 개월이 모자라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합격된 것이 허사가 되었다. 다음 해인

1973년에 다시 응시하였는데 이번에도 운 좋게 합격되어 에드워드 라이트 단장님으로부터 축하를 받은 기억이 난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떠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사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나라 대다수 가정 형편이 대개 다 그랬듯이 필자의 집안 경제 사정도 매우 열악하여 해외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행운으로 인해 미국 유학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의 서울대 스승이신 정범모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잘 써주신 덕분에 시카고 대학에서는 등록금 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비와 여행 경비, 의료보험료 등은 폴브라이트 위원단에서 지원받아 막대한 학자금이 소요되는 명문 사학 시카고대에서 꿈같은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약 60명의 폴브라이트 장학생들은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하와이 대학에 모여 약 3주간 미국의 문화와 대학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하와이 대학에서 준비 교육을 받는 동안 생전 처음 뷔페 음식을 먹어본 것을 비롯하여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고, 대학 캠퍼스와 와이키키 해변에서 청춘 남녀들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보고 문화적 쇼크를 받았던 것 등이 잊그제 일처럼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여러 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장차 내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약간의 긴장되고 걱정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 설계를 하던 그때 그 시절이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시카고 대학은 쿼터제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한 학기가 빨리 지나간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1년간 지급되고 이 후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만 장학금 수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 학기마다 수강 과목과 학업 성적을 IIE라고 하는 풀브라이트 장학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였으나 피평가자 신분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력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여하튼 필자는 시카고대 재학 4년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것이다.

어느 해인가, 미국 중서부 소재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장학생들이 시카고 시내에서 모여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풀브라이트 의원은 미국 사람치고는 키가 작은 편으로 시골의 인상 좋은 할아버지 모습이었다. 아칸소 대학 총장을 지내고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거쳐 오랫동안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풀브라이트 위원단과 필자의 두 번째 인연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인 1993년에 'Senior Academic Research'의 수혜자로 선정되면서 다시 맺어졌다. Senior Academic Research는 대학교수나 연구 기관의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비학위 과정 연구를 통하여 전문 지식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아이오와 대학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지적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Fulbright Scholar는 대접해주는 분위기였다. 옛날 유학생의 기분으로 돌아가 관심 있는 강의도 수강하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뒤적이며 공부하는 재미를 다시 맛보았다.

Senior Academic Research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나 미국 체재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여 필자의 전공 분야와 밀접히 관련 있는 ACT(American College Testing)에서 정규 급여를 받으며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체재 연장을 하는 과정에 당시 부단장 업무를 보던 심재옥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ACT는 아이오와대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 1년간 연구교수로 일한 경험은 필자의 학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명 학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맺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우리가 살던 아이오와시티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작은 전원도시이기 때문에 치안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안전한 곳이었고,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나 여행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나가도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이어지는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해주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자동차 여행을 많이 했는데 동쪽으로는 뉴욕까지, 서쪽으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까지, 남쪽으로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미네소타 등 사방으로 여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족 간 많은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애들은 각자 자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였다고 본다. 오지 마을 민박, 가을 페스티벌, 눈썰매 타기, 낚시, 골프, 초원과 숲 속에서의 야영 등등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즐기던 그때가 우리 가정의 가장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뒤돌아보면 필자는 폴브라이트 위원단으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나라 각 분야의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에 폴브라이트가

크게 기여한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류 사업이 더욱 강화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자도 미력하나마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한미교육위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로렌스의 추억

서동희
건국대학교 교수 | 세라믹아트



1975년 7월 15일 미국 캔자스 주 로렌스에 소재하는 캔자스 대학 내에 풀브라이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미국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시아, 유럽, 남미 등 각지에서 풀브라이트로 선발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영어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첫 외국 유학의 기회를 가진 나로서는 인상 깊은 시작이었다.

또한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Host Family Program)을 통해 라이스(Rice)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결교회 교인이었는데 일요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데리러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때로는 그 집에 가서 다른 외국 학생들과 점심 식사도 같이하였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나에게 미국인 가정에 초대받는 것은 낯선 미국 생활의 큰 기쁨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각자 자기들이 입학하게 된 학교로 흩어져도

나는 그대로 로렌스에 남아서 캔자스 대학 대학원에 입학 등교하게 되었다. 호스트 패밀리도 그대로 같은 라이스 씨 내외 가족이어서 2년의 석사 학위 기간 그리고 귀국해서 20여 년간 교류가 있었던 것은 나의 미국 생활에 중요한 추억이었다.

또 지도교수인 윌리엄 브래커(William Bracker) 교수는 학교 행사, 전시회 관람 등을 위해 학생들을 데리고 한 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캔자스시티를 방문하곤 하였다. 이때 외국 학생인 나와 미국 학생들이 동행하였는데 광활한 미국 중부 대륙을 도시에서 도시로 운전하여 방문하는 것은 신나는 여행이었다. 캔자스 대학의 날엔 캔자스시티에서 캔자스 대학을 홍보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도교수와 몇몇 학생들이 휴대용 도자기 라쿠가마와 장비를 싣고 나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준비한 기물을 시유, 소성해서 보여준 일은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일 중 하나였다. 캔자스대 홍보를 위해 준비한 악대 연주, 도서 전시, 무용수의 춤, 기타 전시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후 학과장으로부터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받고 흐뭇해했던 감정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끝으로, 2년의 석사 과정을 보여주는 졸업전을 교내 학생회관 홀(Hall)에서 갖게 되었다. 교회 친구들이 펀치(punch), 케이크, 쿠키 등을 마련하였다. 긴 다과 테이블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센터 중앙 홀에 그간 만든 작품을 전시하였다. 외국인 전시회에 누가 올까 했지만 뜻밖에도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특히 조각 담당 교수인 엘덴 테프트(Elden Tefft)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셔와 관람을 하셔서 더욱 감사하였다.

졸업전 준비 과정에서 추억은 많지만 한 가지 떠올리자면 나의 소금

유 소성이었다. 열심히 만들고 구운 작업을 보느라고 가마 문을 열면 소금 유약의 색상인 오렌지 필(Orange peel)이라고도 하는 화려한 오렌지 계열, 옐로, 브라운 등의 오브제(object)가 눈에 가득할 때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을 여는 듯한 기대와 호기심, 열었을 때의 황홀감은 더욱 잊혀지지 않는 체험이었다.

또한 미국여학사협회(AAUW) 장학금도 동시에 받아 캔자스 주, 오클라호마 주, 텍사스 주 등 인근 지역의 AAUW 브랜치(Branch)의 초대로 나의 작업 활동을 소개하는 방문 여행을 통해 여러 분야의 AAUW 회원들을 만난 경험은 나의 미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즐거운 일이었다. 위와 같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예일 유학 시절 회고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 | 법학



1. 찾아온 유학의 기회

1974년 가을, 나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에드워드 라이트 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서 면담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판사로 근무 중이던 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지원하여 선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서울 사무실에 와달라고 하니 일이 잘된 것 같아 가슴이 설레었다.

1972년 법무관 재직 시 나는 미국 델러스의 SMU(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열린 국제법 하계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짧은 미국 방문 경험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법 관계 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벌이는 날카로운 논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좀 더 넓은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었고,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남들이 화려하다고 하는 판검사직에 안주

하기보다 더 많은 배움의 길을 찾아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미국의 여러 로스쿨에 지원하였으나 입학 허가를 보내온 학교에서는 수업료 면제 정도의 장학금 혜택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1973년 3월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우선 판사로 임관했다. 그리고 좀 더 넉넉한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찾아 풀브라이트 장학생 모집에 응모하였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기대를 가지고 풀브라이트 사무실을 찾았다. 라이트 단장은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직 판사인 내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으며, 판사직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지, 또 유학을 마치고 나면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칠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라이트 단장에게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향후 가르치기도 하고, 판사직도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무원의 휴직은 1년만 허용하고 있어서 미국 유학을 하려면 어차피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얼마 후 나는 판사직 사임 조건부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고, 이로부터 내 인생의 향로가 바뀌게 되었다. 오랫동안 힘들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판사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저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유학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유학을 떠나기까지는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에 법무관 시절에 알게 된 김영무 선배가 설립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변호사 실무 업무를 경험하였다.

2. 예일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다

미국의 예일대 로스쿨로 유학길에 오른 것은 1975년 7월 말이었다.

마침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이신 홍기창 선배와 동행이었다. 우리는 함께 팬암(PanAm) 비행기에 오르면서 각자 뜻한바 꿈을 이루자고 굳게 다짐하였다. 그날 비행기에서 나는 우선 담배부터 끊기로 홍 선배와 굳게 약속했으나, LA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는 사건이 생겨 안전부절못하다가 금연 실행은 하루도 못 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예일 대학은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 있다. 우선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 내린 나는 뉴욕에서 서울고 동기 동창 두 사람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였다. 당시 뉴욕에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고 뉴욕의 설계사무실에서 일하던 이견영 박사(소설가, 건설부 차관, 중부대학 총장 역임)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김재욱 박사(서울대 의대 졸업)가 있었다. 이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미국 생활에 관한 조언도 들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친절하게도 차를 몰고 뉴헤이븐까지 나를 안내 해주었다. 호텔에 도착하여 수속을 하고, 가볍게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김재욱 박사가 호텔 종업원에게 주변에 맥도널드 햄버거집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종업원은 ‘맥도널드’란 말을 계속 알아듣지를 못했다. 한참 동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다가, 종업원이 감을 잡고 “오, 맥다-날드”라고 외치면서 햄버거집을 알려주었다. 영어 발음에 따라 의사소통에 얼마나 어려움이 따르는지를 알게 된 첫 해프닝이었다.

내가 살게 된 집은 프로스펙트 애버뉴에 있는 화이트 홀(White Hall)의 투베드룸(Two Bed Room) 아파트였다. 월세가 200달러나 되었다. 우리 식구는 아내와 장녀 지영이 세 식구였으므로 침실 두 개의 아파트가 필요했다. 그때 생활비조로 받은 장학금이 월 382달러였으니 가처분 소득의 반 이상을 집세로 물어야 할 입장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출국 시 1인당 환전할 수 있는 한도를 200달러로 제한했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송금을 허용하지 않았다. 집세를 내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82달러밖에 남지 않으니, 필수적인 식료품대로 매주 20달러 정도 지출해야 하므로 근검절약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돈을 털어 급한 대로 흑백텔레비전과 타이프라이터를 샀다.

첫 학기가 지난 후부터 나의 경제 사정은 크게 호전되었다. 나는 먼저 온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예일 로스쿨의 Associate Dean을 찾아갔다. 그리고 나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한국의 엄격한 외환 관리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Student Loan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언제쯤 외환 규제가 완화되어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솔직히 정부의 방침이므로 전혀 예상할 수 없노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Associate Dean은 흔쾌히 매 학기 및 여름방학 기간에 각 2,500달러 한도에서 Student Loan을 활용할 수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만큼 쓰라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나아가 Student Loan 자체가 바로 나처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나는 매 학기 2,000달러를 빌려 쓰기로 하고, 이 돈으로 먼저 700달러에 중고차를 한 대 샀다. 그리고 서울대 미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장학금으로 프랑스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나와 결혼하는 바람에 주저 없이 포기한 아내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싶었다. 아내는 코네티컷 주립대에 파트타임으로 등록하고, 또 예일대 미술대학에서도 Special Student로 판화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예일의 대학원 과정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모두 합하여 열명도 채 안 되었다. 화이트 홀에는 정중욱 박사(정치학과,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역임) 부부와 유성은 박사(화학과, 대덕화학연구소 근무)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이들은 우리 식구가 정착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Public Health를 전공한 신영수 박사(현 서울대 의대 교수), 의대에 홍성일 박사(세브란스 의대 졸업), 공대에 이일항 박사(인하대 교수), 경영대에 박재하 박사(모토롤라 부회장 역임) 등이 있었다. 정 박사는 박사 학위 과정을 끝내고, 예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장 연장자로 유학생들의 리더 역할을 하며 후배 유학생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토요일마다 모여 테니스도 하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들고 와서 가족들 모두 즐겁게 회식을 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여가를 즐겼던 기억이 새롭다.

예일에 있는 동안, 우리 유학생들은 근교에 정착한 선배와 교포들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민병훈 선생(건축가) 부부, 오탈희 박사(예일대 의대 교수), 이홍만 선배(당시 한인회장, 사업, 임용성 박사(Uni Royal 근무), 박병운 선생 부부, 손평식 선생 부부 등은 가끔 저녁 초대도 해주시고 크리스마스이브에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당시 고광림·전혜성 박사 부부는 동암연구소(East Rock Institute)를 설립 운영하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미국 사회와 교포 자녀들에게 알리는 데도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Post Doc을 하던 강제모 박사(Princeton BioMeditech Corporation 창업 운영) 부부와 정성기 박사(포항공대 총장 역임) 부부와의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때 알게 된 많은 분들과는 지금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일에 유학 중일 때 빼놓을 수 없는 일화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내 차는 캐나다에서 온 클래스메이트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은 빨간색 도요타 왜건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차를 운전하려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자동차 기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정신이 멍해지면서 전혀 운전할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한국에서 판사로 재직할 당시 현직 프리미엄(?)으로 충분한 주행 경험도 없이 너무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탓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한참 동안 헤매다가 겨우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다 얼마 안 가서 엉뚱한 곳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보험금으로 40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망가진 곳을 대충 수리하고도 돈이 남았다. 그 일이 있는 후 유학생들 사이에선 누가 자기 차를 받아주지 않나 하고 농담을 주고받던 일이 생각난다.

결국 나는 먼저 예일에 온 친구 신영수 박사에게 도움을 청해, 처음부터 다시 운전 연습을 하였다. 신 박사로부터 언덕에서 출발하는 방법도 배우고 주행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야, 코네티컷 주 운전면허를 받았다.

어느 정도 운전애 자신이 붙게 된 뒤에야 나는 하트퍼드에서 개최된 한인 학생 가족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고속도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목적지 주소를 사전에 확보해두지 않은 채 나는 신영수 박사 뒤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문제는 하트퍼드 인터체인지 부근에 이르러 출구(Exit)를 나갈 때 생기고 말았다. 신 박사도 초행길이라 미리 신호를 넣지 못하고 갑자기 여러 개의 차선을 한번에 바꾸어 출구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뒤를 따라가던 나는 크게 당황했다. 목적지의 주소를 모르는 나도 급히 차선을 바꾸려다가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급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뒤에서 오던 운전자들의 배려로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아내와 나는 평생 그때의 아찔했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이듬해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신학대학 기숙사로 이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딸 서영을 낳게 되어 아내와 나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다. 그해

가을, 나는 또 사고를 내고 말았다. 두 아이를 뒷좌석에 앉히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이들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정문을 순간적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불과 시속 15마일 정도의 속도였음에도 정문은 넘어지고 나의 차는 폐차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소꿉장난 같은 유학생 생활에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 우리 생활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둘째를 출산한 즈음해서 장모님이 미국까지 와주셨다. 그리고 산후 3개월 정도 우리를 돕고 아이를 돌보아주셨다. 장모님은 귀국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시고 넌지시 둘째를 한국으로 데려가 대신 키워주면 어떻겠느냐는 의향을 말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차마 젓먹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아이 키우랴 공부하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함께 유학 중이던 홍성일 박사 부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서영이의 베이비시팅(Baby-sitting)을 부탁드리면 미시즈 홍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친자식처럼 서영을 돌보아주셨다. 사례비를 드리려 해도 받지 않으셨다. 20년이 지난 후, 수소문 끝에 1997년 우리는 홍 박사 부부를 뉴욕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뉴헤이븐 유치원 동기생인 홍 박사의 둘째 아들 민기와 우리 큰딸 지영은 이때 다시 만나서 이듬해 결혼하게 되었으니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예일에 유학 중일 때 나는 분에 넘치게도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76년 석사 과정이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았을 때, 정종욱 선배가 함께 골프를 치자고 나를 유혹했던 것이다. 예일 대학의 골프장은 미국에서 톱(top) 5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프라이빗(Private) 클럽인데, 학생들에게는 당시 그린피가 2달러였다. 정 선배는 서울에서 골프를 배우려면 큰돈을 들여야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 골프를 하면

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 선배는 고맙게도 재미 교포인 홍성희 박사로 부터 중고 골프채를 빌리고 골프화를 사주면서 나를 예일 골프장으로 안내하였다. 당시 나는 실내 체육관에서 재미 삼아 두어 번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 스윙만 해보았을 뿐이었다.

나의 첫 라운딩에는 신영수 박사도 함께했다. 그런데 이들이 타당 쿼터(25센트)를 걸고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첫 라운딩 때부터 내기를 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날 나의 성적은 140타를 넘었고, 신 박사는 110타, 정 박사는 115타 정도를 친 것 같다. 푸른 초원에서의 첫 라운딩은 큰 즐거움을 주었다. 이후 우리는 매주 1회 정도 함께 골프를 치며, 머리도 식히고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기초가 없이 필드로 바로 나가서 작은 돈이었지만 내기까지 걸고 운동을 한 탓인지, 100타 아래로 치는 데 2년 이상이나 걸렸다. 지금도 나는 내기를 즐기는 편인데, 기본이 안 된 스윙 자세와 부정확한 샷 때문에 골프 게임에서 친구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다.

3. 나의 젊음을 학업에 묻고

서울을 떠날 때 나는 한국에서 어설픈 공부한 실력으로 무사히 미국의 그라듀에이트 프로그램(Graduate Program, 석사·박사 과정인 LL.M.과 J.S.D.과정. 미국 로스쿨의 일반 정규 학위 과정은 JD, Juris Doctor 과정인데 3년이 소요되며 JD 학위를 수여받게 되고, 그 후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먼저 예일 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신용식 변호사 등 선배들로부터 LL.M.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잘못하면 낙제할 위험도 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75년 가을 첫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행히 나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약 3주간 ‘Introduction to American Laws’ Program’을 거칠 수 있었다. 여기서 미국 법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았다. 그때 함께 교육을 받게 된 법조인은 재조에서 1년간 미국 법 연구차 파견된 당시 이재후(현 김앤장 대표), 정만조, 진성규 판사 세 분과 검찰에서는 신창언(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경한(전 법무부 장관) 두 분 검사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외무부에 근무하던 이상면 박사(현재 서울대 법대 국제법 교수)가 하버드 로스쿨에 가기 전에, 또 당시 서울대 법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예일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되어 있던 조대연 변호사(현재 김앤장 근무) 등이 모두 함께 예비 교육을 받았다. 미국 법에 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던 우리들에게 이 예비 교육은 큰 도움이 되었다.

유학 시절 첫해에는 영어 실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무엇보다 큰 짐이었다. 첫 학기에 막 강의가 시작되어 2주째쯤 되었을 때 Academic Advisor인 마이클 라이스먼(Michael Reisman) 교수가 갑자기 나를 보자고 하였다. 라이스먼 교수는 나에게 로스쿨 학장(Dean)을 만나지 않았느냐면서, 학장으로부터 한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이번 학기에 랭귀지 코스를 별도로 택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빨리 랭귀지 코스에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라이스먼 교수는 나에게 한국에서 로스쿨에 온 유학생이 또 있느냐 묻고, 또 그 학생의 영어 실력은 나와 비교하여 어떠한 것이었다. 함께 유학 중인 조대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영어 원서를 많이 읽어서 영어에는 꽤 자신을 갖고 있던 차에, 아마도 학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영어 원서 한 권 제대로 독파한 적이 없는 나보다 조 변호사의 영어 실력이 당연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때 수강 중인 Tort, Contract, International Law와 Corporate Finance 등 네 과목을 선택하여 이들 수업도 따라가기가 벅차며, 또 이런 강의를 수강하는 것 자체가 영어 공부를 겸하는 것인데, 별도로 랭귀지 코스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랭귀지 코스까지 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 LL.M. 과정 첫 학기에 낙제할지도 모르겠다고 항변하였다. 한참 생각하던 라이스먼 교수는, 타협안으로 나에게 랩(Lab)에 가서 테스트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자며 제안하였고, 나도 그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어, 결국 랩에 가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분야는 작문 시험이었다. 우리나라에 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을 쓰라는 문제였는데, 결과는 형편없는 내 작문 실력을 확실하게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이스먼 교수도 다른 분야는 괜찮으니 작문 수업만 별도로 받으라고 하였다.

나는 매주 1회 방과 후 두 시간씩 별도의 작문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당시 단락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Topic Idea를 어떻게 전개하며, 또 다른 단락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작문 수업은 나에게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유학을 준비할 때 나의 당초 계획은 외자도입법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에 있던 김찬진 검사가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에서 외자도입법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경제기획원의 외자 도입 심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기 몇 달 전 법대 4년 선배인 김찬진 박사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선배로서 조언과 지도를 부탁했다. 김 박사는 나에게 좁은 나라에서 비

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로 박사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대신 증권법을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었고, 남덕우 재무장관은 기업공개촉진법 및 자본시장육성법 등 특별 입법을 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하는 일에 경제정책의 Top Priority를 두고 있었다. 나는 김찬진 박사가 조언한 분야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여 증권법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해나갔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이었다. 예일에서는 LL.M.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다음 해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각자 ‘프로스펙터스(Prospectus)’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로부터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이때 한국의 증권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프로스펙터스를 작성하였다. 프로스펙터스에는 “한국의 증권법을 미국·일본의 증권 시장 규제와 비교 연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로버트 C. 클라크(Robert C. Clark) 교수(당시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젊은 엘리트 부교수로, 후에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 역임)를 찾아갔다. 나는 클라크 교수로부터 첫 학기에 불법 행위(Tort) 과목을 수강하면서 그의 강의 방법과 내용에 큰 흥미를 갖고 향후 나의 지도교수로 여러 면에서 최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프로스펙터스를 일별하고 난 클라크 교수는 “You are too ambitious!”라며 놀라워했다. 내가 작성한 프로스펙터스의 소주제 하나 하나가 각각 박사 학위 논문감으로 충분한데, 그것들을 모두 담은 주제는 너무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법과대학에 증권법 강좌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증권법을 연구한 법학자나 법조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였다. 그

야말로 황무지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증권법 강의는 2학기에만 개설되어 있어 나는 첫 학기에 유사 강좌인 Corporate Finance를 선택하였는데 이 강의를 통하여 증권법이 회사법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 증권법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회사법 강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클라크 교수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인으로 처음 증권법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전체를 넓게 연구하고,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클라크 교수는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몇 가지 코멘트를 한 후에 박사 과정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는 나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했다.

예일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워서, 절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특히, 타이핑까지 배워서 나의 페이퍼를 열심히 쳐주고, 모든 면에서 헌신적으로 내조를 해준 아내 덕분에 평일에는 매일 아침 8시경부터 저녁 12시경까지 집과 도서관을 기계처럼 오갔다.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여, 시험 때에도 친구가 찾아오면 거절을 못하던 나였지만, 예일에서는 공부에 방해받을 일이 없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나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학업 성과도 급격히 상승하여 2학기엔 전 과목 Honor를 받았다. 1976년 5월에 석사 학위(LL.M.)를 취득하고, 1977년 11월경에 박사 학위 논문도 완성할 수 있었다. 클라크 교수는 나의 학위 논문을 Publish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격려도 해주었다. (참고로, 나의 학위 논문은 1983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와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간에 영문으로 출판된 첫 작품이 되었고, 1987년 번역본에 약간의 보안을 거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증권거래법》으로 출판되었다.)

4. 뉴욕 등지에서 실무 경험을

학위 논문을 쓰면서, 나는 당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진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증권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 증권법은 여러 면에서 보완·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분야를 처음 전공한 사람으로서 귀국하면 증권법의 개정과 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상아탑에서 이론만 공부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증권 시장의 실제와 규제 실무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지도교수 중 한 분인 버크 마셜(Burke Marshall, 케네디 정부에서 법무차관 역임) 교수와 상의하여 미국연방증권관리위원회(USSEC)와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하였다.

마셜 교수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가 없고, 외국인 옵저버(Foreign Observer)로 무보수 트레이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우리나라 재무부 고위 관리의 추천이 있어야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재무부 이재국에 근무하던 이현재 과장(서울대 법대 1년 선배, 재정부 총리 역임)에게 부탁하여, 당시 이용만 재경차관보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1978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USSEC에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곧이어 4월부터 5월 초까지는 마셜 교수의 알선으로 아메리카증권거래소(AMEX)에서 증권 거래 실무를 잠시 엿볼 기회도 가졌다.

1978년 4월에는 뉴욕으로 이사했다. AMEX에서의 연수를 마친 후에는 당시 국제 거래로 유명하였던 쿠티트 브러더스(Coudert Brothers)에서 변호사 실무를 배울 기회도 있었다. 나는 동아시아 법률자문팀(East

Asia Practice Group)에 소속되었는데, 일본의 NEC, JAL 등 대기업들과 한국의 대기업들 몇 군데가 쿠더트의 고객이었다. 그곳에 근무하면서 이들 고객들의 다양한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중한 실무 경험을 갖게 되었다. 뉴욕에 있는 동안 나는 1980년 2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아내도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미술 석사 학위(MFA)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1980년 10월, 나는 5년여에 걸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쿠더트는 고맙게도 내가 귀국하는 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동 지사를 돌러가도록 출장 명령을 내주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했는데, 경험 부족과 무지 탓으로 많은 법률 문제에 봉착하여 고생하고 있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 가족은 유럽에 들러 브뤼셀에 있던 친구 김선옥 박사(당시 현지 대사관 경협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가족과 오랜만에 만났다. 처음 보는 유럽 각국의 도시와 문화는 고유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고 신생 미국의 것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브뤼셀에서 출발한 우리는 주마간산식으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나코 등지를 여행했다.

5. 폴브라이트에 감사하며

누구에게나 유학 생활은 힘든 시간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언어 장애에 시달리고, 더욱이 객지 생활이 아닌가? 매일 학업에 쫓기며 허덕였던 기억밖에 없지만, 지나고 보니 그래도 일생에서 가장 알차게 꿈을 키우며 보낸 소중한 시기였다. 이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되돌아가보고 싶다. 당시 내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바라던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달리 없었을 것이다. 당시 대개의 우리 유학생들이 고학을 하며 공부한 데 비하면 폴브라이트 덕분에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행운이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었기에, 폴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하여, 나는 평생 감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제9대 동문회장의 회고

강성학
고려대학교 교수 | 정치학



2004년 말 운명의 주사위가 묘하게 돌더니 전혀 예기치 못했고, 또 전혀 준비도 안 된 나에게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이 갑자기 주어졌다. 당시 나는 오랜만에 안식년을 앞두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그동안 조금씩 준비해온 저서라도 한 권 완성하겠다는 은밀한 야심을 품고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연구실과 숙소의 계약을 마친 처지여서 회장직은 참으로 두렵고 부담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아직은 학문에 전념해야지 어떤 명예로운 봉사 활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양은 겸양의 미덕을 넘어 자칫 오만과 이기심의 발로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회장직을 맞게 되었다.

회장직을 맡자마자 운명의 주사위가 또 한 번 묘하게 돌아 동남아 쓰나미 구호금, 고 폴브라이트 상원의원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모

금 및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금 모금 등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밀물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한순간 끝까지 회장직을 사양하지 못했던 나의 우유부단함을 후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당시 최영 부회장과 임성호 총무이사 그리고 누구보다도 심재옥 단장의 넓은 아량과 헌신, 또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동문회의 벽찬 사업들을 회장 임기 내에 모두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내 인생의 큰 보람인 동시에 아주 드문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큰 사업들의 성공은 미국의 폴브라이트 동문회 본부에도 알려져 적지 않은 칭송과 함께 2006년 11월 3~5일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서 개최된 세계총회에서 한국 동문회의 모범적 사례에 대한 발표를 요청받고 초청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고 또 시간적으로도 앞서 있던 폴브라이트 상원의원 흉상 제막식 행사에서 본인이 회장으로서는 행한 인사말을 아래에 먼저 수록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폴브라이트 상원의원 흉상 제막식 인사말

존경하는 제럴드 맥라플린 한미교육위원단 이사장님, 심재옥 한미교육위원단 단장님,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폴브라이트 여러분.

오늘은 약 1,800명에 달하는 저희 폴브라이트들에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폴브라이트 상원의원, 즉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창시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분의 흉상 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쁘고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드러나지 않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초 제가 회장으로 첫 회장단 회의를 열었을 때 심재옥 단장님께서 본 흥상 제작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엔 예상되는 엄청난 사업 비용에 다소 당황하였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저희 회장단은 최초의 한국인 단장님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모금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님들의 특별 헌금은 물론이고, 동문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미국의 저명한 조각가이신 A. E. 테드 업(A. E. Ted Aub) 교수님의 특별한 계약 조건의 수락과 작품 완성 그리고 우리 쪽 전문가 교수님들의 적극적 도움으로 마침내 오늘 이런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해주신 단장님과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고 폴브라이트 상원의원께서는 미국의 애국자였으며, 대학의 교육자였으며, 세계평화주의자였습니다. 1946년 ‘국제 학자 교환 계획’을 입법 제안했을 때 그분은 20세기 계몽주의적 지성의 미국 대표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1942년 하원의원 시절 비록 초선 의원이었지만, 과거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한 국제연맹의 참담한 실패의 망령이 두려워 유엔 창설에 관해 상원의원들이 안절부절못하며 허송세월을 보낼 때 그분은 하원에서 과감하게 유엔 창설을 위한 결의안을 통해 평화 유지 기구의 수립을 촉구했던 용기 있는 정치가였으며 국제자유주의적 선각자였습니다.

폴브라이트 상원의원께서 적극 지지한 바로 그 유엔의, 즉 경제·사회·문화 혹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인종, 성, 언어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향상하고 또 진작시키는 데 국제 협력을 달성하려는 유엔 헌장 제1장 제1조 3항의 목적 추구를 위해 1946년 11월

4일 탄생한 유엔의 주요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헌장 전문의 정신은 다름 아닌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목적과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폴브라이트 프로그램과 유네스코는 같은 해 창설되어 계몽주의 사상을 실천하는 상징이 되었지만, 그러나 유네스코는 창설 후 한때 심각한 ‘정치화’의 결과로 국제적 반미 기구의 상징으로 전락했던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폴브라이트 프로그램만은 그 원래의 정신에서 한 치도 이탈함 없이 지난 60년 동안 지속되어왔습니다. 저는 이 숭고한 정신과 훌륭한 계획이 언젠가 북한에서도 실시되어 남북한 폴브라이트들이 함께 모일 그날을 고대하며 그것은 저 혼자만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폴브라이트 의원에 관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954년 소위 매카시즘으로 역사상 악명 높은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상설조사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를 위한 예산 책정에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나 홀로’ 유일하게 반대했을 때 그는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을 ‘하프브라이트(Half-bright)’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는 그분이 진정 ‘폴브라이트’였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그분의 계몽주의 정신, 평화주의 정신 그리고 용기 있는 지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정성을 모아 이 폴브라이트 건물 앞에 제막하는 그분의 흉상은 그분의 고결한 뜻과 정신을 이 건물에 들어서서는 모든 분들께 끊임없이, 아 니 영원히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잊지 맙시다. 그분의 뜻과 정신을
그리고 본받읍시다. 그의 실천하는 용기 있는 지성일

끝으로, 그동안 애써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맺은 마켓 대학과의 인연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교육학



만학으로 대학 공부를 시작했던 나는 해외 유학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 찬가지로 늦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기회를 찾던 내게는 폴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이 가장 매력적이었고, 별다른 대안도 없었다. 하지만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장벽이 높아 자 신하기에는 금물이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지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 았다. 토플 점수가 괜찮다 싶은 1976년, 박사 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했 다. 34세 때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해 가을 어느 날 로 기억한다. 폴브라이트 사무실에서 면담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서부에 있는 모 대학에서 선발 통지서를 받아놓았지만 학비가 비싼 게 부담되 었다. 기대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내용인즉슨 위스콘신 주 마 켓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는데, 나의 의향은 어떤가 하 는 것이었다. 사실 마켓 대학은 내가 희망하는 대학 명단에는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이름을 들어본 대학도 아니었다. 그러니 꿈엔들 생각해봤을 리 없었다. 처음에는 난감한 기분이 들었다. 당시 폴브라이트 에드워드 라이트 단장에게 물어보았다.

“마켓 대학을 아십니까?”

“물론이지요! 가톨릭 예수회(Jesuit) 대학이고, 서강대 자매 학교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나는 서강대 자매 학교라는 말에 그냥 두말하지 않고 “예스”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나와 마켓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1977년 가을 학기 내가 마켓대에 도착했을 때, 지난해 전미대학농구대회 챔피언에 등극했던 마켓대의 농구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었다. 마켓대 유학 기간(1977~1980) 동안 체재비는 폴브라이트에서 받고, 학교에선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재학 기간 동안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학교 바로 앞에 기숙사를 배당받아 편하게 학교를 다녔다.

마켓 대학은 위스콘신 주 밀워키 시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다.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고,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캠퍼스에 서는 동쪽으로 40여 분 거리에 있다. 마켓대 이름은 그 지역을 처음 개척한 프랑스 신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졌고, 가톨릭 예수회 대학의 하나였다. 대학 교정 한가운데에는 성 잔 다르크 예배당(St. Joan of Arc Chapel)이 위치하고 있다. 내가 공부하던 시기에는 오기창 교수가 대학 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한번은 그분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기도 했다. 서강대 초창기에는 마켓대 교수들이 초빙되어 영어로 강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공부하던 시기에 서강대 출신 유학생들이 몇몇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인 유학생은 모두 20여 명 내외였다. 한국인 교수로는 물리학에 이론 핵물리학으로 유명한 이기억 교수, 건축학에 유재



홍 교수가 계셨었다. 당시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으로는 고려대 권숙인 교수(재료공학) 내외, 밀워키 엔지니어링 대학의 권중길 교수 내외가 있다.

나는 마켓에서 좋은 스승들을 만났다. 지도교수 스티브(Steeves)는 내 마음대로 공부하도록 관대했다. 또, 학위 논문을 위한 현장 실험 대상 학교를 물색하는 데 있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많이 생겼을 일을 지도교수 중 한 분이 친절하게 가톨릭계 고등학교를 물색해주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신부 교수님들로부터 가톨릭 대학의 전통에 어울리는 항존주의적(恒存主義的) 학풍과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접합되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마켓대는 내 모교가 되었다.

마켓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복귀했다. 2002년 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30년 종사한 내 종신 직장이거나 다름없었다. 이 기간 동안 모교 마켓과 별다른 교류는 없었다. 단지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관 시정 사업(韓國觀是正事

業) 관련으로 지도교수 내외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내가 마켓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의 전부였다. 그렇게나마 스티브 교수 내외를 초청할 수 있던 것은 내 즐거운 추억 중의 하나이다. 그 외 박사 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밀워키 출신 동료 하나가 1980년대 어느 해 한국 내 미국계 외국인 학교 평가단으로 방문하여 해후를 나누는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 마켓대가 2005년 나를 우수 동문상 수상자로 초청해주었다. 오랜만에 옛 교수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졌다. 마켓대가 나를 이처럼 기억해준 데 대해 감사할 뿐이다. 벌써 세월은 저만큼 흘러 내가 마켓대와 인연을 맺은 지도 30년이 넘었다. 마켓은 나를 키웠고, 또 나를 기억해주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 이러한 값진 인연을 맺게 한 것은 오로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덕이다. 1976년 당시 폴브라이트 위원단의 누가 나를 마켓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왔는지 내막은 잘 모른다. 하지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남모르게 뒤에서 수고하신 분의 선한 뜻과 힘이 도움이 되어 나의 마켓에 대한 감사한 인연은 맺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일로 나는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내 일생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고 감사한다. 폴브라이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고 보아 무방하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여 영원하라!

만일 폴브라이트가 없었다면

김성곤

서울대학교 교수 | 미국학·미국 문학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은 아마 전혀 모르고 타계하셨겠지만, 나는 폴브라이트라는 이름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이 내 인생을 180도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마 교수도 학자도 되지 못한 채,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7년 나는 다행히도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어느 날, 폴브라이트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축하 전화가 내 인생을 바꾸어놓은 셈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전화를 걸어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Officer 미시즈 남(현 김정희 교수님)의 고맙고도 매력적인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그리고 당시 폴브라이트에 새로 부임 하셔서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미시즈 심(현 심재욱 단장님)의 따뜻한 배려도 잊지 못한다.

내가 추위를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한과 폭설로 유명한 미네소타 대학과 버펄로 소재 뉴욕 주립대에서 우선 입학허가서가 왔는데, 눈을 좋아했던 나는 뉴욕 주 버펄로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내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지도교수 레슬리 A. 피들러(Leslie A. Fiedler) 교수와, 나중에 평생 동료가 된 이성원 교수를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적절한 학교 선택이었던 셈이다.

당시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박사 과정의 경우 적어도 3년 동안은 별문제 없이 지급되었는데, 나는 2년이 되었을 때 돈키호테 같은 객기를 부려 장학금을 반납하고, 강의 경험을 쌓는다며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Teaching Assistantship을 신청했다. 물론 내가 반납한 장학금으로 다른 학생이 혜택을 볼 수도 있으리라는 소박한 배려도 있었다. 강의 준비로 인해 학위 취득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한 셈이었다.

학위 논문이 끝나갈 무렵, 나는 공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가서 좀 더 공부하기로 했다. 당시 풀브라이트 단장은 현 브리검영대 교수인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박사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하면서도 관대하게 허락해주어서, 나는 지금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 후 피터슨 교수와는 브리검영대에서 잠시 동료 교수로 근무하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또 한 분의 지도교수인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교수를 만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대에 부임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풀브라이트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1990년 나는 또다시 Fulbright Senior Scholar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학과장 캐롤라인 에크하트(Caroline Eckhart)가 Fulbright Asian Scholar-in-Residence로 나를 초청해준 덕분에 나는 Fulbright Senior Scholar Grant를 반납하고 펜실베이니아로 갔다. 이후, 나는 강의나 강연 또는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부단히 풀브라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을 정확히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하거나 침묵해서는 아니 되고, 마땅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연결해주었고,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해주었다. 우리에게는 왜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같은 의원들이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풀브라이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놓았고, 한국 대학과 학계에 고급 인력을 제공했다. 우리가 어찌 그 공헌을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나는 그 고마움과 은혜를 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만일 풀브라이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도상에서

박근자
프랫 인스티튜트 |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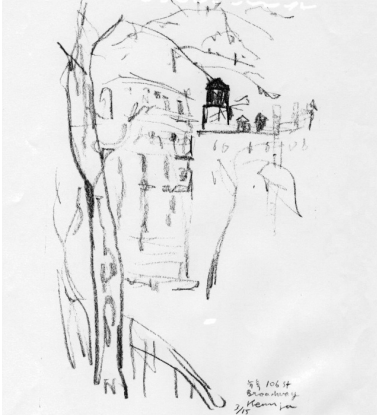
어린 시절 학예회 연극 무대에서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역을 맡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연처럼 내뱉은 말이 씨가 되어 지금은 필연처럼 화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는 구상화에서 비구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 그것이 새 길이라 생각되어서였다.

많은 모색과 사유의 힘든 길이었고 밖에서, 내면에서 길을 모색하며, 그림이 내 인생의 화두(話頭)로 자리매김되어갔다. 모색하는 사이사이 힘들 때 간주곡처럼 그려진 것이 얼굴이라는 일련의 소품들이었다.

어느 가을, 포도가 익는 계절이 생신이신 어머니님과 그동안 함께 있어 드린 세월만으로 나를 위로하며 뉴욕으로 떠났다. 폴브라이터로서였다.

‘왜 뉴욕?’ 하는 표정들이 스쳐가는 화기들에게 손을 흔들며……. 굳이 이유를 대자면 미대 재학 시절 은사가 컬럼비아 대학 출신이셔서 그



작품 〈뉴욕 106 St. Broadway 3월 15일〉

분에게 받은 영향으로 뉴욕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또 1960년 말에 S신문사 임시 특파원으로 〈화첩의 순례〉 칼럼에 글 쓰고 그림 그리며 들렀던 나라들 가운데 특히 뉴욕이 다양한 문화적 흡인력으로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뉴욕은 다소 엉뚱하게 매력적이어서 작품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폭 빠져보고 싶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리라.

생전 처음 가족들과 헤어졌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맨해튼은 밤에 더욱 생동하여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 중에서 한 풍경, 그것은 다름 아닌, 밤에 더욱더 다이내믹하게 보이는 맨홀에서 기운차게 뿔어져 나오는 수증기였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나는 만나는 작품마다 심한 괴리감을 느껴야 했다. 분명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인물화인데, 현대의 차가운 미국 화가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느껴지지 않는 인간 부재(人間不在), 인간의 단절이 있으며 이 작품들 앞에서 나의 사고와 감정의 띠는 떨 수밖에 없었다.

서점가에서 우연히 눈에 밝힌 《Who Should Play God》란 책 한 권—일찍이 중국 고전 《서유기》에서 나온 한 마리의 손오공이 복제되어, 수백의 손오공이 되는 허구 아닌 현실이 된 이 엄청난 문명에, 인류는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염려스

럽기만 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일이 되었지만 1977년 당시로서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는 마천루 같은 문명, 진정 욕망의 고리는 어디까지일까…….”

산허리에 구름 두르듯 구름을 휘감은 채 높이 솟은 마천루, 맞은편 건물을 유리에 담아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과 건물의 관계가 아름답게 살아 있는 맨해튼의 마천루 계곡…….

거리 악사들의 바이올린 소리가 맑고 곱게 건물의 숲을 돌아 빠져나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갔다.

이렇게 구상과 사실화와 추상화 사이를 오가다 문득 이 두 세계가 각기 다른 둘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내 낮은 나이 마흔도 중반을 훨씬 지나 나를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의 스승은 자신의 강의와 글을 통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물질문명의 중심인 뉴욕에서 구도자 같은 초연한 자세로 작품에 정진하는 스승과 다른 작가들과의 만남은 엄청 좋은 시절의 인연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화가는 하느님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구나라고 깨달았다.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 역시 확대해갈수록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어른 무릎 높이도 넘게 눈이 내린 뉴욕의 겨울을 지나며 그동안 진공 상태가 되었던 내 의식도 봄이 오면서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쓸쓸히 뉴욕의 초봄을 담는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회고하며

주경란

세종대학교 교수 | 교육학



올해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6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세계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 자신 폴브라이트 장학금과 Senior Professor Fellowship의 행운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1973년 가을, 나는 보스턴 대학에서 교육사회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던 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다음 해 6월 남편이 공무원 장기 훈련의 일환으로 MIT와 하버드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고(후에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받음) 졸업하게 되자 나도 아쉬운 마음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1977년 가을 학기는 보스턴 대학이 최대한 허용하는 3년간의 휴학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꼭 돌아가야 했는데 다행히 보스턴대로부터 대학

원 장학금을 받았고,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Travel Grant를 받아 꿈에 그리던 보스턴대로 돌아가 1979년 1월에 무사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교수들은 대학에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며 학과장 또는 다른 행정 보직을 맡고, 대학원생들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학회의 여러 활동과 외부의 교육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연구는 뒷전이어서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수업 시수가 크게 줄어들어 상황이 달라졌지만 교수들이 강의, 연구 외에 행정 보직을 맡게 되면 참 시간이 부족하다. 대다수 교수들이 해외 대학에 가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 전공 분야의 석학과 교류하며 더 많은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하였다. 게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IT 수준은 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자료 부족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교수들이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선 최신 논문과 자료가 풍부한 외국, 특히 미국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교수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거의 모든 전공의 학술지를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된 논문 검색과 프린트가 가능한 것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다.

내가 2000년에 Senior Professor Fellowship을 받고 UCLA에 가서 Visiting Professor로 고등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미국의 대학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자 대학 캠퍼스에서 영장을 불태우고, 폭력적으로 기존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면서 겪었던 것과 같은 갈등 현상이 1980년대 말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나타나 학생들이 교육 과정, 예산 및 결산, 교수 임용 등을 포함한 주요 대학 운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자 우리나라의 고등 교육 전문가들도 대학 운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나도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사립대학교 현장 방문 연구를 하게 되었고(동부의 12개 엘리트 사립대학교 방문 인터뷰), 1992~1993년에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고등 교육의 거장 데이비드 라이스먼(David Riesman) 교수의 초청을 받아 하버드에서 미국의 사립대학을 연구하였다(1990~1993년까지 150여 명의 대학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장, 이사, 총장, 학장,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 여러 직급의 행정 직원, 총학생회장, 동문 인터뷰).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대학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고등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의 학회지에 계속 논문을 발표하여 소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을 연구하여 한미 사립대학 운영을 비교하는 논문들도 게재하였다.

이 고등 교육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0년에 고등 교육 전공 교수들이 가장 많은 UCLA의 교육대학원에 가서 고등 교육의 다양한 관심을 가진 여러 석학들을 만나 사귀고, 그분들의 수업에도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였다. UCLA의 이사회, 교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견학하고, 총장, 학장들, 교수들,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인터뷰하여 주립대학의 'Shared Governance'를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 고등교육학회장을 역임한 알렉산더 애스틴(Alexander Astin), 헬렌 애스틴(Helen Astin), 버턴 클라크(Burton Clark),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의 대부라고 할 아서 코언(Arthur Cohen), 대학 프레스맨 서베이(Freshmen Survey) 전문가 린다 삭스(Linda Sax) 등 고등 교육 분야

의 여러 저명한 교수들을 만나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으며 터득하게 된 깊이 있고 폭넓은 내용은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미국 주립대의 'Shared Governance'의 장점을 소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2001년과 2002년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미국고등교육학회(ASHE)와 시카고에서 100주년을 맞이한 American Community College Association 학회에 UCLA 교수들, 대학원생들과 함께 참석하여 전국의 주요 고등 교육 학자들 및 행정가들을 만나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그 후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 조사 연구도 수행하고, 캘리포니아 주뿐 아니라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과 중부 시카고의 여러 대학들을 현장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연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중요했던 것은 1997년 IMF 사태 후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간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그 인력의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보편화된 여러 형태의 교육 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인력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므로 전국에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똑같은 단기 고등 교육 기관들을 많이 설립한다는 소식을 뉴스레터에서 읽고 중국인들의 지혜가 뛰어난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UCLA에 체류하는 동안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는 2001년 초 한국의 전문대학협의회에서 본인에게 40여 명의 우리나라 전문대학장님들이 UCLA와 인근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셔서 코언

교수의 특강을 주선·통역하고 코언 교수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샌타모니카 칼리지를 안내해드린 일이다. 그분들은 대학교수와 행정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여러 전공 분야의 직업 교육 현장을 견학하여,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사받을 점은 매우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교수들과 행정가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의 다양한 기능과 직업 교육뿐 아니라 평생 교육의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과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맞이하여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꿈과 비전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형태로 실현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학문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지식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기쁘게 생각한다.

EFL ‘자연학습법’의 탄생

김병원
포항공대 명예교수 | 언어심리학

폴브라이트는 박사 학위와 함께 정말 독특한 기회를 주었다.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한 필자에게는 5년 유학길에 오르던 1978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셋 있었다. 약 1년 전에 유학의 길이 열렸음을 알았는데, 당시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결심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미국 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영어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만류했다. 영미는 유치원, 영호는 1학년, 그리고 영태는 4학년이었는데, 특히 영태는 수업 내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들 했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이 분명했다.

사람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Natural way of learning이 있다. 미국에 가서 영어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면 세 아이가 모두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궁금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점만 발견하면 한국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의 길이 활짝 열리리라 믿었다.

프리 토크 녹음을 위해 녹음기 두 대와 새 테이프 여러 상자를 구입했다. 또 종류별로 그림을 수십 장 모아서 Look-and-Tell에 활용할 준비도 했다. 각자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Draw-and-Tell을 위해 백지도

준비했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필자는 기대가 컸다. 선행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실로 독특한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들의 영어 자연 학습은 진실로 경이로웠다. 세 아이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한마디도 못하던 아이들이 2년 6개월 만에 동 연령의 미국 어린이들과 거리낌 없이 동등한 수준에서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수 있었고, 4학년 영태는 한 학년을 월반하고, 유치원 영미와 1학년 영호는 각각 3학년 때 공식 테스트를 거쳐 다른 학교 영재반으로 옮겼다. 그 대신 한국어가 점차 쇠퇴해가는 것이 데이터에 나타났다.

5년 후에는 관사 활용 경향을 떼어 필자의 박사 논문으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세 아이들은 귀국하여 언어 문제로 고생을 하였지만 1년여 만에 한국어 회복을 보았다. 그리고 여러 해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다시 도미하여, 현재 각자 적성에 따라 취직하여 생활하고 있다. 성공한 Bilingualist가 되었다.

필자는 뉴욕 주립대 올버니 캠퍼스에서 학위를 받고, 최근 《영어 자연학습법》을 출판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 연구를 거쳐 Naturalistic way of learning English의 소신을 가지고 동양 문화에는 없다는 Debate Ritual 향상을 위해 계속 비법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필자에게 플브라이트는 단순한 학위의 길만은 아니었다.

풀브라이트와 나

김문환
국민대학교 교수 | 법학

만 30년 전인 1979년 봄, 나는 국민대 법대의 교수(직책은 전임강사)가 되었다. 1973년부터 5년간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 찾은 평생직장이다. 대학 교수가 되긴 하였으나 그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느낀 지식의 빈곤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1981년 나는 대학 장학금을 얻어 미국 뉴욕 대학(NYU) 법대 1년의 석사 과정에 입학한 후 열심히 법학 공부를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석사 학위를 끝낸 직후에 귀국했다. 그러나 미국 법은 물론 미국에 대한 동경심(?)은 식지 않아 언젠가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열망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차에 나는 “가뭇물에 단비처럼”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도움으로 다시 1986년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내가 20여 년 전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 서부 지역에서 공부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4,000달러에 불과했다. 2만 달러의 국민소득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선 오늘의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내가 봉직하고 있던 국민대에서 받은, 당시 1,000달러에 못 미치는 월급은

한국 생활에는 그리 불편이 없었지만, 미국 생활을 하기에는 지장이 많았다. 그러한 형편에 월급 액수와 비슷했던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수와 같았다.

폴브라이트! 나에게 희망의 기회를 제공해준 폴브라이트라는 이름은 고맙고 감사한 대상이다. 나는 지금도 그 도움에 기쁨을 느낀다. 이러한 아련한 추억은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우리의 훌륭한 동문님들, 나아가 주위 모든 분들에게도 가슴에 깊이 와 닿을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의식주의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한 정직한 돈이라는 것은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최고의 인기에 금액도 가장 많았던 바,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경제적 도움과 함께 정신적 프라이드도 함께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여 기업 등에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여럿 생겨서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인기가 이전만 못하다는 말도 듣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지와도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쟁을 치른 1950년대는 미국이 우리에게 유토피아의 나라이었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는 미국이 그저 잘사는 나라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릴 때 위대해 보이던 부모님이 장성해보니 역시 한 인간으로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의 눈으로 과거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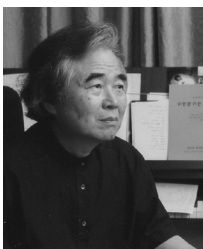
오늘의 나를 생각해보면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1년간 미국 법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내가 법학계에서 미국 법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폴브라이트는 나의 키를 조금 더 크게 한 동시에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었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이력서 한구석의 'Fulbright Scholar'라는 문구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게다가 폴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책까지 맡고 있으니 가슴 뿌듯한 환희를 느낀다. 폴브라이트, 그 이름 영원하기를!

심포니 〈레이크슈퍼리어〉

나인용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작곡



1979년 봄 어느 날 폴브라이트에서 전화가 왔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슈퍼라이어 캠퍼스), 미네소타 대학(덜루스 캠퍼스), 그리고 성 스킴라스티카 대학 등 세 개의 대학과 그곳 덜루스-슈퍼라이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네 기관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양 5개국에서 한 사람의 작곡가를 초청, 세 대학에서 작곡과 관련된 강의와 자신의 나라 전통 음악을 소개하고, 또 심포니를 작곡하면 초청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해준다는 응모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한국 폴브라이트에서는 나를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나는 응했고, 워싱턴에서는 나를 위해 레슨과 강의 그리고 심포니 작곡으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작곡 실기를 맡았던 학생들은 연세대 학생들만 못하였으나, 우리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그냥 수용하고 따르는 반면, 그들은 별것 아닌 자기 작품이 무슨 대가의 작품인 양 설명이 거창하고 자부심에 가득 찬 강한

주장을 내세웠다. 또 의구심과 질문이 많아 해온 것보다 얻어가려는 것이 더 많았으며, 자기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뚜렷했다.

다른 대학에서는 클래스 강의로 현대 음악 개론을 가르쳤다. 설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잘 알아듣나 살펴곤 했다. 짧은 영어에, 발음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 항상 설명이 길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ship in the Ocean, sheep on the field’ 등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이었는지 스스로 겸연쩍어 웃곤 한다.

위스콘신 대학은 쿼터 시스템(Quarter System)이었고, 미네소타 대학은 시메스터 시스템(Semester System)이었다, 바로 옆에 붙은 대학들이네, 주(州)가 달라 시스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쿼터 시스템은 1학기가 3개월이어서 무척 바쁘게 돌아갔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무처에서 봉투를 하나 전해왔다. 열어보니, 요즘 한국에서도 시행하는 교수 평가지였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평가하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없었다. 예측 못했던 일이라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항목도 잘 읽히지 않았다. 교수가 시간은 잘 지켰나? 강의 준비는 잘했나? 등등 나는 돌이켜 항목마다 반성해보았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난다.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외국인 이 그 정도면 열심히 했지 뭐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체념도 하면서, 영원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내겐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많은 생각과 배움을 준 시간들이었다.

지금도 막연한 그리움에 꼭 한 번 다시 찾고 싶은데, 매년 막내딸이 사는 텍사스에 갈 때마다 주간 고속도로 35번을 타게 되고, 이 도로가 델루스까지 곧장 이어짐에도 한 번을 찾아가보지 못했다.

델루스-슈퍼리어는 미네소타 주와 위스콘신 주에 접한 두 도시로 트

윈 시티(twin city)라 불린다. 5대 호수 중 가장 큰 슈피리어 호숫가, 캐나다 접경에 위치해 있는데, 그 경치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겨울엔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과,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추녀 밑까지 쌓이는 눈이며, 집집마다 눈 치우는 삽이 달린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곳으로, 시의 많은 예산이 눈 치우는 데 든다고 했다. 미네소타 대학 건물과 건물들이 그 때문에 유리 복도로 서로 연결되어 이런 미로 같은 길을 잃고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슈피리어 호수는 11월이면 얼기 시작해 이듬해 5월에나 해빙했다. 그 5월에는 호수가 마치 바다 같아 검푸른 물색이 얼마나 깊고 맑은지 잊혀지질 않는다. 이 호수에는 러시아 배를 위시해 5대호 동쪽에서 거슬러 와 미 중부의 곡식을 이 호수에서 싣고 나간다. 해빙과 함께 찾아오는 그 큰 배들이 또 하나의 장관을 이룬다. 내가 그곳에 처음 도착한 때가 가을이고, 떠난 때도 초가을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쏟아질 듯한 아름답디 큰 나무들의 단풍이 호수 북쪽 산기슭에서 대학 캠퍼스 길들과 우리 집 앞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자꾸 가던 길 멈추고 감탄하던, 눈과 가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 대자연은 나로 하여금 델루스-슈피리어 교향악단을 위해 약속했던 심포니인 〈레이크 슈피리어(Lake Superior)〉를 낳게 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음악적 소재를 슈피리어 호수에 반향시킨다는 것이었고 청중들 또한 동양의 신비와 만난 서양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이 곡은 2년 후 한국에서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게 해주었다.

우리 가족들도 그 시절을 항상 그리워한다. 동양인이 많지 않던 북부 지역이라 우리 가족은 신기해하는 눈길을 어디서나 받았고, 신문 등에 문화 교류 등의 이유로 여러 번 실려 어디를 가나 인사를 받았다. 대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추억은 부활절 때 종려주 일을 찬양해달라고 해서 한국풍의 〈호산나〉를 작곡해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찬양을 했던 일이다. 그 이후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찬양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슈퍼리어 호수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

평생 폴브라이트 동문이 된 것을 큰 보람과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미국 대평원의 추억

최홍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미국 시



나는 1979년 'Mid-Career Research Program'에 선발되어 캔자스 대학(KU)에서, 1994년에 'Senior Research Program'에 선발되어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KU에서의 이야기만 쓴다.

나는 영미 문학에서 영미 시 전공으로, 특히 미국 시에 관심이 많다. 또한 나 자신이 시인으로서 국어와 영어로 시를 써서 발표하기도 한다. KU에서 지도교수는 그리어(Grier)였는데 19세기 미국 시인 윌트 휘트먼과 에밀리 디킨슨 연구에 빼어난 학자였다. 그분은 나를 친절히 맞아주며 연구만 하면 재미없을 테니 대학원 과정에서 세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시험도 보고 학점을 따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19th Century American Poetry' 'Modern American Novel' 'American Language and Culture'를 수강했다. Summer

Session 두 과목을 합쳐 5과목 15학점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 등록금은 그 대학에서 해결해주었다. 두 학기 동안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어울려 공부하고 토론하며 시험도 보는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그리어 교수는 동양에서 온 학자(學者) 학생 지도는 처음이라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나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책을 자기 서가에서 10여 권 골라 귀국 선물로 주면서 미국 문학의 뛰어난 학자(outstanding scholar)가 되라고 격려해주셨다. 고인이 된 친절한 그 모습이 떠오르며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 당시 KU에는 한국 학생이 17명 있었다. 그중에서 Physics-chemistry를 전공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쓰던 최종인 학생은 학위를 받고 중앙대 화학과 교수로 와서 나와 함께 30년 가까이 봉직하고 있다. 그분도 내년이면 퇴직을 맞이하게 된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 그때 KU의 한국 유학생들은 지금 모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 보고 싶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언덕 위의 집〉은 노래 가사가 매우 시적이고 곡이 감성적인 발라드로 은은한 감동을 준다. 음악 교과서에 미국 민요라고만 쓰여 있기에 내가 선생님께 작곡과 작사를 누가 했으며, 미국의 어느 곳이 배경인지를 질문했다. 선생님께서는 “모르겠다. 오늘은 노래만 잘 배워라. 최홍규, 너는 공부를 잘하니 이다음에 미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웃었지만 나는 웃지 않고서 ‘그렇지, 미국에 가보면 알 테지’라고 다짐했다.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 리처즈(Richards)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에 가사로 불러보라고 했더니 영어로 잘 부르기에 나는 한국어로 불렀다. 이 노래가 〈The State Song of Kansas〉이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의 애창곡이었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대학 도서관에서 《미국 민요집》을 빌려왔다. 미국에서는 이런 노래를 포크송 또는 컨트리송이라고 한다. 그 책에는 70여 곡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노래도 10여 곡 있었다. 이 노래와 스티븐 포스터(Stephen Foster)가 작곡한 〈Jeannie with the Light Brown Hair〉 〈Massa's in de Cold Ground〉 〈Swanee River〉 〈Beautiful Dreamer〉 〈Old Kentucky Home〉 등이었다.

이 책에 〈언덕 위의 집〉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가사의 풀 텍스트(Full Text)가 실려 있었다. 외과 의사 브루스터 히글리(Brewster Higley) 작사에 다니얼 켈리(Daniel Kelly)가 작곡을 했으며 빙 크로스비(Bing Crosby)의 레코드가 히트치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서부 개척 시절 캔자스 목장의 카우보이들이 사슴, 버펄로, 영양(앤티로프)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동경이 배경이라는 설명도 곁들여 있었다.

Home, home on the range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Where seldom is heard a discouraging word
And the skies are not clouded all day.

이렇게 시작되는 긴 가사를 나는 한 편의 시를 외우듯 모두 외워버렸다. 음악 선생님의 예언 같은 격려와 소년 시절 나의 꿈과 다짐은 20여 년 후 내가 미국 땅을 밟은 지 사흘 만에 현실로 이루어졌다.

캔자스 주는 미국의 가장 가운데에 있으므로 'The Heart of the Continent' 라고 부른다. 로키 산맥 동쪽에서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캔

자스 주를 포함한 광활한 평야 지대를 대평원(大平原, The Great Plains)이라고 한다. 캔자스 평원에서는 아득한 지평선이 펼쳐져 있고 기차는 원을 달리는 것 같다. 캔자스는 미국의 곡창 지대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인데, 전국 총생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 해에 생산되는 밀로 약 33억 개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5월 밀이 한창 푸를 때 캔자스 들판을 보면 마치 끝없는 바다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캔자스, 미국 대평원의 추억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제와 같이 새롭다.

1980

서상옥 • 고지문 • 이동욱 • 강영세 • 이상우 • 권오량 • 김두현 • 안수용 • 조주현
윤복자 • 정길정 • 조성준 • 한승수 • 홍양표 • 라종일 • 임성호 • 최정섭 • 김경동
김혜숙 • 노부호 • 오용호 • 서숙 • 김수지 • 김동연 • 유은광 • 이석구 • 허성호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로서의 생활을 회고하며

서상옥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언어학·언어교육학



먼저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빈다.

금년 2010년이 되어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갑년이 되었다니,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마음속에 고이 남아 있을 값진 기억들이야 얼마나 많겠는가! 나도 그중 하나로, 돌이켜보니 문혀 있던 이런저런 일들이 술하게 뇌리에 스쳐온다. 그때의 생활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싶다. 하기가 벌써 희수(喜壽)의 나이를 넘어 백발이 다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많이도 흐려져가는 기억들을 되살려보며 어려웠던 그때를 되돌아보고 한미교육위원단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서없이 적어 보려고 한다.

1979년에도 이 위원단에는 다양한 지원 계획이 있었지만 내가 관심 가진 것은 박사 과정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부분이었다. 당시



미국 대학의 교육 정책 담당관들과 함께

나는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었고 브리검영대 대학원 언어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하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나는 박사 과정에 계속 뜻이 있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는데 위원단에서는 나에게 고마운 결과를 주었다. 이것이 내가 한미교육위원단 동문회의 일원이 되어 지금까지 깊은 인연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1980년에 다시 미국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일을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의 심재옥 단장님과 미시즈 남이라고 계셨는데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인사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 이번 기회에 늦게나마 나의 뜻이 전해졌으면 하고 기대한다.

그 혜택이 힘이 되어 1980년 8월부터 캔자스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다시 입학하게 됐다. 출국이 늦어져 개학한 지 10여 일이 지나서야 등록할 수 있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며 대학 당국에서는 그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면서 친절하게 선처해주

었다. 그때 나는 폴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한층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누구나 다 경험한 일일 테지만 첫 주부터 빠듯한 일정이라 정신없이 수강하면서 결석한 부분을 메우기에 온 힘을 다했다. 2~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밀린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래도 주말이면 홀로 간 입장이라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잡히곤 했다. 더구나 나에게서는 체면 문제가 있어서 무척이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조금씩 적응되어 한국 유학생 모임에 참석하는 여유도 갖게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한국 유학생 가정의 초대를 받아 한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 특히 그때의 김치 된장국 맛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꿀맛이었다. 그때 초대해주셨던 분들이 귀국하여 아직도 현직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상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폴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신분과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던 입장이라든가, 그곳 교수들에게 비친 나의 학업 수행 능력,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나, 또 타국에서 온 폴브라이트 장학생들에 대한 나의 체면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채찍이 되었기에 오히려 내가 속도감 있게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더구나 매 학기마다 방문하는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지역(사카고) 담당관과의 면담도 나에게서는 부담으로 느껴졌다.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도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겠지 하고 자문도 해본다. 어쨌든 그분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잘

버틸 수가 있었기에 지금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매달 어김없이 송달되는 지원금은 당시 생활비로 적절했고, 등록금은 대학에서 면제되어 학비나 생활비 면에서도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신분에 대해 늘 높은 긍지를 느끼기도 했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와의 관계를 한자어 중심으로 특강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수강생 중에 각 나라 출신들이 있어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되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소정의 학점을 무사히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거쳐 논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점 이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여름방학의 계절 학기 수강 때였다. 나는 석사 학위를 타 대학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학점은 인정되었으나 종합시험과 논문에 대비해서는 이곳의 학칙에 따라 관련 과목을 준비해야 될 형편이었다. 학점 신청 과목은 두 과목이었는데 청강은 세 과목으로 시간 조정도 힘들었고 매일 수강해야 되므로 그 준비가 나에게 너무 힘들었다. 나의 생애에서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로 기억된다. 그래도 나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 무사히 소정의 과정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다.

나의 유학 생활을 회고할 때면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종합시험 기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작고하셨다. 병석에 계시면서 나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시어 알리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가족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1년 뒤에 귀국해서야 알게 되었으니 평생 불효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흔히 하는 말로, 부모님께서는 역시 자식이 철들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는가 보다.

학위 논문 발표일이 12월 10일로 정해졌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도 추

웠는지 꿈꿈 얼어붙었고 나의 마음도 얼어 있었다. 발표를 끝내고 심사위원들의 최종 결정 통보를 받기 위해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초조했는지! 한참 있다가 지도교수가 나와 “축하한다. 통과됐다”는 말과 함께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해서 기숙사로 돌아왔다. 어둠이 깔리고 왜 그렇게도 겨울비는 내렸는지, 날씨는 무척 추웠는데 마음은 춥지 않았다. 서둘러 논문 통과 소식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기에 바빴고, 남들도 다 하는 일일 텐데 나 혼자 해낸 듯이 기뻐하다가 기숙사의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한 끼 놓친 저녁 식사가 어찌 이 기쁨보다 소중한가! 나는 이어서 나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전화로 알려드리는 일로 그날 저녁 시간을 보냈다.

모든 과정을 끝내고 귀국하여, 충남대로 다시 돌아왔다. 그 뒤 한미교육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감사직의 요청이 있어 나는 계속 위원단과 우리 동문회와의 연계를 가질 수 있었고, 더구나 충청 지역 동문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단과도 자주 왕래가 있었다. 1995년 6월의 어느 날, 위원단에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보스턴 지역에 있는 젊은 학자들의 한국 연수 계획을 주관한 바 있었는데 충청 지역을 방문하여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와 전통, 그리고 언어 등을 소개하는 강의 형식의 시간이 있었다. 주로 하버드, MIT 등의 박사 과정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나의 설명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많은 질문도 있었고, 아주 유익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위원단과 한미교육문화재단에서 추천하여 미국 전역에서 각 대학의 교육 정책 담당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공주, 부여의 백제 고적과

이 고장의 문화 유적을 답사하며 소개한 바 있었는데 그중에 스탠퍼드 대학, 텍사스 A&M 대학에서 온 담당관은 한국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위원단에서 하는 일의 일부이겠지만 국가 간의 교류 증진에도 한몫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해본다.

회고되는 내용이야 어찌 이뿐이겠는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한 채로 남겨두고 여기서 멈추려고 하니 아쉬움이 커진다. 그래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로서 교수의 정년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도 위원단에 늘 감사하며 빛을 진 마음과 함께 폴브라이트 동문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져본다. 한미교육위원단의 6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부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빈다.

놀라운 세계와의 만남

고지문
전남대학교 교수 | 미국 소설



돌이켜보면 내가 한국의 최근 미국 소설 연구에 미미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은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계획 덕택에 미국의 여러 교수들, 특히 데니스 R. 딘(Dennis R. Dean)과 이합 하산(Ihab Hassan) 교수를 만나게 된 행운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딘 박사는 1976년 가을 학기에 전남대 영문학과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왔었다.

그를 통하여 나는 너무도 놀라운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내가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은인이었다. 1964년 대학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나는 1971~1972년에는 이스트 웨스트 센터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하와이 대학에서 미국학을 연구한 적도 있었지만, 그를 만나기 전 초창기의 연구 생활은 그 성과나 열의가 모두 변변치 못했다. 스스로 학문 연구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한 데다, 당시의 어두운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연구의 정진을 뒷받침해줄 만한 주변 환경은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었다. 당시 우리 대학에는 개인 연구실이 없고 서너 명의 교수가 사랑방과도 같은 방 하나를 같이 쓰고 있어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강의 후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잡거나 음주에 빠져들기 일쑤였다. 그러나 내가 참다운 연구 생활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외부 상황만을 탓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었고, 나를 진정한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안내자를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딘 교수와의 만남은 나의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에 한 줄기의 희망과 새로운 의욕을 불어일으켰다.

나는 부인이 직장 관계로 4개월 만에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혼자 남게 된 딘 교수와 함께 매일 미국 소설과 문학에 관해 격의 없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딘 교수가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는 거기에 짧은 의견을 겸손하게나마 피력했다. 딘 교수는 나의 최근 미국 소설에 대한 이해력과 문학적 판단력과 사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힘껏 도와줄 터이니, 미국에 다시 한 번 와서 공부하라는 언질을 남기고 1977년 6월에 귀국했다. 딘 교수는 나 스스로 나의 능력과 자질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리고 학문 세계에 침잠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일으킴으로써 내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세계에서 실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 계기가 나에게서는 삶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고 축복이었다.

딘 교수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는 《영어영문학》 64호(1977년 겨울)에 〈Saul Bellow's Conception of Freedo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

고, 학회지를 그에게 보냈더니 그의 소상한 논평이 돌아왔다. 계속해서 나는 학회지에 존 가드너와 랠프 엘리스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소설에 구현된 자아, 사랑, 자유, 정의 그리고 도덕의 개념이 당시 나의 사고로는 생소한 면도 있고 대조적인 면도 있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결코 쉽지 않아 영어로 논문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그곳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1979년에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에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그 후 American Studies Program의 Director인 리처드 W. 도나(Richard W. Downar)와 면접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단 교수가 나에게 대한 추천서를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좋게 써주었으며, 나를 힘껏 도와주겠다고 했던 말의 진의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불행히도 이 연구비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낙방의 고배를 마시게 된 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국의 지도교수를 찾는 일이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소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비평서인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1961)의 저자 하산 교수에게 연구 계획과 목적을 밝히는 편지를 보냈더니, 흔쾌히 지도교수가 되어주겠다는 답장을 해왔다. 사실 나는 하산 교수에게 편지를 쓸 때 또 한 사람의 미국인 교수, 로버트 오버스트리트(Robert Overstreet)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는 1979년 가을 학기에 우리 대학 영문학과에 폴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왔었다. 그로 인해 나는 폴브라이트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 같다. 나와 아주 사이좋은 술벗이 된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나에게 폴브라이트 연구비를 신청해보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나는 그즈

음 이미 탈고를 마친 조지프 헬러, J. D. 셀린저와 카슨 매컬러스에 관한 논문과 레이놀즈 프라이스, E. L. 닥터와 버나드 맬러머드에 관한 논문을 새로이 써서 한 권의 저서로 출판하겠다는 연구 계획서를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에 다시 제출하였고, 폴브라이트에도 신청서를 냈는데 운 좋게도 두 개의 연구비를 다 받게 되었다.

1981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광주를 떠나 미국으로 가고 싶었다.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에서 편지가 왔는데 거기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니, 그전에 미국에 오려면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나는 6월 중순 호놀룰루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것은 시골 사람의 두 번째 미국 여행이었다. 그 여정은 30대 중반 나이에 처음으로 새로운 학문 세계에 접하여 열정을 쏟아 공부했던 하와이 대학을 잠시나마 다시 둘러보고, 앨라배마 주의 오번에 들러 오버스트리트 교수와 재회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헨더슨에 사는 친척을 만난 다음, 뉴욕으로 가서 연구비와 여행 경비를 받고 정착지인 밀워키로 가는 길이었다.

첫 미국 여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부터 전보다 더 놀라운 세계와의 만남이 펼쳐졌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할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배정받은 좌석이 일등석에 있음을 알고 나는 몹시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심이 드는 한편, 내심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때 내가 부린 촌티를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쓴웃음이 나온다. 경황없는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여승무원의 기내식 접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녀가 기절초풍할 언행만 늘어놓았으니, 승무원 생활 중

에 이런 엉터리 일등석 승객은 처음 보았다고 속으로 웃지나 않았을까 싶다. 처음부터 대뜸 스카치위스키를 주문했고, 폴코스 식사인 줄 모르고 처음에 가져다준 음식 모두를 습관대로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바람에 본 요리는 손도 대지 못했고, 후식과 브랜드도 사양했다. 영락없이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길을 잃고 혼비백산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었다.

헨더슨에 며칠 동안 체류할 때, 친척에게 레이놀즈 프라이스의 소설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친척은 나를 폴브라이트 교환교수라고 소개하여 그와의 만남을 주선해주었다. 듀크 대학에서 16세기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소설을 창작하는 프라이스 교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하여, 그의 처녀작 《A Long and Happy Life》(1957)는 일본어로도 번역되었을 정도였다. 연구실은 냉방이 잘 되지 않아서 대학 도서관의 한 방에서 그 교수를 만나, 그의 소설 《A Generous Man》(1966)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모형(the pattern of lover-lover)’이라는 관점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교수는 소설을 집필하면서 자신은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 작품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너무나 의외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나는 작가와 독자의 관점의 차이일까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미국 소설에 대한 나의 이해의 한계일까 하는 의문으로 혼란스러웠다. 내가 미국 소설에 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절로 맥이 빠졌다. 프라이스 교수는 1933년생인 때문인지 1910년대에 출생한 솔 벨로와 버나드 맬러머드에 비해 작품 수와 비평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더니, 프라이스 교수는 토머스 매코맥이 편찬한 《Novelists on Their Novels》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작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리고 작가가 추천한 비평

서를 정독함으로써 작품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논문도 의외로 빠르게 그리고 잘 쓸 수 있었다.

7월 초까지도 숙소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안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밀워키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도 제임스 M. 퀴스트(James M. Kuist) 교수가 나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자마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학과장이 외유 중이라 대신 마중을 나왔다고 말하며 이미 학과에서 마련해놓은 숙소까지 나를 안내해주었다. 학과장의 외유가 오히려 나에게 큰 행운이 되었다. 이 만남이 인연이 되어 퀴스트 교수는 18세기 영국 문학 전공자이면서도 내 논문들을 읽은 뒤 영어를 고치고 다듬어주었으며, 11개월 동안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점심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밀워키에서 프랭크 J. 캠페니(Frank J. Campenni) 그리고 멜빈 J. 프리드먼(Melvin J. Friedman) 교수와도 최근 미국 소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는 행운을 누렸다. 또한 나는 1955년에 창립된 위스콘신대 밀워키 캠퍼스 영문학과 최초의 폴브라이트 교환교수였기 때문에 큰 환대를 받았다. 더욱이 영문학과에서는 Center for Twentieth Century Studies에 부탁하여 개인용 연구실도 마련해주었다.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과 평온 속에서 나는 논문 집필과 개작에 몰두하며, 그 대학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수들의 뜨거운 학문적 열정을 느끼고 그걸 본받으려 애썼다. 이걸 정말 폴브라이트가 내게 행운을 안겨준 것으로, 지금도 폴브라이트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드디어 나는 하산 지도교수의 초대를 받아 댁으로 찾아가 처음 대면했는데, 매우 예리하고 지적이면서도 인자한 첫인상이었다. 하산 교수는

나에게 사모님과 함께 백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더니, 매우 무더운 오후인데도 집 밖으로 나가 손수 고기를 구웠다. 교수가 학생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나의 삶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오히려 나는 죄불안석이었다. 밖으로 나가 대신 굶겠다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자니 더더욱 죄송하여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난감한 마음은 식사가 시작되자 사라졌다. 식사할 때는 하산 교수가 먼저 시음한 적포도주를 마셨다. 하산 교수는 식사가 끝나자, 나를 서재로 안내하여 최근 미국 소설에 대한 비평서들을 살펴보게 한 다음 지하실로 데려가서 여러 선반에 누워 있는 많은 포도주 병들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하이네켄 맥주를 마셨다. 이렇게 첫 대면에서 그분은 아주 생소하지만 신기한 술의 분위기로 나를 안내했다. 그 안내를 받은 후, 나는 술이란 만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기 위해서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산 교수를 뵈고 나는 그분은 분명 천재적인 존재이며, 미국 대학 사회는 천재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하산 교수는 최근 미국 소설의 연구와 방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그 성과를 《Radical Innocence》를 통해 보여 주었고, 그 저서로 미국 굴지의 학자가 되었다. 나는 하산 교수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이름만으로 생각하여 이집트 이민 2세대나 3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다. 하산 교수는 1925년 카이로에서 태어나 1946년에 카이로 대학에서 공학사를 취득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하여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1948년에 공학석사를 취득한 후,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꿔 1950년에 영문학 석사 그리고 1953년에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8년 만에 그와 같

은 역저를 출간했다. 더욱이 45세가 되던 1970년에는 위스콘신대 밀워키 캠퍼스의 영문학과와 비교문학과와 Vilas Research Professor로 초빙되었으니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 짧은 기간에 이토록 출중하고 탁월한 학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기 이름 앞에 ‘Vilas’를 붙이는 교수는 그야말로 교수 중의 교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던가? 그래서 하산 교수는 학생들보다 교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연구를 도와주는 스승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격년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강의하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도서관 가는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학술지를 구독할 수도 있었다. 하산 교수의 탁월한 연구 업적도 놀랍지만, 그런 특출한 학자에 대해 아낌없는 배려를 하고 있는 미국 대학 사회의 태도 또한 놀라운 것이었다. 이런 대학자가 스스로에겐 아주 엄격한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양심과 인격에서 비롯됨을 알고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밀워키는 12월에는 오후 5시만 되면 주위가 아주 캄캄해졌다. 하산 교수는 오후에 강의를 마치면 바로 학생 면담을 시작하는데, 스스로 정해놓은 면담 시간까지는 학생이 찾아오지 않아도 계속 연구실을 지키며 학생을 기다렸다. 7시가 넘으면 다른 어느 연구실에도 교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우연히 하산 교수 연구실에 들렀을 때, 하산 교수는 주위 연구실들 문 앞에 붙인 면담시간표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교수들이 연구실에 있지 않음을 보고, 면담시간표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교수들을 가리켜, 저런 친구들은 교수 자격이 없다며 개탄하는 말을 들었다. 매사에 언행일치와 학행일치를 도모하려는 하산 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감동을 느끼면서 나는 깊이 자성했다.

하산 교수는 그 무렵 태동하던 새로운 예술철학인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와 전파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너무나 생소한 용어인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퀴스트 교수와 캠페니 교수에게 물었더니 자기들도 잘 모르며, 그 학과에서는 오직 하산 교수만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대답했다. 9월에는 하산 교수가 주관하는 'Innovation and Renovation in Western Culture'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산 교수가 개막식 날 만찬에 나를 초대해 하는 수 없이 그곳에 갔지만, 세계 석학들과 이야기 한마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씩씩하게 돌아왔다. 학술 발표를 듣기 위해 가보았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내 귀머거리에 병어리로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이런 창피하고도 가슴 쓰라린 경험은 훗날 14명의 포스트모던 미국 소설가들에 관한 논문을 쓰는 데 저력을 발휘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의 논문을 집필하려 하고 있다.

얼마 후 나는 버나드 맬러머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하산 교수가 이를 보고, 자신이 일체의 경비를 지원해줄 터이니 소설가와 대담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유했다. 나는 맬러머드를 만나면 따로 특별히 논의할 만한 주제가 없을 것 같아 쾌히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논문 집필을 끝내고 나니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하산 교수에게 맬러머드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하산 교수는 자신이 소개서를 써주기보다는 내가 폴브라이트 교환교수이므로 직접 편지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제시를 하였다. 나의 논문인 <Bernard Malamud's Renewal of the Human Spirit>를 동봉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하산 교수의 예측대로 곧바

로 대답이 성사되었다. 질문과 답변을 녹음하기로 작정하고 사전에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보았다. 다른 소설 작가들과 대답을 많이 했던 캠페니 교수가 뼈대만 영성한 나의 예상 질문들에 살을 붙이고 매끈하게 다듬고 몇 개의 질문도 덧붙였다. 그때 맬러머드는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the Behavioral Sciences의 1981~1982년도 연구원이었다. 1982년 2월 2일 스탠퍼드 대학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맬러머드의 연구실에서 대답을 진행하면서 녹음을 하였다. 녹음을 문자화하는 데도 캠페니 교수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캠페니 교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맬러머드와의 대답인 〈A Talk with Bernard Malamud〉가 1991년에 로런스 래서가 편집하여 출판한 《Conversations with Bernard Malamud》에 수록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때 맬러머드와의 대답이 지금도 나의 최근 미국 소설 연구에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나의 최근 미국 소설 연구에 또 하나 크게 일조한 것은 스탠퍼드 대학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의 제임스 J. Y. 리우(James J. Y. Liu) 교수와의 만남이었다. 그 당시 리우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문학 연구의 대가였다. 그곳에 갈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고 싶다는 사연과 함께 《영어영문학》 57호(1976)에 실렸던 논문 〈Taoism and Phenomenological Criticism: the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and the Meeting in Literature〉를 동봉했다. 그리고 나서 리우 교수로부터 1982년 2월 4일 오후 2시에 연구실로 오기 바라며, 만일 여의치 않으면 꼭 전화로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리우 교수는 당연히 이민 2세나 3세의 중국계 미국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홍콩에서 교수를 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열악한

학문 여건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개척하여 중국 문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대가가 되었음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와 비교할 때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부끄러웠다. 리우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문제는 중국 고전 작품에서 '자유'라는 용어의 존재 여부였다. 그와의 대답으로 나는 '자유'가 서양에서 동양 사회로 유입된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전부터 나는 인간의 모든 가치의 원천인 자유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 이전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과 이후의 우리 의식과 사회는 어떤 개혁 혹은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은 나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또 하나 놀랐던 일은 리우 교수가 중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 번역이 너무나 탁월하여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중국어로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반문했다는 실토였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도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학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또 한 번 큰 충격이었고 채찍질이었다.

나의 연구에 또 달리 크게 일조한 것은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엄청난 크고 큰 구내 서점이었다. 그렇게 큰 구내 서점은 난생처음 보았다. 1층에는 다양한 교재와 책들이, 그리고 2층에는 각 대학 출판사들이 발간한 전문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리저리 두루 살펴보다가 사게 된 세권의 책, 존 롤스의 《A Theory of Justice》(1971)와 J. R. 루카스의 《On Justice》(1980) 그리고 필립 페릿의 《Judging Justice: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1980)는 나중에 닥터로의 소설 이해와 논문 집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책들이 없었더라면 논문 집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을

것이다. 우연히 들른 구내 서점에서 너무도 큰 행운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후일 나에게 큰 실리를 안겨주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다.

한편 나를 진정한 학문 세계로 이끌어주기 위해 또 한 번 미국에 오라고 권유했던 딘 교수와 다시 만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딘 교수는 밀워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커노샤에 소재한 위스콘신대 파크사이드 캠퍼스에 재직하면서 시카고 근처의 에번스톤에 거주하고 있었다. 해마다 Milwaukee Repertory Theater의 회원 가입을 갱신해 온 딘 교수가 같이 연극을 한번 보러 가자고 제의했다. 딘 교수 덕택에 난 연극을 즐기는 문화인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고, 중등산 양고기 요리와 독일산 쇠고기 요리를 맛보는 기회도 가졌다. 또 그의 부인이 시카고의 사설 도서관인 뉴베리 라이브러리(Newberry Library)의 고위직 사서인 덕에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희귀 장서의 서고에서 유럽 귀족 가문에서나 사용했던 성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그 성서는 겉면을 비스듬하게 기울이면 요술처럼 그림이 나타났다가 반듯이 하면 그림이 사라졌다. 정말로 불가사의한 기술이고 놀라운 예술이었다.

미국에서 하산 교수와 그의 부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덟 편의 논문을 나름대로 완성할 수 있었고, 귀국 후에는 솔 벨로에 관해 전에 썼던 논문을 개작하고, 새로 서론과 결론 그리고 부록인 〈A Korean's View of Main Them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이라는 논문을 합쳐 출간할 수 있었다. 그 책이 바로 1984년에 출판된 《Major Them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인데, 딘 교수는 이 책 속의 글들을 다 읽고 고치고 다듬어주었다. 이 책은 딘 교수의 헌신적인 협조 덕분에 출판될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위 책의 출판은 딘 교수와 나의 관계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

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딘 교수와 나는 해마다 연말이면 1년 동안 각자가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새해의 연구 계획을 알리면서 연하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폴브라이트 교환교수 계획을 바탕으로 짠 한국과 미국의 두 교수, 즉 딘 교수와 나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의 회고담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또 앞으로 그 계획이 더욱더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고 싶다.

내 생애 최고의 축복 '폴브라이터'

이동욱

한국NLP협회 회장 | 도시 및 지역 계획학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폴브라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때의 감격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옛그제 꾸었던 꿈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30여 년 전 폴브라이터가 된 것이 학자로서의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폴브라이터로 선정되었던, 유신 말기에서 1980년대로 접어들던 당시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고, 어두운 잿빛 그늘이 한국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UCLA에서의 짧은 유학 생활에서 돌아와, KIST에 선임 연구원으로 초빙되어 IBRD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흥릉 숲에 위치한 연구소는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는 단절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했지만, 나는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비록 2~3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얼마 전까지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을 맞본 터라, 가슴을 짓누르는 질식할 것 같은 사회 분위기는 연구소 울타리 안이라고 해도 나에게겐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한때는 매일 밤 악몽을 꾸기도 했다. 정말 병이 날 지경이었다. 틈만 나면 연구소 밖으로 뛰쳐나가 서울 시내의 커피숍을 전전하며, 엑소

더스를 꿈꿨다.

그즈음 우연히 비원 맞은편에 있던 가든타워빌딩 1층 커피숍에 발길이 닿았고, 이후 엑소더스를 꿈꾸던 나에게 그곳은 나만의 성소(sanctuary)가 되었다. 그곳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한참이나 시간이 흐르도록 나만의 성소, 그곳 9층에 한미교육위원단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 눈길이 가 한미교육위원단에 들른 것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말, 그것은 나에게 구원의 순간이었고, 가슴을 짓누르던 느낌도 말끔히 없어져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때, 나는 마치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두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다.

돌이켜보면 폴브라이터로서 나의 유학 생활은 그토록 염원했던 것이기에, 나에게서는 일생일대의 기적을 가져다준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그 후 나는 자유의 나라에서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맛보았다. 그때의 기쁨은 나에게 아직도 살아 있다.

오늘날 나의 자유로운 사고와 존재 방식은 그 당시 유학 생활에서 시작된 듯싶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가끔 황금빛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나 혼자만의 미소를 머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을 회상하곤 한다. 그리고 요즈음도 가끔 대학 캠퍼스 이곳저곳의 추억들을 더듬어보면서 잠자리에 들 때가 있다.

한미교육위원단, 감사합니다!

강영세
국민대학교 교수 | 언어학



제가 하버드대 대학원 언어학과로 유학을 떠난 것은 198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미교육위원단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해인 1981년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직후에 하버드대 대학원 언어학과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하버드에 유학을 가서 우연히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인사를 만났을 때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즉, 만약에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아니었다면, 하버드대 대학원 언어학과에서 저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태까지 숨겨두었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유학을 가야 했는데, 그 대학에서는 제게 입학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한 번에 세 시

간씩 일주일에 두 번, 즉 여섯 시간 동안 학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하게 되면 수강 가능 과목에 있어서 세 강좌를 수강할 수 없고 두 강좌만 수강하도록 제한받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4년이 아니라 6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대학으로부터 조건부 입학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저는 미국 유학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고, 하버드대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만에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1981년이니까 이제는 벌써 29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제가 하버드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풀브라이트 장학금 덕분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한미교육위원단, 감사합니다!'입니다. 한미교육위원단,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잊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자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 정치학

음수사원(飲水思源)하라 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느 샘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라는 말이다.

나는 두 번에 걸쳐 미국 정부가 마련해준 유학 기회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1967년 이스트웨스트 센터 장학금으로 하와이 대학에 가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여 대학 선생이 되었고 1983년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프린스턴대에 가서 지내며 평화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두 번의 기회가 나의 평생을 결정해준 셈이다. 대학교수 30년, 대학 총장 6년 동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왔으니 나는 스스로의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회를 준 미국 정부에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닌 채 살고 있다.

새 시대, 새 세상에 대한 배움이 모자라 가난과 좌절 속에서 헤매던 대한민국 건국 초기, 그리고 6·25전쟁 직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한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모두 고마운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고마운 도움이다. 배움에 굶주렸던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학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귀한 사

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덕분에 반세기 만에 한국은 가난의 바닥에서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끄는 선진국의 하나로 올라설 수 있었다. 물론 한국민 모두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쓴 결과라고 하겠지만 구석구석에서 일을 기획하고 이끌어온 ‘꽤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기적적 성장이었다. 그 ‘꽤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낸 것이 풀브라이트 장학 계획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 국민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은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은혜는 자식에게 갚고 스승의 은혜는 제자에게 갚으라 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한국은 2008년도 기준 GDP가 약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300개에 달하는 대학을 가진 교육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한국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 아니 도와야만 할 나라가 되었다. 곧은 심성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은망덕의 처신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 정부도 한국형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몽골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한국21세기연구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몽골 대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을 12년간 담당해왔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국판 풀브라이트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일했다. 어린 학생이 한국에서 몇 년 공부하고 몽골에 돌아가 공무원, 교수가 되어 큰일을 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감격을 느끼며 해온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겠지 싶었다. 남을 돕는 일 중에서 ‘배움’을 돕는 일이 제일 소중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꼈다.

끝으로 심재욱 단장을 비롯하여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일하고 계신 여

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나도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 간여하며 일해보았지만 ‘한국 풀브라이트’처럼 성실하게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가 없다.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심(私心)을 버리고 목적에 헌신하는 분들만이 이를 수 있는 명예이다. 이 분들의 헌신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아온 수십 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 프로그램이 제일 성공적이었다고 칭송받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심재옥 단장님에게 존경의 뜻을 전한다.

모든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음수사원’ 하지는 말 한마디뿐이다. 고마움을 잊지만 앓는다면 되갚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폴브라이트와 함께한 반생

권오량
서울대학교 교수 | 영어교육학



모든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가 그러하겠지만, 나에게도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1. 유학 생활

내가 폴브라이트 장학금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82년 초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2년차였다. 그해 4월에 결혼을 하고, 7월엔가 폴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을 하였는데, 자격 요건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 나는 석사를 미국에서 한 터라 조금 불리하지만 어쨌든 한번 시도해보자 하여 지원을 하였다.

운이 좋았던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하여 박사 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여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

가기로 하였다. 당시 내가 받게 될 장학금 혜택은 왕복 여비, 대학 등록금, 책값, 그리고 다달이 나오는 생활비 610달러였다.

1983년 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들을 모아서 영어 작문 시험을 시행하였다. 미국에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배치 고사였다. 주어진 작문 주제가 ‘Well Begun is Half Done(시작이 반이다)’이었다. 내가 그때 쓴 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Well begun is half done”이라는 말이 맞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머지 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타이태닉호가 첫 항해를 위해 영국의 항구를 떠날 때 그것은 세상이 떠들썩하게 경축할 만큼 대단한 출항이었다. 그러나 그 항해는 끝을 보지 못하였다. 인생은 마라톤 같은 것인데, 출발점에서 아무리 팡파르를 울리고 떠나도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우리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들이 학업을 위해 김포 국제공항을 떠날 때, 여러 친지와 친척이 환송을 와서 장도를 축하하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할 때 환영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Well begun is half done도 좋지만, Let's do our best to finish up the undone half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 한미교육위원단의 조정위원이었고, 후에 한미교육위원단장이 되신 프레더릭 캐리어(Frederick Carrier)와 면접을 했는데, 그분은 내 글을 읽은 후에, 나는 따로 ESL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긴 한

국과 미국에서 석사를 받고, 대학에서 영어와 영어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ESL 교육을 다시 받는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었다.

1983년 8월, 텍사스 대학에서 시작된 나의 박사 과정은 뻘뻘한 학사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충남대에서 연구를 위한 공무 출장으로 외국에 갈 경우, 1년에 한해 공무 출장으로 인정하고, 그다음 1년 더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지만, 대신 휴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로서는 2년 만에 코스 워크와 논문 제출 자격시험까지 끝낸 후에, 일단 귀국하여 충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논문을 완성해서 추후에 다시 가서 논문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매 학기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학기는 5과목(15학점)까지 이수한 적도 있었다. 학교 규정이 대학원생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없는데, 나는 대학원장의 특인을 받아 15학점까지 이수하였다. 그리고 여름 계절 학기도 최대한 많은 학점을 들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를 할 때 취득한 학점도 일부 인정을 받았다. 1985년 봄, 마지막 학기를 8월에 마치면 2년 만에 귀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창갑 새 총장님에게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한 해 더 휴직을 연장해달라는 청원의 편지를 썼더니 고맙게도 휴직을 1년 더 연장시켜주셨다.

이제는 어찌 되었든 간에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가야 했다. 다행히 앞에서 말했듯이 초과 학점을 이수하여 2년이 끝날 무렵에는 코스 워크를 모두 마쳤고, 논문 제출 자격시험도 통과하여 논문 연구와 작성에 돌입했다. 데이터 분석은 1984년 처음 출시된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했다. 초기의 매킨토시는 디스켓 드라이브 용량이 400K이고, 램 메모리가 겨우 256K인 원시적 모델이었지만, 마우스와 윈도를 이용

한 혁신적인 신형이어서, DOS식의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모르던 나로서는 여간 요긴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논문 작성 자체는 여전히 학교 전산실 구형 IBM 컴퓨터의 단말기(terminal)가 있는 방에서 로그인하고, DOS식 명령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했다.

텍사스 대학에서는 박사논문위원회가 논문 작성 초기부터 구성되어, 논문 연구 전 기간을 통해 지도교수를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제도인데, 위원들께서 나의 연구 방향에 대해 동의해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논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논문의 구두 심사(Oral Defense)는 한 번에 통과되었고, 약간의 사소한 수정 지시만 있었다. 구두 심사가 논문 제출 기한 4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논문 최종본을 제출한 것은 8월 졸업을 위한 기한일 마감 한 시간 전으로 아슬아슬했다. 여름 졸업식이 8월 16일이었지만, 나는 휴직 기한이 8월 15일이어서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그래도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게 되었으니 그 흥가분함이란……!

그렇게 해서 1983년 8월부터 1986년 8월까지의 유학 생활은 끝났다. 그 3년 동안 한국 방문은 꿈도 꾀보지 못했고, 아내가 공부를 같이하느라 둘이서 무척 바빴다. 나보다 한 해 늦게 과학 교육 박사 과정을 시작한 아내도 코스 워크를 마치고, 논문만 남겨둔 채 함께 귀국을 하게 되었다(아내는 3년 후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래도 IIE에서 지원을 잘해주었고, 호스트 패밀리의 따뜻한 사랑도 경험하였으며, 학회 참석차 뉴욕까지 여행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2. 폴브라이트 동문으로서의 반생

1986년에 귀국했는데, 1987년에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회가 결성되면

서 동문회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폴브라이트 동문회 충청지회의 총무이사로 참여했는데, 1991년 서울대로 전근한 후 전국 동문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였더니, 1997년에 안병만 회장님 때에 총무이사의 일원으로 위촉하셨다. 이후 안병만(5대), 김기순(6대), 윤복자(7대) 회장님의 총무로 총 6년, 그다음에 송상현(8대), 강성학(9대), 최영(11대), 김문환(12대) 회장님의 부회장으로 8년째 일을 해오고 있다.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24년째 동문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나는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세계평화를 위한 숭고한 정신이라는 큰 명제도 명제이지만, 폴브라이트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문회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동문회에 관여하면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내 시야를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아름다운 인정을 나누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윤복자 회장님 재임 시인 2002년 1월에는 21세기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를 하와이 대학 이스트웨스트 센터(EWC), 한국EWC동문회, 하와이 대학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하와이 대학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총무로 학술대회의 준비 실무 작업을 하던 일, 하와이에 가서 학술대회와 관광 등으로 참여자들과 추억을 쌓던 일, 또 2002년 10월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폴브라이트 동문 국제 워크숍 행사에도 회장단과 함께 참석하여 세계의 폴브라이트 동문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던 일이 추억으로 남는다. 2000년에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회 5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의 총무를 맡아서 일한 것도 큰 경험이었다. 이제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지난 세월 크고 작은

동문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 앞으로 70주년 기념행사에
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다른 폴브라이트 동문들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나와 폴브라이
트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고 고마운 분이 있는데, 바로 심재옥 현
미교육위원단 단장님이시다. 내가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
면서부터 항상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다. 동문회 일
을 통해 자주 대화하면서 그분의 안목과 역량, 그리고 동문회에 대한 크나
큰 애정을 알게 되었다. 사실 심재옥 단장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
면 동문회가 제대로 결성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잘 굴러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다못해 동문회의 작은 행사 하나를 하
더라도, 심 단장님이 직접 혹은 직원을 시켜 일일이 회원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참석자가 일정 수준 확보된다는 사실을 동문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
하고 싶다.

폴브라이트와의 인연

김두현
김두현법률사무소 대표 | 법학

1. 폴브라이트와의 인연

내가 폴브라이트라는 이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3년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Visiting Scholar로서 초청을 받은 때부터였다. 그 당시까지 한국 폴브라이트의 역사가 40년 가까이 되었어도 나오는 상관없는 이름으로 여기고 있었다.

1981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되면서 이어 한국법학원 원장을 겸하게 되었을 때 영문 법전(英文法典)을 편찬 발간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면서 미국의 대학에서 노하우를 얻고 자료도 수집할 겸 꼭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60 가까운 나이에 새삼 유학이란 이름의 외국행을 시도할 처지는 아니었기에 한 학기 정도 다녀올 생각으로 하버드대 법대에 희망서를 보냈다.

하버드에서는 나의 법조 경력을 참작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아시아법률연구소(East Asian Legal Studies)의 입학통지서를 보내왔다.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을 때인 1960년에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4개월 동안 미국 사법 제도를 시찰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하버드대

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기에 생소하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머물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여겼다.

그런데 때마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다녀온 안이준(安二濬) 박사(전 서울대 법대 교수)로부터 생각지 않았던 권고를 받았다. 내용인 즉, 한미교육위원단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게 되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그런 연유로 나는 1983년 한미교육위원단의 도움을 받아 한 학기 동안 하버드 법대에 부설되어 있는 동아시아법률연구소에서 Visiting Scholar로 있으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그 당시 하버드대 교수들과의 친교 대답에서 얻은 견문과 하버드 법대 도서관이나 연칭(燕京) 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자료 등은 한국법학원에서 편집 간행하려던 영문 법전(Laws of the Republic of Korea)의 체계 정리나 번역 작업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고 큰 도움이 되었다.

2. 절반의 성취(동문회 출범)

나는 그러한 연유로 1987년 5월에 발족한 풀브라이트 한국 동문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년 임기를 마친 다음 부회장인 고 한상준 박사(전 한양대 총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이어 1989년 6월에 창립된 한미교육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상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캐리어 단장과 협의한 결과,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을 발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립되는 초대 재단 이사장 자리는 별수 없이 내 몫이 된 것이다.

내가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 일본의 폴브라이트 동문회장이 내한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의 폴브라이터들 중에는 기업체의 CEO나 경영에 관여하는 간부가 많기 때문에 기금 모금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금을 위한 골프 모임을 하면 참가하는 동문회 회원들이 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각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꽤 많은 액수의 모금이 된다는 것이다(요즘 같으면 일본도 골프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한다).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들과 같은 교육계 인사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환경 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각출을 받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동문회를 발족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3. 절반의 좌절(재단 출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몇몇 기업군(群)의 수장들에게 모금 찬조를 부탁하는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캐리어 단장과 상의한 끝에 릴리 대사에게 말하여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업체 오너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해 기금 찬조에 협력해주소록 부탁하기로 한 것이다.

1990년경으로 기억되는데 마침내 릴리 대사가 대사관저에서 성의껏 저녁 식사를 베푸는 기회에 조완규 교육부 장관, 캐리어 단장과 내가 취지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하며 화기로운 분위기에서 만찬을 마쳤다.

그 자리에는 폴브라이트 측에서 캐리어 단장, 한상준 동문회 회장과 재단 이사장인 내가, 그리고 후원하는 뜻에서 조완규 교육부 장관과 릴리 대사가 동석하였고 무역협회 구평희 회장, 삼성, 현대, 대우, LG, 대한항공, 한화, 신일 등 대기업들의 대표들이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창립 1주년 기념

재단 이사장과 동문회장 그리고 캐리어 단장이 취지 설명과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이 진지하게 경청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믿었다. 특히 삼성그룹의 기업체 사장을 맡고 있던 박웅서 풀브라이터의 열성 있는 노력이 가세되면 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기업군의 대표들이 자기들 나름으로 숙의한 끝에 우리가 바라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후문이였다.

나는 릴리 대사가 언젠가 나에게 이런 말 한 것을 되새겨보았다.

“관저에서 만찬을 베푸는 데까지는 노력을 다 하겠지만 기업군들에 재정적 도움을 기대하는 한국인 단체들이 많은 실정인데 풀브라이트 위원단을 위한 도움만을 유난히 강조하기에는 입장이 난처하다.”

주한 미국 대사의 조력으로 재정적 도움을 갈망하는 한미 관계 단체

들이 준비한 현실에서는 릴리 대사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재단 출범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던 원대한 꿈은 일단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한라그룹(지금의 만도) 정인영 회장의 3,000만 원을 비롯한 몇 개 그룹의 지원을 받아 수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 오늘날까지 재단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영 회장님은 폴브라이트와 관계는 없었지만 어느 폴브라이트 못 지않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재단 이사로 모신 일이 있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한미 간의 교육 문화 교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월채어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왕성하게 사업에 열중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니 애처로울 따름이다.

4. 비전

필자는 한국법학원에서 영문 법전(Laws of Republic of Korea, 1983년까지 시행되는 모든 법령을 영역한 대작) 발간에 아시아재단과 삼성, 현대, LG, 대우, 선경, 한화, 대한항공에서 찬조를 받아 풍족한 자금으로 화려하고 알차게 출판한 경험이 가장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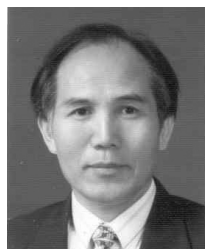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번의 시도가 허망한 환상이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크나큰 포부로 재단을 출범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뚜렷하고 감동을 줄 만한 프로젝트를 내세워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기업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재단 활성화의 지렛대가 될 만한 방안이 없겠는가? 무엇인가 매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의 동력을 탐색해보는 것이 숙제인 것 같다.

나의 미국 유학

안수용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 영어교육학



지금부터 27년 전 풀브라이트 장학금 때문에 나는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보다 1년 전인 1982년에 나는 부산대 대학원에서 영어학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학과 사무실에 들렀다가 풀브라이트 장학생 모집 책자를 보게 되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 당시 나는 미국 유학을 위하여 토플과 GRE 성적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응시해보기로 하였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에디슨이 한 말인 “천재는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Genius is one percent inspiration and 99 percent perspiration)”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신념으로 나의 상황에서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었다.

나의 영어 공부는 90퍼센트 이상 독학에 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1959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현 고등학교급)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얻는 제도가 있었다. 나는 사범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에 흥미가 있어 유진의 《영어구문론》, 메들리의 《삼위일체》, 안현필의 《영어실력기초》, 오노 게이지로(小野圭次郎)의 《영문법》 등을 사서 공부하고 있었고, 주요 영미 문학 작품들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교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영미어 문학총서’ 10권을 샀다. 《영국 문학》 《미국 문학》 《영미 시론》 《영미 작품론》 《영문법 개론》 등을 흥미 있게 공부하였다. 말하자면 사범대학 과정을 독학으로 마스터하는 것이었다. 서울 가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는데 몇 달 후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Oral Interview에서 낙방하여 이듬해 다시 응시해 합격하였고, 중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어 임용 고시를 거쳐 부산의 모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었다.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니 나날이 즐겁고 보람되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시절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장학생 모집 공문이 왔다. 나는 여기에 응시하여 무난히 합격하였고 뉴질랜드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에서 1년간 장학금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비행기표를 받고 1973년 가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은 1,000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처럼 여겨졌다.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을 뜨면서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미국 유학의 권위

의 상징인 폴브라이트 시험에 합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1982년에 한미교육위원단에 서류를 접수한 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으니 인터뷰 시험 치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인터뷰는 두 명의 심사관이 번갈아 응답 폭격식으로 질문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얼마 후 인터뷰에 합격했다는 통지와 함께 그해에는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2차 인터뷰를 다시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6~7명의 심사관이 나를 앞에 두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각기 예상 밖의 질문으로 공략하였다. 이번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해 늦은 가을쯤 놀라게도 최종 합격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것도 4년간 대학원의 Full Grant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감격 그 자체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성경 구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마태복음〉 7:7)라는 글귀를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1983년 8월 10일 우리 가족 일행, 처, 초등학교 3학년 딸,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넷이서 커다란 이민 가방 여덟 개를 싣고 유학길에 올랐다. 팬암(PanAm)기로 도쿄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4년간의 오스틴 유학 생활은 환상적이었다. 40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당당한 도서관 건물,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는 감동적인 도서관 서비스, 각 건물마다 설치된 감기에 걸릴 정도로 시원한 에어컨, 최고의 기자재를 활용하는 강의

실, 항상 파랗게 유지되는 잔디, 무료로 이용하는 통학 버스, 미국에서 서열 2위에 랭크되었던 언어학과,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아파트, 모든 것이 새롭고 만족스러웠다. 달마다 III에서 날아오는 풀브라이트 수표는 우리들을 공부 이외의 다른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유학 가기 전에 A, B, C도 몰랐던 우리 아이들은 6개월 만에 학교생활, 동료 아이들과의 대화에 능통할 정도로 영어를 습득하였으며, 나의 처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나는 영어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4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지나갔다. 1987년 8월, 우리 가족은 귀국길에 오르는 비행기를 탔다. 나의 처는 이삿짐 싸기에 정신이 없었다가 막상 비행기 좌석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아이들은 오스틴과 친구들을 떠나기 싫어 며칠 전부터 울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작은아이는 공항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노는 바람에 아이를 찾으러 가야 했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나는 언어학, 영어교육학에서 최첨단 지식의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이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빛을 항상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그 후 둘 다 미국 유학을 하여 딸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현재 서울에서 대학 강의를 맡고 있고, 아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코넬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뉴욕의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와 같은, 인생 출발이 늦은 사람에게 이렇듯 좋은 기회를 주어 인생을 바꾸게 해준 심재옥 한미교육위원단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풀브라이터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다.

나의 풀브라이트 체험기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나는 1982년에 다른 네 명과 함께 풀브라이트 학위 과정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국토연구원(당시 국토개발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유학을 결심하고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던 중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종로구 운니동 가든타워를 방문했던 일이 엇그제 같다.

당시 운니동 한미교육위원단에는 유학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실이 운용되고 있었는데 미국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토플 점수 550점에 영어 회화 실력도 시원치 않았던 내가 장학금에 지원한 것은, 어찌 보면 만용 그 자체였다. 그러나 군대에서 시설 장교로 복무하면서 미군들과 협력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 영어 면접이나 지원서 작성이 별로 두렵지는 않았다.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원의 미국 박사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던 것도 합격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무튼 합격 소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던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된다.

나이 30에 그것도 애가 둘이나 딸린 가난한 연구원에게 미국 유학은 연구원이라는 직장과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연구원의 미국 박사들을 보면서 나도 박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고, 또 다른 많은 연구원들이 유학 준비를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하버드와 버클리 대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풀브라이트를 통해 미국 대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기왕에 장학금을 탔으니, 도시 계획 분야의 최고 대학인 MIT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다른 지원 대학들(웬실베이니아 대학,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입학허가서가 왔는데 막상 MIT에서는 소식이 없어 텔렉스로 MIT에 문의해보니 합격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교육위원단에 재차 문의하니, MIT는 학비가 너무 비싸서 되도록 주립대학을 가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당시 예산 사정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것 같았다. 하긴 MIT의 연간 학비만도 1만 4,000달러에 달했는데, 예산에서 그걸 제외하면 생활비로 줄 돈이 모자랄 만도 했다. 그래서 다시 MIT에 연락을 했더니 TA를 주겠다고 해서 MIT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영어 실력이 시원치 않아 7월 말부터 시작하여 3주간 계속된 Pre-Academ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이 제도는 비영어권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답사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 D.C.의 미국가톨릭대학에서 진행되었는데, 세계 각국의 풀브라이트들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나는 특히 일본의 방위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온 우츠키 나리σκε라는 학생과 모로코에서 온 브라힘, 그리고 타이와 필리핀의 여학생, 벨기에, 아이

슬란드에서 온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다. 강의 내용은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각 민족 고유의 억양을 가진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 등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미 국무부(참고로, 미국에서 폴브라이트 장학금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무부 산하의 IIE이다), 알링턴 국립묘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제퍼슨 기념관,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있는 마운트버넌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족들과는 4주 후에 합류하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극성스러운 남자 어린애 둘을 데리고 미국까지, 그것도 뉴욕에서 1박을 하고 보스턴 로건 공항까지 집사람이 무척 고생한 것 같았다. 더구나 우리 가족이 보스턴에서 합류하기까지의 4주간(1983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전투기가 귀순해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다. 더구나 9월 초에는 뉴욕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구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된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

첫 학기에는 다소 욕심을 부려 일곱 과목이나 듣다가 나중에는 세 과목을 포기하고 네 과목의 학점을 따고, 한 과목은 TA 과목으로서 수강 신청은 하지 않고 금요일 한 시간 정도 보강 수업을 하고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이 과목의 부담이 정식 수강 과목보다 더 컸다. 한 밤중에도 걸려오는 학생들의 전화 문의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강의도 겨우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조교를 2년이나 계속했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연구원에서는 KIST와 연결된 컴퓨터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던 경험이 조교 생활을 하는 데(그리고 나중에 Instructor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당시 미국에서는 PC가 막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서 각 건물에

컴퓨터실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물론 인터넷은 없었음) 플로피 디스크를 들고 도서관보다는 컴퓨터실에서 밤새 작업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MIT에서는 이런 PC의 기종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달라져서 기술의 발달을 실감하였다. 한데 기술 발달에 대한 거부감은 미국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계산기가 있는데도 계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사무직원의 말을 듣고서는 기술 발달이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어린애 둘과 고물 자동차를 가진 가장으로서 프리스쿨과 킨더가든을 오가며 애들을 바라다주고 데리고 오던 생활을 4년간 하니 드디어 공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사람은 J-2 비자라서 Work Permit을 얻어 MIT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한국인 유학생 부인으로 MIT에서 근무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직장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서 애들 키우는 데는 무척 도움이 되었다.

4년하고도 3개월 만에 학위를 끝내니 동료들이 무척 놀랐다. 처음 박사 과정에 입학한 17명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학위를 마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헤맸던 내가……. 졸업식이 있었던 5월 28일 MIT의 킬리언 코트(Killian Court)에서는 엘가의 〈위풍당당〉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감격의 졸업장을 받았다. 애들 말대로, 이제 박사가 되었으니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유학과 배움의 꿈을 가능케 해준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명복을 빌며, 한미교육위원단의 심재옥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가 되기

윤복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주거환경학

오클라호마시티 공항에 1985년 8월 16일에 두 딸과 함께 도착했다.

1962년 9월 3일에 처음 로터리 장학금을 받고 조지아에 유학 왔을 때와는 아주 다르다. 미국 국무부에서 보내온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로 초청된 학자'라고 적힌 쪽지가 여권에 끼여 있었다. 공항에서 여권을 검사하는 직원이 별안간 경례를 붙인다.

“윤 박사님, 미합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 찾는 곳에 와서 또 한 번 놀랐다. 나를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오도록 알선해주신 샤론 니콜스(Sharon Y. Nickols) 교수와 그의 남편 샘 니콜스(Sam Nickols) 목사님이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를 데려간 곳은 르네이 앤 도허티(Renei Ann Daugherty)라는 젊은 교수 집이었다. 그분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단다. 우리가 살 집을 구할 때까지 이 집을 우리에게 내주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지내기로 했단다. 약 일주일 동안의 식사 초대 스케줄까지 다 짜 있었다.

이러한 환대 속에서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의 임무가 스틸 워터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주된 임무는 '강의'였다. 내게 주어진 과목은 학부 과목 두 개와 대학

원 세미나 한 과목이다.

이 두 과목 이름은 ‘세계의 주거 문화’와 ‘주택과 사회’였다. 누가 가르치든 간에 학과에서 만들어놓은 교안, 실라버스(syllabus)가 있다. 매일 밤을 새워가며 교안과 슬라이드 준비를 했다.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처럼.

나는 이때 많이 반성했다. 한국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너무 태만하게 가르친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한국에서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 외의 잡일이 늘 너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첫 시간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한 후 실라버스를 갖고 이번 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의 영어 실력과 교과 내용을 알았으니 학생들은 아무 부담 없이 다음 시간까지 이 과목 신청을 취소해도 좋다고 했다. 두 과목 다 학생 수는 거의 그대로였다.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의 또 다른 임무는 여러 주(State)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특강’을 하는 일이다. 니콜스 교수도 폴브라이터이고 아프리카의 마운트 케냐 대학(Mt. Kenya University)에 다녀온 분이다. 니콜스 교수는 나에게 오클라호마 주를 위시한 여러 주의 다른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도록 알선해주었다. 그러면 워싱턴 D.C.에 있는 폴브라이트 본부에서 왕복 비행기표가 오고 초청하는 대학에서는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다. 학기 중에 세 과목을 가르치며 여러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요구해오는 특강 주제에 맞출 수 있는 강의 ‘18번’을 만들고 슬라이드도 조금씩 달리해가며 1년 동안 다닌 주가 여섯 곳이고 15개 대학이나 되었다.

조지아 주립대, 아이오와 주립대, 오하이오 주립대, 캔자스 주립대, 노스이스턴 오클라호마 주립대 등에서 다룬 특강 제목을 나열하면, ‘한국



노인들의 주거 선호 '한국의 실내 장식 경향' '한국과 미국의 주거 대안 비교' '주거 문제와 가족 자원 관리' 등이다.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1년을 지내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은 니콜스 교수를 비롯해 학과장인 웨버 박사, 크랩트리(Crabtree) 학장의 배려와 환대였다. 크랩트리 학장은 총장과 교무위원들, 학과 교수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나를 위한 리셉션을 열어주었다. 웨버 박사와 니콜스 박사도 여러 번 자기 집에 우리 세 식구를 초대했다. 대학에서는 좋은 사무실을 주고 조교까지 붙여주었다. 대학원생 조교 윈디 제퍼리스의 신세를 많이 졌다.

학기 말 졸업식에서는 첨부한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 1985~1986' 표창장과 같은 액자를 크랩트리 학장에게서 받았다. 1년이 다 지나갈 무렵, 니콜스 교수가 풀브라이트 본부에 보낸 나의 1년간 업

적보고서 사본을 보고 정말 놀랐다. 내가 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고 잘 써주셨다. 그 사본 덕에 지금 이 회고담을 쓰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떠날 때는 물론 송별회도 성대하게 해주었다. 나는 두 딸과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내고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아 약소하지만 1,000달러를 장학금으로 대학에 기부했다.

학교 밖에서 두 딸과 지내는 동안 그곳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 것은 스틸워터 장로교회에서 스트러더스(Struthers) 목사님과 김영주 박사와의 만남이었다. 스트러더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게 행복했다. 게다가 사모님도 잘 대해주셨고 목사님 댁에 거의 매주 두 딸과 함께 초대받는 영광을 가졌다. 김영주 박사는 막 학위를 끝내고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여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서로 의지하고 지냈다. 교육학을 전공한 김영주 박사는 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은 내가 다니는 소망교회 2부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1986년 학기가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남편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스틸워터에 와서 모처럼 우리 식구 다섯 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틸워터에서의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내가 1986년 8월에 귀국하고 몇 년 후, 니콜스 박사 내외분과 크랩트리 학장 내외분이 각각 한국에 다녀가셨다. 그때 니콜스 교수님도 크랩트리 학장님도 연세대 생활과학대학에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학생들과 교수들은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스트러더스 목사님 내외분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어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보았다. 그때 광선희 목사님과도 인사를 나누셨다. 후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 소망교회 예배 분위기에 큰 감동을 받아 설

교 시간에 자주 소망교회를 언급하셨다고 한다. 내용은, 많은 교인이 다섯 번 있는 주일 예배에 교회가 딱 차게 모이는 것 다섯 번 예배 때마다 다른 찬양대가 수준 높은 합창을 하는 것, 강단에 장식된 꽃꽂이 솜씨, 숨소리도 안 들리는 조용함 등이다.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회원 명단에 내가 받은 장학금은 ASIR(1985~1986)로 표시되어 있다. 즉 'Asian Scholar in Residence'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에서 세계 어느 대학에서나 초청하고 싶은 교수를 선정하여 미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재단에 신청하여 뽑히면 풀브라이트에서 주는 장학금에 매칭하여 그 대학에서도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개 '강의 할 교수를 뽑는다. 1985~1986년에 내가 받은 장학금은 매달 미국 풀브라이트에서 보내오는 1,800달러와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받는 1,800달러, 합해서 3,600달러였다. 1985~1986년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다. 크래트리 학장님은 자기가 받는 급여보다 많다면 농 비슷하게 하곤 했다.

스틸워터, 오클라호마를 떠날 때 오클라호마시티 공항에서 또 한 번 놀라고 감격했다. 풀브라이트 본부에서 보내온 우리 가족 비행기표가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나는 나도 모르는 좋은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혜택과 환대를 받았고 또 좋은 경험을 통해 많이 발전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교수는 생활과학(Home Economics) 분야에서 이때까지는 내가 처음이다. 내가 공부한 생활과학은 미국이 창시한 학문이어서 미국에 가기만 해도 배우는 게 많고 영광스러웠다. 그런데 그 본고장에서 가르치는 경험까지 했으니, 나는 이러한 호기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 아직도 모른다. 지금도

나는 생활과학 분야에서 다른 교수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가 오리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귀국하고 나서 한미교육위원단에 인사하러 갔다가 심재옥 선생님, 지금의 단장님을 만났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한마디에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가 창립된 1987년 초대 회장 때부터 수도권 지역 일반 이사로 시작해 3, 4, 5, 6대 회장 때에 네 번의 부회장 그리고 7대 회장을 지냈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풀브라이어터들’은 내가 극진히 대접해야 할 분들이다.

내가 받은 환대와 혜택을 통해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가 무언지를 확실히 알았다. 나는 받은 것에 비하면 늘 빛진 사람이다.

25년 전 추억 속으로의 여행

정길정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응용언어학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오후 늦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서울에 있는 한미교육위원단 사무실이란다. 2010년에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0년사 기념 책을 발간하는데 폴브라이트 동문들의 회고담을 싣고자 하니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보내달라는 부탁이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60년 전이면 한국에서는 1950년에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지난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미국 내 대학에 자비로 유학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나 큰 시기였으며, 국비 유학생도 국가 재정상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본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여 한국 내 우수한 학생들이나 공직자들을 초청하여 유학을 시켰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의 국력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 Binational Fund로 쌍방의 유학생이나 학자들을 서로 초빙하여 상대국의 유학생이나 연구 인력의 학비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오늘날 국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봉사하

고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은 초창기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미국 내 유명 대학에서 학위 과정이나 연구 과정을 수료한 엘리트급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된다는 뜻에서 범세계적인 장학 프로그램이며 “교육은 인간지대사(教育人間之大事)”라는 정신과 기치 아래 오늘날까지 그 빛을 널리 발휘하고 있다.

필자는 25년 전인 1985년에 국내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Doctoral Dissertation Program’에 선발되어 한미교육위원단의 수혜자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언어학과에 입학 허가를 받아 그해 6월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당초 8월 말에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여름방학 중에 Pre-Academy Program에 참가하여 미국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사전 체험과 어학 훈련을 겸한 사전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한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의 공문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개설된 6주간 여름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80명 정도 되었다. 한국에서는 나를 포함해 세 명이 참가했다. 연수는 매주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의 뻘뻘한 일정 속에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어학연수 이외의 교양 강좌와 전공 심화 과정 등은 매우 유익했으며 9월 이후 입학 배정받은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주말이면 전체 연수생을 관광버스에 태워 텍사스 주의 역사 유적지, 문화센터, 유명 관광지를 두루 관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존슨 전 대통령의 기념관, 엘라모에 있는 역사 박물관, 역사 유적지는 지금도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다. 텍사스 대학에서의 마치

막 주말에는 텍사스 주 동남부 휴스턴에 있는 우주항공국(NASA)을 둘러 보았으며 그곳의 모형 우주선을 타고 기념 촬영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날 오후에는 연수 주관 기관에서 주선한 1박 2일 코스의 민박 일정이 잡혀 있었다. 미국 내 가정에서 실제 생활 체험을 얻도록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매우 유익하고 즐거웠다. 나는 60대 초반의 부부가 거주하는 가정집에 배정을 받았다. 남편은 휴스턴 대학의 교수였으며 부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파란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 속에 흰색으로 페인트칠된 전형적인 미국의 가정 주택이었다. 저녁에는 외식 초대까지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은 나에게 식사를 직접 차려 먹어보라고 하였다. 모두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한 미국 가정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침 식사 후 부인은 직장엘 나갔고 남편인 교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멕시코 만에서 요트를 타러 바다로 떠났다. 내 생애 처음 타보는 요트 놀이였으며, 두고 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산 경험이었다.

8월 중순경 텍사스를 떠나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이나 귀국 이후에도 한동안 민박했던 가정의 부부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폴브라이트에서 계획한 Pre-Academy Program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회상해보면 미국 유학을 떠나는 초년생에게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고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지금도 한미교육위원단 주관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학 초년생을 위해 계속되었으면 한다. 그때의 추억은 가끔 40대 초반 학문에 전념하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이따금 떠올리게 한다.

이 순간 어느 작가의 글귀가 생각난다. “광야로 내보낸 콩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네.”



1985~1986 Fulbright Grantees around the world,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하단 세 번째 열 좌측에서 첫 번째가 필자)

25년 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미국이란 광야에 서보지 못했더라면 나아말로 한국이란 온실 속에서 콩나물이 되거나 않았을까. 2010년으로 한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60년이 되었으니 인생 60의 완숙한 연령에 비유될 수도 있다. 풀브라이트 사업도 이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계속 풀브라이트 정신 아래 온 세계를 하나로 품을 수 있는, 한 단계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폴브라이트 회고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 | 오퍼레이션 리서치

1985년 부푼 마음을 안고 난생처음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주간의 폴브라이트 스칼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에게 미국 문화 및 미국 대학에 대한 소개를 해줌으로써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래 외국인을 만난 첫 기회로, 미국 문화에 충격받기 이전에 외국 문화에 먼저 충격을 받은 기회였다. 특히 이들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유창한 영어는 나를 놀라게 또 기죽게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열심히 어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 가르쳐줌으로써 내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의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경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89년 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폴브라이트 행사에서 상원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다. 당시 84세였던 그분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였으나, 당신이 2차 대전 후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전 세계 폴브라이트 학생들과 함께한 샌프란시스코 필드 트립에서

모든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고 직접 설명하셨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1946년에 시작되었을 때 의원님의 나이 41세였으므로 정말 젊은 나이에 훌륭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20여 년 전의 일인데도 돌이켜보니 옛그제 같고, 내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다는 데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정신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적 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은 힘이나마 국제 교류,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한다.

풀브라이트 펠로십의 추억

한승수
전 국무총리 | 경제학



내가 풀브라이트 시니어 리서치 펠로십을 받고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로 떠난 것은 1985년 8월이었다. 나는 당시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내가 미국을 가기 위해 풀브라이트 펠로십을 신청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나는 영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 대학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 대학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나의 제자들 95퍼센트는 모두가 미국 대학을 선호하였고 나의 조교들도 그때까지 한 학생을 빼고는 모두 미국 대학원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그러한지 직접 가서 보고 싶었다.

둘째 이유는 나는 그때까지 영국·프랑스·일본 등의 경제학자들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 경제 기구의 경제 전문가들과는 깊은 학문적 교류를

가졌으나 미국 경제학자들과는 비교적 소원하였으므로 그들과의 학문적 관계를 깊게 하고 싶었다.

셋째 이유는 나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아들은 중2,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영어를 배우기에는 최적의 나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미국 학교생활에 너무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여행을 많이 하였다. 특히 딸아이가 싫어하는 홈이코노믹스 시간이 낀 목요일은 항상 학교 대신 야외였다.

내가 하버드 대학을 선택한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내가 미국의 대학원 박사 과정에 보낸 제자, 특히 조교 출신 제자들이 가장 많이 가서 공부하고 있는 곳이 하버드였다. 그들 곁에 있으면서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 당시에 하버드 대학 대학원 경제학과와 케네디스쿨에서 공부했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은 그 후 귀국하여 지금 학계는 물론 정·관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둘째 이유는 나를 미국으로 초청해준 제프리 삭스 교수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연구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남미의 볼리비아 정부의 경제 고문을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는 금융 개혁안은 자기가 작성하고 나는 세계 개혁안을 만들어 함께 볼리비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해보자고 제의하였다. 삭스 교수는 냉전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에 적극 관여하였고 나는 한두 번 함께 거들여준 적이 있었다.

셋째 이유는 케임브리지야말로 하버드, MIT 등 좋은 대학들이 위치한 대학 도시이니 교육열이 대단할 것이고 그것은 해외에 처음 나가보는 우리 아이들의 향학열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됐다. 맹모삼

천지교의 교훈을 구현해보려 한 셈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학군이 좋다는 렉싱턴에 집을 빌려 1년을 뜻깊게 보냈다. 경제학과에서는 연구실을 하나 마련해주어 그곳에서 연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가끔 엔칭 연구소에 들러 우리나라 신문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즐거운 추억 중의 하나이다. 특히 주말이면 모두 함께 섬머빌의 영화관에 가서 밤늦게 영화를 보고 보스턴 시내의 볼링장으로 몰려가 신바람 나게 볼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터내셔널 팬케이크하우스에 가서 이른 아침을 먹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기만 하다. 교수가 제자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재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몰려다니며 놀도록 하였으니 핑계는 스트레스 해소였으나 선생 본래의 지도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선생,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웠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형들, 언니들과 어울리도록 한 데는 그러한 영향과 자극을 받아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훌륭한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박한 소원이 있기도 하였다.

하버드에 머무는 1년 동안 여러 제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스탠퍼드, 버클리, 코넬 등을 찾아 제자들의 학업 진도도 알아보고 지도교수들의 학문 지도 방법을 듣던 기억도 지울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1년을 의미 있게 보낸 나는 도쿄 대학 교양학부에서 가르치기 위해 1986년 8월 미국을 떠났다.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하였으나 미국에서의 1년간의 생활은 내가 미국과 미국인들을 더 잘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또 그때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가운데 친분을 두텁게 했던 이들이 그 후 클링턴 행정부에 참여하였다. 내가 서울대를 떠나 정·관계에 진출한 후 이러한 미국 생활의 경험과 그때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의 미국 경험이 상공부 장관 때 1988년 종합무역법 슈퍼301조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후 주미 대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제56차 유엔총회 의장직도 잘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국무총리 재임 중에도 그때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국가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도 형들의 학구열에 자극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 듯했다.

이러하듯 나는 풀브라이트 펠로십을 받고 미국에 다녀온 것이 학문적으로, 또 그 후 정부에 들어가 각종 정책 구상과 집행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한미교육위원단에 감사하고 있다. 지금도 펠로십을 받게 되었다고 축하하던 분의 친절한 전화 목소리가 귀에 쟁쟁한데, 그때 전화를 해준 분이 바로 심재옥 단장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고 상냥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니 너무도 든든하고 좋아 보인다.

스탠퍼드대학과 미국, 그리고 미국문화원의 추억

홍양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정치학



풀브라이트 유학은 나의 큰 꿈이었다. 부교수 이상 박사 학위 등 일정 자격 요건을 모르고 두 번 도전해서 실패하고, 세 번째 자격을 갖춘 후에는 첫 도전해서 성공했다. ‘Sr. Scholar Research, Lecturing and Exchange Course’에 선발된 것, 나의 연구 활동, 내가 세계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지성과 인격의 발전에 미국과 특히 미국문화원의 도움은 너무 커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대구 미국문화원은 나의 제2의 서재이며 연구실처럼 되어 많은 귀중한 최근 원서를 빌려 볼 수 있었는데 문화원장과 직원들의 친절과 온유한 사랑은 잊을 수가 없다. 특히 테일러 원장과 맥타가트(Mactagart) 박사는 성자의 반열에 넣어도 될 만큼 거룩하고 성실한 분이였다. 테일러 원장이 매주 ‘금요 포럼(Friday Forum)’ 때마다 참석하시고 풍성한 다과와

포도주까지 곁들여 대접해주신 일, 항상 온유하고 웃음을 띤 모습, 그리고 내 폴브라이트 연구계획서(Study Plan) 작성에 도움을 준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초대 원장이자 영남대 교수로 일하시다가 정년 후 미국에서 돌아가신 맥타가트 박사는 정말 성자시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었고, 그 성실함과 단 한 번도 성냄이 없는 인자한 모습, 단별 신사로 자가용도 없이 늘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소주 한잔쯤은 즐기시고 가끔 버스 토크도 곧잘 주시는 그 검소함,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온건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셨던 자유인, 검소했기에 가능했던, 몇 백 명 제자에게 주신 장학금 등 이분의 업적을 어찌 다 열거하리이까. 그래서 대구의 비슷한 성자이며 지성인 황기석 박사와 ‘맥’ 선생님(우리의 애칭)을 중심으로 ‘맥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매월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지며 우정과 지성을 나누었는데 맥 선생님의 서거로 끝나고 말았다. 테일러나 맥 선생님이나 모두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조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컸지만 맥 선생님은 영남대에서 추모식을 거행했기에 참석할 수 있었다.

1985년 7월 17일, 스탠퍼드 대학 인근 샌프란시스코에는 오후 늦게 도착했다. 미리 지도교수에게 알리고 갔는데 내 착각인가? 숙소 안내의 기대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인가? 스폰서 교수의 마중은 물론 없었고 당황되었으나 마침 동승했던 한국계 미국 목사님의 안내와 배려로 하룻밤 신세지고, 이튿날 지인의 안내로 스탠퍼드 대학 내 아파트에 숙소를 정할 수 있었다. 첫 도착과 숙소 안내 정도는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 6개월은 그런대로 바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연구소 도서관 내 공간을 마련해주어 불편 없이 풍부한 자료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었고, 북한 자료 등도 한국과 달리 자유 열람이 가능했다.

하루 일과는 도서관 자료 수집, 연구소와 대학 내의 세미나와 대학 정
치학과 대학원 강의 참관, 국제관(International House)에서의 학생 모임
참석, 300명 정도의 한국인 대학원생과의 교류, 정기적인 대학 내 셔틀
버스를 이용한 버클리 대학 이동과 귀가 등이었다. 혼자 갖기에 가끔 고
독(home sick)을 느꼈지만 한국 유학생들의 친근한 협조와 나의 적극적
인 교류와 ‘지도’로 재미있게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300명 한국 유학생
대부분이 서울 지역 대학 졸업생, 그것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집
중, 전공은 전자 등 공대 계열이 압도적이고 한국 방문 교수로는 나 혼
자—귀국 한 달 전에 한두 분이 합류할 수 있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주말 야구 시합을 하면 전자팀, 자료팀 그리고 ‘기타 잡과’ 팀 감독이 내
차례였다. 자주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었는데, 학생들은 시골 경북대 교
수인 나를 잘 따라주었고 그런대로 존경도 받았다고 여긴다. 8·15에는
내 애국심이 발동해서 학생들을 국제관에 모이게 하여 경축 행사를 열
었고, “나 떠난 후에도 계속해”라고 호령했다. 학생들이 얼마나 착했던
지. “홍 교수님, 군기 잡네요”란 말을 들었다. 그때 나의 경축사 한 토막
이 생생하다.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았어. 친일 문화의 세
뇌 아래 자라서 한국이 해방되었는데도 내 조국 일본이 망한 줄 알고 한
국 담임 선생과 절망해서 함께 울었어”라고 했다. “철저한 식민 교육이
이렇게 무서웠어. 이제 자유 해방의 민주 국가의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
개!”라고 악센트를 달며 소리쳤다. “교수님, 정말 조국 일본이 망한 줄
알고 울었어요?”라고 믿기지 않는 양 학생들이 내게 물었다.

1980년대 말 폴브라이트 시니어 펠로

라종일
우석대학교 총장 | 정치학

1980년대 말 폴브라이트 시니어 펠로로 로스앤젤레스의 사우스캘리포니아 대학(USC)에 머문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일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전에도 미국을 포함하여 해외의 다른 대학에 머문 일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험은 여러 가지로 특이하였다. 우선 한 동네에 사는 다른 교수님들과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것이 매우 즐겁고 또 유익하였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생활 리듬이 단조로운 미국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아마도 외부의 약속이 많은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출퇴근의 자동차 비용을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듯싶은데, 가장 유익한 경험은 대략 한 시간여 걸리는 통근 시간 중에 각자의 전공이나 그 당시의 관심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었다. 점심도 대개 브라운 백 런치(brown bag lunch)라고 하는 간단한 것들을 갖고 다녔는데 점심시간에도 모여 샌드위치와 보온병에 든 커피를 들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것도 즐거운 기억이다.

그러나 정작 이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 나는 딸이 셋이 있는데 끝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 1973년이고, 짐사람의 몸이

약해 그 이후에는 애를 더 가질 생각도 못하는 바람에 저절로 단산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의외로 15년 만에 집사람이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주변에서, 특히 의사 친구들은 인생의 늦은 시기에 신중히 출산을 생각하라는 충고들을 하였지만, 나와 집사람은 일부러 아무런 의학적인 검사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의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연 분만으로 낳았는데, 주변의 염려와 달리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아이였다. 그 애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득남을 한 셈이어서, 한미교육위원단의 책임을 맡고 있던 분에게 편지를 썼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때문에 인생의 늦은 시기에 아이를 기르고 교육시켜야 하므로, 양육의 책임 일부는 위원단에 있다”는 글이었다. 답장을 받았는데,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유인즉슨, “이것이 알려지면, 남아를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도나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원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힘의 오만을 경고한 정치거인 폴브라이트

임성호
경희대학교 교수 | 정치학



폴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1985년 이래로 폴브라이트라는 이름은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정작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이름을 제공한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안식년 연구도 할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더욱이 내 전공이 미국 정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미국 정치의 거인 폴브라이트 의원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 폴브라이트 60년사가 편찬된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개인적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폴브라이트 의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며 그에 대해 대강이나마 알아보기로 했다. 폴브라이트 의원이 남긴 족적이 워낙 크지라 그에 대한 자료는 무척 많다. 앞으로 언젠가 시간이 날 때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글을 쓰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게 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여기서는 아쉽지만 최소의 자료만 보고 그에 대한 단편적 소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두드러진 것은 그의 경력이다. 윌리엄 풀브라이트(William Fulbright)는 1905년 미주리 주에서 태어나 만 89세인 1995년 서거할 때까지 눈부신 활동을 했다. 아칸소 대학, 옥스퍼드 대학, 조지워싱턴 법대를 졸업하고 잠시 변호사, 대학 강사로 일할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수재였지만, 1939년 불과 34세에 아칸소 대학 총장이 되면서부터 그의 화려한 경력이 시작된다. 당시 미국 전체에서 최연소 총장이었다. 1942년에는 아칸소 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시작한다. 풀브라이트는 이미 하원 시절부터 국제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정치 초년생 시절이던 1943년 소위 ‘풀브라이트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이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적극 이끌고, 이를 위한 국제 조직(후에 유엔이 됨)에도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상원 시절은 1944년 선거 승리로 시작되어 1974년 민주당 예비 선거 패배로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정책 업적을 남기며 30년간 계속된다. 그의 대표 업적 중 하나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그가 제출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시작되어 오늘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954년에는 당시 ‘매카시즘’ 광풍을 몰고 다니던 극단적 반공주의자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 매카시가 위원장으로 있던 소위원회의 지출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이 풀

* 참고한 자료 중 특히 크게 의존한 것은 다음과 같다. William Safire, *Safire's Political Dictionary*(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Council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Scholars의 홈페이지 www.cies.org; <http://bioguide.congress.gov/scripts/biodisplay>

브라이트였다. 그로 인해 매카시와 폴브라이트는 원수가 되어 매카시는 폴브라이트를 ‘하프브라이트(Halfbright)’ 의원이라며 조롱하곤 했다.

정치 거인 폴브라이트의 전성기는 1959년부터 1974년까지 상원 대외관계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 역사상 최장수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시절이라 하겠다. 그의 화려한 경력보다 더 주목할 점은, 그가 미국 대외 정책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이던 이 전성기 동안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권력에 견제를 가하는 대쪽 같은 선비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같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에게 쿠바, 도미니카 사태 등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곤 했다. 그런가 하면 막강한 이스라엘 로비 집단을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 호전적 매파가 미국의 안보 정책과 군사 정책을 강경한 쪽으로 편향시킨다고 비판함으로써 냉전 시대의 주류 입장에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다.

폴브라이트 의원의 반(反)냉전 소신과 용기는 특히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그도 처음에는 베트남전 확전에 찬성했지만 이내 과오였음을 깨닫고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섰다. 그의 반대 논리는 대학 총장 출신답게 국제 관계에 대한 해박함과 통찰력에 입각한 것으로서 학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났다. 그의 반대 논리는 ‘힘의 오만(arrogance of power)’이라는, 그가 쓴 책의 제목에 잘 요약되어 있다. 즉, 미국의 힘이 워낙 커지다 보니 왜 전쟁을 하는지 명확한 동기도 없이, 단지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고 힘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심리적 욕구, 다시 말해 오만함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초강대국이 빠지기 쉬운 이 ‘힘의 오만’으로부터 미국이 벗어날 것을 역설하는 가운데 그는 베트남전 개입뿐 아니라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미국 대외 정책 전반을 비판했고, 미국의 힘보다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 국제 협력에서 탈냉전 평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힘의 오만에 대한 폴브라이트의 경고는 4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도 절절하게 공감을 자아낸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에 비해 소련이 무너진 이후 미국의 힘은 더 커졌다. 중국과 통합 유럽이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테러 집단 등 새로운 도전 세력이 만만치 않고 지구화의 복잡한 연계망도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폴브라이트의 역사적 공헌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문화, 사회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힘의 오만에 대한 경고를 통해 오늘날 정치, 국제 관계 영역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평소 폴브라이트 의원은 정치 현안에 대한 농담을 즐겼다. 오만한 개입주의가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지로 개입을 받는 측에 더 큰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폴브라이트 의원은 매우 유머러스하지만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세 명의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그날 했던 선행을 대장에게 보고했다. “할머니가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장은 말했다. “잘했다. 그런데 그 일을 너희 세 명이 함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자 그들은 자랑스럽게 답했다. “할머니가 원치 않아 힘을 합해 끌고 건너야 했습니다.”

나의 풀브라이트 인연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농업경제학



세상의 수많은 말 중에 듣기만 해도 내 가슴이 훈훈해지는 어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풀브라이트’이다. 미국의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만든 이 장학 제도 덕분에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 일원으로서 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았고, 그 결과 내 가족의 인생 행로가 크게 바뀌었다. 동문회의 원고 청탁을 받고 잠시 짬을 내어 나의 풀브라이트 인연을 정리할 기회를 가진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취직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정책과 사회과학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 기관에서 역할을 다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가 필수 조건이다. 석사 학위를 받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결혼해서 아들까지 두어 유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당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원에 다니던 선배들이 많이 있

었다. 그분들을 보면 매우 부러웠으나 나에게서는 이를 수 없는 꿈처럼 보였다(나중에 박사 논문을 완성했을 때, 머리말을 '이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시작하였다).

선배 중 한 분이 폴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실력으로 보아 안 될 일이라 미리 체념하고 쳇바퀴 도는 일상에 빠져 있었다. 선배는 나를 볼 때마다 토폴 시험 보았는지를 물었고 자꾸만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도 미안하여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많은 폴브라이트 동문과 대동소이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영어 성적이 나왔는데 다행히 기준을 넘어섰다. 공부할 계획과 자기소개서를 몇 차례씩 고쳐 제출한 후 면접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내 인생에서 손꼽히는 낭보 중의 하나였다. 그 무렵 딸을 낳았고, 이듬해 유학 갈 학교가 결정될 무렵에는 직장에서 승진까지 했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경사가 겹쳤는데, 어려운 나의 형편에 단비가 내린 것만 같았다.

미국은 난생처음 가보는 외국이었다. 한미교육위원단장 덕에서 과분한 환송을 받은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위스콘신대로 가기 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4주간의 어학 과정이 있었다. 도쿄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고 덴버에 내리니 볼더 가는 셔틀이 기다리고 있었다. 깜깜한 밤중에 모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기숙사에 등록하고 어학원에 가니 첫 달 생활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학 다녀온 선배들이 학비가 모자라 찢찢매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다. 수십 개국에서 온 폴브라이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휴일이면 로키 산맥으로 놀러 가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어학 과정을 마치고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본격적인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농업경제학과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유서 깊은 곳이다. 제도학파의 전통이 살아 있으면서도 수학적 접근이 강한 경제학과가 있어 내 전공을 공부하기엔 딱 좋은 곳이었다. 폴브라이트에서는 매월 학비를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인근 시카고에 주변 지역의 장학생들을 모아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주는 등 과외 활동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다.

거의 5년에 걸친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었다. 각각 다섯 살씩 더 큰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연구원에 복직하였다. 폴브라이트 덕분에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5년은 내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내게 잘해주신 미국 대학의 지도교수는 은퇴했지만 요즘도 1년에 두 번 정도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는다. 70대 중반인데도 전과 다른 없는 목소리로 반갑게 대해주실 때마다 안도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와 폴브라이트의 인연은 7년 후 안식년 때 다시 맺어졌다. 고위 연구자 과정에 응모하여 합격되었는데 그해 말 외환 위기가 닥쳤다.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돌아오고 안식년은 생각도 못할 때 좋은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게 된 것이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 원화로 따진 지원금의 가치는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었다. 폴브라이트 재단이 내게 두 차례나 베풀어준 이 엄청난 혜택에 비해 내가 한 역할은 너무 미미하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폴브라이트 재단의 역할에 대해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폴브라이트와 맺은 길고도 짧은 인연

김경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사회학

먼저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충심으로 경하하며 앞으로 60년, 더 나아가 언제까지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개인적으로 폴브라이트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 시절 이만갑 선생님의 지도 아래 농촌 조사에 참여하던 때부터 그와 같은 경험적인 조사 연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폴브라이트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관계는 주로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젊은 교수와 학생들을 심사하고 면접하는 일에 자주 참여했던 데서 시작하였다. 당시 사무실은 지금의 안국역 근처에 있어 그곳에 드나들던 기억이 아직도 새삼스럽다. 그리고 1986~1987년 워싱턴 소재 윌슨센터(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연구교수(Fellow)로 초청받았을 때는 폴브라이트의 여비 지원을 받아 정식으로 나도 동문이 되었다. 동문이라고는 하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실질적으로 동문들 모임에도 잘 참여하지 못해 아쉽고, 동문회에 이렇다 할 기여도 하지 못한 것이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초기부터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일찍 접했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프로그램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한미 관계의 공고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는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처음 미국 유학을 갈 때부터 미국의 재단이나 대학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공부와 연구를 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하는 말이지만, 1960년대 우리가 겨우 경제 성장을 시작하던 무렵부터 미국의 장학금 제도가 한국의 엘리트층을 육성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한가운데에 폴브라이트가 우뚝 서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유학하거나 연구한 인재들 중에는 대학교수도 다수 있지만 정치권과 공식 사회에도 요직을 맡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한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에서 기여한 점은, 내가 연구한 한국 엘리트층의 교육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분석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뿐만 아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또 한 가지 특색은 이것이 일방통행식 장학금 수여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학자, 교수, 연구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교육과 연구 등에 참여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대학이나 기타 참여 기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영향을 미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문화를 접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한 것도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동시에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와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요컨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그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한미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문화적 외교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

가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뒤늦게나마 국제교류재단 같은 기구를 설립하고, 한국학 연구 기관과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풀브라이트의 모델에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풀브라이트가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더욱 활발한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플브라이어: 그 후광과 자부심

김혜숙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철학

누구나 한두 번씩은 크건 작건 삶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살고, 나중에 그 굴곡을 헤쳐나올 수 있게 해준 주변 사람들이나 계기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곤 한다.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곤란이었다.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여 10여 년 동안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도 심리적인 위축은 그리 없었던 것 같다. 풍족했던 시절에도 항상 검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부모님 덕택에 경제적인 상황의 좋고 나쁨은 나의 사람됨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는데, 막연하나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공부에 매달렸기 때문일 것이다.

또 쉽게 안착하기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고지식함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자란 지역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누리라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무작정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것이나, 대학 졸업 후 바로 교직에 나가 안정된 생활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은행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대출받아가며 연구소에 박봉의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나, 어디

서든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겠다고 무작정 결심한 것이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어디서든 받겠거니 막연히 생각했던 장학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다. 요즘 학생들 표현에 따르면, ‘완전 토종’이었던 나의 잠재력을 믿고 4년간 장학금을 주겠다고 결정한 풀브라이트 덕분에 나의 유학 생활은 그 이전 10여 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 스탠퍼드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집 출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학 생활의 경제적 안정이란 남편이 학교에서 RA나 TA를 하면서 받은 생활비와 Tuition Waiver, 그리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에서 내 등록금을 내고 남은 것을 합쳐 얻는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경제적 부유함이 그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우리 부부로서는, 그래서 1,300달러짜리 8년 된 중고차를 샀을 때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캘리포니아 북부의 레드우드 숲을 보고 오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렸을 때도 그날이 마침 금요일 오후에 개리지(garage) 문 닫기 30분 전이라 30달러로 문제를 해결해 다행이라고 여겼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수혜자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내게도 단순한 경제적 도움만이 아니었다. 대학에 지원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풀브라이트에서 도맡아준 것과 비자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된 것 등도 결코 작지 않은 도움이지만, 더 큰 것은 풀브라이트라는 이름이 주는 후광과 자부심이다. 능통한 영어 구사가 필수적인 카운슬링 전공이라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에서 학생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는 지도교수의 축하성 멘트에도 풀브라이트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었던 걸 보면, 내가 스탠퍼드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주된 이유는 풀브라이트의 후광 때

문이 아닌가 싶다.

내 이력서에 꼭 들어가는 'Fulbright Grantee 1987~1991'이라는 후광은 UC 버클리 상담 센터에서 1년간 풀타임 인턴십을 얻는 데도 귀중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재옥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당시 여타 좋은 카운슬링 전공들처럼 스탠퍼드 대학도 미국심리학회(APA)의 인증을 받고 있었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졸업 전 반드시 1년간 인정된 곳에서 풀타임 인턴십을 마쳐야 하는 것이었다. 스탠퍼드에서 가까운 버클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니 여러모로 다행인 데다 마침 4년간의 풀브라이트 그랜트가 끝나는 시점에 급여까지 받게 되어 금상첨화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IIE에서 제동을 걸어왔다. 인턴십은 허용하겠으나 급여를 받을 순 없다는 것이었다. 풀브라이트 그랜트를 받을 때, 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 돌아와 적어도 2년 이상을 봉사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한 것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한국에 돌아가 2년 이상을 봉사하지 않았으니 인턴십 급여도 받지 말라고 하였다. 인턴십 과정은 학위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과, 학위 취득 전의 1년에 국한된 점, 인턴십으로부터 나오는 급여가 꼭 필요하고 풀브라이트 그랜트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IIE 담당자를 설득했지만 결국 내 선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때 부단장이셨던 심재옥 선생님께서 해결해주셨던 것이다.

IIE 얘기를 하다 보니 엉뚱한 일이 하나 생각난다. 스탠퍼드의 인터내셔널 센터에 처음 갔을 때 만났던 한 직원이 흥미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정보부 소속이세요?”였다. 영어 때문에 잔뜩 긴장해 있던 내게 맥락과 전혀 안 맞는 질문이 들어왔으니 나는 또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생각하며 되물었다. 그 직원 왈, “여기 IIE 명칭에 information이란 단어가 들어 있어서”라는 것이었다. 007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폴브라이트에 대해 잘 몰라서 내가 장황하게 설명해야 했던 사람은 그 직원 한 사람밖에 없었다. 다른 모든 경우에 ‘폴브라이트’는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담은 말로 쓰이곤 했다. 그래서인가, 남편도 결국 연구년에 폴브라이트로 브리검영대에서 한국 교육에 관해 1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우리 가족은 폴브라이트에 더블(double), 아니 트리플(triple)로 감사하고 있다.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로서의 미국 생활

노부호

서강대학교 교수 | 경영학

내가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로 인디애나 대학에 1년간 연구년 휴가를 받아 간 때는 1987년이었는데, 40대 초반으로 한창 연구에 매진하던 때였다. 나는 그때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생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산 계획 및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다. 1985년 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 연구한 내용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이 분야의 대표 학자라 할 수 있는 클레이 와이바크(Clay Whybark) 교수가 내 발표를 듣고 나의 연구에 관심을 보여 우리 둘은 이 분야의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합의하였다. 우리는 서울에서 두 차례 더 만나면서 내가 처음에 개발했던 설문지를 수정하여 유럽, 중국,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 비교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때 와이바크 교수는 미국을 떠나 유럽과 중국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내가 연구년 휴가를 받는 1987년과 일치하여 나는 이 연구를 기초로 풀브라이트에 연구 신청을 했고 와이바크 교수가 있던 인디애나 대학에 1년간 가게 되었다(지금 와이바크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가 있다). 우리의 국제 비교 연구는 내가 인디애나 대학에 있으면



1990년 상하이 콘퍼런스

서 같이 끝냈는데 이 국제 비교 연구에 다른 나라의 학자들도 참여시키기로 하여 처음에 18개국 26명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1990년에 상하이와 서울에서 1차로 만나 국제 회의를 했다.(1990년 상하이 학회 사진 참조) 그때 중국은 개방이 시작되던 시기라 입국이 쉽지 않은 데다 호텔이 제대로 된 게 없었지만 우리는 막 건설이 끝난 상하이의 힐튼 호텔(거의 확실치 않음)에서 학회를 끝내고 곧이어 서울로 와서 국제 회의를 한 결과, 국제 비교 연구 단체를 만들기로 했고 내가 조직 명칭을 세계생산연구회(GMRG, Global Manufacturing Research Group)로 하자고 했다. 그 후 GMRG(gmrg.org)는 매년 회원 국가를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이제 21회째를 맞고 있다. 20회는 2009년 6월 스웨덴에서 개최되었다. GMRG에는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경영학의 톱 저널(Top Journal)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 나는 폴브라이트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이 국제 비교 연구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

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되면서 국제 교류와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상의 연구 활동 외에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1년간 같이 생활하여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소득이었다. 나는 그때 네 살과 여덟 살인 두 딸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 이 둘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중이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를 구경했고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까지 갔다. 그리고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다음 해 1월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Senior Research Scholar들의 콘퍼런스가 있어 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등 동북부 지역을 구경하고 왔다. 워싱턴 D.C.에서는 지금은 돌아가신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강연을 듣고 그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가 나눠준 그의 저서에 사인도 받았다. 귀국할 때 하와이에 들러 우리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였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처럼 장기간 생활해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인데, 요즘도 우리는 가끔 이 시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감회에 젖는다.

연구 생활과 더불어 우리 가족이 의미 있게 1년을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준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보스톤 케임브리지에서의 1년을 회상하며

오용호
오용호법률사무소 대표 | 증거법

저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1987년 6월 15일부터 1988년 6월 15일까지 풀브라이트의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Grants'로 선발되어 Visiting Scholar로 하버드 로스쿨에 다녀왔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 결정된 후,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였더니, 법관 장기 연수의 일환으로 이미 독일에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하려면 휴직을 하고 다녀와야 한다 하여, 저는 법원의 1년 휴직 허가를 받아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0년 8월부터 1981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금으로 브레멘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민사법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차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35세의 나이에 영어 학원과 한국외국어대학에 있는 영어 Intensive Program에 들어가 3년여 동안 영어 공부에 매진하여 10여 회의 토플시험을 쳐서 하버드 로스쿨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회는 당시 본인을 비롯하여 로스쿨에서 공부하게 될

장학금 수혜자들을 위하여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실시하는 2개월 동안의 Orientation in the U.S. Legal System Program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조지타운대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과 같은 방에 묵으며, 그곳 대강의실에서 미국 각지의 로스쿨에서 공부하게 될 세계 각국의 법학 전공자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미국 헌법,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관할 등을 다루는 소송법, 민사법, 세법 등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워싱턴 D.C.의 유명 로펌 사무실을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는데, 당시 로펌의 규모와 로펌 사무실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다시 실감하였습니다.

보스톤에서는 찰스 강변에 있는 하버드 대학 기숙사인 피바디 테라스 (Peabody Terrace)에 살면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마틴 루서 킹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면서, 아파트 꼭대기 층에 있는 도서실에 자주 가서 공부를 하곤 하여 대견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분수대에서 뛰어놀던 당시 세 살이던 딸은 그때 인연 때문인지, 저에 이어 보스톤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 중 신문 광고를 통하여 중고 포드 템포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미국 전역을 여행 다니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행운도 있었습니다. 7년여 전 독일 유학을 하면서 온몸으로 터득했던 노하우 덕분에 보스톤에서의 유학 생활은 한층 수월하고 시행착오가 적었습니다.



Visiting Scholar and Researchers -하버드 로스쿨(1987-1988)

니다. 독일어나 영어가 어순은 달라도 공통점이 많은 까닭에 미국에서의 로스쿨 공부도 훨씬 수월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법행위법, 민사소송법, 불법행위법 연습, 환경소송법, 법경제학,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들었으며, 여기서 얻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여, 200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불법 행위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나름대로 미국에서의 연구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을 연구하면서, 미국에서는 불법 행위 소송에 있어서의 손해 배상 액수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에 있어 사고 억제와 적절한 배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는 사망 사고에 있어서도 위자

료(정신적 손해액)가 미미하였던 그 당시 미국에서는 정신적 고통은 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계속된다고 여겨 위자료를 재산상 손해액의 2배로 정해놓은 것을 보고, 미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실무자로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어서 빨리 한 단계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미국만큼 달하지는 않겠지만—피해에 상응하는 고액의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해보았습니다.

뉴햄프셔 주의 가을 단풍, 5대호 연안의 봄·가을 풍경,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의 설경,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광대한 규모와 잘 보존된 자연, 미국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의 장엄한 자연 경관 등을 방학 기간 중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유학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첫 번째 유학을 하였던 독일보다도, 독일에서의 시행착오 때문에 보다 알찬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보스턴에서의 유학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인생의 많은 지침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준 한미교육위원단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의 창립 목적이 구현되는 데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한미교육위원단 60주년을 축하하며

서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미국 문학



먼저 한미교육위원단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글을 쓰려고 앉아 폴브라이트와의 인연을 더듬으며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것은 고마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군요.

한미교육위원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재호 선생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지 한 학기 만에 휴학하고, '책 속에 코를 박고 앉아 있을 때가 아냐, 세상을 봐야지' 하며 아주 절박해져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때였지요.

이재호 선생님을 따라 순화동에 있던 폴브라이트 사무실에 가서 유재호 선생님을 만나고, 이스트웨스트 센터 장학생 선발을 거쳐 김포공항을 떠난 1970년 8월의 그 무더위가 뿌옇게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지금의 폴브라이트 사무실에서 심재옥 선생님

을 만나고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시니어 펠로십을 받아 첫 연구년을 가게 되었지요. 저의 이런 경험은 외국 유학 장학금이 거의 없던 시절에 미국 유학을 다녀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수들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지난 2009년 12월, 오랜만에 송년회 모임에 나가서 풀브라이트가 걸 어온 길, 변화와 위기, 성장에 관한 심재옥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삼 풀브라이트가 한국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를 확인하였지요. 1977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한미교육위원단과 함께해오며 정부 지원 장학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대폭 올려 확보했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은 심 단장님뿐만이 아니었지요.

이제 창단 60주년을 맞아 한미교육위원단은 지난 시대의 성과를 근거로 더 큰 도약과 도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한미교육위원단은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를 키워온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종류가 국내외에 많아졌지만, 그럴수록 한미교육위원단은 돈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0~1970년대에 후진국 인재들을 키워왔던 그 정신을 되살리면서 말입니다.

또한 한미교육위원단이 우리 사회를 향해 말하고자 할 때는 위원단의 특수하고도 자유로운 위치를 활용하여, 제도권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건전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교육 제도를 점검하고자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조기 영어 교육이라든가, 조기 미국 유학과 관련된 안전들에 집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회원들이 여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면, 다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는 무심한 태도도 변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앞으로도 계속 교육과 연구를 선도할 젊은 인재를 키우는 핵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국제적 리더십으로 진입하는 교량 역할을 해준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협동총장 | 간호학

학위 취득 후 귀국한 지 11년 만인 1989년 9월부터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를 받아 미국 대학 두 곳에서 보낸 6개월은 그야말로 학문적 성취감을 만끽한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실무 간호 이론을 개발하고 또한 국제적 리더십으로의 접근을 통해 세계와 인류를 품는 간호에 정진할 수 있게 한 현장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크다.

첫 3개월 받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만성 정신 질환자들의 돌봄 경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당시 텍사스 대학 간호대학원에 재직하던 간호학 이론가 로레인 워커(Lorraine Walker)와 케이 에반트(Kay Avant) 교수가 함께 진행한 이론 수업은 개념 분석부터 이론 발전 단계의 세부적인 적용 및 검정 과정을 통해 Interpersonal Caring을 이론화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천혜의 기회였다. 이 이론은 1995년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 사회 정신 재활 간호 사업의 역할 및 모형을 제시한 UNDP 프로젝트의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로 사용되었는데 1·2·3차 예방에 걸친 정신 보건 전달 체계의 연계 서비스 효과를 증명한 임상 시행(Evidence-Based Practice)의 첫 사례가 되어 다양

한 실무 현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 지역 사회 재할 간호 센터의 이상적인 역할을 시범한 이 프로젝트는 UNDP와 WHO,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국제적인 간호 관련 학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간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간호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International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겨준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UT)에서의 또 다른 소중한 경험은 당시 Honorary Society of Nursing인 International Sigma Theta Tau 회장 겸 UT School of Nursing의 학장인 빌리 브라운(Billye Brown)박사와 6주간에 걸쳐 가진 일대일의 Deaning Internship이었는데, 이 경험적 멘토 학습은 귀국 후 간호대학 학장직을 수행할 때 큰 동력을 제공해주었다.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ee의 후반 2개월 받은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School of Nursing에서 보냈는데, 이 기간은 바로 1989년 6월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간호협의회 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Congress에서 공표되었던 Lucille Leone Distinguished Professor로 초빙된 기간과 맞물렸다. 미국 간호학 발전에 큰 공헌을 끼친 군 간호사(Cadet Nurse)였던 루실 리오니(Lucile Leone)가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석학교수직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간호학자 1인을 선정하여 숙소를 포함한 생활비와 연구비 등을 제공하는 간호계 최고의 영예로운 Award 중 하나이다. UCSF의 이 석학교수 자리는 1997년에 외국 간호학자로서는 첫 FAAN(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으로 영입되는 또 하나의 영예로 이어준 교량이 되었다.

UCSF에서 누린 다른 한 가지 축복은 당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제자 이해옥 매사추세츠 대학(UMass) 교수와 Fulbright Scholarship으로 박사

과정에 있던 유은광 한양대 간호대 교수와 함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대학원 중심의 학구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한국 간호의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나누며 학문 발전을 위한 협력과 동료적인 연합을 다지는 시간들이었다.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는 본인으로 하여금 장학금 되돌리기 실천을 포함하여 전공 영역을 비롯한 사회에로의 지식 환원,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체득하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였음을 고백하며,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미교육위원단 과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폴브라이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

김동연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 국제경제학 · 공공정책학



앤아버에서의 첫 학기. 현직 공무원으로 최초의 폴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부담. 공부를 마치면 다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복귀해야 하는 의무. 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 어머니 등 부양 가족들. 공부를 빨리 끝내야 할 이유는 넘치도록 있었다.

그러나 첫 학기의 현실은 글자 그대로 ‘서바이벌 게임(survival game)’이었다. 당장의 생존이 문제였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다. 학위는 둘째 문제고 첫 학기를 잘 넘겨야 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했다. 대학 다니면서, 고시 공부 준비하면서 닦았던 성적 잘 받는 모든 노하우가 동원됐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낸 첫 학기, 성적만 놓고 볼 때는 대성공이었다. 빙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같고 님은 ‘시험공부’의 경험 때문에 성적을 잘 맞는 데는 상당한 비교 우위가 있었던 탓이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다음 학기에 찾아왔다. 진짜 적은 안에 있다고 했던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두 개의 질문에 도무지 답을 할 수 없었다. '왜 공부를 하는가? 무슨 공부를 하려 하는가?' 둘째 학기 내내 이 질문으로 고민했다. 성적은 답이 되지 못했고, 나는 보다 근본적인 답이 필요했다. 이 갈증을 풀지 못하면 한국에서 공부하던 식대로 '시험공부하는 기계'가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얼마 뒤 시카고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폴브라이터들 모임이 있었다. 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거침없이 돌아오는 다양한 답들. 왜 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까 고민하면서 몇 개월을 보냈다. 그 질문들은 결국 내가 이제껏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도록 했다. 왜 나는 공직을 택했을까. 왜 근무지로 경제기획원을 택했을까. 죽을 고생 해서 오려고 했던 유학은 가슴에 박사라는 훈장을 하나 받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고민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이제껏 내가 원해서 택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주위나 사회에서 원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었다. 주위나 사회에서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길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원했던 길은 무엇이 있을까. 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이 서른이 넘어, 적지 않게 사회생활까지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공부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었다. 그것은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이자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문제였다. 당장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이제껏 해오던 ‘시험공부’하는 식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내게는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에 해당하는 엄청난 변화였다.

그때부터 익숙한 습관들과 헤어지기 위해 노력했다. 한참 뒤이기는 했지만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우선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이 바뀌었다.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보다는 하고 싶은 과목을 택했다. 논문을 빨리 끝내기 위해 생각했던 계량 모델을 돌리는 방안을 접었다. 가장 흥미를 가졌던 주제를 파고들었다. 의사 결정 이론은 재미있는 주제였다. 그런데 의사 결정 참여자 간에 힘(power)의 차이가 있을 때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생겼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정책 결정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큰 호기심이 생겼다. 기존의 문헌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던 나는 꼴독에 빠진 개미처럼 파고들었다. 새로운 이론과 새 의사 결정 모델, 방법론으로의 게임 이론(game theory),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의 사례 연구(case study)가 필요했다. 주위에서는 시간이 엄청 걸릴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초 계량 모델을 돌려 학위를 받으려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는 체험이었다. ‘시험공부’가 아닌 ‘학문’을 하는 재미였다.

두 번째 변화는 공부를 마치고 공직에 복귀해서 생겼다. 이전에는 왜 공직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늘 답이 궁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거창한 말은 낮간지러웠고 고시가 있어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는 솔직은 했지만 남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웠다. 따지고 보면 역시 주위와 사회가 권한 길을 걸어온 것에 불과했다. 내가 택했던 공직이 애초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폴브라이터로 공부할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 그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몰락한 가세(家勢). 1970년대 초,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이 철거되면서 지금의 성남시로 강제 이주된 중학 시절.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진학했던 상업학교. 채석장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노상에서 좌판까지 벌이며 네 남매를 키웠던 어머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들어간 첫 직장. 열일곱의 나이로 시작한 은행원 생활. 은행을 다니면서 병행했던 야간대학에서의 공부. 할머니와 어머니, 동생 셋을 부양해야 했던 가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며 했던 고시 공부.

이런 배경 탓에 내 주위에는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넘쳤다. 그 속에서 같이 땀 흘리고 살을 비비고 살면서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의 따뜻한 가슴도 알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직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내가 근무했던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정책'들로 가득 찼다. 정책결정론을 공부한 학자로 현실 사회에서 개입한 practitioner라고 생각하니 중앙의 정책 부서는 '정



미시간 대학에서 가족과 함께

책'이란 물고기로 가득 찬 황금 어장이었다. 그것은 앤아버에서 체험했던 '시험공부'가 아닌 '학문'을 하는 희열과 똑같은 차원의 희열을 사회 생활 속에 옮겨놓은 것과 같은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을 내게 하나 더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알게 해준 것이었다. 젊은 시절,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적이기까지 했던 것들조차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인,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흔뜨리는 축복을 넘치게 받은 것이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위장된 축복'이었다.

풀브라이트는 나와 가족에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기회와 새로운 지평을 제공했다. 그것은 단순히 공부나 학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혜택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나

는 주저하지 않고 젊은 시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치열하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고민은 나를 어떤 도전에도 겁나지 않게 했고, 하는 일에 죽도록 헌신하도록 했으며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란 것을 몸으로 깨닫게 만들었다.

작년에 큰애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20년 전 내 모습이었다. 얼마 전 화상 통화에서 큰애는 아버지가 앤아버에서 공부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버지는 괴물이었다고 했다. 나는 부정하지 않는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큰애가 대학원에 진학하기 직전, 내가 준 두 가지 충고를 상기시켰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도전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 찾아 나서라.”

그것은 폴브라이트로 인해, 이제껏 살면서 얻은 교훈 중 가장 큰 교훈이었다.

늘 감사한 마음, 빛진 마음으로……

유은광
한양대학교 교수 | 간호학

먼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좋은 길들 중에 가장 잊지 못할 길은 ‘Fulbright Doctoral Grant’를 받고 드넓은 학문의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1974년 대학 시절 외국 유학의 꿈을 품고 안국동 수운회관 옆 고합빌딩 4층과 5층에 있는 한미교육위원단을 자주 드니다들며, 그곳에 비치된 미국 대학의 브로셔를 보면서 유학의 꿈을 품은 때가 엇그제 같다. 지금도 고합빌딩만 생각하면 젊은 시절의 꿈이 새롭게 다가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양 공연히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

대학 졸업 후 교수가 되고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도 유학의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 마침, 간호학계 은사님 한 분이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로 에모리 대학에서 연구하고 계시다는, 학계 신문에 실린 소식을 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간호학 분야 자체는 Fulbright Doctoral Grant의 지원 전공 영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구 주제가 한국 문화와 여성

의 산후 관리여서 이와 관련한 문화 쪽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대상이 되었다. 간호학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수혜자가 되어 1989년 7월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특정 학과에 구애됨 없이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넓고 깊은 안목으로 심사하여 주신 당시 프레더릭 캐리어 단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지금도 깊이 감사한다.

1988년 7월 말부터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프리아카데미 코스를 거치고, 간호학 전공의 최고 명문인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에서 시작된 유학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 가라’는 말이 저주처럼 들리는 때에 무려 셋을 데리고 유학을 갔으니,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심적, 물리적 부담인데, 미국에서 잘 알려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그리고 간호학과 최초의 수혜자로 명예를 실추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한 대학에서 어렵게 허락받은 2년간의 휴직 기간 동안 반드시 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 한창 엄마가 필요한 나이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2년이란 기간은 악몽 같은 상황이었고, 그것에 맞서는 길은 오직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에만 매달리는 길밖에 없었다. 당시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단 5분이라도 아이들과 더 대화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을 뿐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경치도, 훌륭한 선생과 학생들과의 풍부한 교제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아침 8시 도서관 문 열 때 나가면 제1번으로 도서관에 뛰어들어가 자리 잡고 공부를 시작하여 새벽 2시 학교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이 나의 생활 전부였다.

2년간 정신없이 공부만 하여 6쿼터 70학점을 이수하고, Proposal

Defence를 끝내고 집에 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느꼈고, 내가 사는 기숙사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다. 너무 늦게 말이다.

세 아이 양육과 살림은 전적으로 친정 부모님이 도맡아주셔서 가능했다. 부모님이 차도 없이 노구를 이끌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메고 장 보시고 살림하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시고 도시락을 싸주시고 하는 인고의 생활을 2년간 하시면서 전적으로 희생하신 까닭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폴브라이터를 위한 모임이 종종 있었고, 명절 때만 되면 여러 모임에서 초대하고 많이 챙겨주었지만 아쉽고 송구하게도 나는 참석할 여유도 없었다. 그런 곳에 열심히 참석하여 좋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면 정보도 많이 얻고 미국 생활도 많이 배웠을 터인데, 뒤돌아보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

그럼에도 폴브라이트의 지원 덕분에 학위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접한 것과, 또 자매 학교인 버클리 대학의 도서관 활용과 의료인류학의 권위자인 조지 포스터(George Foster) 박사님과의 만남, 대학 내 의료인류학 과정 참여, 현재 하버드에 계신 의료인류학자 클레인먼(Kleinman) 박사의 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관점은 나의 건강과 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놓았고, 나로 하여금 건강과 건강과학(Health science)에 대한 큰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으며, 또 사회-문화와 건강의 깊은 관련성을 일깨워주었다. 오늘날 연구 주제인 다문화 가정의 건강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의 싹을 틔웠다고나 할까.

이러한 경험은 건강과학계에 우리나라 고유의 산후 문화이면서 산후

건강 관리 패턴인 산후 조리와 그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인 산후병에 대한 개념을 이론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건강, 특히 생식 건강과 여성 건강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관점, 이에 문화적인 요구를 가진 여성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전 생애 주기 단계별로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여성 건강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여 이 분야에서는 명실 공히 지명도 있는 중견 연구자요 학자로 성장하게 된 것 모두 인류와 세계를 향한 폴브라이트의 정신과 지원 덕분이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점은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그 후 안식년의 기회가 왔다. 처음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알게 해주신 은사님의 그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송구하고 염치없다는 마음 한편…… 어떤 분은 두 번 받으셨다는데 나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었다. 송구한 마음으로 그러나 용감하게 지원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2007~2008년 Senior Research Grant를 수여받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보스턴 칼리지의 명성을 접하고, 하버드와 보스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학문적 기회가 더없이 행복했다. 여러 나라에서 보스턴 지역 여러 대학으로 온 폴브라이터들을 위한 전통 있고 잘 짜인 폴브라이트 모임에 이때에는 정말 열심히 참석하였다. 학위 과정 때 아쉬웠던 빈 공간을 꽉 채운 기분이었다.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심재옥 단장님, 여러 심사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8년 전 첫 번째 폴브라이트가 건강(health)과 건강 관리(health care)의 문화적 측면을 일깨우게 된 계기를 주었다면, 두 번째 혜택은 건강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전 인격적 총체적인 건강과 치유(Holistic health

and healing)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Integrative approach)을 탄실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나의 폴브라이트와의 인연은 학문적으로는 전인적이고 전 생애 주기적이며 통합적인 건강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는 간호 학문의 본질과 정체성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공고히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자녀들이 국제 감각과 폭넓은 사고를 하면서 성장 발달하는 큰 전환점을 갖게 하였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없이 크고 좋은 선물이었다.

폴브라이트 60주년을 맞으면서 나도, 자녀들도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고귀한 정신으로 혜택을 받고 지금에 왔으니, 빛진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정신을 이어받고 사회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 후 아직까지 간호학계에서는 다른 수혜자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많은 간호학도와 학자들이 폴브라이트의 혜택을 받아 우리나라 건강과학계가 보다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988년 이래 22년간 늘 마음속에 내 삶의 귀중한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미교육위원단과 폴브라이트, 그 안에서 만난 많은 좋은 분들…… 특히 다른 빌딩에 세 들어 살던 한미교육위원단을 지금의 단독 건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한미교육위원단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올인해오신 심재옥 단장님, 그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챙겨오신 임부희 선생님, 그리고 폴브라이트 동문회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풀브라이트와의 인연

이석구

연세대학교 교수 | 미국 문학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학문에 대한 나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었다. 선친께서 5공 때 해직 공무원이 되신 이후로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이 못 되었으니, 4년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으면 아마도 나는 유학의 꿈을 접었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조건 없이 오로지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해준 이 고마운 제도는 내게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선물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학 제도로 인해 맺게 된 귀중한 ‘인연들’이다. 나와 풀브라이트 위원단의 첫 인연은 1987년 박사 과정 장학금에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더운 여름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나건석 교수님의 한번 찾아오라는 말씀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백양로를 걸어 올라갔다. 그때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장학생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 백양로를 걸어 내려오면서 느꼈던 그때의 기쁨이란 추천서를

써주신 모교의 이성일 교수님께서 마치 당신의 일인 양 제자의 장학생 선발을 기뻐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당시 종로구 경운동의 고합빌딩 폴브라이트 위원단 사무실에서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캐리어 단장님에게 인사를 드린 기억이 있었는데, 풍채 좋은 아저씨 같은 인상을 주신 이분이 아직 건재하시다는 말씀을 최근에 들었을 때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플로리다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막 귀국하신 폴브라이트 동문께서 유학한 경험을 들려주셨다. 청바지에 옥스퍼드 티셔츠, 콤파지 재킷 차림의 이 멋진 젊은 박사님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국대 영문학과와 이형식 교수님이셨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당시 심재옥 부단장님께서, 이제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아련하지만 합정동 부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단아한 마당이 딸린 댁으로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 하셨다. 식사 전에 맥주가 나왔고 요즘은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흔치 않았던 견과류의 일종인 피칸을 먹어보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부단장님의 부군을 뵈는 기억이 있다. 첫인상이 무척 온화하고 점잖으신 분이었다. 이분이 한국에 나와 있는 평화봉사단원들을 위해 소리 없이 봉사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빈소에서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1989년 여름에 나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3주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30여명의 폴브라이트 장학생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을 나는 5년여 유학 기간 동안 두고두고 기억했는데, 워싱턴 D.C.의 여름에 관한 추억이 단조롭고도 힘든 유학 생활에 정신적인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다. 조지타운에서 우리에게 배정된 기숙사는 네 사람이 두 개의 방과 부엌을 공유하

는 구조였는데, 나는 나이지리아 학생과 방을 썼고, 다른 방은 그리스 학생 조르지오와 스웨덴 학생이 썼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스웨덴 학생이 며칠 후부터 우리의 기숙사에서—낮이고 밤이고—모습을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 다른 스웨덴 출신의 아름다운 여학생과 그가 붙어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커플을 볼 때마다 우리 기숙사 동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곤 했다.

나와 나의 룸메이트는 잠자리에 들면 각기 떠나온 자기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 소위 베드타임 스토리텔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의 순수함(?)을 상실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문화를—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장되게—자랑하는 경쟁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겪은 대마초 흡연이 얼마나 환상적인 경험이었는지를 자랑함으로써 그런 쪽에 무지한 나를 압도하려 하였고, 나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로 들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상에 대하여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다. 그는 헤어지면서 아프리카 전통의 목걸이와 팔찌를 선물하였고, 나는 남성들에게 인삼이 얼마나 놀랍도록 고마운 효력을 발하는지를 침이 마르도록 설명한 후,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도 건네는 양 정중하게 인삼차를 선물하였다. 가족으로 만든 소박한 띠에 조개를 하나 붙인 것이 전부인 이 아프리카에서 온 장식물들을 나는 아직도 소장하고 있다.

우리는 3주의 기간 동안 강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학에서 지내고 있던 다른 폴브라이트 그룹과 친선 축구 경기도 했고, 새년도어 국립공원에 소풍을 가기도 했었다. 그중 기억에 강렬히 남는 것이 스모키 로빈슨의 콘서트였다. 이 행사는 워싱턴 D.C. 외곽의 어느 야외 음악

당에서 늦은 오후에 열렸었다. 관람석은 넓은 언덕배기 풀밭이어서 우리는 언덕의 한쪽 뒤편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 가까이에는 흑인 노신사와 젊은 여성이 자리를 잡았다. 이 커플은 바구니에 담아온 포도주와 먹을 것을 돛자리 위에 차려놓고, 여성이 남성에게 반쯤 안긴 채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온몸으로 콘서트를 즐겼다. 이 둘의 관계에 자못 궁금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들은 어쩌면 궁금증을 갖는 사람이 더 문 제일 수 있다고 여겨 더 이상의 생각을 접기로 했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가 그랬던가. 이 세상의 모습 절반은 보는 사람의 시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공연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이 커플이 일어나서 느린 음악에 맞추어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고 이들의 머리 뒤편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사하게 내리쬐었다. 어쩌면 이 여름날 오후의 여유가, 그 한가로움의 사치스러운 기억이 워싱턴 D.C.를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정겨운 자리를 오래 차지하게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워싱턴 D.C.에서의 삶이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폴브라이트 동료들 덕택이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나 외에도 이지현 교수님이 참여하셨는데 프로그램 도중 이분과 간간이 나는 대화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당면한 나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주말이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가곤 했는데, 이분과의 인연은 각자 대학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도 계속되었다. 2003년 가을이던가. 당시 나는 폴브라이트 방문교수로 오리건 대학에 가 있었는데,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회를 대표해 세계 폴브라이트 동문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때 같은 자격으로 참석하시게 된 이 교수님을 다시, 그것도 워싱턴 D.C.에서 뵈게 된 것이다. 또 2008~2009년의 기간 동안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회에서 최영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봉사하기도 하였으니 20여

년 전에 시작된 인연의 끈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있는 동안 나는 몇 명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는데 그중에는 모로코에서 온 라센, 브라질에서 온 데니스, 타이에서 온 수벤자가 있었다. 이들과의 관계는 조지타운 대학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종착지가 나와 같은 인디애나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비교 문학을 전공하는 라센과는 첫해에 강의를 같이 듣기도 하였다. 아랍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불어에 능통한 그는 난해한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원문으로 읽고, 데리다의 《문자학에 관하여》를 이미 번역까지 한 학자였으니, 라캉과 데리다의 이름만 겨우 귀동냥하였던 당시의 내게는 그가 그토록 부러울 수가 없었다. 라센은 나를 가끔씩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아랍 음식을 대접하였고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나를 곤잘 웃겼다. 나는 그를 통해 다른 아랍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였고, 이러한 친교는 이들이 기독교와 서구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내가 다소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디애나 대학 영문학과에는 나 외에도 폴브라이트 장학생들이 있었는데, 폴브라이트라는 공통분모 때문인지 나는 이들과 금방 친해졌다. 그중에는 튀니지 출신의 살라가 있다. 나는 그와 곤잘 어울리며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후리후리한 키에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이 아랍 청년은 외모가 출중하여 여학생들이 항상 쫓아다녔다. 그가 왕족 출신이라는 말이 교수들 사이에서 돌았다지만, 그는 내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나도 굳이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부자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가 늘 부러워한 것을 보면 튀니지의 경제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다. 살라는 학과의 또 다른 폴브라이트 장학생이었던 독일 학생과 결혼하여 지금은 프랑스의 낭트 대학에서 미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생각해보



조지타운 대학에서

면 살리아말로 폴브라이트 재단이 추구하는, 국경을 뛰어넘는 친교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나 싶다.

나는 박사 과정 장학금 외에도 중진 학자와 시니어에게 주는 연구비를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받았으니 위원단에 대한 나의 고마움은 남다른 것이다. 장학금을 수혜하였던 1989년 이래로 위원단에 대한 나의 고마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해지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위원단이나 동문회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보잘것없어 미안함만 더해간다.

나의 학문 생활을 시작하게 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하성호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 | 미국사



저는 1989년 가을부터 1991년 여름 학기까지 Fulbright Degree Study Award로 뉴욕 주립대 버펄로 캠퍼스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에서는 석사 과정 학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생활비와 왕복 항공료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한미교육위원단 단장으로 계시는 심재옥 선생님이 당시 부단장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1988년 학부를 졸업할 즈음해서 장래 진로를 고민할 때, 대학원에서 미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아주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관한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미국 정치 체제의 기초는 무엇인지,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복잡한 인종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 등이 무척 궁금했지만 이것들에 대한 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읽은 책 중에 크게 감명받은 책이 김준엽 선

생님의 《장정》입니다. 김준엽 선생님의 독립군 활동도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김준엽 선생님이 중국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평생 이를 이루어가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평생을 걸고 미국 전문가가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경제적 사정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하다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뉴욕 주립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부의 한 사립대학교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고 그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당시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주립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 지원만 해주던 때라, 뉴욕 주립대로 진학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이후는 한국에 2년간 들어와 있다가 다시 같은 학교의 미국사 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학교를 놓고 고르다가 역시 조교 장학금과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뉴욕 주립대로 갔습니다. 학부 과정도 장학금으로 공부했으니 한국과 미국에서 학교와 사회에 진 빛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초기사, 특히 휘그당(Whig Party)의 정책 프로그램인 미국 체제(The American System)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 초기사 중에서 특히 토머스 제퍼슨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 전문가인 리처드 E. 엘리스(Richard E. Ellis)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엄하시고 공부를 세게 시키시는 분이라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고생이 지금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학위 과정 중에는 선생님께 속으로 불평을 많이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니 갈수록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 늘어갑니다. 박사 과정 내내 조교로, 또 나중에는 시간강사로 일을 많이 하느라 논문을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03년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캐나다와 콜로라도의 한 대학들에서 1년씩 계약직 전임강사(조교수)로 강의하다가 2005년 가을 학기부터 영

커리지에 있는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역사학과에서 정년직 교수로 미국 초기사를 연구,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고 나서 가장 기뻐던 일은 2009년 가을에 저의 책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System: Nationalism and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Economy, 1790~1837》이 영국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책이 발간되고 나서 이에 관련해 공개 강의에도 여러 번 초청받고, 지역 신문이나 저의 학교에서 내는 출판물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제가 북미의 학계에서 전임강사·교수로 일한 지 거의 7년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학문적으로나 또 생활에 있어서나 미국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미국은 한국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나라이고 따라서 한국 내의 미국학 연구도 계속 활발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사회와 국민들에게서는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을 알아갈수록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교육위원단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 미국 사회에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며 관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한국이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한미교육위원단 60주년을 축하드리며, 저를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한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0

양석원 • 황소부 • 천세영 • 강효석 • 왕연균 • 정호열
서광선 • 이윤식 • 정성욱 • 정중휴 • 유범준 • 김정매



플브라이트 장학금을 회상하며

양석원
연세대학교 교수 | 미국 소설

열 명의 심사위원들이 기다란 탁자의 좌우에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콧수염을 기른 중년의 미국인이 있었다. 모두들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플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을 위한 면접실에 들어서서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드는 순간, 내 시선에 들어온 장면이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강사 생활을 수년 동안 해왔던 터라, 일반 직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나는 한 번도 면접을 해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던 내가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적지 않게 부담스러웠다. 이 순간만큼 크게 긴장했던 적도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전날 나름대로 영어 면접에 나올 법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 영어로 답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하지만 면접실에 들어서려는 순간, 다수의 외국인이 포함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나는 위축되었고, 전날 숙지했던 예상 문제나 답변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런 내 표정이 안타깝게 보였던 탓일까? 아니면 면접하는 학생들이 긴장한다는 걸 익히 아는 심사위원장이 누구에게나 베풀었던 인사말이었을까? 어쨌든 내 귀에 또렷이 한 문장의 영어가 들려왔다. “Make yourself comfortable, Mr. Yang.” 이 한마디 말에 나는 살짝 긴장을 풀

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 받았던 인상과는 달리 좌우에 앉아 있는 심사위원들의 얼굴 표정은 모두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 폴브라이트 장학생 면접은 시작되었다. 미국 소설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던 나는 유학을 해서도 미국 소설을 공부할 요량이었다. 그래서 미국 문학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했고 이 연구계획서와 관련된 온갖 질문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단순하고 피상적인 내 연구계획서를 보고 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심사위원들이라도 사실 많은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도 받았고 내 서투른 답변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서로 작은 논쟁을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특히 당시 이화여대에 폴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와 있던 미국인 여교수가 내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존함을 잊었지만, 면접이 끝나고 내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면접 처음에 내 마음을 글자 그대로 편하게 해준 프레더릭 캐리어 단장님도 참 고마웠다. 내가 면접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르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베푸는 한마디의 말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큰 용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면접실에 들어서기 전에 가볍게 등을 두드려주셨던 심 선생님의 무언의 격려도 잊을 수 없다. 내가 폴브라이트와 맺은 인연은 이렇게 처음부터 작은 배려와 격려로 시작되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물론 학업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고, 나도 폴브라이트 장학금 덕택에 5년의 유학 생활 동안 4년간은 큰 재정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도움의 의미 이외에도 내게 장학금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자체로 배려이며 격려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상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후에 누군가에게 똑같은 배려와 격려를 주는 자가 되라는 책임

감을 갖는 것이 아닐까.

내가 3주 동안 워싱턴 D.C.의 아메리카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각국의 풀브라이트 학생들과 생활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소심한 성격 탓에 말과 피부색과 문화가 달랐던 그 친구들과 그다지 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다름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친구들은 외모도, 영어 발음도 제각각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다르고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학생은 터키 여학생이었고, 처음 기숙사 방을 같이 썼던 룸메이트는 콩고 남학생이었으며, 페루 친구와 가까워져 선물도 교환했고, 중국계 타이 여학생과 타이완 남학생, 일본 남학생과도 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낯섦의 경험이었다. 캠퍼스 구내매점에서 처음 만난 독일 여학생이 마침내 동양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신기해했던 걸 보면, 이런 낯섦의 경험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다.

지금 인문학에서 커다란 화두인 ‘타자’를 그렇게 직접적이고 다양하게 경험해본 적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다름을 막연한 생소함과 두려움으로만 대했던 것 같다.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이면서도, 그것이 있기에 이 세상이 정말 인간이 살 만한 곳이 될 만큼 귀중한 가치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었다. 콜롬비아 학생에게 District of Columbia와 Colombia의 철자를 혼동해 다소 민망했던 점, 도쿄대 출신 일본 학생이 나와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것임을 잠시 후 깨달았던 점, 나이지리아와 콩고 출신이었던 두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아프리카인들이기에 막연히 가까울 것이라

고 짐작했던 내게 그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며 단지 둘 다 불어를 잘하기 때문에 말을 나누었던 것이라고 해서 아마도 유럽인들이 나와 일본인 친구를 보면 서로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점. 내가 처음에 막연히 두려워했던 콩고인 룸메이트가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착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걸 알았을 때 가졌던 계면쩍은 느낌, 미국인 가정에서 필리핀 여학생, 독일 남학생,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학생과 같이 초대받아 갔을 때, 호스트가 식탁에 정해진 자리를 놓고 독일 남학생이 우리 독일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앉지 않는다고 말해서 모두 당혹해했던 점, 오스트리아 여학생이 사람들은 자신이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말하면 모두 에델바이스 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래는 오스트리아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 분명 명단에는 이스라엘인으로 되어 있는데 만나보니 팔레스타인 여학생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여학생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보았던 점, 모두 모여서 세계 지도를 그리며 그 많은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때 그 팔레스타인 여학생이 아랍어로 쓰인 세계 지도를 꺼내 일일이 가르쳐주었던 일, 미국인 교수와의 토론 시간에 시에라리온의 흑인 여학생이 왜 자국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느냐고 분개하고, 아파르트헤이트를 모른다는 학생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며 기막혀하던 일,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만나기만 하면 “하이(Hi)”라고 인사하는 미국인을 두고 너희 나라에서도 그러냐고 내게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던 러시아 친구.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었고 값진 시행착오였으며, 교훈이었다.

유학 생활 중에 이런 다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경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한다. 어차피 유학생이라는 신분이 이방인이고

타자이며, 다름에 대한 편견과 경멸도 적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을 더 알고자 했다면 더 값진 것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읽어야 할 책의 분량과 난해함, 써내야 할 글과 잡아야 할 논문 주제의 무게가 너무 컸기에 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바빴던 것 같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되어 외국에서 유학을 한 것은 내 인생에서 큰 의미를 차지한다. 그것은 단지 매달 어김없이 배달되었던 생활비가 담긴 수표와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자부심만도 아니고, 내가 유학을 통해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된 것만도 아닐 것이다. 내게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이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소중히 알고 타자를 배려하고 격려하라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느껴진다. 나는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교육 철학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갖게 된 소박한 생각들이 그가 처음 국제적인 장학 사업을 구상했을 때 가졌던 희망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현명한 투자

황소부

경상대학교 교수 | 영어학



대학교수로서 교육과 연구 활동 중에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즈음, 때 마침 Fulbright Senior Researcher로 선발되었다. 재충전이 필요했고 새로운 경향의 학문을 연구할 의욕이 강렬하던 때라 풀브라이트 스칼러십은 참으로 적절한 때 미국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나는 연구계획서를 열심히 만들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가 한창 열기를 더하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새로운 이론의 소재가 숙성, 여과되지 않은 채 도입되던 때였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학 장르에선 소설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다. 영국에서 출간된 어느 문예사전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소설에선 상관성이 많고 희곡은 조금 있고 시에선 거의 없는 걸로 정의한 것을 보고 나는 시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확신 아래 포스트모더니즘 시를 연구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연구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했

다. 그 결과, Senior Researcher로 선발되어 예일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예일대는 그때 소위 해체 이론의 본거지로 정평이 나 있던 곳이어서 달리 고려할 여지도 없이 예일대를 선택했던 것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할 때 가끔 예일 대학을 방문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연구할 수 있었기에 미국 생활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특히 미국 교수들이 Fulbright Scholar임을 알고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대해주었다. 이를테면 지역 사회의 풀브라이트 동문회 모임에 초청해 친교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작가 인터뷰 등을 할 때도 별 어려움 없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책으로만 알던 저명 학자들 중에 풀브라이트였음을 자랑하는 이도 있었다. 미국 학자들은 국비나 다른 장학금을 받고 온 사람들보다 풀브라이트들에겐 훨씬 우호적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풀브라이트로서 좋은 기회를 맞아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었음을 지금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대학교수로서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 목표로 삼고 예일 대학에 갔지만 나는 소위 신비평의 기수들이라 일컫는, 이미 고인이 된 크리언스 브룩스, 르네 웰렉 등을 생전에 만나 영문학과 모더니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해럴드 블룸 같은 세계적 석학을 만나 교분을 쌓을 수 있었고, 학문적 자극도 많이 받았다. T. S. 엘리엇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세계의 저명한 엘리엇 학자들과 학문을 논할 수도 있었다. 세계에즈라파운드학회 회장인 독일의 바이로이터 대학의 테일러 교수를 만난 것도 바로 그 심포지엄에서였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열린 MLA 학회에 참석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대가인 스탠퍼드 대학의 마조리에 퍼일로프 교수도 여러 차례 만났고, MLA에서 마련한 포스트모더니즘 특

별 세션에도 참석해 정말 많은 것을 익혔다.

나는 폴브라이터로서 어떤 조그만 결실을 얻어야 했기에 미국 시와 한국 시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연구하여 뉴헤이븐에서 열린 세미나 때 발표도 했다. 그리고 시인이자 시학 교수인 존 홀랜드를 인터뷰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보람이었다. 이 모든 일이 폴브라이터였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물론이다.

폴브라이트 동문으로 국내 인사들과의 친분도 넓고 깊어졌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자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세계적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여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폴브라이트 모임에서 영국의 의학자, 폴란드의 법학자,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이탈리아·일본·인도·중국의 영문학자 등 실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공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동부에서 연구하던 폴브라이터들의 뉴욕 모임은 참으로 뜻 깊었다. 함께 뉴욕의 역사를 익히고 갖가지 예술 공연을 감상하고 선상 크루즈를 즐기기도 했다.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우리나라를 해외에 열심히 소개했던 일들이 지금도 나에게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미시즈 폴브라이트를 만나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뉴욕의 모임에서였다. 나는 지금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현명한 투자였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에서 알려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수확이었다. 나의 학문의 지평을 넓혀주고, 미국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교수로서의 나의 삶에 하나의 큰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영예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 교육학



1991년 1월, 나는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비학위 과정의 장학금을 받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영예로운 풀브라이트 장학생 신분으로 피츠버그 대학에 방문 학자 자격을 얻어 꿈같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물론 1990년대에는 이미 대한민국도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선배님들과 달리 더 이상 가난한 나라의 고학생이 아니었고, 미국 또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달콤한 천국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미국과 미국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은 그저 부럽기만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지만 아직도 우리 대학들로서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모습들이었다. 분명 그런 곳에서 마음껏 유익한 강의를 골라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세계 각국의 젊은 인재들과 학술 토론을 벌였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즐거운 기억이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뽐내는 풀브라이트로서!

유익하고 즐거웠던 경험들이 많지만 꼭 나누고 싶은 두 가지 기억을 말하자면 1991년 폴브라이트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워크숍과 당시 85세의 폴브라이트 상원의원님과의 만남이었다. 다음으로 남은 기억은 2006년 행운이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장학금을 받아 워싱턴 D.C. 인근 조지 메이슨 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동안 폴브라이트 동문회에서 제공하는 문화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난생처음 미국 땅을 밟은 1991년 1월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지휘하에 이라크와의 1차 전쟁이 막 일어난 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1960년대의 히피와 반전 문화가 네오마르크시즘과 함께 제3세계 국가들에 퍼져가고 있었으며 1980년대 민주화 흥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반미 감정이 돌아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1차 이라크 전쟁 상황에서 미국 정부 초청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은 어리둥절하고 복잡한 경험이었다. 교회 목사님들은 이라크를 사탄의 무리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현대 국가의 기본 정신임에도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싶었고, 아직도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미국의 보호와 원조를 기반으로 안정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던 조그맣고 가난한 대한민국의 젊은이에게는 어려운 숙제였다.

다행히 이런 숙제들은 차차 풀려갔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세계적 관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나는 이것이 폴브라이트 정신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2006년 다시, 생애 두 번째로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조지메이슨 대학 교환교수로 연구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으로써 확실한 폴브라이트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1991년에 처음 미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부부와의 인사

국 유학생이 되었을 때 미 국무부가 동부 지역 유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3박 4일 일정의 미국 문화 오리엔테이션은 참으로 유익하고 멋진 경험이었다.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을 직접 만난 것은 더없는 영광이었으며, 그 유명한 백악관 웨스트 윙에 초대받아 미국 대통령실 스태프들로부터 세계 질서와 미국의 역할 그리고 국제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조지타운 대학촌에서 함께 온 유학생들과 맥주를 마시며 친분을 나누기도 했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다. 포토 맥 강가 제퍼슨 기념관 주변의 화사한 벚꽃은 지금도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06년 두 번째 유학 생활은 또 다른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9·11 테러 후 미국 사회는 훨씬 경직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2차 이라크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실감이 더했다. 참전 퇴역 군인의 집일수록 전쟁을 지원하는 성조기가 더 높은 계양대에 더 크게 펄럭거렸다. 멕시코 접경을 가로막는 700마일 철조망 방벽 설치안은 또 다른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공화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하여 의회 권력을 잃고, 결국은 이듬해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혼란기였지만 나의 두 번째 폴브라이터 경험기는 20세기에 확립된 팍스아메리카나의 원천이 군사력이나 정치력의 지배가 아닌 지식과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기였다. 워싱턴 D.C. 인근에 탄탄히 구축된 폴브라이트 동문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학생들에게 문화 교류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그중에서 추수감사절 초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20여 명의 친척들이 모인 식탁은 그야말로 세계 평화의 공동체였다. 이혼 후 떨어져 사는 아빠가 새아빠와 같이 한 식탁에 앉고, 아프리카의 처남과 아시아에서 시집온 며느리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다 온 동생도 함께한, 그야말로 인류 공동체가 창조주에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자리였다. 미국의 힘은 이렇게 세계만방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평화를 이루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분명 팍스로마나의 전통이기도 했다.

나는 폴브라이트 유학생이었음을 늘 자랑하곤 한다. 지금도 각별한 교분을 나누고 있는 타이 친구도 폴브라이트 동문이었음을 우연히 안 순간,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른다. 오늘날 내가 국내외적으로 그리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폴브라이트 위원단 덕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생활을 거쳐 충남대 교육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세계의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그 어디서 길러

낼 수 있었을 것인가. 더구나 2008년 나는 대한민국의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교육 비서관으로서, 또 지금은 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게까지 되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나는 한국형 풀브라이트 사업을 기획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일했으며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lobal Korea Scholarship)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공부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풀브라이트 정신은 더욱 커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1991년 이맘때쯤의 기억

강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경영학

1991년 이맘때쯤으로 기억난다. 연구실 전화벨과 함께 수화기 저편에서 차분하게 전해지는 음성이 들렸다. “1992~1993년도 Fulbright Research Scholarship의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은 순간적으로 필자를 마치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입시생의 감격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당시만 해도 대학교수의 해외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드물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을 뿐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움이 더 컸던 것 같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런데 교수님은 지원 신청을 시니어(Senior) 부문으로 하셨지만 아직 젊으신 편이라 Mid-Career Researcher에 배정하기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라는 것이 아닌가. 자격 요건에 맞춰 해당 부문에 지원했는데 나이 때문에 장학 지원 혜택이 줄어든다는 게 조금은 아쉬웠다. 그런 느낌을 감지했는지 상대방은 이내 “만일 Senior Researcher로 선정되었다면 이번으로 끝이지만 Mid-Career Researcher는 언젠가 시니어 부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라며 위로의 말을 더했다. 그분이 바로 현재 한미교육위원단의 책임자로 위원단의 산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해오신 심재옥 단장님이다(단장님의 위로가 위력을 발휘했던

지 필자는 훗날 Senior Grantee로 다시 선정되는 행운을 맛았다. ‘폴브라이터’로서의 신분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체류할 미국 대학 선정부터 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폴브라이터라는 자격증 덕에 출국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과연 본 프로그램의 명성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필자가 소속한 대학에는 여타의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연구년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 해외 출장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폴브라이터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필자는 1992년 여름부터 1년간 가족과 함께 UCLA에 체류했는데, 그 기간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였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학위 취득 후 8년 만에 다시 접하는 미국 대학의 활발한 연구 분위기는 지적 호기심을 재충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각각 8학년과 2학년생이던 두 아이도 뜻밖의 조기 유학을 통해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UCLA에서의 생활 중에 필자의 스폰서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고 각종 연구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프레드 웨스턴(Fred Weston) 교수에 대한 기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웨스턴 교수님은 재무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힐 만한 업적을 이미 이루었을 뿐 아니라 당시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교수들과 다름없는 왕성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셨다. 피부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아침 9시 전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연구실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며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UCLA faculty로 건강하게 활동 중인데, 모름지기 진정한 학자의 표상이라고 하겠다. 돌이켜보면 폴브라이터와의 만남은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한미교육위원회 장학 프로그램의 영향

왕연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경제학



1960년대 후반 한미교육위원회 장학 프로그램에는 풀브라이트와 이스트웨스트 센터 프로그램이 있었다. 금년에 각각 60주년과 50주년을 맞는다. 나는 후자에 의해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그 후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서부의 연구 중심 대학에서 1년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위의 교육과 연구 기회는 나에게 새로운 직업과 경력을 예비하였다.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마치고 몇 년간 한국은행에서 경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일을 하였다. 당시에는 큰 기업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경 계통 학생들에게는 은행이 인기 많은 직장이었다. 나는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국내 대학원에는 박사 과정이 없었고 석사 과정에서도 교과 과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국립대학에서도 학부 수업에는 교실마다 100~200명

의 학생들로 찾고 교수들은 수업 시간 부담이 많아 대학원 수업까지 충분히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너무 부족하였다. 대학원 수업에서는 주로 외국 원서를 읽어내갔으나 최신 경제 이론에 대한 강좌는 보기 힘들었다. 또한 경제학 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강좌가 사실상 없었다. 계량경제학이란 경제 이론, 수학과 통계학을 합한 분야이다. 경제학이 하나의 과학으로 대접받는 이유는 경제 가설과 이론이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때문이다. 이를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이라고 한다. 예측 능력이 뛰어난 경제 이론을 정립하려면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계량경제학에서는 경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컴퓨터 이용이 필수적인데, 당시 서울대 상대에는 컴퓨터가 없었다. 서울대 본부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계량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계획하였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이 주류였다. 다른 사회과학 분야도 비슷하였다. 일정한 가정 밑에 논리를 전개해나가는 과학적 방법보다는 어떤 주장과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 달러 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 직장인은 소비를 줄이고 몇 년간 저축한다 해도 미국까지의 왕복 여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미국 대학들은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인지 한국 학생들에게 입학 첫해부터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거의 없었다. 입학 후 1~2년간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상당한 재력이 집안이거나 이스트웨스트 센터나 폴브라이트 장학금이 아니면 유학은 생각할 수도 없

었다. 나는 이스트웨스트 센터 장학금을 받게 되어 유학이 가능하였다. 1960~1970년대에 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미국 유학 기회가 대단히 적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교육과 연구 경험 덕분에 북미와 국내 대학에서 가르쳤고, 국내외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생활이 가능하였다. 대학에서는 국제 경제론, 계량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가르쳤다. 경제 예측, 환율 정책, 무역 정책, 자본 자유화, 경제 안정화 등에 관한 많은 논문을 썼고 정부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였으며 국제 기관과 기업에도 자문을 하였다.

외국 대학에서는 수업 중에 토론이 중시되고 모든 직장에서 민주적 토론이 활발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스트웨스트 센터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온 학생들은 호스트 패밀리가 정해져 수시로 식사에 초대받는 등 환대를 받아 이국 생활의 외로움도 덜어주었다. 잦은 이사 때문에 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잃어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

외국에서 몇 년씩 일할 때 꾸준히 교회에 나가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결실의 하나였다. 여러 해의 해외 생활로 외국 여행이 쉬워지고 국제 학회와 대학에서 영어 강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세계화 시대에 큰 은혜이다.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음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서비스 중심 사회로 바뀔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윤리 중 취약한 부분을 국제 사회에서 best practice로 인정받는 글로벌 윤리 수준으로 올리고, 민주주의적 사고, 태도, 토론에 관하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네 시장 경제, 그리고 풀브라이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법학



1.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

작년 11월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직원 연찬회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그때 외부 특강을 맡은 교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한국 사회의 특성에 대해 논한 내용이 매우 특별하였다. 이 분은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언어학자들이 말하듯, 언어는 생각의 집이다. '우리 마누라'라는 언어적 표현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인들은 너와 나의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를 하나의 단일체로 보는 의식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 이것이 한국인의 행태나 사회적 구조를 특징짓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다. 대나무밭이 별개의 대나무 군락처럼 보여도 그 밑 땅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대나무들이 한 뿌리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너와 나의 이원적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하는 서구의 법 체계나 냉엄한 권리의식, 너

와 나의 이익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경쟁 체제가 우리 체질에 맞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우리 민족 특유의 기질에 맞는 사회 구성 원리와 경제 체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분은 필자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총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임무인 정부 부처이다. 위원장이 추천한 특급 강사가 서기관 이상의 간부 직원 전원이 모인 수련회에서 한국인에게는 경쟁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니, 연찬회 진행을 맡은 담당 실무자가 난감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분은 강연을 마친 후, 청중석 가운데 테이블에 자리한 나를 찾아와 인사까지 하고 돌아가셨다.

2. 시장 경제가 전제하는 인간상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분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한국 사회는 너와 나의 이원적 대립 구조를 바탕으로 한 시민 사회가 될 수 없고, 자유 경쟁을 기초로 한 시장 경제는 행복을 주기는커녕 한국민의 체질과 부딪쳐 모든 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체제일까.

주지하다시피 서구 시민 사회와 시장 경제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다. 시장 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개인적 이익 추구가 서로 부딪치는 가운데 국민 경제 전체는 동적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나간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 사상의 바탕에는 이타적(利他的) 인간이 아니라 이기적 인간 모형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시장 경제는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다 큰 결과를 도모하고 남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꼭 꼬집어 사악한 인간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탐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훨씬 더 가깝다.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는 의회 민주주의(정치 질서), 시장 경제(경제 질서), 시민 사회(다양성, 분권화와 자율 등)도 모두 이러한 사상적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시장 경제에 적합한 한국인의 기질

한국인의 기질과 행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앞에서 말한 그분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농경과 이를 위한 대가족 제도에서 비롯된 가족 간의 연대 차원에서는 그분의 설명이 적실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가족을 넘어선 제2차 관계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한국인처럼 경쟁에 올인하고 개인주의적인 기질과 행태를 보이는 예는 찾기 어렵다.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모델로 이야기하는 서구 사회나 일본 사회는 오랜 봉건 사회의 경험을 거쳤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 이전, 즉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에도와 규슈 그리고 아키타는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권역에 속하였고, 일본 전역은 수백 개의 번(藩)으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번은 별개의 나라, 그리고 별개의 정치·경제·생활 공동체였다. 일본 민중은 번으로 불리는 정치·경제 공동체에 구속되어,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오랜 집단주의의 경험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1,000년 이상의 봉건 경험을 가진 프랑스나 독일 등의 서구 국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말의 앙리 4세에 이르러 비로소 파리를 위요한 일 드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수많은 봉건 단위들이 하나의 정치 단위로 통합을 이루게 된다. 독일의 경우는 더 늦었다. 봉건과 관세 장벽으로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수많은 단위들이 프로이센

을 중심으로 통합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고, 그 가운데 명재상 비스마르크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 유사(有史) 이래 중앙 집중적 정치 시스템을 견지하였다. 중앙 정부가 지방에 목민관을 파견하는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였고, 전근대적 운송과 통신 수단하에서 중앙의 통제는 느슨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별 정치·경제 공동체는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지역 공동체로의 묶임과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경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유전형질을 물려받은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것으로는 쏠림 현상을 들 수 있다. ‘사람은 서울로, 망아지는 제주도로’라는 오랜 속담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중앙으로 쏠리는 의식과 행태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체질화되어 있다. 쏠림의 예는 무궁무진하다. 인구의 서울 집중,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유행, 영화가 입소문을 타면 5,000만 인구 중 1,000만이 극장에 몰려가는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지금까지 주로 나쁘게 투영되어왔다. 떼 지어 달려간다고 해서 들쥐 근성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사람과 자본과 거래 기회가 몰리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율성이 생기고 경쟁이 심화된다. 남북전쟁을 통한 미연방의 통합이나 비스마르크에 의한 봉건 독일의 통일이 남북으로 혹은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자국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본주의 혁명의 전제를 마련한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땅과 적은 인구를 가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쏠림 현상을 통해 경쟁을 촉발시켜온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다양한 쏠림 현상에는 여러 가지 비용과 피해가 수반되지만, 대국적으로 보면

우리네 시장 경제의 폭발적 성장의 기초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4. 바꾸는 이야기, 나의 풀브라이트 시절

각설하고, 필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얻어 1992년 여름부터 시애틀의 워싱턴대에 체류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대학들 중에서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그때 필자가 재직하던 아주대는 교수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외부 장학금을 얻을 경우 일정 기간 외국에 내보내는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 로스쿨은 장학금이 없기로 유명한 곳이니,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법학도에게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그 무렵의 필자는 학교 측에서 부러먹기에 그야말로 적절한 연령층의 교수였다. 한동안은 박사 학위 논문을 쓴다는 핑계로 학생부 처장직을 피할 수 있었다.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소위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보직 제의가 적잖이 걱정되었다. 바로 이때 풀브라이트가 또다시 나를 살려주었다. 풀브라이트가 교무부처장을 맡으라는 학교 측의 압력 아닌 압력을 뿌리칠 수 있는, 너무나 그럴싸한 명분을 주었던 것이다.

갓가지 원고나 발제 요청에 시달리는 연구자의 일상으로부터, 특히 일단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연구자의 길로부터 멀어지기 십상인 보직살이로부터 도망쳐 계절의 흐름이 부드러운 미국 서북부로 가는 발씨는 그야말로 가벼웠다. 게다가 필자는 부담 없는 연구자의 신분으로 그곳에 갔기에 더더욱 자유로웠다.

그해 10월 고교 동문들과 어울려 알더브룩이란 리조트에 몰려가서 통나무집에 짐들을 풀어놓고 엄청나게 건져 올린 던저니스 게를 썬 먹으면서 밤새워 유희에 몰입하던 일, ‘웨스트 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보

고 감탄하던 일, 도서관 직원 눈치를 보며 웨스트 로에서 라면 박스 열 개 이상의 자료를 뽑아내던 일이 마치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아, 돌아가고 싶어라. 그 시절의 시애틀로.

그리고 단돈 몇 달러를 아끼기 위하여 10여 마일 혹은 그 이상 떨어진 쇼핑몰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던 일도 새삼스럽다. 약간의 가격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래선을 바꾸는 한국인의 행태를, 다시 말해 고도로 높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진 한국인의 유전인자를 나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친미 좌파?

서광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기독교학



1980년 여름, 광주의 민주항쟁에 이어 신군부가 득세할 때, 나는 이화여대 문리대학장의 보직을 맡고 있었고, 한국아메리카학회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의 자연과학대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관련 학과 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합동수사본부’의 형사들이 전화를 걸어 학교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참고인’으로 끌고가 조사를 받았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독방 책상에 앉아 ‘범죄지술서’를 쓰는 일이 전부였다. 거의 시간마다 담당 형사가 내가 쓴 글을 가져다 읽고 한마디씩 묻기도 하고 토를 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철학 교수들과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한국아메리카학회의 회장까지 하고 있다는 걸 읽고 담당 형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이, 미국학을 연구한다는 친미 학자가, 국가를 위해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미국 유학파들처럼 청와대나 정부에서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왜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면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하는 학생들 선동이나 하고 다닙니까? 난 친미 하는 사람이 좌파 소리 듣는 것 처음입니다.” 그러곤 ‘친미’지만 ‘좌파’라는 이유로 그 여름 유치장 안에서 사직서를 쓰고, 이른바 ‘해직 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 4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였다.

내가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지낸 1960년대는 미국의 격동의 시대였다. 젊고 참신한 가톨릭 신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 대학 순회 강연을 젊은 대학생들의 환호 소리 속에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기억과 함께 그가 흉탄에 쓰러지는 비극을 텔레비전에서 보며 미국 친구들과 통곡했던 기억이 새롭다. 1960년대 미국은 흑인 민권 운동과 해방의 시대였다. 흑인 목사이며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용기와 그의 웅변, 워싱턴 행진에서 부르짖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꿈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킹 목사 역시 미국 인종 차별주의자의 흉탄에 쓰러졌다. 1960년대는 미국 대학생들이 월남전에 반대하고 나선 시대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의 개혁을 부르짖는 캠퍼스 격동의 시대였다. 나는 1960년 미국의 시대정신과 사회 변혁 운동의 와중에서 철학과 신학을 고민하며 미국을 배웠고 미국이란 사회, 미국 사람들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감동했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찬사를 보내게 된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을 지지하고,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월남전 반대 운동에 가담한 미국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의 ‘미국 사랑’은 체질화되었다 하겠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국아메리카학회의 소개를 받고 회원이 되어 학회의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였다. 아메리카학회의 활동을 통해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1970년대였다. 한미교육위원단 역대 단장들과 친분을 두텁게 가지면서 위원단이 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선발하는 위원에 초대되어 미국에 유학하려는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 아메리카학회와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나의 깊은 인상과 호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진흥과 학자 양성과 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었다. 미국 문학, 미국 역사, 그리고 미국 철학과 종교학 등 ‘인기 없는’ 학문 분야와 이에 종사하는 학자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용기를 주는 ‘다학문적’ ‘인문과학적’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는 1980년 ‘서울의 봄’ 동안 그야말로 ‘3일 천하’로 몇 달 동안 한국 정부 문교부 위촉으로 한미교육위원단 위원이 되어 활동한 일도 있었다. 아마 ‘최단기 위원’의 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신군부의 명령으로 해직당하면서 아무 정식 통보도 없이 나는 위원단에서 탈락되었고, 회의와 모임에 더 이상 초대되지 않았다.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화여대에서 정년 퇴임을 2년 앞두고 풀브라이트 기금으로 미국에 연구교수로 1년 연구차 가는 프로그램에 응모하였으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가, 선발위원단의 배려로 ‘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의 모교에 적을 두고 한 학기 동안 머물면서 그동안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반성》(이화여대 출판부, 1995)이라는 단행본을 저술, 출판할 수 있었다. 덕분에 ‘풀브라이트 동문회’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이 ‘회고록’에 기고하게도 되었

다. 내 생의 영광으로 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안, 대학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풀브라이트 미국 장학생들의 모임에 초대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나의 미국 유학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아, 나는 늙어가면서 1960년대 미국 대학과 대학원생 시절에 배우고 익힌 자유와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된다. 미국의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친미’라면 나는 친미주의 자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반체제’ ‘반정부’ ‘비판적 정치 교수’ 그리고 ‘좌파’라는 누명까지 쓰고 해직 교수가 되었던가? 보편적 가치이자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인 자유와 평등,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하는 건 틀린 듯싶다. 억압적인 정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 반민주적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비판하는 국민을 ‘좌파’라고 할 때는 그 뜻을 잘 모르고 붙이는 ‘꼬리표’나 ‘색칠’이다.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미국 유학 생활, 미국학, 인문학, 아메리카학회, 풀브라이트 등에서 배운 덕택이다. 그 특혜를 갚는 길은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통하는 나라를 세우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풀브라이트(Full-Bright)한 '물망초(Forget-Me-Not)' 1년

이윤식
송실대학교 교수 | 행정학



내가 풀브라이트 교수로 미국의 대학에 가족과 함께 연구차 간 것은 13년 전의 일인데, 당시 나는 교수 안식년 제도가 없을 때 대학에 들어와 새로 도입된 교수 안식년 제도에 그것도 내 차례를 기다려 겨우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학교 들어온 지 10여 년 만의 일이기도 하여 이 글은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나의 대학교수 생활을 회고하는 계기도 될 것 같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지 10여 년이 되어서야 온 가족이 함께 다시 찾은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학술 행사에 참석하거나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짧은 일정으로 수차례 방문했던 나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물론 학위 과정에서 7년여 기간 동안 생활한 집사람이나 미국에서 태어나 일정 기간 동안 자란 아이들에게도 결코 낯선 곳이 아니었다. 더욱이 내가 다녔던 미시간 대학이 있는 앤아버는 미국

의 북동부 지역으로서 당시 교환교수로 갔던 메릴랜드 대학이 소재한 워싱턴 D.C. 근교인 칼리지 파크와 사실상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기할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대는 실재론 미국 남부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건축 양식이나 교정 분위기뿐만 아니라 학교의 규모 면에서도 미시간 대학과는 판이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이런 느낌은 그래도 상당 기간 특정 지역에 익숙해 있어 새로운 환경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메릴랜드 대학의 상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내심 반했다.

풀브라이트 교수로서 메릴랜드대를 택하게 된 것은 여러 곳을 타진해 볼 틈도 없이 짧은 기간의 연구 등 각종 학술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고, 과거엔 주로 중서부와 동북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아이들에게 동부와 남부의 교육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러한 나의 판단은 여타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드는 생활비 등 제반 경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무릅쓰고 이루어진 것이다. 출국 전에 대충 조사한 바로도 동부 지역에서의 생활비가 타 지역 생활비의 두 배 이상이 든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나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염려는 비록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학문적 긍지를 심어주며 생활의 기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드는 경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게 많이 드는 경비 문제 때문에 과거에 경험해본 모교로 가서 편안하게 지낼까 잠시 생각해보았지만 모처럼 갖는 해외 연구 등 학

술 활동을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가져보고 싶은 욕구가 방문 대상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당시 수행하려 했던 연구의 대부분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데다 연방정부 기관들이 소재한 워싱턴 D.C.가 체류하게 된 대학교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더욱이 메릴랜드대에서 나를 초청하면서 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교수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르는 제반 특혜(즉, 연구실과 도서관 이용권 및 주차권 등)는 물론 개인 컴퓨터, 팩스 및 단독 전화기, 게다가 복사기까지 24시간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것 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나 팩스로 설문 조사 등 서베이 활동을 많이 해야 했던 당시의 연구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 내 대학 등 여러 기관들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던 외국 풀브라이트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미국의 문화와 사회 실상을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CIES의 FSEP(Fulbright Scholar Enrichment Program)가 워싱턴 D.C. 주변의 풀브라이트 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시기별로 제공한 주요 명소 탐방, 스포츠 활동 참관, 학술 강좌 개최 및 참여, 학자들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연회 개최 등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그 지역에 온 풀브라이트 학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전이였다. 특히 미국을 처음 방문한 학자들이나 과거에 살았어도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던 각종 학술·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국의 사회와 문화는 물론 여타 외국의 사회와 문

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FSEP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외에도 메릴랜드 대학 및 조지 워싱턴 대학 등의 요청에 따른 강연 활동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국제행정학회(IIAS)의 정책 평가 워킹 그룹 연례대회 그리고 미국정책평가학회와 캐나다정책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했던 세계 정책 평가 학술대회에서의 논문 발표, 폴란드 정부 초청 정책 개발 자문 활동, 학술지에 발표한 네 편의 논문과 세 건의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 공동으로 저술한 전공 서적은 폴브라이트 교수로 보낸 1년간 미국 체류의 소산이기도 했다. 게다가 메릴랜드에 체류하면서 사귀게 된 메릴랜드 대학 내외의 학자들과 미국 연방정부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그 후의 연구 활동에 소중한 동역자 내지 조력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같은 학술 및 연구 활동과 국제 정책 자문 활동 등을 만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만에 모처럼 갖게 된 안식년 동안 사전에 크게 꿈꾸었던 여유로운 여가 활동을 통한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던 것이 아직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그런 배경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여건하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을 찾아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에서는 대학의 보직들을 수행하느라 마음껏 못다한 국제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후회 없이 해보리라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평일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실을 찾으면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 3~4시가 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았던 ‘역경’의 1년이었음을 회고해볼 때 지금까지 24년 동안의 대학교수

생활이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음을 새삼 절감케 하는 것 같았다. 다만 그같이 빠듯한 폴브라이트 교수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지키며 찾은 교회 생활을 통한 안식과 과거 유학 시절에는 탐방은 상상도 못하던 곳들을 틔나는 대로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직접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지칠 만도 했던 연구년 생활에 활력이 되었다. 또한 보다 철저하게 미국의 제반 환경을 이해해보겠다던 다짐을 유감없이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을 거의 다 탐방할 수 있었던 것은 모처럼 갖게 된 안식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으려는 세밀한 계획의 발로이기도 했다.

폴브라이트 교환교수로서 보낸 1년간의 미국 체류가 결코 짧거나 그렇다고 긴 것도 전혀 아니지만, 불과 1~2개월 이내로 수많은 나라에서 체류하며 활동했던 일들이 마냥 길게만 느껴졌던 과거의 경험과는 판이하게 그 당시 1년 동안의 미국 생활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것은 안식년을 떠나기 전 오랫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조금도 미진함 없이 완수함으로써 폴브라이트 교수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때의 경험은 뒤에 이어진 여러 가지 학술 및 연구 활동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폴브라이트 교수로 연구년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주제의 포괄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주로 했던 반면에 연구년을 다녀와서는 보다 제한된 분야에 훨씬 더 구체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는 1년도 채 안 되는 미국 방문 체류 기간 동안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폴브라이트 장학금(Fulbright Award)은 수혜자 당사자의 연구 및 학술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생각이

나 태도까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가족에까지 영향을 주어 특히 미국의 모든 것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고 체득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기존의 자세나 태도까지 변화를 주고, 폴 브라이언트 장학금 본래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갖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상호 협력의 관계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게 된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고마움은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다.

폴브라이트의 영향

정성욱
미디어연구소 '볼' 대표 | 언론학

폴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이 내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하자면—이 글은 폴브라이트의 영향에 대해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여기고 쓴 영문을 맥락에 맞게 옮긴 것이다—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겠으나, 정리해서 다음 세 가지가 가장 크다 여기고 있다.

첫째, 1995년 폴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응모 서류 중에 자전적 소개 글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우수할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 내가 뽑혀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느라 그동안의 삶을 앞으로 나아갈 바와 관련지어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을 들겠다. 그때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조직해본 생각이 내 삶의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미치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둘째, 미국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근대 들어 우리 민족의 명운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오해를 받은 나라가 미국 아닌가 생각한다. 1995년에 쓴 응모 서류에도 필자 자신의 지적 관심으로 거론한 바 있지만, 근대의 새로운 흐름에 부딪친 우리 같은 민족들에게 공통된 지적 관심 중 하나는 근대라는 미로에 대한 지도의 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나름의 이런 지도 작성에 꼭 필요한 항목이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이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유학하지 않았다면 1920년대 이래 우리 역사의 전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온 마르크시즘의 종교적 매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냉전이 금기시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집어 든 에리히 프롬의 책에서 마르크스를 처음 접한 까까머리 시절 이래로 마르크시즘은 내게 근대라는 미로를 비추는 유력한 빛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서른을 넘긴 나이에 또 하나의 모교가 된 노스웨스턴은 ‘인간 이성의 한계’나 ‘통계적 사고’와 같은, 20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적 기반을 이루는 개념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 덕에 마르크시즘의 테두리를 벗어난 관점에서 자유주의적인 헌정 질서를 재평가하고 냉전 종식의 의미를 근대의 원점에서 재음미해볼 수 있었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덕분에 딱 막힌 분단 현실을 넘어 접한 새로운 세계의 경험은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근대라는 미로의 출구 너머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지적 도구들을 제공해주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고,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환갑을 기념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일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일이다. 늦게나마 15년 전 불초를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뽑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풀브라이트 최대의 수혜자

정종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법



풀브라이트 시니어 리서치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1996년 9월부터 1998년 2월 말까지 18개월 동안 하버드 로스쿨에서 연구할 기회를 누렸다. 영어의 벽을 뚫지 못해 지금도 허덕이고, 귀국 후 풀브라이트 동문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풀브라이트 재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큼은 결코 남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한 것은 불혹의 나이에 독일에 가고 나서였다. 독일에 가서 보니,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 놀라웠다. 법학의 왕국이라는 독일에 미국 법 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잘나간다면 학자들의 이론적 배경이 미국 법학인 예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 탄탄한 독일 법학이 미국 법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2년 정도 독일에 체류하면서, 다음에 갈 곳은 미국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관계적 계약 이론의 연구’라는 주제로 풀브라이트 연구 기금을 신청할 때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신 송상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울 때였는데, 모든 것을 다 챙겨준 서울 풀브라이트 당국이 고마웠다. 처음에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갈 생각이었다. 오페라 하우스나 카네기 홀이 가깝다는 메리트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찍이 컬럼비아에서 연구했던 같은 전공의 일본인 친구가 “당신 체질에는 하버드가 더 어울린다”는 충고를 듣고 생각을 바꿨다.

보스톤으로 가기로 한 후, 서울 풀브라이트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오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풀브라이트 지원으로 광주권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기로 파견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첼리스트 교수를 만났다. 광주에서도 서로 가까워졌는데, 여동생이 보스톤에 산다지 않는가. 그 교수가 자기 누이에게 한국 교수가 살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18개월 동안 살 멋있는 집을 어찌 그리 손쉽게 구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옆에 아름다운 고딕 성당이 있었고, 세 아이들은 모두 성당 부속 학교에 등록했다.

일생 처음으로 46세 때 미국에 갔는데, 그게 바로 풀브라이트 덕택이었다. 걸리버가 거인국에 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미국의 자연과 사회를 책으로 읽지 않은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안 본 것도 아닐 텐데, 막상 가서 보니 스케일에 압도될 지경이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푸른 하늘은 더욱더 푸른 것 같았고, 넓은 길은 더욱더 넓은 것 같았다. 눈도 왔다 하면 어마어마한 폭설이었고, 뉴잉글랜드의 단풍은 더욱더 붉은 것 같았다. 가장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그러면서 가장 흡인력 강한 자석이 내장된 것과 같은 미국 대학들의 매력과 마력을 어찌 아니 보고도 느낄 수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하버드로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약법’ 강의가 듣고 싶어 하버드 로스쿨 한국계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레이코프(Todd D. Rakoff) 교수의 강이가 인기라는 것이었다. 찾아가 부탁하여 청강할 수 있었다. 호로비츠(Morton J. Horwitz) 교수의 ‘미국 법제사’ 강의도 좋았다. 지금도 알포드(William P. Alford)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법연구소(East Asian Legal Studies)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의 만남은 젊은 날 일본이나 독일에서 생활하며 만났던 동아시아 학자들과의 만남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했다.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법학 논쟁이 재미있었다. 미국 학자들이 보는 동아시아에 대한 시각도, 동아시아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 법에 대한 시각도 재미있었고, 장님이 만지는 코끼리처럼 거대한 미국 사회를 놓고 서로 논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논문 같은 판결문도, 소설 같은 판결문도 재미있었다. 그 당시 한창 퍼지던 동거계약서도, 19세기 중엽의 노예계약서도 재미있었다. 일본 학자들과는 주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역시 난 일종의 우물 안 개구리였다.

체류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전에 들었던 레이코프 교수 계약법 강의를 다시 듣겠다고 했더니, “내 강의를 두 번 듣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면서 강의실 맨 앞줄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오른쪽, 왼쪽, 뒤쪽에 앉은 학생들과 가까워졌다. 교수와의 식사 때는 인류학 전공으로 대영 박물관에 있다가 로스쿨에 왔다는 금발의 여학생이 동석하여 흥미로웠다. 레이코프 교수는 어느 날 수업 중 칠판에 큼지막하게 17이라고 쓰더니, 자기 딸이 열일곱 살이 되었다며 던킨 도넛의 먼치킨을 돌려 학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도 칠판에 16이라고 쓰면서 똑같이 그랬는데, 교수로서의 연중행사가 된 것 같았다.

하버드 이야기를 하자면 메리 앤 글렌던(Mary Ann Glendon) 교수와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다. 1970년대 후반 서울서 부산 가는 열차 속에 버려진 여아를 입양했다는 글렌던 교수는 인권법과 비교법의 대가이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미국 대표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들어 낙태의 광범한 허용을 외쳤을 때, 같은 미국인 이면서 바티칸 대표였던 글렌던 교수는 낙태와 같은 끔찍한 살인이 어찌 여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내가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고 했더니,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무수한 순교자들도 있는데, 하버드 석좌교수가 생명 존중을 강조하게 뭐 그리 대단한가” 하며 겸손해했다. 부시 정권 말기에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도 맡았던 글렌던 교수는 2009년 4월 노트르담 대학 졸업식에서 저명한 가톨릭 신앙인에게 수여하는 메달을 받기로 했다가 낙태를 허용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강연한다는 소식에 메달 수상을 거절하여 세계의 뉴스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저서를 다섯 권 번역하였는데, 그중 두 번째 번역은 미국 생활과 관계가 깊다. 그것은 독일의 한 저널리스트가 가톨릭교회와 현대 세계의 문화에 관하여 여러 날 동안 당시 바티칸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있던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과 나눈 심도 있는 대담집이었다[영어판 Salt of the Earth(1997, Ignatius), 원저 Salz der Erde(1996, Deutsche Verlags-Anstalt)]. 난 미국 생활 내내 이 독어 책의 매력에 끌렸고, 저자는 하버드 로스쿨 주소로 번역을 격려하는 글을 보내주었다. 영어도 안 통하는 동양인 교수가 미래의 교황과 여러 해째 친교가 있고, 책도 번역했다는 사실만큼은 글렌던 교수에게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았다. 교황 저서의 두 번째 번역서는 2000년에 출판되었다(《이

땅의 소금》, 가톨릭출판사).

미국은 정치와 종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종교의 세속화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말했듯이 “갈등이 표출됐을 때 침묵하지 않고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미국 사회에는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해주는 강력한 문화적 흐름이 있다. 그럼에도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인 생명이 자기 결정권이니 행복 추구권이니 하는 미명 아래 점차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피임, 낙태, 안락사의 만연).

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3년간 문부성 장학금을 받았고, 40대 초반엔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의 지원으로 2년간 독일 생활을 경험하였다. 이어 40대 후반엔 풀브라이트 위원단의 지원으로 미국 생활을 1년 반 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장학금을 거의 다 누려본 행운아이다. 일본의 장학금이야 대학원 박사 과정 기간 중 학생 자격으로 받은 것이니, 학자로서 받았던 훔볼트나 풀브라이트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훔볼트 장학재단의 지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저한 배려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풀브라이트 위원단의 지원은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었으니 나머진 너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아닌가 싶다. 구석구석 잘 가꾸어진 질서정연한 독일 문화와 한없이 크고 넓어 아직도 개발할 곳이 무궁무진 많은 미국 문화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런가.

미국 학자들과의 교류는 지금도 풀브라이트 지원으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알았던 인맥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년 전 일본에 갔더니 국제금융법 교수가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하버드에서 대화를 많

이 나누었던 일본 법률가였다. 우리 주변에는 미국 다녀온 전문가들이
엮어내는 미국 법학이나 미국 문화에 관한 행사가 얼마나 많은가. 까막
눈이 그래도 전문가들의 담론에 더러 한마디씩 참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풀브라이트 지원을 받아 미국 물을 잠시 먹은 덕분
이다. 이쯤 되면 나아말로 풀브라이트 60년 사상 최대의 수혜자이든가
그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는가.

풀브라이트의 교훈

유범준

울산대학교 교수 | 재정학



한미교육위원단이 60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한국 근대 발전사에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이 6·25전쟁 즈음에 창립되어 국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교육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면서, 분명 근대 한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미교육위원단이 앞으로도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에 경하의 말씀을 드린다.

본인은 Fulbright Senior Research Fellowship의 수혜자로 1997년 가을부터 1년간 미시간대 경영대학에 체재하면서 연구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풀브라이트 위원단은 Mid-Career Researcher and Senior Researcher 11명에게 소중한 연구 지원을 제공하였다. 풀브라이트 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와 권위를 지닌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혜자는 영예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폴브라이트 펠로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대학이나 연구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인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본인의 경우, 1997년 후반 국내 경제가 IMF 국제 금융 위기에 처해 있을 당시 1달러당 790원이던 환율이 2,300원까지 치솟아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더욱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극심한 원화 가치 절하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분투하고 있던 유학생을 보며 본인은 과분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재삼 깨달았다.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 폴브라이트 본부는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폴브라이트 학자를 초청해 환경 보호, 소비자 운동 및 다인종 문제와 같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워싱턴에서 사흘 동안 개최하며 폴브라이트 동문 간 상호 인식과 유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2개월마다 미시간대 부근 폴브라이트 현지 동문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국회의원으로 북한을 최초 공식 방문한 미시간 상원의원 칼 레빈(Carl Levin)을 초청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서 대립에 대해 뜻 깊은 연설과 간담을 함께 나누는 적도 있었다.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장학 및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세밀한 사전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선정 이후에는 대체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주고받는 단순한 행위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남을 위해 무한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폴브라이트의 관용의 정신과 미덕은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베푸는 폴브라이트의 넉넉한 자세와 마음씨는 우리 모두에게 단순한 지식의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라 믿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폴브라이트에 진 빛을

값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신을 탓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매우 현명하다’는 폴브라이트의 이름처럼 우리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의 60주년을 맞이하여 폴브라이트의 교훈을 되새기며 삶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겠다. 폴브라이트의 정신이 더욱 밝고 넓게 계승되길 바란다.

UCLA에서의 1999년 8월~2000년 7월

김정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미국 문학

그것은 흥분과 기대로 시작해서 짧은 악몽기를 거친 후 축복의 도전이 이어지는 나날이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열두 시간을 날아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면서 미지의 영역의 도전장이 펼쳐졌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렌터카를 공항에서 받았을 때 그건 바로 폐차 직전의 것 같았다. 악명 높은 LA의 하이웨이를 타고 지도를 읽어가며 UCLA를 찾아가는 차는 어느 순간 멈출 듯이 덜덜거리며 흔들렸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대학의 Housing Office에 접속해서 아파트를 구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남편과 내가 묻고 또 물어 가까스로 찾아간 Housing Office 근처엔 주차할 곳이 없었다. 또 빌려줄 아파트의 목록을 얻으려면 상당액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우린 되도록 빨리 숙소를 정해서 정착에 필요한 일을 속속 진행하려고 했다. 학교에서 좀 떨어진 로체스터(Rochester) 가의 한 집을 찾았더니 80대의 폴란드계 할머니가 주인이었다. 우리의 여권과 초청장 등의 서류를 보고 나서도 의심이 되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비토를 놓았다. 그녀의 전화를 받은 UCLA 영문학과 비서가 우리의 신원

에 대해 애매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었다.

“난 미국인을 증오해”를 연거푸 외치는 그녀가 마녀같이 보이기도 했다. 부엌도 없는 그 집을 나서게 된 것이 오히려 새옹지마라 생각하며 ‘Vacancy’란 팻말을 내건 다른 아파트들을 찾았으나 매니저가 부재중이고 연락처를 남기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였다.

어느덧 이국에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근처인 웨스트우드 지역엔 빈 숙소가 없어 우린 조금 떨어진 북쪽 외곽 지대로 차를 몰아 한 모텔에 들었다. 한국의 집을 떠난 지 30여 시간이 흐른 때였다. 우린 샤워를 하자마자 침대 위에 뒹아떨어져 정신없이 잤다.

이튿날엔 대학 근처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영문학과 사무실을 찾았다. 워싱턴의 CIES에서 보낸 수표와 각종 서류가 와 있었다. 우선, 몰리(Molly)라는 영문학과 비서에게 왜 나의 신원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어제 집주인에게 대답했느냐고 따졌더니,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아파트 헌팅(hunting)을 전화로 다시 시작했는데 모두 연락처를 남기라는 녹음 메시지만 나왔다. 다행히 한 스튜디오의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1개월분의 월세와 신원 조회 비용으로 25달러의 Money Order를 내 신원을 밝히는 서류와 은행 계좌 확인서와 함께 먼저 제출하라고 했다. 대학 근처에서 숙소 얻기가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미처 몰랐다.

하루가 지난 아침에 우리가 묵고 있던 호텔 방으로 연락이 왔다. 입주해도 좋다는 그의 말에 우린 떨 듯이 기뻐했다. 이곳은 입지 조건이 좋았다. 의과대학을 면한 대로변에 있어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침실은 하나였지만 별도의 부엌과 벽장과 복도가 넓고 깨끗했다. 그런데 입주해서 침구와 부엌 도구 등을 구입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매니저

는 우리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고지엔 'Parking space available'이라 밝혔음에도 말이다. 타향에서 분풀이를 하거나 따져보았자 이득 없음을 안 나는 이런 '사기 행각'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나의 정착을 도우려고 동행했던 남편이 귀국한 후에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쳐 괴로웠다. 매일 밤 새벽 1시와 2시 사이에 불자동차와 앰블런스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집 앞 대로를 질주했다. 인근에 소방서와 병원이 있었던 것이다. 잠에서 놀라 깬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철창으로 막힌 아파트는 감옥같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기엔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뿐 아니라 인근 곳곳에 산재한 영화관 앞길은 자주 통행금지가 되었다. 새 영화를 개봉한다고 경찰들이 길을 차단하고 바닥에 빨간 카펫을 깔았고 주변엔 사람들이 몰려와서 출연 배우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난 먼 길로 돌아서 숙소에 가야 했다.

얼마 후에 두 살짜리 어린 손자가 다니러 올 참이었다. 지상 2층의 이 아파트는 손바닥만 한 수영장을 가운데 두고 □자로 둘러쳐진 구조였다. 수영장 바닥을 파란 페인트로 칠해서 밤에 특별 조명을 받으면 수영장 물은 상쾌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정작 쓸 만한 수영장은 못 되었다. 가끔 밤늦게 젊은이들이 괴성을 지르며 침방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손자가 온다는 나의 말에 매니저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다른 아파트로 옮겨도 좋다고 하였다.

우린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조용한 주택가로 옮길 작정을 했다.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확보된 아파트가 필요했다. 좀 떨어진 주택가에서 운 좋게 침실 두 개짜리 괜찮은 아파트를 구했다. 주인은 20년 전에 홍콩에서 이민 온 중국계 미국인이어서 같은 동양인이라 마음이 통했다. 학교 근처까지 가는 버스 노선도 있어 그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 후의 날들은 학문, 문화, 신앙, 아니 내 생활 전반에 걸쳐 축복받은 도전의 기간이었다. 나의 연구 과제였던 1960년대 미국 페미니즘의 기수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와 베티 프리던(Betty Friedan)의 술한 저서와 관계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제목으로만 알던 밀레트의 《Sexual Politics》 이후의 술한 저서를 탐독하며 그녀의 재앙에 같이 울고 불굴의 의지에 감복했다. 나는 삶을 떠난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외에 다양한 여성 작가들의 고백적인 글은 60줄 나이의 문턱에 들어서서는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UCLA에서의 체험은 내가 예견했던 것과 매우 달랐다. 1991~1992년의 1년간 나는 동국대의 자매 학교인 동부 워싱턴 대학에 교환교수로 체류했다. 워싱턴 주 체니라는 인구 5만 명의 University Town에서 난 특사 대접을 받았다. 좋은 아파트를 제공받고 영문학과 회의와 전체 교수 회의는 물론 졸업식 등 중요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했다. 나는 일류 음악회표를 자주 받아 절친해진 여교수와 함께 스포칸의 멋진 음악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작은 백인 대학촌의 ‘조용한’ 이 대학과 전혀 다른 UCLA에선 거의 모든 것을 직접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했다. 나는 이 대학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 속의 한 점에 불과했다. 학생의 65퍼센트가 유색인종이다 보니 백인 학생들이 소수 집단으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길을 물을 때 대개는 백인들이 통명스러웠고 동양인들은 친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큰 수확 중 하나는 내가 번역하고 있던 《The Columbia History of the British Novel》 중 로렌스에 관한 비평문의 필자인 빈센트 P. 페코라(Vincent P. Pecora) 교수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컬럼비아 대학 박사 출신인 그는 흰철한 키의 미남이었다. 강의가 없는 날엔 세 살 난 인형 같은 딸을 밀차에 태우고 연구실에 나와 베이비시팅(Baby-sitting)을 하며 면담에 응해주었다.

영문학과와 캐런 로(Karen Rowe) 교수는 나와 전공 분야가 같아 학문적 의견을 나누며 유익한 정보를 주었다. 학생들의 투표에서 Best Lecturer로 선출된 그녀는 열과 성을 다해 강의했다. 그녀의 'Survey of American Women Novelists' 강의는 역동적이었고 엄청난 양의 숙제를 부과했다. 그녀는 매 시간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주제를 내주며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유도했다. 교환 학생으로 이 강의를 듣던 연세대 학부 여학생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이 강의에서 A 플러스를 받아 나를 기분 좋게 놀라게 했다. 다른 영문학과 교수들의 강의에서 나에게 생소했던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작품을 알게 된 것이 귀국 후 나의 강의에 활용되기도 했다.

UCLA는 규모뿐 아니라 연구 분야의 폭이 매우 넓어 하루에도 갖가지 분야에 걸쳐 발표회와 세미나, 공연 등이 겹쳐 진행되었다. 어떤 때는 내 몸이 여러 개라면 하고 바랄 정도였다. 나는 몸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 모임에 참가하려고 노력했다. UCLA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폴브라이트 코디네이터인 앤 커(Ann Kerr)는 이러한 나의 욕구를 다양하게 채워준 분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대학에 퍼져 있는 폴브라이트 교수들과 연구생들을 자택에 초청하였고 최대한으로 학문적, 문화적인 문물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폴 게티 미술관, 노턴 사이먼 미술관, 랜드 코퍼레이션 등에 우리를 안내했다.

그녀는 남편이 이집트 카이로 소재의 아메리칸 대학 총장으로 직무 중 반미 괴한의 총에 살해된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 자신

이 증동 역사를 전공한 교수로 지냈고 은퇴 후엔 1991년부터 폴브라이트 관계의 일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멋진 저택은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는데 반사막의 황량한 산과 바다가 어울려 독특한 전망을 제공했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을 눈앞의 산자락에 모셨다고 했다. 커 선생은 교수 식당에서 나와 점심을 나누며 서로의 가정 배경을 이야기했고 여러 면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가 마련한 모임 하나하나가 알찬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주재 초대 요르단 대사직을 지낸 분의 솔직한 경험담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실감케 했다.

강연과 발표회의 모임은 참으로 다양했다. 법대에서 주최하는 여러 나라 여성들의 실태와 권리에 관한 발표, 여성학 센터 주관의 동성애자들의 발표, 이집트 문화유산보호회의 발표, 여성 건강에 대한 강좌, 과학 분야의 전문 종사자, 음악계 전문인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기존의 나의 생각을 재확인 또는 수정하기도 했다. 나는 교내 헬스센터의 카드를 끊어 처음 몇 달간은 매일 저녁 운동을 했다. 중국 무술에서 비롯한 타이치 특별반에 거금을 들여 등록했는데 강사가 예상과 달리 일본인으로 별로 배운 것이 없어 아쉬웠다.

내 제일의 목표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었던 케이트 밀레트의 《Sexual Politics》 이후의 자전적인 저서들은 거의가 초판으로 끝나서 헌책을 힘들게 구했다. 베티 프리던의 《Feminine Mystique》 이후의 저서도 대개는 우편으로 주문했다. 밀레트의 저서들은 워낙 인기가 없었기에 그들에 대한 40여 년 전의 서평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University Research Library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 옛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서 어렵사리 찾아냈다. 어떤 것은 마이크로 필름에서 얻기도 했다.

일단 구입한 책들을 탐독하고 이들에 대한 서평과 평론을 수집하고 읽고 논문을 집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러 여성 작가들의 자전적인 글은 나를 매료시켰다. 이들을 읽음으로써 케이트 밀레트의 저서를 보는 시각이 보다 증폭되었다. 메이 사턴(May Sarton), 캐럴린 헤일브룬(Carolyn Heilbrun), 샐럿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 마야 안젤루(Maya Angelou) 등의 솔직한 여성 담론은 학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과 직결되었다. 그들과 같이 분노하고 같이 고독을 느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감동하고 나이 들어감을 함께 슬퍼하며 순응의 지혜도 나누었다.

한국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모임이 여러 번 있었다. 한 강의 시간엔 베스트셀러 소설 《Still Life with Rice》를 쓴 한국계 젊은 여성 작가 Helie Lee가 특별 강사로 초청되었고 그녀는 두만강 가에서 극비리에 북한에 거주하는 삼촌을 만난 이후 알게 된 처참한 가족사를 들려주었다. 광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및 문화 행사는 USC와 UCLA에서 3일간 열렸는데, 연사 중엔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있었다. Asia Foundation과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s)가 공동 주최한 'Korea Today: Challenges of Changes'란 주제의 세미나엔 이홍구 주미 대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이 대학에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다녀가는 곳이라 모임 발표자들은 국가적으로 다양했다. 아랍계의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학자들이 연사로 나와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모색 방안을 전하기도 했다. 학술 행사 외에 문화적인 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했다. 대개는 입장권을 구입해야 했지만 공짜로 관람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회도 곳곳에 있었다. 컬버시티(Culver City) 장로교회에서는 일요일 오

후에 고전 음악의 피아노 독주, 앙상블, 트리오 등 멋진 공연이 있었다. UCLA의 고풍스럽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파월 도서관(Powell Library)의 로툰다(Rotunda)에서는 점심시간에 음악 공연이 있곤 했다. 가장 인상적인 음악회는 'Sacred Music of Hebrew Mysticism'으로 유대인 랍비의 신비로운 Chanting이었다.

가장 스케일이 크고 흥행적인 공연은 할리우드 볼(Hollywood Bowl)에서 여름 한 철에 있었다. 할리우드의 산을 높게 깎아 만든 야외 공연장은 무려 1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곳으로의 나들이는 일종의 피크닉으로, 계단식 좌석은 위치에 따라 입장료가 달랐다. 제일 비싼 자리는 무대 바로 앞에 흰 식탁보가 씌워진 테이블들이 줄지어 선 곳인데, 이곳에서 정장 차림의 손님들이 정찬과 와인을 웨이터들의 시중을 받으며 즐겼다. 아니면 피크닉 음식을 따로 준비한 관객을 위해 노천극장 한쪽엔 넓은 Picnic Area가 마련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 시간 훨씬 전에 이곳에서 음식을 즐기고 교제한 후에 사방이 킁킁해진 밤에 시작되는 공연을 즐겼다. 이곳에서 우리는 장한나의 첼로 연주, 러시아 교향악단과 할리우드 볼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더불어 휘황찬란한 불꽃놀이도 보았다.

공연 시즌에는 특별 버스가 다녔다. 대학 근처에서 떠나는 버스에 올라탄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다. 주로 중년층 이상의 승객들이 피크닉 바구니에서 와인을 꺼내 축배를 들며 기분을 내기 시작해서 우리도 덩달아 즐거웠다.

매년 대학에서 열리는 Best Professor Lecture가 내가 들은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유전공학 전공의 그 교수는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오로지 연구에 전념하는 학자였다. 슬라이드쇼를 병행한 그의 말

은 매우 경쾌하고 빨랐다. 당시는 콩과 옥수수의 유전자 조작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는 강냉이를 심은 화분을 들고 설명했는데 그의 강의는 조깅을 겸한 것이었다. 잠시도 서 있지 않고 계속 넓은 강단 위를 빠르게 걸어다니며 말했다. 첨단 학문에 걸맞은 강연 태도였다.

내가 강연과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학기 중에 매일 발간되는 교내 신문 《Daily Bruin》이었다. 지면을 메우기 위한 지나간 행사의 보도 기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각종 교내외의 행사를 매일 상세하게 알렸다. 나에게 연구실을 제공한 과는 영문학과가 아니라 Center for Women's Studies로 굉장히 큰 건물인 Geology Building 5층에 있었다. 그곳에서 한국, 남미, 일본, 불가리아 등지에서 온 여교수들을 만났다. 또 다른 정보의 근원지는 여성학 센터 외에 Center for Korean Studies였다. 이곳에서 시인 고은 씨의 강연도 반갑게 들었다.

한번은 국제학생부에서 추천한 Leimert Park에 대한 강연을 듣고 차를 타고 현지 답사를 나갔다. 연사들은 Leimert Park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 이곳 출신의 여교사와 상인회 회장이었다. 흑인 특유의 예술의 집합체인 La La Festival이 열리는 시즌이었다.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난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black Greenwich Village'라 불리며 흑인 예술과 문화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순회 답사 중에 안내인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폭동 피해를 입지 않은 한국인의 세탁소를 소개했다. 그 세탁소 주인은 평소 흑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조금의 손상도 입지 않았다고 비결을 말했다.

마땅한 교회를 찾느라 매 주일 다른 교회를 다니던 우린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LA한인연합감리교회를 거의 '마지막 시도'로 생각하고 찾아갔다. 지도를 보고 찾아간 이 교회에서 곧 친숙함을 느꼈다. 우린 서

올에서처럼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길 자원했고 며칠 후에 있었던 성가대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애써 수소문했던 ‘로버트슨(Robertson)’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전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교인 중에 나와 남편의 고등학교 선후배가 여럿 있었고 중추적인 교인들은 1960~1970년대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따고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었다.

후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시아버님이 1940년대엔 USC의 박사 과정 학생으로 바로 이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었다. LA에서 가장 오래된 이 한인 교회를 1940년대엔 김하태 목사님이 담임하셨다. 김 목사님은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후에 연세대에서 철학 분야에서 명강의를 하셨다.

LA에서 나는 회갑을 맞았다. 영국 에든버러와 미 중부에서 공부하던 딸아들과 둘째 아들 내외가 성탄절에 우리와 합류했다. 내 생일이 1월이라 1999년의 성탄절과 2000년 새해를 우리 식구들이 이국의 땅에서 한데 모여 기쁨으로 맞이했다.

내 아파트에서 묵어간 사람들은 아들 내외와 손자만이 아니었다. 남편이 한 학기를 지내고 귀국한 다음엔 동국대 대학원 제자가 와서 함께 지냈다. 그는 한 학기 동안 영어와 미국 문화를 익혔고, 결혼 후엔 미국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하여 선교사가 되었다. 또 중·고등학교 동창인 김철희 공학박사 부부가 내 아파트에 묵으면서 은퇴 후에 정착할 곳을 탐색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미국 전역을 여행한 후 샌디에이고에 정착했다. 뿐만 아니라 40여 년간의 미국인 친구 래리 롱(Larry Long) 부부가 애틀랜타에서 LA로 날아와 40년 만에 해후했고 나의 아파트에 머물다가, 함께 팜스프링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카탈리나 섬을 여행했다.

나는 학문과 문화적인 면 외에 잊지 못할 신앙적인 체험을 LA한인연



Outdoors by Fountain: 롱비치에서 열린 American Literature Association의 학술 발표회에서

합감리교회에서 했다. 매주 금요일 밤엔 성가 연습을 하며 교제를 하고 일요일엔 예배와 식사를 통해, 매월 1회 속도 가정에서 본 속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 개의 속이 참가한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우리 부부가 속한 속이 일등을 차지한 것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었다. 우리를 위한 송별회는 할리우드 볼에서 있었다. 피크닉을 겸한 음악회의 초대는 그분들의 극진한 배려의 선물이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김광진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인데 인간미의 재치와 유머로, 감동적인 설교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셨다. 그분의 배려로 내가 참가한 3일 동안의 영성 훈련(Love Tres Dias)은 독특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미국 전역과 외국에서 이곳에 모인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각자 품고 있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중보 기도를 했다. 백두산보다 높은 빅베어에서의 3일은 천국에서의 잔치처럼 즐거웠다. 마지막 밤 세족식 때는 참석자 모두 사랑의 눈물로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보지 못할 도서관 사서들의 해박함과 친절함이 나는 너무도 부러웠다. University Research Library의 사서인 레이 소토(Ray Soto)는 석사 학위를 두 개나 지닌 석학으로 2~3일에 걸쳐 컴퓨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세세하게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다른 사서는 희귀한 자료를 뽑아주었다. 이들은 간단한 점심 식사 대접도 규칙에 어긋난다며 사양했다. 이러한 사서들이 있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대학에 모여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친절함은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술관과 박물관도 여러 곳 구경을 했다. 가까이 있는 폴 게티 미술관에 사정상 여러 번 갔어도 싫증이 나지 않게 볼거리가 많았다. 우리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s), 미니어처 박물관(Museum of Miniature), UCLA의 파올러 미술관(Fowler Museum), 해머 미술관(Hammer Museum)에서 귀중한 예술품을 감상했다. 패서디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도서관장인 고중령 박사(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의 안내로 이름난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과 정원을 경탄하며 구경했다.

여행으로 멀리 요세미티 공원, 세쿼이아 국립공원,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 크리스털 케이브, 라스베이거스 등지를 다녀왔다. 가장 뜻깊은 여행은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영어 교사였던 김규창 선생님(LA 거주)의 80세 잔치를 우리 동창들이 베풀어드린 후, 3박 4일간 선생님을 모시고 한 것이었다. 나바호 인디언의 성지인 모뉴먼트 밸리, 신비의 파월 호수, 아치스 국립공원 등지를 둘러보며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여행 기분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우리들의 행사를 영문 기사로 작성하여 《LA 타임스》에 기고함으로써 한국의 스승을 기리는 미풍을 널리 알렸다.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수일간에 걸쳐 10년 전의 일기를 자세히 읽으며

LA에서 준열한 시간을 보냈음을 깨달았다. 나는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며 매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 쓰려고 애썼다. 학문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믿음 생활에서 분에 넘치게 풍요로운 체험을 했고 슬한 분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이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5개월간의 Senior Research Grant를 베푼 한미교육위원단과 연이은 6개월간의 연구비를 지급해준 동국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체재 기간 중 동국대 송석구 총장께서 UCLA를 방문하여 당국자와 불교 문화 연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하셨을 때 내가 통역자로 약간의 도움을 드리게 된 것 또한 감사할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의 높은 뜻을 기리며 그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0

홍성길 • 박재창 • 황현주 • 황혜성 • 황영순 • 고종환 • 박경서 • 이성하 • 허영일
김영미 • 엄명배 • 이재정 • 이호영 • 김선웅 • 최현섭 • 김진숙 • 이시철 • 나상대

FULBRIGHT

KOREA 1950-2010

폴브라이트 60년을 기념하며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 정치학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어느덧 창립 6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광복 65주년, 건국 62주년이니 폴브라이트 위원단은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기로부터 험난했던 6·25전쟁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브라이트 위원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졌고, 그들은 곧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필자는 영광스럽게도 폴브라이트 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년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머물면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폴브라이트 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학자들 앞에서 영어 강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또 위원단의 지원이 확정된 후 학교에서 근무 기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년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허탈함도 잊을 수 없다. 학칙에 분명 근무 기간 3년 이상인 교원이 외부 우수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단에 지원하기 전에 본부

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니까 타 교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허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한동안 마음고생을 피할 수 없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집착은 기회의 균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중서부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필자는 말로만 듣던 남부 지역(비록 깊은 남부 지역은 아니었지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던 가족들에게 남부의 작은 대학 도시인 채플힐은 매우 소박하고 인상적인 곳이었다. 죽죽 뻗은 나무들 사이로 간간히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 높이가 대체로 나무 높이보다 낮아 멀리서 보면 온통 숲 속에 있는 도시처럼 보였다. 당시에 인터넷이 이용되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웹사이트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집사람이 직접 가보고 살 집을 정하고 싶다고 하여 거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가방 몇 개 들고 애들과 함께 떠났다. 다행히 한국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UNC 국제관계연구센터의 미국 친구가 자기 집에 머물도록 배려해주고 차까지 빌려주어 그리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만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겨울이 그리 춥지 않은 곳이지만 추위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다. 12월 말이 가까워 연말연시 무렵이었는데, 채플힐 주변의 3개 카운티(county) 대부분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다. 소식을 들으니 주변 공사장에서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 공사하던 차량이 사다리를 접지 않고 움직이다가 고압 전깃줄을 건드려 끊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몇 시간 고생하면 복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가스도 없이 모든 것이 전기로 공급되는데 히터가 들어오지 않으니 추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밥도 해 먹을 수 없으니 그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마침 부모님께서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고 계셨는데, 도저히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쉬었다가 돌아와야겠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던 미국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는 욕심으로 아우성치는 바람에 길이 꽉 막혀서 집 근처를 빠져나오는 데만도 두 시간 이상이 걸렸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 질서를 잘 지킨다는 미국 사람들도 별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정전 사태는 그러고도 하루를 더 끌어만 이틀을 고생했는데,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신속함이 주민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전화 연결에 일주일, 소파 배달에 두 달씩 걸려서 힘들었던 것과 함께 이 경험은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우리로부터 배워야 할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도서관을 비롯한 연구 지원 시설이었다. 필요한 대부분의 책이나 논문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무수히 널려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부러웠다. 강의를 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학교는 주정부로부터 대학 예산의 33퍼센트 정도를 지원받는 대신 학생 중 85퍼센트를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 의무 때문에 다른 주의 우수한 학생들을 받지 못해 학교의 비교 우위가 크게 높

아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로 보면 손해지만 주립대 지원을 위해 공채의 발행이나 세금 증가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한 주립대에 그러한 지역 선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방도 교육 자치를 통해서만 궁극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유학 때와는 달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수로 다시 찾은 미국의 대학 도시는 무엇보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의 다양한 행사들이 대학에서 치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학 때면 각종 캠프들이 대학 주관으로 열려 아이들이 늘 대학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주변에 실버타운도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의 과거 경험을 직접 인터뷰하는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고, 학생들은 노인들로부터 과거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나 각종 직업에 대한 경험 등을 들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 대학생들은 노인이나 어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대학이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세대 간 화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찾을 수 있었다.

당시 필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세계적 연구 개발단지인 RTP(Research Triangle Park)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많은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당시 RTF(Research Triangle Foundation) 회장을 맡고 있던 인사를 인터뷰

했던 경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진화된 시민 정신의 일면을 가감 없이 볼 수 있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州都)인 롤리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는데, 본래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당시에도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RTP가 확장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롤리 시장을 역임했고, 후에는 RTF 회장으로 일했다. 그에게 RTP의 확장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중에 필자는 당시 공무원들이나 시장 자신 등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독점적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인근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를 물었다. 처음에 그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두세 차례 보충 설명을 해야 했다. 결국 필자의 복잡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명료했다. 만일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 자신은 물론 자식들도 이 지역에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자신도 롤리 시장직을 그만둔 지 5년이 지난 다음에야 부동산 개발업을 다시 시작했고,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계획했던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내부 정보를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했던 우리의 일부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했던 나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항상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1년간의 연구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다. 당초 계획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채 마무리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 녀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약 없는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매년 방학 때면 아이들을 보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어려움

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다. 나에게 미국 우수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라는 소중한 기회를 준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깊이 감사한다. 인생으로 치면 회갑을 눈앞에 둔 한국 폴브라이트 위원단,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과 한미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폴브라이트 스칼라십을 회고하며……

박재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행정학



2002년 중진 학자 폴브라이트 스칼라십을 통해 미국의 버클리 대학 정부학 연구소에서 지낸 바 있다. 학생 때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쫓기지 않으면서도 마음껏 하고 싶은 학술 과제를 붙들고 추적할 수 있어 좋았다. 자유로움은 너그러움을 불렀고, 너그러움은 스스로를 내면의 정신세계에서 마음껏 방목할 수 있게 했다. 그때의 연구 결과물이 《한국 전자의 회론》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개척서쪽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나 보다 큰 수확은 이때 처음으로 구속 없는 연구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위 논문 작성이나 그 이후의 여러 학술 연구 과정에서는 업적 쌓는 일에 쫓기거나 연구 프로젝트의 계약 완료 같은 꼬리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폴브라이트 장학금은 수혜자에게 아무런 꼬리표도 달지 않는다. 이는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무한신뢰를 전제하지 않

고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운영 지표다.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는 깊은 자
공심을 심어주고 폴브라이트 위원단은 스스로의 권위와 비범함을 뽐내
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 사회에
서는 이런 장학 사업을 주창하고 초석을 놓은 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 지도자라는 점도 마음에 새롭다. 흔히 장학 사업이라면 그의 본질
이 위장 사업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고권 유지를 통해 가내 수공업
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던 만큼 사후에도 그의 유지에
따라 오히려 공공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업이 팽창일로에 있다는 사
실도 눈여겨보게 되는 점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묘비라도 빼다
팔듯 하는 우리네 사정과는 달라도 사뭇 다른 탓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는 사심 없는 공적 간여를 다시 배우게 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일국주의의 경계 안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기 마련인 유
권자의 세급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지구적 맥락에서 연구와 정보를 교
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한 혜안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지구
화 시대의 도래를 이미 60년 전에 내다보았던 것일까? 여하튼 폴브라이
트 장학 제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지표는 지구를 아우르는 성찰과
연대, 안목과 결속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인 오늘날에 그 성가
를 보다 더 높이고 있다. 연구나 지적 활동에 있어서는 일국주의적 경계
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절실한 과
제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 공영의 길
을 찾는 숭고한 자세에 동감하는 이유다.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사실 미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반 없었다. 눈 비
비고 학교 도서관에 나가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다가 저녁 별을 보면서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 한 장 읽어볼 겨를 없이 공부해야 했던 유학 시절은 그래서 문자 그대로 유인의 세월이었다. 그런 나에게 미국의 면모를 차근히 조망하고 음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폴브라이트 방문 학자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였다. 유학을 마치고 다시 미국에 체류하게 된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때처럼 한가로이 미국 생활을 즐긴 적은 없었다. 미국의 지역 사회에 처음으로 생활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장학 제도가 미국 알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였던 셈이다. 귀국 후에는 거꾸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다. 어찌면 그렇게도 유능하고 씩씩하며 자기 목표 설정이 분명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리도 많은지……. 이제는 우리도 외국의 장학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미국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안목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재에게 미국을 조망하고 분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지구 중심 국가가 되어 지구 경영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일은 필수 불가결적인 과제일 것이다. 마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의 전환점, 폴브라이트

황현주

백제중학교 교사 | 미국학



지금까지 영어 교사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는, 영어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던 지금은 퇴임하시고 숙정재단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남주희 교장 선생님께서 2001년 2월 어느 날, “폴브라이트의 미국 하기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에 한번 응시해보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떨리는 가슴으로 연수 신청서를 내고, 3월 3일 서울 폴브라이트 본부에서 인터뷰를 마쳤다. 선발 인원은 네 명, 대상은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국 영어 교사이므로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기원했다.

3월 7일, 드디어 미국 하기 연수자로 선발되었다는 공문을 접하고는 떨 듯이 기뻐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6월 15일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 가게 된 Y선생님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났다. 시카고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야 내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연수를 받는다는 사

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끝없는 감사를 드렸다.

가슴 벅찬 흥분과 설렘은 열두 시간여 비행의 피곤함도 잊게 했으며, 마침내 6월 15일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마중 나온 UIC 직원 칼(Karl)의 안내에 따라 UIC 기숙사에 도착하여 짐을 푸는 것으로 미국 연수가 시작되었다.

6주간의 연수는 6월 18일부터 UIC에서 4주간의 강의 수강과 시카고 주변 탐방, 1주간의 뉴멕시코 주에서의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 체험, 3일간의 샌프란시스코 탐방, 4일간의 워싱턴 D.C.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UIC에서의 생활은 도착 다음 날, 전체 일정 안내 및 우리를 담당하실 피터(Peter) 교수님과 교수진, 이번 연수에 참가하게 된 각국 연수생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고, UIC 학생증 발급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연수 생활이 시작되었다.

수업은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및 문학을 총망라한 것으로 토론 중심의 대학원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영문학을 전공하였지만, 미국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던 나로서는 덕망 높고 박식하신 교수님들의 열강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나의 머리에 각인되었다. 토론식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시카고 주변의 유서 깊은 건축물을 돌아보고 그들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체험한 수업은 우리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시 대학생이 되어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도 하며, 잔디에 앉아 연수생들과 담소도 나누고, 근처 카페에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

다. 아침이면 몇몇 연수생과 함께 근처의 미시간 호수까지 조깅도 하고, 오후에는 시카고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댄스 강습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미국 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교수진의 초대로 미국 가정의 바비큐 파티에 초대되기도 하고, Eaglewood Technical Preparatory Academy를 돌아보며 그들의 수업을 관찰할 기회도 가졌는데, 현관의 “The longest journey starts with the first step” “Learn from the past, live in the present, and plan for the future”라는 문구는 지금도 내 책상 앞에 놓여 내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7월 3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야에는 미시간 호수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오색찬란한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4주간의 시카고 연수는 7월 13일 미시간 호수가 내려다보이고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도시 전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전경이 보이는 앨리셔 보아다(Alicia Boada)의 집에서 성대한 작별 파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뉴멕시코의 문화 탐방은 유네스코에 의해 creative city로 선정된 샌타페이를 시작으로, 푸에블로 인디언이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며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푸에블로데타오스를 거쳐,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푸에블로 인디언의 주거 유적과 선사 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한 메사베르데(Mesa Verde) 국립공원 탐방으로 이어졌다. 이어 카우보이 도시인 두랑고에서는 로테오를 관람했고, 1800년대 후반 탄광촌으로 유명했던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나바호 인디언의 자치 정부 나바호 네이션(Navajo Nation)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이어 태평양의 항구 도시로,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안개에 덮인 골든게이트 다리, 시내의 전경을 관람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케이블카,

피어(Pier) 39로 잘 알려진 피셔먼 워프(Fisherman's Wharf), 악명 높은 감옥으로 유명한 앨커트래즈 섬으로 대표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향했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을 방문하였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 태동된 명문 버지니아 대학과 그의 사저 몬티첼로(Monticello)를 돌아볼 기회도 가졌다. 7월 27일,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및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현지 문화 체험의 기회를 통하여 미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후원한 폴브라이트 본부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환담을 나누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호텔로 돌아와 저녁 만찬과 담소를 마지막으로 6주간 흠뻑 정들었던 연수 동기생들과도 아쉬운 작별을 고했으므로 6주간의 행복했던 연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 후,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교사로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 2004년 충청남도 고교 입시 영어 문제 출제자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으며,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중학교 1, 2, 3학년 전국영어듣기평가 출제위원 및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수의 영어 학습 참고 자료 제작에 참여하였다.

돌이켜보면, 폴브라이트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는 영어 교사로서의 내 인생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수업 결손이 예상되는 학기 중임에도 영어 교사로서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흔쾌히 연수 기회를 주신 남주희 교장 선생님의 넓은 아량과 미국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론의 바탕 위에 현장 탐방을 접목한 귀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신 폴브라이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데이비스에서 보낸 2001년

황혜성

한성대학교 교수 | 미국사

2001년 Fulbright Research Award Program을 통해서 Mid-Career Research Award를 받고 캘리포니아 대학(UC) 데이비스 캠퍼스에 다녀온 지 어언 8년이 되어간다. 그 한 해를 다시 돌아보니 몇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특히 풀브라이트 면접일의 에피소드는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졸여온다.

면접 시간을 거의 1시간 30분 남기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택시를 잡아탔다. 평상시 학교에서 마포까지 택시로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기에……. 그런데 그날 서대문에서 시작된 교통 정체는 아무리 기다려도 풀리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발을 구르며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결국 인터뷰 시간을 5분 정도 넘기고서야 한미교육위원단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말 다행히도, 내 앞의 인터뷰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여서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러기에 택시 타지 말고 지하철 타라고 했잖아!”라며, 마치 자신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긴 듯 고소해(?)했다. 그렇지. 남편 말을 들었어야지……. 지하철은 약속 시간을 지켜준다는데……. 그렇게 마음 졸인 면접을 마치고 얼마 후에 Research Award 당첨(?) 소식을 받고 기뻐했던 기억이 새삼 새롭다.

UC 데이비스의 스폰서인 워커(Clarence E. Walker) 교수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내 연구에 도움을 줄 교수를 찾는 가운데 UC 데이비스 사학과의 워커 교수를 발견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에게 내 소개를 하고, 나의 연구 계획을 알리며 연구년 기간 동안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생면부지의 한국인 교수로부터 편지를 받은 그는 고맙게도 곧바로 답신을 보내왔다. 그리하여 나는 2001년을 데이비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데이비스는 UC 데이비스가 모든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인구 5만 명 정도의 자그마한 캠퍼스타운이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몹시 배타적인 도시였다. 슈퍼마켓에서 마주친 백인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서늘하다. 하기가 과거 KKK의 본산지였다니……. 하지만 데이비스는 백인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매우 안정되고 지적으로는 상당히 리버럴한 도시였다.

2001년은 미국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그해 9월 11일 아침, UC 데이비스에 방문학자로 함께 있던 교수가 빨리 TV를 켜보라고 전화했다. 나는 정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반문하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 눈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았다. 이후 미국인들은 “왜, ‘그들이’ ‘우리’를 증오하는가?”를 반문했다. 9·11 이후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애국법을 제정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조용했다. 마치 무풍지대처럼……. 시위도 없었고, 성토대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때문에 성조기가 걸렸고, 차에 성조기 스티커가 붙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렇지만 내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 호의 중동에서 온 박사 과정 대학원생 부부 아파트 창문에는

그 이후 계속 커튼이 무겁게 내려져 있었다. 절제된 반응과 강경한 정부 대응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위기 시에는 개인적인 이익과 다양성을 접고 그야말로 애국주의(patriotism)를 중심으로 뭉치는 미국인의 역사적인 전통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비스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워커 교수의 수업을 청강했다. 내가 수업을 듣겠다고 하자, 그는 동료 교수가 수업을 듣는 건 처음이라며 사뭇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내게로 와서 “오늘 내 수업 어땠느냐”고 묻곤 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수업을 들으며 머리가 재충전되는 기분을 느꼈다. 특히 그의 수업에서 보았던 <아메리칸 히스토리 X(American History X)>는 정말 가슴 뭉클한 영화였다. 그는 내게 집에 가져가서 보라며 비디오테이프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귀국 후 ‘현대 미국의 이해’ 수업의 주요 교재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가을 학기가 되어 ‘Fulbright Visiting Scholar’라는 타이틀이 붙자, 사학과 학과장이 연구실로 찾아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풀브라이트 proposal 주제이기도 했던 ‘Multiculturalism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Koreans’를 중심으로 강연을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UC 데이비스 에스닉 스터디(Ethnic Studies)에서 출간하는 저널에 발표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만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귀국하고 말았다. 생각하면 아직도 아쉽다.

데이비스에서 보낸 2001년을 되돌아보며, 새삼 풀브라이트가 내게 준 좋은 기회와 시간들을 반추해본다. 그리고 한편,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미교육위원단 일에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단장님!

2002 풀브라이트 미국학 여름 연수 참석기

황영순
평택대학교 교수 | 미국사



2002년 여름 풀브라이트 미국학 연수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모두 일곱 개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The Civilization of the U.S.: An Introduction’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대학에서 개최된 프로그램에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참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The Reconciliation of American Diversity with National Unity’인데 4개 부문 —‘Local Autonomy and Pluralism in America’ ‘Individual Liberty and the American Creed’ ‘Cultural and Social Heterogeneity’ ‘National Unity: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18개국에서 한 명씩 참가했으며 참가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터키,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튀니지,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었다. 참가자들의 전공 분야는 문학, 언어학, 역사, 정치학, 사회학 등으로 다양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우 빈틈없는 일정으로 채워져서 대개의 경우 매일 오전(9:30~11:30)에는 강연이 있고, 오후(2:00~4:00)에는 패널 네다섯 명과 함께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사와 패널로는 뉴욕대, 컬럼비아대, 뉴욕 시립대, 프린스턴대 교수 등과 전 뉴욕 주 하원의원, 뉴욕 주 검사, 뉴욕 시장 정책 기획 고문, 《Foreign Affairs》 수석 편집자, 로터스(Lotus) 재단 사장, 맨해튼 연구소 자문위원, 허드슨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출국하기 전에 ‘pre-reading’ 책 세 권을 이미 받아 보았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부과된 ‘assigned reading’ ‘suggested reading’이 적지 않은 양이어서 부담이 되었는데, 시간 이용을 위해 자주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격의 없는 토론회를 갖곤 했다.

그리고 장소와 시기가 뉴욕의 여름이다 보니 저녁 시간(6:00~10:00)에는 공연이나 콘서트 등에 많이 참석했다. 특히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공연, 9·11을 소재로 한 연극 〈The Guys〉, 브로드웨이 거슈인 극장에서의 ‘오클라호마’ 공연, 링컨센터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 줄리아드 앙상블 공연 등이 인상에 남는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서 건넜고 오후에는 양키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경기를 관전했는데 그날 뉴욕의 밤하늘은 불꽃으로 수놓였다. 안내 교수와 함께 뉴욕 시 건축물 투어, 할렘, 차이나타운, 루바비치 유대인 집단 거주지 등도 투어를 했는데, 일행은 주로 걸어서 맨해튼 여러 곳을 둘러보고 다녔다. 그라운드 제로를 찾았을 때는 숙연함 속에 모두 말이 없었다. 참가자들은 국적이나 인종이 제각각이어서 처음 만났을 때 낯설어 했으나 첫 주말 뉴잉글랜드 여행을 함께하면서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하게 서로 돕고 지내게 되었다. 때마침 월드컵 기간이라 서로 편을 들어 응원했다. 지금도 그들과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현장 견학 여행은 뉴잉글랜드, 뉴멕시코, 그리고 워싱턴 D.C. 방문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 여행 프로그램은 Freedom Trial, 초기 미국의 형성, 미국의 산업화, Native American, 이민족 간 대립과 동화, 미국 민주주의 과정과 특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보스턴에 갔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하버드에 재직하고 있는 시동생 내외를 만나 함께 브루클린에 있는 존 F. 케네디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었다. 샌타페이는 1995년 미국 언어학회 여름 세미나 참가 이후 두 번째였는데 'blue sky nothing but blue sky'라는 말 그대로 여전히 아름다웠다. 유서 깊은 로레타 성당에서 감상한 무반주 혼성 'World Music-Desert Chorale' 공연은 쏟아지는 별들과 함께 천상의 소리가 사막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청 부서인 워싱턴의 국무부를 방문했을 때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회를 한 다음 한 직원과 담소하는 중 여행 소감을 묻는 질문에 뉴욕, 뉴잉글랜드, 뉴햄프셔, 뉴멕시코까지 돌아보니 역시 미국은 뉴랜드임에 틀림없다고 하자, 재미있어 하며 파안대소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뉴욕대의 다국 미국학 연구소장인 필립 호세이 교수로 임대료가 비싸다는 맨해튼의 아파트를 1인당 한 채씩 준비하는 등 뉴욕 시립대 불어 교수인 그의 부인 신시아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짧은 지면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이 6주간의 프로그램은 사실상 6개월 기간에 진행해야 할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체력적으로는 강행군이었으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미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확신한다. 또 내게는 미국과 미국학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데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후원해준 한국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풀브라이트가 내게 준 기회

고종환

부경대학교 교수 | 경제학



저는 2003~2004년 Mid-Career Lecturing/Research Award를 받아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년간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국제공공대학원(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에 소속되어 있는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강의로는 2003년 가을 학기에 ‘Contemporary Korean Economy’와 2004년 봄 학기에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를 담당하였으며, 연구 과제로는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를 수행하였습니다. 컬럼비아는 1754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지금까지 94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미국 대학 중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여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이 나온 대학입니다. SIPA는 외교관, 공무원 등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원으로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온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봄 학기에 제가 담당 한 강의(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에 등록한 약 40명의 석사 과정 학생 중에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외교 공무원이면서 석사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 온 두 명의 정부 장학생과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다섯 명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탁월한 수강 능력과 발표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입니다.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는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ASEAN(동남아국가연합), 티베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유명하며, 미국 교육부는 1960년에 컬럼비아 대학을 East Asian National Resource Center로 지정함으로써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약 1년간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특히 기억나는

것은, 2003년 9월 어느 날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컬럼비아를 방문하여 SIPA에서 특강하는 바람에 제가 강의실을 옮겨 강의를 했던 사실이며, 제가 강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푸틴 대통령은 이미 특강을 마치고 대학 교정에서 뉴욕양키스 야구팀 선수들과 야구 시연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이처럼 유엔의 정기 총회가 개최되는 9월에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대통령, 총리)이 컬럼비아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유명 인사들이 SIPA에 강연 제안을 해오는 까닭에 사안별로 모아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장관급 인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2004년 5월은 동유럽 국가 10개국이 유럽연합(EU)의 신회원국으로 가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동유럽 국가 원수 및 장관 등의 강연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뉴욕의 지리적 이점 덕분에 세계적인 인사들의 매우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뉴욕의 활기차고 다양한 문화, 예술,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온 훌륭한 학생들에게 1년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값진 기회 그리고 한미 FTA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준 한미교육위원단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1년간 제가 강의와 연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에서 한국학 주임을 맡고 있는 Professor Charles K. Armstrong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폴브라이트 어학연수가 나에게 가져다준 것

박경서
하의중합고등학교 교사 | 미국학



2003년 1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은 내 인생에 있어 한 획을 긋는 매우 뜻 깊고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폴브라이트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선진국의 사회, 교육,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나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와,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더 충실하고 알찬 교육 활동을 통해 그들의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산골 마을에서 자라난 시골뜨기 소년에게 바깥세상은 늘 꿈과 소망과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우방이면서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욱더 크고 강렬하였다. 아래채 상하 방이 모두 미국에서 나온 잡지 책장들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나는 매일 거기에 나와 있는 글과 사진들을 보며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동경



심을 키워온 것 같다. 미국 영화가 들어온 날이면, 온 마을 주민들이 10리 길이 멀다 않고 가설극장이 설치된 면소재지까지 달려가 보고 오곤 했는데, 그렇게 동경하고 짝사랑해오던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마치 오래 흠모해오던 여인을 여행이나 한집 생활을 통해 더 잘 알고 가까워짐으로써 사랑과 정분을 나누고 더 깊고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난 것과는 같았으니, 내 어찌 감사하고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감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합격 통지를 받고 출국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도 좋았지만, 연수를 마치고 모국에 돌아와 느끼는 보람과 긍지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몸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오스틴 홈스테이 가정과 오스틴 어학 훈련원과 오데사의 페르미안 고등학교 현장을 맴돌았다. 물론 미국 현지에서 생활할 때가 제일 좋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좋은 환경과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감동적이고 유익한 수업을 받

는 등, 참으로 보고 배울 것이 많았던 오스틴 어학연수와 오데사에서의 즐겁고 활기찬 학교 교육 참여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더없이 값지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선진대국에서 내가 배워온 것들을 이 좁은 지면에 어찌 다 실을 수 있을 것인가. 서부 개척사를 통해 길러온 미국인들 특유의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단결심, 끝없는 집념과 열정, 용기, 탐구심, 모험 정신 등을 발길 닿는 곳, 시민들의 직업 생활에서 만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정신과 가치관들이 오늘의 부유하고 강대한 미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이었음에 틀림없었다.

‘Fulbright TIEP’ 과정을 마쳤을 때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참 많았던 것 같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의 내가 올챙이였다면, 미국의 선진 문물을 접하고 선진 교수법을 배우고 돌아와,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의욕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 모습에서 이제 다 자란 어엿한 한 마리의 개구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풀브라이트 영어 교사 연수가 나에게 가져다준 것

장황하게 그 모든 것을 여기에 일일이 다 늘어놓느니, 차라리 더 마음에 와 닿고 일목요연하게 만인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편의 시(詩)에 담아 표현해보는 것이 더 운치 있고 격에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외람되고 부끄럽지만 자작시 <자화상>을 감히 회원님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아무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링컨 대통령, 에디슨, 포드, 헬렌 켈러 등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한 수많은 인물들을 길러낸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앞으로 귀국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주위에 필요한 분들에게 아낌없이 환원하고,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값있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려고 한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많은 영어 선생님들에게 귀중한 어학연수와 교육 과정 참여의 값지고 영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단장님 이하 폴브라이트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저의 글을 여기서 마친다. 감사합니다.

자화상(Self-portrait)

소월(素月)님이 주신 선물 책

문학소녀처럼 흐느끼며

밤새워 읽는다.

길이든 책이든 사람이든

만났다 하면 끝까지 가보고 싶지에.

지구 끝에서 임이 부르신다면

맨발로라도 찾아 못 갈까

베짱이는 아니어도

늘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밝고 행복하게 살려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기웃거리본다

콧노래 흥겨운 물방앗간 아저씨 집에도

들렀다 가야겠지.

삶의 발이랑마다 꿈, 소망, 사랑, 행복의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가꾸어보고도 싶다.

나이 육십이 다 되어서
초등학생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도서관으로……
인생 이모작 농사짓느라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
아침 이슬처럼 신선하고 아름답다

오아시스 그 꿈과 희망 하나로
칠팔월 뜨거운 사막을
개미처럼 헤집고 다닌 적이 있었지

소박맞은 여인처럼 차갑게 돌아앉은
폐광 문을 열고 들어가
남몰래 열심히 석탄을 캐낸다.
그리하여 마침내
캄캄한 탄광촌을 연등회 절간처럼
흰히 밝히는도다.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 재충전과 도전의 시간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언어학



나는 2003~2004년 미드커리어(Mid-Career) 강의·연구 교수로 스탠퍼드 대학에 다녀왔다. 대부분의 교환교수들이 그렇듯, 이 기간은 내게도 학교로부터 받은 안식년 기간이었다.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고 7년 동안 전심전력해서 진을 다 뺀 다음에 맞는 안식년은 꿈에 그리는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소홀했던 연구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안식의 시간도 갖고 싶은 열망으로 마음이 들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안식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는 미드커리어 강의·연구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하는 데에는 부담을 많이 느꼈다. 강의 부담 없이 연구에,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 회복에 더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강의를 해본다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고, 다행히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꿈에 부푼 교환교수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학위를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받았던 터에 교환교수 프로

그램도 모교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스탠퍼드로 선택하게 된 것은 그곳 언어학과에 내 전공 분야인 문법화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엘리자베스 트루곳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트루곳 교수는 부군의 질병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지만 매우 성실하고도 따뜻함, 학자적인 진지함으로 나와 지속적으로 만나주었고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임종이 임박한 부군을 불철주야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병하면서, 생명이 위급한 중에도 변함 없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해주는 것은 물론 부군을 여인 직후에도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여는 등 초인과 같은 힘을 발휘했다. 그러한 진지함과 프로페셔널리즘은 내게 많은 깨침을 주었다. 최근 은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논문 지도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바가 많았다.

강의를 함께해야 했던 나는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 센터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게 되었다. 한국어 담당 교수가 코디네이터를 맡은 선생님 한 분뿐이셔서 두 과목을 자청해서 하게 됐고, 그 외에도 학생들의 개별 지도도 함께하게 되어 시간적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강의와 관련해서 쓰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연구 시간이 줄어들어 서운했지만 그곳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덕분에 그곳 학생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 이미 사회인이 된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은 그 시간이 단순히 강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뜻인 듯싶다. 또 언어 센터에서 다른 교수들과의 인연으로 중국어도 배우고 그 덕에 전공의 성격상 범언어적으로 연구하는 내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연구년 동안 많은 동료 교수들로부터 운동을 많이 하고 오라는 조언

을 받아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도착하면서부터 고민했다. 대학원 시절 교과목으로 수강하면서 배웠던 골프나 수영, 펜싱을 할까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과 함께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배드민턴이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촌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결정은 내 평생에 가장 잘 내린 결정 중 하나였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시내의 꽃길을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며 얘기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며 배드민턴도 치고 함께 구르며 웃었던 기억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가운데 하나다. 아이들도 비록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시간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벌써 두 번째 연구년을 계획할 때가 되어가는데 지난번 연구년을 돌아보고 있다. 연구년이 끝난 후, 지난 5년여의 시간 동안 내가 진정한 프로로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다면 지난 연구년을 잘 보낸 덕이 아닌가 싶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석학들의 놀라운 프로 정신은 내가 늘 너무 엄살만 떨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해주었다. 또 내가 앞으로 내 제자들을 더 아끼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이들로부터 그런 교훈을 배운 덕일 것이다. 또 나의 가족들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들은 펠러앨토의 시내 정원을 따라 어깨동무를 하고 시내를 걸었던 우리 가족들의 오붓한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싶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연구년을 보내게 되는 모든 폴브라이트 동문들도 그렇게 학자로서의 도전과 가정인으로서의 재충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거듭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안식의 반향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민족무용



인생은 크게 느낌표, 쉼표, 마침표, 말없음표로 축약된다고 본다. 내 쉼표인 8년 만의 안식년 외출은 하와이에서 시작되었다. 22년 전 하와이 대학에서 '민족무용'이라는 생소한 무용 용어를 접하고 훌라, 필리핀 춤, 자바 춤, 발리 춤을 배우는 한편 '세계 문화와 예술'이라는 과목을 통해 세계 민족무용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매료되어 당시까지 별생각 없이 마냥 걸어온 길이 세계민족무용연구소의 모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당시 외국인 학생 입학사무소의 소장이었던 수미 매카베(Sumi McCabe) 여사와의 만남은 20여 년이 흐른 후에 찾은 하와이를 고향처럼 느끼게 해주었고, 그녀는 나에게 정신적 고향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가치는 생명의 불꽃을 지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만남이 어떤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는가는 느낌표에 의해 알

수 있는데, 삶의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느낌표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내 침표의 시작은 와이키키의 인적 드문 바닷가에서 태양과 파란 하늘만 내 가슴에 담아내고 해변의 모래의 감촉을 맨발로 느끼며 달리고 걷고 바닷물 위에 몸을 맡긴 채 지나온 삶의 찌꺼기들을 파도에 실려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침표의 시간 동안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삶의 진정한 느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와이를 떠나던 날, 매카베 여사와 저녁 산책을 하다가 수공작의 날개처럼 오색영롱하고 선명하게 하늘에 걸쳐진 무지개를 보았다. 그 순간 현실에 쫓겨 망각했던 소녀 시절의 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LA에서의 나의 생활 중심은 UCLA였다. 젊음과 학구열이 생동하는 드넓은 캠퍼스를 이곳저곳 드나들며 이름 모를 풀 향기와 이름 모를 꽃 향기에 취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 영혼의 진실을 묻고 있는 이 내밀한 요구는…….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내게 일요일은 휴일인지 평일인지 구별이 어려워졌다. 평소보다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아침 산책을 나섰다. 코끝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고 축축한 기운들이 내 몸 언저리에 감돈다. 부겐빌레아, 나팔꽃 등을 보면서 며칠째 내가 좋아하는 플루메리아(plumeria)를 찾아보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 선노 리큐는 다도 정신을 와비의 미로 표현하였다. 그들의 다다미 마(間)에 쓸쓸한 가운데 차분한 마음을 느끼도록 가냘픈 들꽃 하나만 꽃앓던 것이다. 번잡한 한국 생활에서 벗어난 나는 와비의 미감을 즐기고 있음을 알았다.

드디어 어느 집 앞에서 내가 찾던 플루메리아를 발견했다. 하와이안들이 홀라를 출 때와 손님을 환영할 때 헌정하는 화환을 만드는 꽃이다. 그 화려한 향내만으로도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꽃이다. 나는 꽃 도둑

이 되어 한 송이를 꺾어 향내를 맡았다. 그러나 아주 희미한 향기밖에 맡을 수 없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플루메리아는 하와이에서만 그 진짜 향기를 발산할 수 있음을.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숨쉴 수 있는 토양에서만 고유의 향기와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불교 설화에 나오는 연꽃의 전생담이 생각난다. 여인이 보살에게 한 송이의 연꽃도 주지 않으며 향기를 맡는 것까지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하였다. “그대여, 그것은 향기 도둑 아닌가.” 그러자 보살이 말하였다. “내 손으로 꽃을 꺾은 것도 아니요, 또 해치지도 않았다. 다만 멀리서 그 향기 맡았을 뿐 무엇을 일러 도둑이라 하는가.”

일요일 오후의 즐거움 중 하나는 웨스트모어에 있는 볼룸 댄스 스튜디오에서 영국식의 국제 볼룸 댄스를 배우는 것이다. 미국 스타일은 사교 무용식으로 움직임이 가벼운 데 비해 영국식은 상체의 움직임을 고정시킨 우아한 자세가 특징이다. 빅토리아 문(Victoria Moon) 선생은 탱고에서는 남녀의 상체가 가능하면 서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는 마치 물을 흡수한 튜립 꽃이 싱싱하게 천장을 향하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첸첸(Chen Chin) 선생의 경극 수업을 통해 태극권을 배우면서 음양의 호흡을 터득할 수 있게 된 것은 춤을 동양 사상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특히, 움직임에서 근육의 내부는 강철처럼 강하고 외부는 비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는 교훈이 깊이 각인되었다.

주디 간츠(Judy Gantz)의 ‘문화로서의 무용 교육’은 학생들이 각 나라의 무용의 특성을 중심으로 팀 교습을 하고 교수인 주디도 학생들의 강의를 함께 배우는 형태로 진행되며, 수업 후 수업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바로크 춤을 전공하는 학생을 통해 유럽 궁

중 무용의 양식이 발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고 그 재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또다른 즐거움 중 하나였다.

‘무용과 음악 디자인’ 시간은 대학원과 학부의 음악 전공자와 무용 전공자의 공동 선택 과목으로, 그들의 공동 작업 과정을 참관하면서 심도 있는 예술 창작을 위해 타 장르를 이해하려는 그들의 진지한 노력에 감동받았다. 무용과 음악의 불가분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습 과정은 양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예술 창작을 위해 당연하면서도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곳 UCLA의 내 방이 있는 분츠 홀(Bunche Hall)은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아프리카학 등의 연구소가 집결된 건물이다. 어느 날 중국학 세미나에서 고고학을 중심으로 한 동양미술사연구소의 소장으로서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팔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 박사의 <주례(周禮)>에 관한 발표는 중국 학자보다 더 심오하여 나 자신의 학문에 대한 채찍질이 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주(周)의 팔일무를 아느냐고 한 말이 계기가 되어 그의 연구소에서 학문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대화들은 안식년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학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은 내게 무척 바쁘고도 보람된 날이었다. 이날 로이스 홀(Royce Hall) 306호에서 초청교수로서 한국의 궁중 무용과 민속무용에 대한 워크숍을 행하였고 저녁에는 학생들의 발표회인 ‘파우아나(Pau-ana)’가 열린 로이스 홀 무대에 학생들과 함께 설 수 있었다. 파우아나는 하와이 말로 세계예술문화연구소 소장인 주디 미토마(Judy Mitoma)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는 학기를 끝내는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다. 아프리카 춤, 힙합, 살사, 포스트모던 무용, 현대 무용, 발리 무용, 태극권을 배운 무용 전공자 및 비전공자 학생들이 한 학기를 끝내는 축제

형식의 무용 공연이다. 비전공자 학생들이 뽑어내는 열기를 보면서 창조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고 가꾸어 꽃피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이 염원하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이리라.

안식년을 마무리하는 나의 여행은 카리브 해에 있는 유카탄 반도의 칸쿤이었다. 멕시코시티의 문화 광장이라 불리는 소칼로 광장은 유네스코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멕시코는 어느 도시를 가든 광장과 성당이 있을 정도로 광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그 옆에는 1971년 오르다스 대통령의 인권 탄압에 저항하여 광장에 모인 민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 위에서 총을 난사하여 학살한 장소로 민주화의 염원을 적은 비문이 새겨진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비문 앞에 새겨진 물음표는 학살 주동자를 은폐하는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도도한 역사의 진실을 밝힐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아스테카인들의 문명을 흔히 테오티우아칸 문명이라 하는데 여기서 테오티우아칸은 '신들이 머물렀던 장소', 즉 '제사장이 살던 주거지'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삼각형의 분묘를 뜻하지만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고대인들이 신에게 인신 공양을 했던 국가적 제장을 지시한다. 테오티우아칸은 주신전으로 케사이티코 신전과 달의 신전, 태양의 신전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신관들이 거주했던 집들은 오늘날 천장은 무너지고 주거지 형태만 남아 있다.

역사상 21세기까지 벽화 운동이 면면히 이어진 유일한 나라가 멕시코라고 한다. 소칼로 궁전 앞에 세워진 대통령궁 안에 있는 멕시코의 대

표적인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에는 스페인이 아즈텍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명성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그의 아내 프리다 칼로는 피카소가 당대 최고의 여성 화가라 칭했던 멕시코의 화가다. 척추를 다쳐 30번의 수술을 거치며 바람 같은 남편의 인생 역정을 보면서 여성의 한을 승화시킨 ‘프리다’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제작이 끝나 상영 중이다. 이 영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또한 나에게 어떤 느낌표를 줄 것인가 생각해본다.

아즈텍이 외세의 침입에 의해 멸망당한 치욕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명이라면 마야 문명은 중앙집권제가 아닌 부족 국가로서 밀림에 가려진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여 멕시코 인구의 25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역사 속에 아직 살아 있는 문명이다.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는 치첸이트사는 카리브 해의 유카탄 반도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메리타 시에서 칸쿤 쪽으로 120킬로미터 떨어진 치첸이트사는 많은 학자와 관광객들이 연구 혹은 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마야 문명의 중심이다.

쿠쿨칸(Kukulcan) 피라미드는 가장 웅장하고 인상적인 마야 건물의 하나로, 그곳은 치첸이트사를 지배했던 오래된 이 신전을 상징하는 착물(Chac-Mool, 인신 공양 문양)이 있고 그 위의 사원에는 옥이 박힌 왕관을 쓴 붉은 표범이 그려져 있다. 이 고대 건축물 역시 태양신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그 구조 자체가 마야의 태양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방 각각의 91개 계단은 한 해의 일수를 나타낸다. 즉, 동서남북 네 개의 계단은 364일을 뜻한다. 그리고 가장 정상에서 네 개의 계단이 만나는 하나의 플랫폼은 365개의 층을 형성한다.

안식년 기간을 한 달 남기고 한미교육위원단 측으로부터 캐나다 인접 국경에 있는 히빙의 마사비 대학의 워크숍 제의를 받았다. 교통편이 불편

하고 오지라며 주위에서 만류하여 망설였지만 폴브라이트 미팅에서의 인사를 되새겨보았다. “이곳에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리라.” 그리고 히빙을 향해 첫발을 내디렸고, 그 첫발이 나의 희망이 되었다.

미니애폴리스 공항에 도착해서 히빙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는 동안 사람들의 눈빛에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LA에서는 동양인, 히스패닉, 흑인 등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기에 내가 미국에 와 있다는 생경함이 없었는데 이곳은 거의 백인들이고 동양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멕시코와 칸쿤에서 정글의 침묵에 동참했다면, 이곳은 모든 사물의 숲의 침묵에 동참하여 용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도 없이 눈에 덮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숲의 침묵 가운데 하얀 눈에 덮인 숲만 보일 뿐 나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이곳은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 주인이었다.

넓은 자연 속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집 하나, 이곳에는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 이곳에 정착했을 때, 그 무렵은 다길 레프가 발레뤼스를 이끌고 러시아의 긴 겨울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색의 보따리를 풀어 파리를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 무렵이었다.

히빙 공항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달리면 타워라는 마을이 있다. 직선거리상으로 캐나다와 국경이 20마일 정도이지만 직선 코스가 없어 도로로 100마일 정도 걸린다. 내가 잠시 머물 레베카의 집은 새, 고양이, 개, 말 등이 있고 그녀의 남편 짐은 사슴 사냥을 하며 인디언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레베카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서는데 순간 나는 침대 머리맡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개구리 그림을 보고 깜



히빙의 인디언 박물관 앞에서

짜 놀랐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인데 어떻게 오지브와족 인디언의 방에 물소 뿔과 나란히 걸려 있는 걸까? 인디언의 원류는 아시아에서 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연꽃의 의미와 개구리의 의미를 알고 그린 것일까? 하며 단순한 생각들을 유추해보았다. 이들의 민속춤인 물고기 춤은 물고기 흉내를 내는데, 남자만이 할 수 있다. 중국 윈난에서도 제의식에는 남자들이 숲 속에 들어가 나체로 춤을 춘다고 하였는데, 중요한 민속 의식에는 남자만 무용수가 되어 춤을 추는 경우를 각각의 민속 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작물의 성장을 돕기 위해 추는 풀잎 춤은 농작에 해가 되는 악령을 쫓아내는 춤이다. 고대 중국에서 건너온 우리나라의 지서무도 풀잎 춤과 같은 목적으로 추는 춤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3일 밤과 4일 낮을 보내면서 그들의 춤의 생활을 보고 느낀 것은 춤은 곧 정신과 몸을 치유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춤꾼을 메디슨 피플이라고 부르는데 그

것은 샤먼을 뜻한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춤꾼들은 인디언 특유의 야생 식물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무속인이며 예술가들이었다.

눈이 지상의 모든 것을 덮으며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인디언 부부는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을 안내해주었다. 이들은 숲 속에서 가장 큰 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라 이름 붙이고 그 나무 아래에서 좋은 일을 바라고 나쁜 일은 사라지기를 기도한다고 하였다. 나도 마음 깊이 나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 삶의 모습을 관조하는 자세로 나무를 바라보며 경건한 기도를 드렸다. 나의 모든 세속적인 몸과 마음은 이곳의 하얀 눈 속에 묻고 가기를 바랐다. 그러자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선 이미 평안함이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그들과 내가 믿는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의 쉼표는 카리브 해였다. 카리브 해는 난류가 흐르는 까닭에 물이 따뜻하여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영화 <깊은 밤 깊은 곳에>에 나오는, 카리브 해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여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 부를 갖기 위해 젊은 변호사를 이용한 주인공은 사랑의 대가로 자유와 명예를 뺏기고 감옥에 들어간 변호사 덕분에 거대한 재산을 챙겨 카리브 해에서 일광욕을 즐기지만 카리브의 아름답고 신비한 색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황량하기만 하다.

카리브 해에서 쉼표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과 사물, 추억과 자연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선명하게 걸쳐진 무지개를 보았다. 안식년이 끝난 2004년, 이때 본 무지개는 앞으로 나의 삶에 재충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나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느낌표로 설레기 시작했다.

메아리치는 문화

김영미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영문학



죽음과 새로운 삶이 찾아왔던 2004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해이다. 학위를 마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 7년 후, 풀브라이트의 중견 교수를 위한 연구 장학금으로 버클리 대학에 갈 수 있는 '희망 티켓'을 부여잡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해 여름 아버지를 먼저 하늘로 보내드리고 슬픔으로 얼룩진 마음을 달래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슬픔의 절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순간, 이 시간을 더욱 값지게 보내야겠다는 의무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풀브라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과 버클리에서의 생활은 마치 새로운 삶과 같았다. 학위 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롭고 값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본교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풀브라이트 학자들과의 만남

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성애 문화, 히피 문화, 대항 문화 등 다양한 하위문화의 메카로 불리는 버클리에서 경험했던 살아 있는 이야기들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오해와 갈등을 줄이면서 ‘문화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례가 되어 메아리치고 있다.

내가 받은 혜택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60년 전 폴브라이트 학자들이 전해주는 지식의 메아리를 생각하면 그 깊이와 넓이는 정말 기늠하기 힘들 것 같아 기쁘고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워싱턴 D.C.의 폴브라이터 추억 회상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 경제학



“Where do I begin?” 앤디 윌리엄스(Andy Williams)의 노래 <러브 스토리>의 첫 구절처럼 나의 미국 폴브라이터 시절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내게 폴브라이트 프로그램과의 인연은 20년을 두고 두 차례 나를 찾아왔다. 한 번은 쓰라린 인연으로, 또 한 번은 행복한 인연으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과의 첫 인연은 1983년 가을에 맺어졌으나, 아쉽게도 그만 악연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나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한미교육위원단의 폴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는데, 학업 성적과 영어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 면접도 만족스럽게 치른 상태라 은근히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며칠 후 ‘I regret…….’으로 시작하는 짧은 편지만 덩그러니 날아왔을 뿐이었다. 이듬해 여름, 자비로 미국 유학

을 떠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귀국 후 충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나의 몫이 아니라 는 생각에 그동안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꼭 20년이 흐른 지난 2003년 가을, 드디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의 두 번째 인연이 찾아왔다. 당시 나는 충남대에서 미국학 연구를 수행하는 북미주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연초에 주한 미국 대사관 공보실(예전의 미국문화원)에서 전국 미국학연구소장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미교육위원단을 방문하여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설명 듣는 계기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당시 단장이셨던 언더우드(Underwood) 4세(원광한) 박사님과 당시 부단장이셨던 심재옥 현 단장님을 만나뵙고 교수 및 전문가 대상 연구 지원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도 과연 선발될까 하는 의구심이 컸지만, 20년 전의 쓰라린 경험을 딛고 이번 기회에는 꼭 도전에 성공해야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샘솟기 시작했다. 연구 테마를 '미국 전자 상거래 과세 제도 연구'로 잡고 심혈을 기울여 proposal을 작성해 제출한 끝에 2003년 겨울 드디어 Fulbright Senior Research Program에 선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이 어우러진 역전극의 묘한 쾌감을 맛본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조지타운 대학 법학 교수 로널드 A. 펄먼(Ronald A. Pearlman) 박사와 전자 상거래 과세 분야의 공동 연구를 하기로 계획하고, 2004년 8월 27일 늦여름, 설레는 마음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동안 몇 차례 미국을 단기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1년 가까이 장기 체류하기는

미국 유학 후 10년 만에 처음 맞는 일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미국 가서 나는 폴브라이터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으로 자부하면서, 폴브라이트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워싱턴 D.C.에서 1년 가까이 폴브라이터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이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폴브라이터의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어느 때 같으면 동양 어느 시골구석에서 온 웬 작은 사내인가 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사람들조차 내가 폴브라이터라고 하자 반색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경탄과 부러움이 교차하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나는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자랑스러운 폴브라이터로서 어디서나 정중한 환대를 받게 되어 스스로 그 위상에 놀라면서 우쭐해지기까지 하였다. 미국에서도 폴브라이터는 경쟁이 치열하여 최고 수준의 극소수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참으로 영예스러운 칭호였던 것이다.

유서 깊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머물면서 펄먼 교수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연구 테마에 관해 상의하였으며,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 열리는 Faculty Seminar에도 꼬박꼬박 참석하였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와 정보 통신 관련 대학원 강의도 두 과목을 이수하는 등 학구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편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폴브라이터로서 적지 않은 경험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일 몇 가지를 일기 형식을 빌려 간추려보기로 한다.

- 2004년 11월 25일, Thanksgiving Day Party: 폴브라이트 위원단 주선으로 추수감사절에 메릴랜드에 사는 조디와 제임스 레이체스(Jody

& James Reitzes) 부부가 우리 식구를 집으로 초대하였다. 다양한 추수 감사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특히 조디가 직접 조리한 칠면조 구이에 크랜베리 소스를 얹어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명절을 맞아 멀리 사는 레이체스 부부의 할아버지와 친척들도 참석하여 저녁 늦게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서 4년을 보냈지만 추수감사절에 미국 가정에 초대받아 미국 문화를 접하기는 처음이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예쁜 자개 보석함을 선물했는데, 레이체스 부부가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보니 나도 덩달아 흐뭇했다.

- 2004년 12월 5일, Annual Fulbright Holiday Party: 폴브라이트 위원단이 주최한 송년 행사에 초대받아 가족과 함께 참석하였다. 워싱턴 시 서북부에 위치한 유럽풍의 멋진 건축 양식에 작은 정원까지 갖춘 운치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House에서 오후 5시부터 송년 파티가 시작되었는데, 맛있고 특색 있는 메뉴와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2004년 12월 15일, 2004 J. William Fulbright Prize Award Ceremony: 오후 3시 30분부터 미 국무부 내의 디플로매틱 리셉션 룸(Diplomatic Reception Room)에서 개최된 2004년도 폴브라이트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국무부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위치한 외교접견실은 중세풍의 아름다운 실내 장식과 그림, 고가구, 그리고 외교 사절들이 선물한 각종 진귀한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어 개인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그곳에 공식 초청받은 것이 무척이나 영광스러웠다. 더구나 그날 수상자는 콜린 L. 파월 전 국무부 장관이어서 그 자리의 감동이 더했다. 파월 전 국무부 장관은 세계 정치판을 쥐고 흔들 정도의 강한 카리스마를 가졌으면서도 직접 대하고 보니 온건하면서도 인품이 고매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 2005년 5월 17일, **Fulbright Dinner Party**: 폴브라이트 위원단이 주최한 폴브라이트 디너파티가 워싱턴 시내 중심가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Andrew Mellon Auditorium)에서 저녁 7시부터 개최되었다. 이 파티에는 참석자 모두가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는 'Black-Tie Meeting'이라 평상복으로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백화점에서 팔자에 없는 턱시도를 구입하여 보타이를 매고 파티에 참석했다.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나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West Bank)에서 온 여성과 테이블을 함께하고 중동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구입한 턱시도는 지금까지 중요 행사 때 가끔씩 잘 활용하고 있다.

- 2005년 6월 4일, **Chesapeake Bay Cruise-'Sailing'**: 오전 7시 30분 CIES에 모여 버스로 항구 도시 아나폴리스로 가서 전·현직 폴브라이트러들을 만나 함께 범선도 타고, 배 위에서 굴타기도 하고 해변 식당에서 시푸드(seafood) 점심을 먹으며 6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게(blue crab)가 막 허물을 벗고 부드러운 새 껍질로 탈바꿈하는 과정의 soft shell crab은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었다. 부드러운 맛도 일품이었다.

- 2005년 6월 9일, **Fulbright Association Annual Banquet**: 오전에는 CIES에서 2004년도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1년을 결산하는 워킹 런치(Working Lunch)에 참석하고, 저녁 6시부터는 포토맥 강변(워터프런트)의 '피어(Pier) 7 레스토랑'에서 개최된 제18차 Fulbright Association Annual Banquet에 참석하였다. 미국인과 외국인 폴브라이트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대게 등 멋진 시푸드로 식사하면서 사람들

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에서 추억한 폴브라이트 위원단 주최 행사 이외에도 내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체류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행사 등을 접할 수 있는 행운도 함께 누렸다. 이 중 몇 가지 기억나는 일로는 CSIS 주최 홍석현 주미 대사 초청 특강,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SAIS 주최 윤영관 전 외무장관 초청 특강, 조지타운 대학 주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 특강, 조지타운대 학생회 주최 한국 위안부 할머니 초청 강연,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 및 주미 한국 대사관 세미나(The ROK-US Alliance: Past, Present and Future),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 KES 세미나 발표 및 토론, KEI 가입 및 IMF-세계은행 송년 모임 참석, 코리아 클럽 미팅(Korea Club Meeting) 참석 등 정치·경제 관련 행사들이 떠오른다.

문화 예술 관련 행사로는 연말에 케네디 센터에서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관람한 일이 기억나는데 엘토 역을 맡았던 브라이언 아사와(Brian Asawa)라는 일본계 카운터 테너(counter tenor)의 중성적인 묘한 음색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주미 한국 대사관 부설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코리안 컬처 페스티벌(Korean Culture Festival) 행사도 멋진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5월 어느 날 듀폰 서클(Dupon Circle) 부근에 있는 한 화랑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딜리아니 작품 전시회를 관람했던 때의 가슴 벅찬 기쁨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모딜리아니의 거의 모든 작품이 망라된, 참으로 귀한 기회였다.

이 밖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포토맥 강변에서 국립교향악단의 야외 연주를 들으며 불꽃놀이를 감상했던 기억이며, 타이들 베이슨 호수 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족과 함께

위의 아름다운 벚꽃 축제, 크리스마스 시즌 백악관 앞 잔디밭에서 각 주(州)에서 보내온 현란한 크리스마스트리를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던 추억, 볼티모어까지 가서 디즈니 뮤지컬 <라이온 킹(Lion King)>을 관람했던 때의 감동 등이 주마등의 그림처럼 눈앞에 어른거리며 지금도 내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머문 조지타

운 대학 로 센터(Law Center)가 워싱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 뒤에 이리저리 시내 주변을 산책할 기회가 많아 정말 좋았다. 내셔널 몰(National Mall)을 따라 늘어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군(群)을 모두 섭렵하였으며, 국립미술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 등을 두루 둘러보았고, 그 밖에 백악관과 워싱턴 모뉴먼트, 포드 시어터(Ford Theater, 링컨 암살 극장), 건축박물관, 우정박물관, 차이나타운, 국립동물원 등 주변 명소도 자주 찾았다.

이처럼 지난 2004~2005년 워싱턴 D.C.에서 보낸 나의 폴브라이트 생활은 한편으로는 학문적 영역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의 참모습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매우 보람되고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아마 다른 한국 폴브라이트 동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올해로 한국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어언 창설 60주년을 맞게 되었

다.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자랑스러운 폴브라이터로서 나에게 귀중한 미국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준 한미교육위원단과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앞으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학 또는 후배 학자님들께 보다 보람된 폴브라이터 생활을 위해 한 가지 진심 어린 조언 또는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일반 장학금과 같은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만 여기고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일체 외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기피하는 은둔(cocoon) 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정신을 살려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폴브라이트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미국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위상과 입장을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한미 우호 증진에 중요한 민간 가교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주 십사 하는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한국에서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이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심재옥 단장님의 수십 년 걸친 피나는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심 단장님은 사리사욕을 떠나 오로지 폴브라이트의 미션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그야말로 한국 폴브라이트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겠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엄하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오셨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급적 많이 미국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심재옥 단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국의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조만간 세계의 best practice가 되도록 더 큰 업적을 이루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풀브라이트 수혜자로서의 소중한 경험

이제정

사법연수원 교수 | 법학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Fulbright Senior Research Program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년간 듀크 대학에서 파산법을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열린 풀브라이트 수혜자 모임에 참석한 일이었습니다. 위 모임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재 미국 풀브라이트 수혜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풀브라이트 수혜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이 수혜자로 선정된 대학생과 교수들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한 수혜자가 구유고 내전 중 크로아티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쟁 통이어서 금융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떨어져 미국 풀브라이트 담당자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집배원이 현금 다발이 가득 든 가방을 수업 도중 들고 들어오더라는 이야기를 하여

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도 풀브라이트 수혜자로 선정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기억에 남는 일은 CIES가 주관하여 2007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개최한 2007 Fulbright Scholar Conference에 참가한 일입니다. 위 콘퍼런스에는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온 100여 명의 풀브라이트 스칼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위 콘퍼런스 기간 중 그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풀브라이트 수혜자 자격으로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연구 중이시던 강남대 차용진 교수님과 콜로라도 대학에서 연구 중이시던 충남대 오근엽 교수님을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위 콘퍼런스의 주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였는데, 미국의 사법 제도, 환경법, 종족법(tribal law) 등에 관하여 덴버 대학과 콜로라도 대학 법대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고, 덴버 소재 주 검찰청, 연방지방법원 등지를 방문하여 그곳 검사와 연방판사들로부터 미국 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유익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홈 호스피탈리티(home hospitality)라고 하여 덴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집에 3~4명씩 나뉘어 미국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 하였습니다. 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교수님들과 함께 와인쿱(Wynkoop)이라는 성을 가진 부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인쿱 부부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나 생활하자, 남편 스티브는 신문 기자직을 은퇴한 후 대학에 다시 다니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부인 마고트(Margot)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고트는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손수 승용차를 운전해와서 우리를 태우고 시내 곳곳을 구경시켜주었고, 그 후 집에 도착해서는 뒤뜰에서 스테이크와 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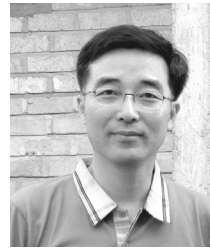
폴브라이트 콘퍼런스맨 왼쪽이 필자)

언어를 직접 굽는 등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전직 상원의원을 초대하여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폴브라이트 수혜자로서의 경험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당연한 덕목이지만, 폴브라이트로 1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와 같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버드 졸업식의 빌 게이츠

이호영
서울대학교 교수 | 언어학



필자는 한미교육위원단의 Lecturing/Research 지원 교수로 선정되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UCLA의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에서 한국어의 구조와 한국어 세미나 과목을 강의하면서 연구년을 보냈다. 이미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UCLA에서 연구년을 한 차례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을 연구년을 보낼 뻔했다. 그러나 연구년 기간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2007년 6월 초 당시 보스턴에 살고 있던 처남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오라고 우리 가족을 초청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처남댁이 회사의 지원으로 하버드 법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딸아이가 생후 11개월밖에 되지 않아 LA에서 보스턴까지 여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필자는 보스턴 여행을 주저했다. 그러나 동생

도 만나고 올케 졸업도 축하해주고 싶다는 집사람의 뜻에 따라 보스턴으로 떠났다. 보스턴으로 가는 여행은 쉽지 않았다.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타 저녁 시간이 되니 딸아이가 잠투정을 부리며 울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딸아이의 울음은 처남 집에 도착해서도 그치지 않고 12시 너머까지 이어졌다.

6월 7일 오전에 열린 하버드 법대 졸업식은 그다지 큰 감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에 있을 빌 게이츠의 졸업식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빌 게이츠의 연설은 미리 입장료를 내고 예약해야 들을 수 있었는데, 예약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고 한다. 빌 게이츠의 연설은 꽤 넓은 숲의 한쪽 끝에 마련해놓은 단상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단상에서 멀리 떨어진 청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정면에 나무가 있어 몸을 옆으로 많이 기울여야 빌 게이츠의 얼굴을 작게나마 볼 수 있었다.

필자는 빌 게이츠가 장래에 펼쳐질 기술 진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예상과는 달리 수백만의 아이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 졸업생들이 인류의 비극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자고 역설했다. 나는 빌 게이츠의 연설을 들으면서 정신이 멍해졌다.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기아, 질병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당장 오늘부터 인류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자니 필자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하버드 졸업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의 연설을 직접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필자에게 생겨났다.

필자는 학부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외국의 소수 민족에게 보급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의 은사인 이현복 선생님께서 타이의 라후족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해외 한글 보급을 준비했다.

필자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알타이 언어 조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오로촌어를 조사하고, 오로촌어 한글 서사 체계를 만들었다. 이 작업 내용은 2004년 한글날을 맞이해 방영된 KBS 스페셜 〈한국어의 여정〉에 공개되었다. 필자는 오로촌족을 대상으로 한글을 보급하려고 한때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곧 그 마음을 접었다. 오로촌어가 60대 이상의 노년층만 사용하는 소멸 직전의 언어라서 한글을 보급해도 언어가 소멸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게 뻔했고,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글 보급도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로촌족에 대한 한글 보급을 포기하고 나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국가로 시선을 돌렸다.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고, 문자 없는 민족이 많이 있고, 중앙정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한글 보급에 더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구상을 들은 외국어대 전태현 교수가 인도네시아 동부의 술라웨시 지역을 대상지로 정해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제안했다. 2006년에는 전태현 교수가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주 주도인 마카사르에서 자동차로 여섯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불로블로족 거주 지역에 답사를 다녀왔다. 2007년에 필자가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동안 인도네시아 한글 보급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필자가 미국에 있던 2007년 10월, 훈민정음학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귀국한 후 2008년 4월부터 훈민정음학회의 한글 보급 사업

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5월 9일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필자는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 구상을 공개했고, 이 자리에서 한글 보급 대상 1순위로 동남 술라웨시 주의 바우바우 시, 2순위로 남부 술라웨시 주의 토라자 지역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듯이 바우바우 시에 살고 있는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하여 현지 초등학교 한 곳에서 한글을 이용한 짜아찌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짜아찌아족의 한글 채택 소식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언론에 너무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이 소식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척 당황했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한 국회의원이 외국 문자 도입을 금지하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뒤에 들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짜아찌아족의 한글 채택이 국가 통합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류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짜아찌아족의 한글 교육과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글이 로마자를 제치고 외국 소수 민족의 문자로 채택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분명히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한글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 필자는 또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빌 게이츠가 필자에게 영감을 준 인류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필자가 절대 빈곤,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찾은 것 같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절대 빈곤, 기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빈곤,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의 고통, 전쟁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경험한 나라이며, 이 고통을 딛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이다. 또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을 식민 지배를 하며 수탈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맨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나라이다. 필자는 지구 상에서 절대 빈곤과 기아,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지구촌의 절대 빈곤과 기아, 질병 퇴치 사업에 나서려고 한다. 아마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풀브라이트 60주년을 축하하며

김선웅
광운대학교 교수 | 언어학

지난 2008년 5월 Fulbright Senior Research Award 장학생으로 선발된 필자는 최종 선정을 위한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하고자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추천해준 연세대 국제 클리닉을 찾았다. 거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유명 인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잘 알려진 인용한 박사(미국 이름 Dr. John Linton)이다. 인 박사는 잘 알려진 대로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며 동시에 미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4대째 봉사를 이어가는 선교 집안이자 의료 집안의 자손이다. 검사 과정 중 문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특유의 기운 찬 우리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내 서류를 보고는 “아, 풀브라이트시군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풀브라이트 이것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분들 이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나는 풀브라이터가 되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인 박사님의 말씀을 실감한 것은 그해 8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의 체류를 시작하고 나서였다.

2008년 8월, 나는 근무하는 대학의 연구년 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친

분이 있고, 내가 계획했던 연구제안서의 중요한 조언자인 하워드 라스닉(Howard Lasnik) 교수의 초청을 받아 메릴랜드 대학 언어학과에 도착하였다. 라스닉 교수는 나의 연구 계획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폴브라이트 방문 학자가 되어 본인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고무되어 있다면서 폴브라이트 장학생의 공식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명예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의 연구자들에게 폴브라이트라는 이름이 갖는 브랜드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연구년 1년 가까이를 메릴랜드대에서 지내며 나는 다시 한 번 폴브라이트의 명예를 실감할 기회가 있었다. 2008년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메릴랜드대의 국제교류처(UMD, International Programs)에서 연락이 오더니 폴브라이트 학자의 방문을 환영하며 나의 방문을 기사화하고 싶다면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 폴브라이트 방문 학자라는 신분이 참으로 명예로운 것이라고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당시 메릴랜드대는 두 명의 폴브라이트 학자가 방문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독일에서 온 교수이고, 나머지 하나가 한국에서 온 필자였다. 영광스럽게도 나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메릴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학 매거진의 2009년 봄호에 나에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명으로부터 인사를 받는 영광이 있었다.

사실 폴브라이트 방문 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폴브라이트 장학생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자로서 분에 넘치는 환대와 대접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미국 도착 후 얼마 안 되어 IIE 산하 CIES 초청으로 마련된 성대한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연말연시 각종 파티에의 초대도 포함하여 다양한 Enrichment Program에 초청하면서 다양한 미국 내외 폴브라이트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분들이 얼마나 폴브라이트 동창으로서의 경험과 자격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등 각국으로 파견된 미국인 폴브라이트 동문들을 함께 만나면서 비록 연구 주제는 서로 달랐지만, 경험과 명예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오래전에 폴브라이터가 되어 핀란드를 연구 방문하였다는 미국인 노학자 부부가 함께 참석한 필자 부부에게 자신들에게 폴브라이터로서의 명예와 긍지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알려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폴브라이트 동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이 자 나의 소중한 재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또한 나는 국내에서도 아주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주변 동료들이 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본인들도 폴브라이트 장학생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내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는 내가 신청 과정에서 준비했던 자료와 경험들을 모두 그분들에게 나누어드렸고, 도움을 드렸던 두 분이 모두 2009년 폴브라이트 장학생에 선발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메릴랜드 대학 도서관의 조그만 캐럴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중에 동시에 두 분으로부터 선정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두 분 모두 평소 내가 아끼고 존경하는 학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야말로 폴브라이트 장학금의 취지가 진정으로 빛날 보배들이며, 그 영예가 가장 어울리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두 분 모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 일보다 기쁘다. 그분들은 지금 모두 미국의 초청 대학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지만, 그분들과 폴브라이트의 명예를 공유할 수 있는 동문이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한 가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안타까운 일을 소개하고 싶다. 2008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인터뷰를 위해 한미교육위원단 사무실을 찾았을 때 뜻밖에도 서강대 영문학과 의 장영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 나는 학부 시절 그분의 부친이신 장왕록 선생님께서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졸업 후 업무적으로도 그분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장영희 교수님과의 만남이 유난히 반갑고 뜻 깊었다. 본인도 폴브라이트 동문이 되어 나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미국에 가게 되면 언제 한번 만나자는 약속도 했었다. 그 후 나는 예정대로 출국하였고 그분이 언제쯤 오시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언론 보도를 통하여 그분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후 안타깝게도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폴브라이트 학자로 선정된 후 출국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나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준비했는데, 그분이 예정대로 미국에 오셔서 연구에 착수하셨다면 나오는 차원이 다른 빛나는 연구 성과를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

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안타깝다. 그분의 병이 재발하여 다시 투병을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너무 좋은 펀드도 받게 되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고 하신 기사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에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 모쪼록 좋은 곳에 계시면서 후학들의 발전을 지켜보시는 미더운 선배로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차제에 나는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뜻과 의지를 기려 폴브라이트의 명예 동문으로 모실 것을 감히 제안드리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

2009년 6월, 나는 예정했던 기간 동안의 체류를 마치고 소기의 연구 성과를 얻어 귀국했다. 예정했던 연구 성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귀국 후 나는 당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체류하며 발굴한 새로운 많은 연구 과제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연구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특히 1년간 머물렀던 메릴랜드대 언어학과에서 경험한 수준 높은 인지과학 연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있는 연구 과제가 되어 나를 쉽 없이 자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학자의 길을 선택한 내게 폴브라이트가 내린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나는 이제 이 영광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긍지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폴브라이트 위원단의 무궁한 발전과 선후배 동문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시스템과 문화는 나라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축

최현섭
전 강원대학교 총장 | 교육학



뒤늦은 나이에 영광스럽게도 수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되어 1년 동안 UC 버클리에서 보냈다. 현지에서 가서 미국의 민주 시민 교육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목적이었지만, 어린애 같은 호기심으로 곳곳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8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Adult School에서 영어를 공부하였고 추가로 Distance Learning Program에도 참석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일대일 대면 교육을 받은 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다. 멀리멀리 사라져버린 단어를 되살리고 굳어버린 혀를 굴리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고3 때 대학 입학 시험 공부한 이후로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월·수·금 오후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책을 읽으면서 보냈다. 나머지 시간은 학생회관, 식당, 교정, 부근 동네를 걸어다니며 관찰을 하였다. 좀 무섭기도 했지만 걷거나 버스를 타고 다

니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직접 느껴보려 하였다. 다른 폴브라이터들과 함께 미국 문화와 제도를 접할 기회도 가졌다. 미국에 가면 골프를 싣고 치고 오라는 충고는 따르지 못했다. 연수는 하지 않고 골프만 치다 간다고 주변 사람들과 유학생들로부터 핀잔을 들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귀국해서 지인들로부터 전지훈련 솜씨가 그뿐이냐고 핀잔을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는다.

돌이켜보니 1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농담으로 한 3년은 먹고살 것을 가져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처럼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폴브라이트 위원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사람과 장애인 우선의 교통 체계와 운전 문화, 대학교 총장들이 앞장서 대학생들에게 시민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 종교와 인종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하는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이 있다는 것 등등 이야기거리를 많이 가져왔다. 누가 무어라 하든 말든, 제 말은바 책임을 다하고 주어진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미국 중산층의 일상생활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시스템과 문화는 나라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인종과 종교와 가치가 공존하고 경쟁도 심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그만큼 질서가 유지되기도 어렵고 갈등과 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평온하며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자유와 공동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과 문화였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법규와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정직의 문화가 그중 하나이다. 법적 지배에 대한 강력한 신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혐오하는 문화는 미국의 품격을 높여놓았다. 교통 법규를 어기면 보통 400달러 정도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걸리면 거의 예외가 없다. 탈세 감시 장치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고 처벌도 공포를 자아낼 정도로 강력하다. 그만큼 교통 문화도 납세 문화도 잘 자리 잡고 있다. 편법과 뒷거래 문화도 발붙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참 부럽고 경이로웠다.

텍사스미국 연수 체험기

김진숙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사 | 미국학

2007년 8월 17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 배치 회의에서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들어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수준의 집중적인 강좌로 짧은 시간에 영어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성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수와는 차별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본교에 배치된 새 ETA를 만난 기쁨과 더불어 나의 가슴속 한편에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경험해보고 싶은 강한 마음이 솟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연수는 중등 영어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초등 교사에게도 연수자 선발 시험에 응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한미교육위원단에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2008 텍사스 연수 프로그램부터는 참가 대상을 초·중·고로 확대되었다.

연수에 필요한 여러 절차와 준비를 마친 후, 부푼 가슴을 안고 2009년 1월 4일 드디어 오스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오랜 시간의 여정 끝에 오스틴버그스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숙소인 홈스테드 스튜디오 스위트(Homestead Studio Suite)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

쳐진 광활한 풍경을 보며 텍사스에 왔음을 실감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험에 가슴이 설레었다. 연수단을 마중 나온 우디(Woody)와 찰스(Charles)의 도움으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단에 TIEC(Texas International Education Consortium)까지 가는 교통편을 안내하기 위해 찰스와 우디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추웠지만 오스틴에는 연중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비를 무척 반긴다는 찰스의 말을 들으며 날씨가 우리 연수단을 환영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개강식에서 연수단을 환한 미소로 기쁘게 맞이해준 TEIC 강사들과 스태프들은 모두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TIEC 프로그램의 강좌와 활동들이 모두 새롭고 재미있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에서 American Culture, English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merican Public Education, 그리고 Public Speech를 공부했다. American Culture는 캐린(Karen)과 함께 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지인 인터뷰 과제를 하면서 미국인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베네(Bennë)와 함께한 English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Class는 다양한 영어 교수 아이디어와 더불어 많은 교수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한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교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미(Mimi)로부터 미국의 교육 제도 및 텍사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배웠는데, 실제적인 자료와 활동을 통해 미국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Public Speech는 사람들 앞에서 특정 주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10분 동안 말하기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영어로 10분간 스피치를 한다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말하기 훈련 덕분에 2월의 Site Visit 기간 동안 성인과 학생 대상 한국 문화 소개도 무난히 해낼 수 있었다고 본다. 각각의 강좌에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상당한 분량과 난이도의 과제가 부여되었는데, 과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날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제 수행은 필수였다. 비행기 시차 때문에 바뀐 수면 습관은 저녁에 자고 새벽 2~3시에 일어나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의 한 달 내내 지속되었던 것 같다. 종종 피곤했고 몸은 지쳤지만 학습 내용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TIEC에서의 연수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오스틴에 거주하는 유명 인사들로 이루어진 Guest Speech는 효과적인 스피치의 모범적인 실례를 보여주었다. 미식축구 선수였던 마이클 샌더스(Michael Sanders)의 풋볼 시연과 잠깐 동안의 실습, 베스트셀링(Best-selling) 어린이 동화 작가 트레버 로메인(Trevor Romain)의 가슴을 움직였던 이야기, 스피치 전문가 토냐 오닐(Tonja O'Neill)의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 등 게스트 스피커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스피치를 하였다는 점이다. 게스트 스피커와 더불어 Public Speech의 실제적 경험을 위해 존(John)과 함께 방문한 'Lone Star Leaders Toast Master' 클럽 모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스피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오스틴에서 역사 및 문화 체험은 연수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

나이다. 블랜턴 미술박물관, 텍사스 대학 박물관, LBJ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텍사스 주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멕시코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간 텍사스인들의 독립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앨리모 성채에서는 자부심 강한 텍사스인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1979년 토착인들에게 스페인 방식과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스페인 신부에 의해 세워진 Mission San Jose에서 텍사스 역사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 1941년 문을 연 이래 24시간 오픈한다는 미티에라(Mi Tierra)에서 멕시코 음식 파히타를 음미하고, 샌안토니오에서는 반드시 걸어보아야 한다는 아름다운 길 리버워크(Riverwalk)를 걸으며 느꼈던 낭만은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 있다. 1월 19일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의 날에 다양한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텍사스 주 의회 건물 앞에 모여 그의 인권 존중 정신을 기억하고 축하 행진을 하던 모습에서 다양성을 발전적인 통일성으로 승화시키는 미국인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자유와 개성의 도시 오스틴 시내의 거리 탐험은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 중 하나이다. 특히, 텍사스 주 의회 건물이 위치해 있어 이름이 붙은 길, 사우스 콩그리스(South Congress)를 따라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음식점과, 각종 매장, 호텔들이 위치하고 있다. 전 대통령 클린턴이 텍사스를 방문할 때마다 꼭 들른다는 게로스(Gueros)에서 맛있는 정통 멕시코 음식을 시식해볼 수 있다. 저개발 국가 장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텐 사우전드 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는 누구나 자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일일 봉사 활동을 하며 봉사 활동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대별 각종 의상과 장

신구를 입어볼 수 있는 Lucy in Disguise with Diamond와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잡다한 물건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집하여 팔고 있는 Uncommon Objects는 오스틴 시의 슬로건 'Keep Austin Weird'를 떠올리게 했다. 멕시코 예술 작품을 팔고 있는 Mi Casa에서 처음 접한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상징적 인물 프리다 칼로의 애처로운 삶과 그녀의 삶이 반영된 독창적 작품들은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흔히 접하지 못했던 멕시코인의 예술 세계를 배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TIEC에서의 4주간 연수 후, 39명의 교사 연수단은 텍사스 각 지역으로 흩어져 초·중·고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교육의 이모저모에 대해 직접 체험했다. 다른 한 분의 초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나는 텍사스 남동부 지역 코퍼스크리스티 시에 위치한 루서 존스 초등학교(Luther Jones Elementary School)로 가게 되었다. 코디네이터인 텍사스 A&M 대학의 프랭크(Frank) 박사와 호스트 가족 미시즈 파리나(Mrs. Parina)가 공항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서 존스 초등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 사고자로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 우수 학교로 텍사스 전역에서 수시로 교육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학교였다. 학교장인 미시즈 게일린 호프스타트(Mrs. Galen Hoffstadt)를 비롯하여 교직원들 모두 교육 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다.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들이 학교 건물에 들어올 때는 등록을 하고 이름표를 달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학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참 많았다. 아침 등교 시간에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입구에서 교통안전 지도와 더

불어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방송 조회를 진행하고, 버스 대피 훈련과 같은 훈련 활동을 지휘할 뿐 아니라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상담에 이르기까지 무전기를 가지고 수시로 학교 곳곳을 다니며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곧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학교장의 책임과 역할이 과중하다 보니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학교장들이 많다고 교장 연수를 진행하는 텍사스 A&M 대학의 한 교수님은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교육 활동의 많은 부분을 처리해줌으로써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 지도에 전념하는 일이 가능해 보였다.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학부모들의 협조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20분 동안 학생들의 읽기를 지도해주었는데,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활동에 신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있었다.

Site Residency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한국 문화 소개였다. 루서 존스 초등학교와 텍사스 A&M 대학 부설 초등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와 한복 입어보기 실습을 하였다. 한국의 명성과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1~2명의 학생들 외에 대다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국에 대해 가능한 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에 Co-teacher와 협의한 프레젠테이션 일정과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학급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 학교 학생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었다. 지구 반대편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 모습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며 신기해하던 모습, 종이에 한

글로 쓰인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기뻐하던 교사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한국에 대해 좀 더 많이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알려주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편, 미국 교육 제도를 탐험하러 온 한국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코퍼스크리스티의 지역신문 《콜러(Callers)》에서 나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지면에 기사화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어서 놀랍고 뿌듯했다.

코퍼스크리스티에서 많이 접했던 것은 상당한 규모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인도인들의 문화였다. 호스트 가족이었던 파리나는 인도계 미국인 의사로 인도계 미국인들의 공동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침 1월 26일은 인도가 공화국이 된 기념일이어서 한 중학교 강당에서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인도의 위인들로 분장한 어린 학생들의 시연, 인도 전통 춤과 놀이, 인도 음식 시식 등 자신들의 뿌리인 인도 문화를 가르치고 전승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노력도 생활 속에서 병행되었는데, 아이들은 영어 외에 인도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한국인 영어 교사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홈스테이 신청을 한 것도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자신과 아이들이 노출되고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고 한다. 인도의 문화뿐 아니라 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려는 파리나의 생각과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 안에서 여러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텍사스 연수에서 경험하고 느낀 일을 돌아보며 적어보았지만 지면 한계상 적지 못한 수많은 가치 있는 경험들도 많다. 돌아온 지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눈을 감으면 늦은 오후와 주말에 즐겨 산책했던 아름다운 공원 질커 파크(Zilker Park), 오스틴 시내를 남북으로 가르는 콜로라도 강에 투영된 매뚜기 형상의 프로스트뱅크(Frost Bank)와 주변 건물들, 강에서 카누와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 맑은 강물에 서식하던 백조, 청둥오리, 자라,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미국 연수 프로그램은 텍사스 주에서 미국 문화와 교육 제도를 체험하고 더불어 배우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다. 이러한 학문과 문화적 교류가 계속된다면 60여 년 전 J. W. 폴브라이트가 희망했던 것처럼 한미 양국 간에 평화롭고 우정 어린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문화 사업에 참여하여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한미교육위원단이 추구하는 가치 구현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행운과 축복이었다고 느낀다.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욱 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열성적으로 지도해준 TIEC의 스태프들, 코퍼스크리스티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 프랭크 루시도(Frank Lucido) 박사, 두 한국인 초등학교 교사를 기꺼이 맞이하여 미국 학교의 모범적 실례를 보여준 게일린 호프스타트 부인을 비롯한 루서 존스 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기꺼이 호스트 가족으로 자원해서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배려해주었던 조(Cho) 박사와 파리나, 8기 연수단 회장님을 비롯해 7주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낸 연수단 선생님들, 그 외 낯낱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지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폴브라이트, 애머스트, 미국의 대학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수 | 도시계획학



저는 2009년 8월 이후 폴브라이트의 도움으로 매사추세츠 주립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머무르게 되어 2010년 가을 학기에도 ‘Asian Public Policy’와 ‘Asian Cities & Planning’ 두 과목을 맡았지요. (9월부터는 폴브라이트의 우산을 벗어나, 단기간만 매사추세츠대의 full-time faculty 자격으로 자랍니다.) 제가 사는 애머스트는 전형적인 미국의 대도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특히 다운타운은 유럽의 소도시 분위기가 더 느껴집니다. 자신의 동네에 대한 자부심은 흔한 일로, 보스턴 서쪽 두 시간, 이 대학 도시 또한 애깃거리가 많습니다. 작지만 유별나고 투명한 애머스트라는 창문을 통해 미국과 이 나라의 대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종의 ‘폴브라이트 현상’을 직·간접으로 느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냥 교환교수 또는 Visiting Professor로 소개

할 때는 밋밋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Fulbright Scholar라고 하면 반색하며 말을 더 걸어오는 것부터입니다. 보스턴,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각종 콘퍼런스, 모임 등에서 세계 각국의 풀브라이트 학자들을 자연스레 만나게 된 것은 보배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성이 밀집한 매사추세츠의 경우 워크숍에서 고래 구경까지 네트워킹의 기회가 많았지요. 월드컵 때 같은 조에 속했던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교수들, 또 이웃 중국·일본 학자들과도 각별한 사귀이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매사추세츠대 학생 여덟 명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 지역 신문에 제법 큰 뉴스로 실렸는데, 특히 응시생 대비 비올로는 미국 전체에서 최상위권이라 합니다. 계제에 저도 《햄프셔 가제트》지에 글을 하나 기고하여 환영과 격려, 특히 한국으로 갈 예정인 학생에게 특별한 축복을 전했지요.

이 동네의 풀브라이트 인연이 전혀 새롭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국 텐진 대학의 교수와 저를 포함하여 해마다 풀브라이트 교수·학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2007년 매사추세츠대 교수 한 분이 베트남에 가서 그 나라 최초의 환경학 대학원 프로그램을 설립한 적이 있고, 명문 스미스 칼리지는 2005년 전국 최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시야를 훨씬 넓히면 1946년 전쟁 잉여 물자를 팔아 풀브라이트 재단을 설립한 이래 미국인 11만 등 세계 155개국 27만 명이 그 혜택을 받아 더 넓은 세계와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신문에 소개한 풀브라이트 동문 사례로, 에티오피아의 보갈레치 게브레(Bogaletch Gebre)가 조국에 100만이 혜택을 입는 여성 건강 센터를 설립했고, 2006년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그 유명한

서민 대출 마이크로 금융을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폴브라이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쌍방의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예컨대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으로 한미교육위원단이 많은 미국인 학생·교수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있지요.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2005년 태풍 카트리나 피해 때 폴브라이트 한국 동문회가 십시일반으로 적지 않은 성금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애머스트는 250년 된 도시로, 3만 7,000명뿐인 인구지만 성인 40퍼센트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체육관 또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 또는 교수라 보면 됩니다. 이른바 파이프 칼리지 시스템(Five Colleges System) 중심으로 명문 애머스트 칼리지, 햄프셔 칼리지,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캠퍼스, 그리고 이웃한 마운트홀요크, 스미스 칼리지를 포용하고 있지요. 이 다섯 대학은 이름만의 협력 체제가 아니라 'Five Colleges, Inc.'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강의, 연구, 도서관 등등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학처럼 운영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애머스트는 늘 최고의 대학 타운 중 하나로 선정되는데, 2009년에도 MSN.com이 버클리·보스턴·워싱턴 D.C.에 앞서 이곳을 최고의 칼리지 타운(College Town)으로 뽑았습니다.

이 도시 주민의 49퍼센트가 민주당원이며 공화당원은 6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테네시·텍사스 등 남부에서 보수 공화당이 압도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2010년 1월 연방 상원 보궐 선거에서 고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약 반세기 동안 지켜오던 자리를 공화당 스콧 브라운에게 내준 것이 이 지역으로선 큰 충격이었지요. 민주당의 약체 후보, 건

강보험 개혁, 보수 티 파티(Tea Party) 운동의 거센 바람, 무엇보다도 전체 미국 정치의 구조적 이슈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애머스트의 지방정부 구조는 뉴잉글랜드의 전통적 거버넌스를 반영하는데, 도시 행정 교과서에 나온 기본적인 시장-의회 형태를 취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습을 띠니다. 확대 지방의회 격인 타운 미팅(Town Meeting)의 254명의 위원이 직접 선출되고, 실체로서 핵심 기능을 하는 셀렉트 보드(Select Board)가 상설 기구인데, 이 위원회에서 타운 매니저(Town Manager)와 계약하여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지요. 타운 미팅을 두 번 참관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발표·토론·투표 등이 지루하게 이어지는데도 그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대의제·간접 민주 체제를 넘어 최대한의 참여를 추구하는, 미국 속 또 다른 미국의 모습이라 할지…….

미국과 세계의 경제 위기가 이 도시나 매사추세츠만 비껴갈 리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노숙자 시설 애머스트 서바이벌 센터(Amherst Survival Center)는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 오후 4시경 문을 열자마자 20분이면 구호 식량이 바닥나는 경우가 흔하다 합니다. 추운 겨울, 늘어나는 홈리스 수용을 위해 2009년부터 한 교회를 애머스트 워밍 센터(Amherst Warming Center)로 만들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제가 잠시 소속된 매사추세츠 대학도 주정부 예산의 대폭 감축으로 2010년 가을 학기에 강의 예정이었던 시간강사 90여 명과 계약 연장을 취소했고, 학비가 비싼 외국 학생의 입학 비율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학생들 가운데도 장래에 한·중·일 등 동아시아 쪽으로 학문·취업을 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으려는 경우도 늘고 있지요. 지난 1년 미국 학생들의 대학원·인

턴·취업 등을 위해 저도 열 번쯤 추천서(recommendations)를 썼습니다.

매사추세츠대는 우리로 말하면 거점 지방 국립대학쯤 되는데, 하버드, MIT, 터프츠, 애머스트·윌리엄스 칼리지 등 초명문 대학이 밀집한 동네에 위치한 죄로 여기선 그리 합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대학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두 명이나 배출했고 고분자공학, 컴퓨터, 동물과학, 호텔 경영 등에서 전국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제가 유학했던 시애틀(Univ. of Washington) 지역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데, 예컨대 교수를 퍼스트네임으로 부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동부가 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Professor’ 또는 ‘Professor Lee’라는 호칭에 어느덧 익숙해졌지요. 매사추세츠대 시스템에서 이곳 애머스트는 메인 캠퍼스쯤 되고(flagship campus), 보스턴·워체스터·다트머스·로웰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JFK 도서관이 있는 매사추세츠대 보스턴 캠퍼스는 보스턴 광역권의 유일한 공립 대학인데 그 지리적 이점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매우 유망하다고 합니다.

대학과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레이먼드 르바쇠르(Raymond Levasseur)라는 급진 반체제 운동가를 매사추세츠대에서 초청하여 특강을 가지려 했습니다. 1989년, 매사추세츠 대선동죄 재판(The great Western Massachusetts sedition trial)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 르바쇠르가 폭력, 살인 등 범죄의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았지요. 2004년 가석방 후 메인 주로 주거 제한을 당하고 있던 이 사람을 2009년 11월 일부 매사추세츠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초빙하여 학술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많은 교수·학생, 지역 언론에서는 그가 캠퍼스에 들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피살 경찰관 등 희생자 가족, 매사

추세츠·뉴저지 경찰관협회 등의 항의 또한 설득력이 있어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주지사조차 이를 반대했고, 결국 ‘경찰의 쏠밭 시위까지 미국 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경찰 등 항의하는 사람들의 말도 옳고(right), 르바쇠르 역시 여기 올 권리(right)가 있다”는 말이 함축적인데, 결국 그는 여행 허가를 못 받았고 매사추세츠 대학 당국도 르바쇠르 초청을 취소하고 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도 상충하는 가치를 완벽히 조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티 파티 운동 등 보수-진보의 충돌을 보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노골화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알고 지내고픈 사람도 많이 봤지요. 제 과목은 둘다 학생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인데, 몇몇 아시아·아프리카 출신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학생입니다(중국·일본·베트남 학생들은 거의 한국인처럼 느껴지더군요). 봄 학기 한 학생은 선천성 청각 장애로 고생해왔는데, 강의 시간마다 도우미가 거의 100퍼센트 받아 적는 교수·학생의 대화 내용을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봅니다. 이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0)라는 연방 법률 덕분인데, 이런 장애우들도 강의·시험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성격이 활달하여 가끔 손을 들고 질문까지 하며, 연구 과제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개선하면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최대한 강조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아우름이 최소한 보장된 모습이지요. 우리의 대학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계단·강의실이 많은 현실이 생각납니다.

짧은 기간, 작은 창문으로 넓은 미국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캠퍼스 안에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덕분에 얻게 된 귀한 경험을 잘 마무리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애머스트가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애머스트도 있습니다.

스티븐빌의 김밥에 담긴사연

나상대
덕원여자고등학교 교사 | 미국학

제9기 폴브라이트 연수단으로 선발되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을 때, 단장님으로부터 어학연수는 물론 한미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전달자 역할도 중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한국 음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던 중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을 메뉴로 정하고 출국 한 달 전인 2009년 12월 매주 일요일마다 김밥과 떡볶이 만드는 연습을 했다.

몇 차례의 실습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김밥 요리의 기본은, 질지도 되지도 않는 고슬고슬한 밥을 만드는 일이었다. 일찍 퇴근하여 시간 있을 때마다 솔선해서 저녁밥을 짓는 덕분에 한 달 동안 아내는 싱글빙글했다. 미국에 자주 갔으면 좋겠다는 호의(?)와 ‘이젠 제발 그만 좀 하라’는 딸의 핀잔까지 들어가면서 어묵과 햄을 적당한 굵기와 길이로 자른 후 기름에 볶고, 시금치를 데친 다음 마늘, 참기름, 깨, 소금으로 맛을 낸 뒤 가지런히 퍼서 쟁반에 올려두었고, 우영은 잘게 썰어 매실액을 넣고 기름에 볶아 새콤달콤하게 맛을 냈다. 그러나 한국과 생활 여건이 다른 미국에서 시금치, 우영을 만들어 김밥 재료로 쓴다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시금치의 푸른색이 김밥을 맛있어 보이게 하고, 우영은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어 반드시 있어야 할 재료라는 아내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지만, 밥 짓는 데도 서투른 내가 미국에서 시금치를 무치고, 새콤달콤한 우영을 만든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출국이 가까워오면서 떡볶이는 번거로울 것 같아 포기하고, 하나만 완벽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김밥 만드는 일에 맹연습을 한 뒤 출발하기 전 대나무 발 두 개와 김밥용 김을 90장이나 준비했다.

오스틴에서 5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2주 동안 머무를 Site Visit로 떠나기 앞서 오스틴 한인 가게에서 김밥을 만들기 위한 어묵, 맛살, 단무지, 김밥용 햄, 참기름을 구입하였다. Site Visit는 밥(Bob, 유현수-대전 성모고등학교 재직) 선생님과 함께 오스틴에서 차로 네 시간 거리인 스티븐빌(Stephenville)이었다(델러스 근처). 우리는 탈턴 대학 교수이신 리처드 페트로니스(Richard Petronis) 박사와 재니스 페트로니스(Janis Petronis) 박사 부부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첫 번째 일요일인 2010년 2월 7일에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 밥 선생님과 나는 성당 미사에 참석한 후 피콕 레스토랑(Peacock's Restaurant)에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했다.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는 개인 업무를 위해 외출하였다가 오후 3시쯤 돌아오기로 하고 밥 선생님과 나는 김밥을 만들어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를 저녁 식사에 대접하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약속은 했으나 영망이 되어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이해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을 출발하기 전 오스틴에서 2회 정도 김밥을 만들어 서울에서 온 참가자들과 시식할 계획이었으나, 워낙 바쁜 연수 일정으로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가지고 간 김밥말이용 대나무 발, 김, 오스틴에서 약착같이

챙겨온 양은 냄비와 쌀, 참기름, 햄, 단무지, 어묵, 맛살, 그리고 페트로니스 교수 덕에서 제공해주신 달걀을 재료로 만들기로 했다.

밥을 잘 짓는 것이 관건이었다. 물의 양물은 쌀 위에서 손등 중간까지 찰 정도의 양과, 시간(밥이 끓어 밥물이 넘친 후 약한 불로 7분 정도 지나 누룽지 냄새가 날 정도의 시간)을 맞추어 냄비 뚜껑을 열고 밥 몇 알을 맛보니 내가 생각해도 감탄할 만큼 김밥에 적합했다. 도중에 냄비 뚜껑을 몇 차례 열어보면서 노심초사했지만 말이다. 나는 김밥용 밥은 양은 냄비로 짓는 것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머나먼 미국 텍사스 스티븐 빌에서 알았다. 쟁반 위에 햄과 맛살, 어묵을 적절한 크기와 길이로 썰어 볶고, 단무지, 달걀부침을 준비해두었다.

밥을 약간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우려와는 달리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도 좋아함)을 내고 소금을 듬성듬성 뿌리면서 간을 맞춘 후 비닐장갑 낀 손으로 뒤적이면서 가볍게 섞었다(손으로 주무르면 떡밥이 됨). 먼저 밥 선생님과 시범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보았다. 처음 짓은 햄과 어묵, 달걀말이가 너무 커 통통한 김밥이었다. 갑자기 서울의 아내 생각이 떠오르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다가왔다.

두 번째는 밥을 김에 얇게 골고루 깔고 햄, 맛살, 어묵, 달걀을 차례로 밥 위에 얹고 밥을 꼭꼭 눌러가면서 말았더니 그래도 김밥다운 김밥이 되었다. 김밥을 썰 때 단칼(?)에 썰어야 한다는 밥 선생님의 충고를 귀담아들으면서 완성하여 시식했던 김밥은 대성공이었다. 우리도 놀란 나머지 “Wonderfu! Fabulous!”를 얼마나 번갈아 외쳤는지 모른다.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말아놓은 김밥이 쟁반 위에 쌓여갈수록 마음이 뿌듯했다. 김밥의 양쪽 꼬투리에 약간씩 비어져나온 어묵, 햄, 맛살, 달걀말이 등이 한국의 김밥 가게 앞에서 지

나가는 우리를 유혹했던 그것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가 오면 김밥을 직접 말 수 있도록 약간의 재료를 따로 떼어 놓아두었다. 또한 밥 선생님의 제안으로 참기름과 적당한 소금 간을 한 밥을 달걀 크기로 동글게 만든 후 곁에 김가루를 발라 김주먹밥을 만들었다.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대나무 발, 그리고 오스틴에서 구입한 양은 냄비와 쌀 등으로 미국의 시골에서 만든 김밥과 주먹밥, 생각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일이었다.

김밥을 썰어 보기 좋게 접시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리고 마르지 않게 랩으로 덮어두었다. 그것도 서울에서 마누라가 했던 것을 눈여겨보아둔 덕분이었다. 성격이 꼼꼼치 못한 내가 그날따라 김밥을 커다란 접시 위에 얼마나 정성스레 차곡차곡 예쁘게 쌓았는지 모른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라 했던가? 예쁜 접시 색깔과 어울리며 정말 먹음직스러웠다. 자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가 놀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는 내 마음 한 켠에 자리했던 생각처럼 우리가 만든 김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재니스 교수는 “Wow, wonderful”을 연발했고, 그녀의 남편인 리처드도 어떻게 만들었느냐며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재니스와 리처드 교수에게 따로 떼어놓았던 재료를 이용해 김밥을 직접 말아 썰어볼 것을 권했다. 비닐장갑을 끼고 꽤 능숙하게 김밥을 말면서 진지하고도 즐거워하던 재니스 교수와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던 그녀의 남편 리처드 교수를 잊을 수 없다.

한국의 김밥을 처음 먹어본다는 미국인 교수 부부와 함께 김밥과 주먹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많은 대

화를 나누는 동안 스티븐빌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 후 재니스 교수는 탈턴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 재학 중인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을 맛보게 하는 기회도 가졌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김밥이 높아만 보였던 다른 문화와의 장벽을 허물고, 머나먼 미국 땅에서 페트로니스 교수 부부와 함께 나눈 추억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고록 기고자 명단(가나다순)

성명	수혜연도	제목	근무처/전공	찾아보기
강성학	1977	제9대 동문회장의 회고	고려대학교 교수/정치학	137
강신태	1965	지속되는 인연과 혜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비교정치학	63
강영세	1982	한미교육위원회,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교수/언어학	194
강효석	1992 2000	1991년 이맘때쯤의 기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경영학	302
고종환	2003	풀브라이트가 내게 준 기회	부경대학교 교수/경제학	368
고지문	1981	놀라운 세계와의 만남	전남대학교 교수/미국 소설	179
곽동순	1973	미시간대 유학 시절을 회상하며	연세대학교 교수/음악	90
곽병선	1977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맺은 마켓 대학과의 인연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교육학	142
권오량	1983	풀브라이트와 함께한 반생	서울대학교 교수/영어교육학	199
김경동	1986	풀브라이트와 맺은 길고도 짧은 인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	247
김동연	1989 2002	풀브라이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국제경제학·공공정책학	267
김두현	1983	풀브라이트와의 인연	김두현법률사무소 대표/법학	205
김명자	1967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에 대한 소감	전 환경부 장관/화학	68
김문환	1986	풀브라이트와 나	국민대학교 교수/법학	159
김병원	1978	EFL '자연학습법'의 탄생	포항공대 명예교수/언어심리학	157
김선웅	2008	풀브라이트 60주년을 축하하며	광운대학교 교수/언어학	406
김성곤	1977 1990	만일 풀브라이트가 없었다면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학·미국 문학	146

성명	수혜연도	제목	근무처/전공	찾아보기
김수지	1989	국제적 리더십으로 진입하는 교량 역할을 해준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	서울사이버대학교 협동총장/간호학	264
김영미	2004	메아리치는 문화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영문학	388
김옥렬	1963	풀브라이트와의 행복한 기억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정치학	32
김용권	1963 1974 1988	내가 받은 첫 풀브라이트 연구 지원금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미국학	35
김정매	1999	UCLA에서의 1999년 8월~2000년 7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미국 문학	334
김진숙	2009	텍사스 미국 연수 체험기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사/미국학	414
김찬진	1968	미국 사회의 너그러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국제법학	77
김혜숙	1987 2004	풀브라이트: 그 후광과 자부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철학	250
나상대	2010	스티븐벌의 김밥에 담긴 사연	덕원여자고등학교 교사/미국학	429
나인용	1979	심포니 <레이크 슈피리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작곡	162
노부호	1987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로서의 미국 생활	서강대학교 교수/경영학	254
라종일	1986	1980년대 말 풀브라이트 시니어 펠로	우석대학교 총장/정치학	238
박경서	2003	풀브라이트 어학연수가 나에게 가져다준 것	하의중학교고등학교 교사/미국학	371
박근우	1964	"You must be full bright!"	전 동의대학교 총장/영어교육학	60
박근자	1977	인생의 도상에서	프랫 인스티튜트/회화	149
박 실	1967	IIE 1986년 애뉴얼 리포트에 실렸던 기사	대한민국헌정회 이사/저널리즘	69
박영의	1974/ 1991	나의 유학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미국학·미국 문학	110
박재창	2001	풀브라이트 스킨십을 회고하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행정학	355

성명	수혜연도	제목	근무처/전공	찾아보기
서광선	1994	친미 좌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기독교학	313
서동희	1975 1996	로렌스의 추억	건국대학교 교수/세라미아트	119
서상옥	1980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로서의 생활을 회고하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언어학·언어교육학	173
서숙	1988	한미교육위원단 60주년을 축하하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미국 문학	261
송상현	1967	내가 만난 귀인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법학	71
송준만	1972	1970~1980년대 풀브라이트 포럼과 나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교육학	83
신영무	1975	나의 예일 유학 시절 회고	법무법인 세종 대표/법학	122
안병만	1970 1981	풀브라이트의 추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행정학	81
안수웅	1983	나의 미국 유학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영어교육학	211
양석원	1990 2003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회상하며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 소설	289
염명배	2004	워싱턴 D.C.의 풀브라이트 추억 회상	충남대학교 교수/경제학	390
오용호	1987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의 1년을 회상하며	오용호법률사무소 대표 /증거법	257
왕연균	1992	한미교육위원단 장학 프로그램의 영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304
유범준	1997	풀브라이트의 교훈	울산대학교 교수/재정학	331
유은광	1989 2007	늘 감사한 마음, 빛진 마음으로……	한양대학교 교수/간호학	273
유종해	1963	풀브라이트와 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	39
윤복자	1985	Fulbright Scholar in Residence가 뭐기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거환경학	219
윤세중	1966	그레이하운드	공주대학교 교수/화학	66

성명	수혜연도	제목	근무처/전공	찾아보기
이동욱	1981	내 생애 최고의 축복 '풀브라이터'	한국NLP협회 회장/ 도시 및 지역 계획학	192
이상익	1973	언어학 학위를 받은 국어학도 : 두 학문의 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언어학	94
이상우	1982	고마움을 잊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자	신아시아연구소장/정치학	196
이석구	1989 2002 2009	풀브라이트와의 인연	연세대학교 교수/미국 문학	278
이상하	2003	풀브라이트 교환 프로그램 : 재충전과 도전의 시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언어학	376
이시철	2009	풀브라이트, 애머스트, 미국의 대학	경북대학교 교수/도시계획학	422
이양자	1963	애리조나 투손에서 만든 '코리안 나이트'의 추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생화학	43
이윤식	1995	풀브라이트(Full-Bright)한 '물망초(Forget-Me-Not)' 1년	숭실대학교 교수/행정학	317
이정민	1967	나와 풀브라이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언어학	75
이제정	2006	풀브라이트 수혜자로서의 소중한 경험	사법연수원 교수/법학	398
이종승	1974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에 감사하며	충남대학교 교수/교육학	114
이호영	2006	하버드 졸업식의 빌 게이츠	서울대학교 교수/언어학	401
임성호	1986 2003	힘의 오만을 경고한 정치 거인 풀브라이트	경희대학교 교수/정치학	240
정길정	1985	25년 전 추억 속으로의 여행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응용언어학	225
정성욱	1996	풀브라이트의 영향	미디어연구소 '봄' 대표/언론학	323
정용재	1961	무전여행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전학	17
정종휴	1996 2008	풀브라이트 최대의 수혜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	325
정호열	1992	우리네 시장 경제, 그리고 풀브라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법학	307

성명	수혜연도	제목	근무처/전공	찾아보기
정희채	1963	풀브라이트 생활을 회고하면서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정치학	47
조성준	1985	풀브라이트 회고	서울대학교 교수/ 오퍼레이션 리서치	229
조성호	1963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1963년 여름 석 달을 회고함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물리학	52
조주현	1983	나의 풀브라이트 체험기	건국대학교 교수/도시 및 지역 계획학	215
조준학	1972	짧은 만남, 긴 여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언어학	87
주경란	1977 2000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을 회고하며	세종대학교 교수/교육학	152
천세영	1991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영예	충남대학교 교수/교육학	297
최영	1973 1996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그 붉은 땅, 따뜻한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영미 문학	99
최정섭	1986 1998	나의 풀브라이트 인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업경제학	244
최진영	1961 1991	풀브라이트에 관한 나의 회고담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미국 문학	24
최현섭	2008	시스템과 문화는 나라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축	전 강원대학교 총장/교육학	411
최홍규	1979 1994	미국 대평원의 추억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미국 시	166
하성호	1989	나의 학문 생활을 시작하게 한 풀브라이트 장학금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 /미국사	284
한승수	1985	풀브라이트 펠로십의 추억	전 국무총리/경제학	231
한승주	1962	나의 풀브라이트 시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국제관계학	28
한운성	1973	엘킨스 파크 7845번지	서울대학교 교수/서양화	106
허영일	2003	안식의 반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민족무용	379
홍성길	2000	풀브라이트 60년을 기념하며	국민대학교 교수/정치학	349

성명	수혜연도	제목	근무처/전공	찾아보기
홍양표	1985	스탠퍼드 대학과 미국, 그리고 미국문화원의 추억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	235
황소부	1990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현명한 투자	경상대학교 교수/영어학	294
황영순	2002	2002 폴브라이트 미국학 여름 연수 참석기	평택대학교 교수/미국사	365
황적륜	1963 1973	소중한 인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언어학	56
황현주	2001	내 인생의 전환점, 폴브라이트	백제중학교 교사/미국학	358
황혜성	2001	데이비스에서 보낸 2001년	한성대학교 교수/미국사	362

편집 후기



한국폴브라이트동문회 회장단 회의(제9대 강성학 동문회장 당시, 2006년 5월)에서 심재옥 단장님 재임 시에 폴브라이트 60년사를 편찬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한다. 편집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강성학 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쾌히 승낙하고 편집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심재옥 단장, 윤복자 위원장(연세대 교수), 최영(이화여대 교수), 권오량(서울대 교수), 진영선(고려대 교수), 손영숙(연세대 교수, 지방으로 발령받은 후 사임).

제1차 한국폴브라이트 60년사 편집위원회를 2006년 6월 9일(금) 오전 7시 30분에 조신히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토의 안건은 '1. 제목(가제) 한국 폴브라이트 60년사 2. 목차: 1) 설립 배경과 목적, 2) 한국 폴브라이트의 역사: (1) 한미교육위원단, (2) 한국폴브라이트동문회, (3) 사단법인 한미교육문화재단 3. 부록: 1) 역대 단장 및 직원, 2) 현직 단장 및 직원, 3)

동문회 역대 임원단, 4) 한미교육문화재단 역대 임원 명단, 4. 기타'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가졌다. 그리고 한미교육위원장, 한국폴브라이트동문회, 한미교육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역대 단장, 동문회 고문을 비롯한 많은 동문에게서 회고담과 사진을 받고 또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2006년 7월 14일에 동문들에게, 7월 21일에는 동문회 고문들과 전임 한미교육단장들에게 자료 협조에 대한 편지를 보냈다. 그 전에 2006년 6월 13일에는 잠시 한국에 오신 프레더릭 캐리어 전임 단장과 6월 28일에는 호러스 H.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박사와 편찬위원회 초찬 모임을 갖고 인터뷰 형식의 좌담회를 열어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신 노정현 전 회장님(2008. 6. 18)을 심재옥 단장, 최영 교수와 셋이서 방문하여 참고 자료를 얻었다. 그리고 한미교육위원장 사무실과 창고를 뒤지며 역사 자료를 찾았다. 심재옥 단장, 최영 교수, 진영선 교수와 함께 먼지를 뒤집어쓰며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애쓰던 생각이 난다.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기를 3년 만에 144쪽의 60년사 자료집을 완성하였다. 2007~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준비한 60년사 편집 과정과 진영선 교수가 찍어 편집한 사진 자료를 갖고 한국폴브라이트동문회 총회에서 보고했다. 그리고 동문들에게 회고담 원고를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그 후 2010년 1월 19일에 '한국폴브라이트60주년기념사업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 최영 교수) 제1차 회의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총 21번의 회의(2010. 9. 30)를 가졌다. 제3차 회의(2010. 2. 19)에서 그동안 준비한 133쪽의 60년사 자료집을 영문으로 번역하기로 하고 홍사명 교수(한국외국어대)에게 부탁하여 완성시켰다. 그 후 제5차 회의(2010. 4. 2)에

서 권오량 교수가 맡아 목록형 자료를 서술형으로 고치기로 했다. 제6차 회의(2010. 4. 16)에서 다시 60년사를 영문판 1권과 한국어판 1권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의 배경은 잠시 내한하신 캐리어 전 단장, 심재옥 단장, 라슨(Larson) 부단장의 오랜 토의와 최영 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이다. 그리하여 *Fulbright in Korea's Future - A 6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History*라는 제목의 영문판 60년사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 중에 제8장이 동문회 몫으로 *Activating Alumni Founda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이다. 영문판 제8장에 대한 원고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집을 근거로 권오량 교수가 정리하고 홍사명 교수가 번역한 다음 라슨 부단장이 영문판 60년사에 맞게 정리했다(제13차 회의, 2010. 6. 25). 그리고 동문회에서는 동문 회고록과 동문회 자료집을 별도로 출판하기로 했다.

제9차 회의(2010. 5. 21)에 김문환 동문회장과 정성욱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준비 과정 보고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동문 회고록 교정을 정성욱 이사가 맡기로 한 후 3개월 동안의 작업 끝에 동문 회고록 출판용 목전에 두게 했다. 그 후 제18차 회의(2010. 8. 24)에서 60년사 발간비로 모은 돈 사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다. 원래의 60년사 모습과 현재 진행되는 '60년사 영문판'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영문판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간 비용을 부담하고 '동문 회고록'과 '동문회 자료집' 출판 비용은 동문회에서 모은 60년사 발간비에서 쓰기로 했다.

동문 회고록 원고 마감을 몇 번이나 변경하고 편지도 여러 차례 띄운 끝에 95명의 동문이 좋은 글과 사진들을 보내주어 원고 매수 1,500매, 440여 쪽 되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애써주신 편집위원, 심재옥 단장, 최영 교수, 진영선 교수, 권오량 교수와 책이 나올 수 있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신 정성욱 박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화로 연락하며 같이 일해준 이기원 선생과 모든 컴퓨터 작업과 총회 보고 자료까지 언제라도 부탁하면 기꺼이 해주신 이창원 선생과 영문 번역을 맡아주신 홍사명 교수께 마음으로부터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싶다. 끝으로 예쁜 책이 나올 수 있게 출판 기획을 맡아주신 프리랜서 조윤정 편집기획자께도 감사드린다.

2010년 10월 2일

윤복자

한국폴브라이트60년사 편집위원장

한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60주년 기념

평화를 꿈꾸며

발행일 | 2010년 10월 9일

발행처 |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편집위원 | 윤복자(위원장), 심재옥, 최영, 권오량, 진영선, 정성욱

디자인 | 초록바나나

주소 | 121-874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15 한미교육위원단



2차 대전 직후 모두가 어려움에 허덕이는 차박한 토양에서 전 세계 우수한 두뇌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교육은 인간적대사”라는 신념을 가진 고 풀브라이트 미국 민방 상원의원의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바로 그분이 항상 꿈꾸어온 사도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바탕이 되는 세계 평화를 향한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의 동문들께서 회고록을 통해 강조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께서 놓아 놓으신 초석 위에서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 나들의 포석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최근 풀브라이트 한국 동문의 노력으로 우리 정부가 주발국외의 교육 교환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정신이 그 높은 이상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된 우리 자선의 노력으로 가까운 이웃인 북한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더 잘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문현_한국풀브라이트동문의 회장

풀브라이트 한국 동문들이 이뤄낸 성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의 미국 생활에 대한 추억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회고담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오게 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미국 동문 회고록 모음집과 함께, 개개인들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풀브라이트 코리아의 성공적인 업적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담을 읽는 독자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풀브라이트 동문들이 이뤄낸 성취에 고무되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재욱_한미교육위원장 단장

나의 프로스펙터스를 읽말하고 난 클리크 교수는 “You are too ambitious!”라며 놀라워했다. 내가 작성한 프로스펙터스의 소주제 하나하나가 각각 박사 학위 논문급으로 충분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담은 주제는 너무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법과대학에 증권법 강좌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증권법을 연구한 법학자나 법조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였다. 그이말로 할부자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증권법 강의는 2학기에만 개설되어 있어 나는 첫 학기에 유사 강좌인 Corporate Finance를 선택하였는데 이 강의를 통하여 증권법이 회사법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 증권법 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회사법 강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클리크 교수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증권법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전체를 넓게 연구하고,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클리크 교수는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가지 코멘트를 한 후에 박사 과정 지도 교수가 되어달라는 나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했다.

신영우_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